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 체킹

[자료편]

※ 권고 사항

본 <심화> 기출 체크 자료를 살펴보시기 전에 한국사 관련 기본서(중고 교과서 및 기타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최소한 1회독 이상 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본 사실 및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입니다(해설까지 덧붙이는 작업은 차후 진행 예정).

※ 본 자료 일러두기

1. 심화가 시작된 47회에서부터 최근에 치러진 67회까지의 모든 기출 자료 및 선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사용한 시대 및 시기 구분은 임의적인 것으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제목만 제시하였습니다.
2. 자료(사료 및 일반 자료)는 별도로 박스(BOX)로 정리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주제의 자료는 같은 박스에 넣었고, 최대한 출제 회차에 맞춰 차례대로 정리하였지만 내용 전개상 순서를 달리 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는 박스가 아닌 선지쪽에 넣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선지쪽으로 넣어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자료지만 회차에 따라 표현(특히 한문 번역문)이나 띄어쓰기 등이 다른 경우에는 맞춤법 및 편수 용어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통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극히 떨어지는 일반적인 자료는 제외하였습니다.
3. 출제된 원 자료에서 문제 구성을 위해 기호로 처리된 부분[‘(가)’, ‘이 나라’ 등]은 해당 내용을 표시하고, 푸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극히 일부 제외).
4. 탑, 건축물 등 이미지가 회차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이미지 하나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유의).
5. 선지 중 출제 빈도가 2회 이하로 낮고 재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주황색으로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9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 차후 시험이 새로 치러지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선지나 자료는 앞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 <심화> 기출 체크 활용 학습 방법

한능검 심화 기출 체크 [자료편]은 심화가 시작된 47회부터 최신 회차인 지금(현 67회)까지의 모든 기출 자료 및 선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능검이 90~95%는 출제된 문제가 다시 출제되기 때문에(문제은행식) 본 자료만 꼼꼼히 살펴보다도 합격은 물론 1급(80점 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략적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기출 자료 및 선지를 모아놓은 것이므로, 분량이 많은 대단원, 소단원은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분량이 많은 부분(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고 해서 금방 넘겨버리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선지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고난도 선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료편]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고득점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해설편]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나 이미 카페에서 각 회차 해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자료나 선지를 해당 회차 문제의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본 카페에서 검색어를 넣어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해당 기출 자료 및 선지가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묻는 부분이 대부분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어느 인물[왕], 어느 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부) 해설에서처럼 모든 것을 모두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즉 대단원]과 어느 시기[소단원]에 누가 혹은 어느 단체[조직]이 한 것인지를 확인[어렵게라도 기억]하는 정도만 해도 대부분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사료]들은 모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핵심어, 이른바 "키워드(keyword)"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보통 핵심 단어[핵심 용어]로 나오나 핵심 문장[구절]으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낯선 자료라 할지라도 이것이 포함되어야 올바른, 정상적인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잘 찾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키워드에 형광색을 넣어 표시하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는 학습을 위하여 일부러 생략함. 해설 참고해서 표시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함).

3. 문제지를 뽑아 직접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나 잘 모르고 맞힌 문제의 자료나 선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회차 7회분 정도를 풀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지 구조상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거나 해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처방하여 수정해나가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4. 출제 회차의 출제 경향에 주목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제 회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늘 자주 출제되는 것들과 예전에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들, 예전에 출제된 것들이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 등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예전에(현재는 14회 전인 53회 이전 것 기준 추천)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출제 빈도가 낮다고 봐도 좋습니다.*

*최근에 출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30회대차, 40회대차에 출제된 것들이 간혹 다시 재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회대차, 40회대차 기출문제까지 다시 살펴보는 것은 지나친 시간 낭비입니다. [자료편] 앞부분에서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후 기출 체크를 보시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정독한다면 '추론'을 통해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5. 각 자료나 선지 옆에는 회차 옆에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학습 완료한 부분은 박스에 체크하세요(✓). 한능검은 공무원 한국사와는 달리 그래도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덜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넉넉하게 합격하시거나 원하는 성적을 100%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차 례

I 선사 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형성

주제 01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006
주제 02	청동기 시대와 철기 문화의 수용	009
주제 03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012
주제 04	여러 나라의 성장	014

II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

주제 05	삼국의 형성과 성장	019
주제 06	가야의 형성과 성장	023
주제 07	삼국 간의 경쟁	025
주제 08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030
주제 09	신라의 삼국 통일	032
주제 10	삼국의 경제와 사회	037
주제 11	삼국의 문화(불교)	040
주제 12	삼국의 문화(불교 외)	043
주제 13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047

III 남북국 시대의 형성과 발전

주제 14	통일 신라의 발전과 사회 동요	.048
주제 15	발해의 성립과 발전	055
주제 16	남북국의 경제와 사회	058
주제 17	남북국의 문화	060
주제 18	남북국의 대외 교류	068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65

주제 19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 통일	070
주제 20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073
주제 21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080
주제 22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084
주제 23	무신 정권	086
주제 24	대몽 항쟁	090
주제 25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094
주제 26	고려의 경제	099
주제 27	고려의 사회	105
주제 28	고려의 문화(불교)	107
주제 29	고려의 문화(불교 외)	113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주제 30	조선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	120
주제 31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129
주제 32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132
주제 33	조선 전기의 경제	138
주제 34	조선 전기의 사회	141
주제 35	조선 전기의 문화	143
주제 36	왜란과 호란(양 난의 극복)	153

VI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주제 37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160
주제 38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	.163

주제 39	양 난 이후의 대외 관계	171
주제 40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174
주제 41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	...179
주제 42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	.181
주제 43	서민 문화의 발전	191
주제 4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196
주제 45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양요	199

주제 61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280
주제 62	민족 협동 전선 운동	282
주제 63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286
주제 6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290
주제 65	192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	296
주제 66	의혈 투쟁과 1930년대 무장 독립 투쟁	299
주제 67	일제 강점기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307
주제 68	건국 준비 활동	308

Ⅶ 개항과 근대 국가 수립 노력

주제 46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206
주제 47	개화파의 형성과 갑신정변	214
주제 48	동학 농민 운동	218
주제 49	갑오·을미개혁	222
주제 50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	227
주제 51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230
주제 52	일제의 국권 침탈	233
주제 53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항거	.238
주제 54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 운동	243
주제 55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의식의 성장	248

Ⅷ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주제 56	일제의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	.257
주제 57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	.263
주제 58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	268
주제 59	3·1 운동	274
주제 60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277

Ⅸ 대한민국의 발전

주제 69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312
주제 70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316
주제 71	6·25 전쟁	319
주제 72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323
주제 73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329
주제 74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334
주제 75	산업화와 경제 성장	342
주제 76	사회·문화의 변화	346
주제 77	통일을 위한 노력	350

X 특별 주제

주제 78	통시대	356
주제 79	지역사(향토사)	358
주제 80	간도와 독도	370
주제 81	세시 풍속	371
주제 82	유네스코 등재 유산	373

주제 01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1 구석기 시대

-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67회] [62회] [59회] [58회] [50회] [49회] □
 - ↳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61회] [47회] □
 - ↳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66회] □
-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57회] [52회] [51회] [48회] □
 - ↳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63회] [53회] □
 - ↳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65회] □
 - ↳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55회] □
-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60회] □
-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56회] □
- 주먹도끼, 찌개 등 뿔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60회] □
 - ↳ 주먹도끼, 찌개 등의 뿔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57회] □
 - ↳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찌개 등을 제작하였다. [49회] □
-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52회] □

■ 구석기 유적 [63회] [59회] [55회] [50회] [47회] □

- [연천 전곡리] 이 그림은 한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 등을 발견하고 그린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동아시아에는 찌개 문화만 존재하고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는 모비우스(H. Movius)의 학설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청주시 오송읍]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주먹도끼, 찌개 등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뿔석기가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이번 발굴로 청주시 일대에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주 석장리] 주먹도끼, 찌개 등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출토된 곳이다. 또한 집자리 유적도 발굴되어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공주 석장리] 공주 석장리에서 남한 최초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찌개, 주먹도끼 등의 뿔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발굴로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 [단양 수양개]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출토된 이 솜베찌르개는 주먹도끼와 함께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솜베찌르개와 함께 돌날과 몸돌 등의 뿔석기도 출토되었습니다.

■ 시간을 품은 돌, **구석기** 시대로의 여행 [53회] □

우리 박물관에서는 찌개, 찌르개 등 뿔석기를 처음 사용한 **구석기** 시대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아시아에 찌개 문화만 존재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은 연천 전곡리 출토 주먹도끼도 전시하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66회] □

내가 만든 주먹도끼 구경할 사람?

#공주_석장리_유적 #텐석기_제작_체험

○○○: 주먹도끼가 뭐야?

△△△: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야. 동물을 사냥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대.

2 신석기 시대

-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48회] □
-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61회] □
 - ↳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49회] □
 - ↳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56회] □
-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66회] [64회] [50회] □
 - ↳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62회] □
-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58회] [54회] [53회] [51회] [47회] □
 - ↳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65회] [57회] [52회] □
-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60회] [59회] [50회] □
 - ↳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66회] [55회] [48회] □
 - ↳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 [63회] □
 - ↳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67회] □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64회] □

화면 속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였습니다.

■ 신석기 시대 유적 [61회] [58회] [56회] [54회] □

- [강원도 양양 오산리]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서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약 8천 년 전에 형성된 집터에서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이음납시, 그물추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 [부산 동삼동]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곡물 등을 가공하는 데 사용한 갈돌과 갈판도 출토되었습니다.
- [제주 고산리] 이것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 토기의 출토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산리 유적에서는 화살촉, 갈돌, 갈판 등의 석기도 나왔습니다.
- [경기도 김포 신안리 집터] 경기도 김포시 신안리 유적 발굴 조사에서 총 23기의 집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집터 내부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등의 유물을 통해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석기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51회] □

우리 박물관에서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덧무늬 토기,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상, 갈돌과 갈판 등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사진으로 보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 주먹도끼(연천 전곡리) (구석기 시대) [53회] □	▲ 주먹도끼(연천 전곡리) (구석기 시대) [63회] □	▲ 청주 오송읍 뽕석기(1) (구석기 시대) [59회] □	▲ 청주 오송읍 뽕석기(2) (구석기 시대) [59회] □
			
▲ 솜베찌르개(단양 수양 개 유적)(구석기 시대) [47 회] □	▲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 제 [66회] □	▲ 공주 석장리 유적(구석 기 시대) [50회] □	▲ 공주 석장리 유적(유물 출토 상태) [55회] □
			
▲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신석기 시대) [64회] □	▲ 이른 민무늬 토기(제주 고산리)(신석기 시대) [56 회] □	▲ 덧무늬 토기(신석기 시 대) [51회] □	▲ 부산 동삼동 유적(신석 기 시대) [58회] □
			
▲ 갈돌과 갈판(신석기 시 대) [48회] □	▲ 가락바퀴(신석기 시대) [48회] □	▲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마을 유적(신석기 시대) [61회] □	▲ 김포 신안리 집터 유적 (신석기 시대) [54회] □
			
▲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 상(신석기 시대) [51회] □			

주제 02 청동기 시대와 철기 문화의 수용

1 청동기 시대

-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 [62회] ☐
-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66회] [62회] [50회] ☐
 - ↳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60회] ☐
 - ↳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57회] ☐
 - ↳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55회] ☐
 - ↳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59회] [53회] ☐
-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축조하였다. [61회] ☐
 - ↳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만들었다. [56회] ☐
 - ↳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65회] [54회] [53회] ☐
 - ↳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51회] [49회] [48회] ☐
 - ↳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63회] ☐
-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61회] ☐
 - ↳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67회] ☐
-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56회] ☐
 - ↳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 무기를 제작하였다. [50회] ☐
- 의례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54회] ☐
 - ↳ 의례 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52회] ☐
 - ↳ 의례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47회] ☐
 - ↳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이용하였다. [64회] ☐

■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 [60회] [57회] ☐

• **[화순 고인돌 유적]**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화순 고인돌 유적입니다. 여기에는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서는 덮개돌을 캐낸 채석장이 발견되어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김해의 초대형 고인돌, 무덤으로 확인

김해 구산동의 무게 350톤 규모의 초대형 고인돌에서 매장 주체부가 발굴되어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고인돌은 그 규모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부여 송국리 유적 [65회] [52회] □

• 부여 송국리 축제에 초대합니다.

사유 재산과 계급이 출현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인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당시 생활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프로그램 ◆

- 비파형 동검 모형 만들기
- 민무늬 토기 조각 맞추기
- 증강 현실로 환호와 목책 보기

• 우리 박물관에서는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울주 검단리 유적 [67회] □

계급이 출현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환호, 고인돌, 민무늬 토기 등이 울주 검단리 유적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방어 시설로 보이는 환호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둘레가 약 300미터에 달합니다.

■ 금속이 우리의 삶으로, **청동기 시대**로의 여행 [49회] □

우리 박물관에서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비파형 동검, 거푸집, 민무늬 토기 등 당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2 철기 문화의 수용

•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62회] □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58회] [51회] [49회] [48회] □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65회] □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56회] □

•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47회] □

•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61회] [59회] [47회] □

↳명도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하였다. [54회] □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58회] [55회] □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64회] □

↳반량전, 명도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 [66회] □

• [명도전] (가) - 중국 연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다. [67회] □

• 오수전, 화전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52회] □

•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67회] [59회] □

- 거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64회] [54회] [53회] [51회] [48회] ☐
- ↳ 거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58회] [55회] ☐
- ↳ 거꾸집을 사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63회] ☐
-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58회] ☐

◆ 사진으로 보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문화의 수용

 ▲ 민무늬 토기(청동기 시대) [52회] ☐	 ▲ 비파형 동검(청동기 시대) [49회] ☐	 ▲ 청동기 시대 유물 [62회] ☐	 ▲ 화순 고인돌 유적(청동기 시대) [60회] ☐
 ▲ 김해 구산동 고인돌(청동기 시대) [57회] ☐	 ▲ 부여 송국리 축제(청동기 시대) [65회] ☐	 ▲ 부여 송국리 축제(청동기 시대) [65회] ☐	 ▲ 울주 검단리 유적(청동기 시대) [67회] ☐

주제 03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1 고조선의 성립

■ 개천절 [57회] □

- 단군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 1909년 대종교에서 개천일로 이름 짓고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매년 10월 3일에는 마니산 참성단에서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됩니다.

2 고조선의 발전과 멸망

- [기원전 3세기경]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59회] □
- [기원전 3세기 초]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다. [61회] [57회] □

L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았어요. [64회] □

L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영토를 빼앗겼다. [52회] □

-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58회] □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63회] [49회] □

L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어요. [62회] □

L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60회] □

L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가 있었어요. [64회] □

L범금 8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66회] □

L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 8조가 있었다. [57회] [50회] □

L범금 8조의 의미를 살펴본다[탐구 활동]. [54회] □

- [위만] 진변과 임둔을 복속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52회] [50번] □

■ 위만의 등장 [52회] [49회] □

-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의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위만은 서쪽 변경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고조선**의 변병(藩屏)*이 되겠다고 준왕을 설득하였고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로 삼고 백 리의 땅을 봉해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변병(藩屏): 변경의 울타리

- 연(燕)의 **위만**이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 **위만**이 망명자들을 꺾어내어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의 군대가 열 갈래로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 숙위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속이고 도리어 준왕을 공격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 뮤지컬 개천(開天) [59회] □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하였습니다.

- 순서 -

1막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오다

2막 웅녀, 환웅과 혼인하다

3막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다

- [우거왕]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52회] ☐
-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64회] [62회] ☐
-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55회] ☐

■ 한과 고조선의 전쟁 [58회] ☐

좌장군은 고조선의 패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이를 격파해서 나가지는 못했다. …… 누선장군도 가서 합세하여 왕검성의 남쪽에 주둔했지만, 우거왕이 성을 굳게 지키므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 고조선의 멸망(왕검성 함락) [65회] [58회] [50회] ☐

•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에 이르러서는 ……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 좌장군이 두 군대를 합하여 맹렬히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상 노인, 상 한음, 니계상 참, 장군 왕협 등이 서로 [항복을] 모의하였다. …… [우거]왕이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한음, 왕협, 노인이 모두 도망하여 한에 항복하였는데, 노인은 도중에 죽었다.

- 『사기』 -

•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고조선의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기에 우거왕의 대신(大臣) 성기가 한(漢)에 반기를 들고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왕의 아들 장과 항복한 상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주살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고조선을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군을 설치하였다.

- 『한서』 -

• 마침내 한 무제는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정벌하고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으며, 서쪽으로는 대완과 36국 등을 병합하여 흉노 좌우의 후원 세력을 꺾었다.

◆ 사진으로 보는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뮤지컬 개천(開天) [59회] ☐			
--	--	--	--

주제 04 여러 나라의 성장

1 부여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61회] [55회] [54회] [53회] [50회] □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65회] □

↳ 여러 가(加)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어요. [62회] □

↳ 여러 가(加)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49회] □

↳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하였다. [52회] □

↳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66회] [60회] □

↳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57회] □

-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렸던 지역을 조사한다. [63회] □
-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56회] [52회] [51회] [50회] [48회] □
 - ↳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64회] [47회] □
 - ↳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67회] □
- 명마, 적옥, 담비 가죽 등이 생산되었어요. [62회] □
-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는 기록도 있어요. [62회] □
- [부여, 고구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59회] [53회] □
 -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습니다. [49회] □
 - ↳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58회] [50회] □

■ 초기 국가, 부여 [62회] [56회] □

- 지도에 표시된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평원과 구릉, 넓은 못이 많았습니다.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 부여 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곧연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 이름을 금와라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 『삼국사기』 -

■ 부여의 풍속 [64회] □

- 부여의 풍속에는 가뭇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 부여 사람들은 …… 활·화살·칼·창으로 무기를 삼았다.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으니 마가·우가·구가 등이 있었다. 그 나라의 읍락은 모두 여러 가(加)에 소속되었다.

- 『후한서』 동이열전 -

■ 부여의 유물 [60회] [51회] □

- [금동 얼굴 모양 장식] 이것은 송화강 유역에 위치했던 **부여**의 유물로 고대인의 얼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와 형사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 [금동제 가면] 이 유물은 중국 지린성 송화강 유역의 동탄산 유적에서 출토된 **부여**의 금동제 가면이다.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부여**에는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관할하는 사출도가 있었으며,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 풍습이 행해졌다고 한다.

■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 **부여** [47회] □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았던 **부여**를 주제로 한 역사 강좌를 3차에 걸쳐 마련하였습니다. 고대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좌 내용

- 제1강 송화강 유역의 자연 환경과 경제 생활
- 제2강 사출도를 통해 본 연맹 왕국의 구조
- 제3강 1책12법으로 알아보는 형벌 제도

2 고구려

-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59회] □
-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51회] □
 - ↳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습니다. [49회] □
-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61회] □
 - ↳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어요. [64회] □
 - ↳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54회] □
-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65회] [58회] □
 - ↳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 동맹이라 하였다. [67회] □
-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65회] [63회] [59회] [52회] [49회] [48회] □
 - ↳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어요. [64회] □
-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57회] □
 - ↳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56회] [52회] □
 - ↳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하였다. [53회] □

■ 초기 국가, 고구려 [57회] [48회] □

-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 『삼국지』 동이전 -

-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존비(尊卑)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모든 대가들도 스스로 사자·조의·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회의하여 즉시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 『삼국지』 동이전 -

3 옥저와 동예

- [옥저]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66회] [62회] [61회] [54회] [48회] [47회] □

↳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49회] □

■ 옥저의 민며느리제 [55회] □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장성하면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 [옥저] 삼로라 불린 우두머리가 읍락을 다스렸다. [55회] □

■ 옥저의 골장제(가족공동묘제 풍습) [66회] [52회] □

• 호의 수는 5천인데 대군왕은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 여러 읍락의 거수(渠帥)들은 스스로를 삼로라 일컬었다. ……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 곁을 만든다.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한다.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족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곁 속에 넣는다.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곁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 『삼국지』 동이전 -

•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서 …… 뼈만 추려 곁 속에 안치하였다.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곁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 『삼국지』 동이전 -

- [동예]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50회] □
- [동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59회] □
 - ↳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에서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 [67회] □
 - ↳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파악한다[탐구 활동]. [63회] □
- [동예]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65회] [64회] [60회] [58회] [56회] [54회] [48회] □
 - ↳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어요. [62회] □
 - ↳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53회] □
 - ↳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47회] □
 -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였다. [51회] □
- [동예]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61회] [56회] □
 -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60회] □
 -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55회]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하였습니다. [49회] □

■ 초기 국가, 동예 [57회] [54회] [50회] □

•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읍락의 경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責禍)가 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 『삼국지』 동이전 -

• 대군장이 없고 관직으로는 후·읍군·삼로가 있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 낙랑의 단궁이 그 지방[땅]에서 산출되고 무늬 있는 표범이 많다.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서는 반어[반어피]가 난다. [무늬 있는 표범과 과하마 등이 유명하다.]

- 『후한서』 -

■ 동예의 정치, 경제, 사회 [63회]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나라 중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동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 [정치] 읍군, 삼로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어요.
- [경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하였어요.
- [사회]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4 삼한

- 신지, 읍차라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58회] □

신지, 읍차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51회]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53회] [52회] [49회] □

■ 삼한 [61회] □

-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등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67회] □

■ 삼한의 계절제 [53회] [49회] □

-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어. / 5월과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습도 있었어.
-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64회] [51회] [48회]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어요. [62회]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습니다. [49회] □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66회] [65회] [61회] [59회] [55회] [54회] [50회] □

↳ 신성 지역인 소도를 두었다. [60회] ☐

↳ 신성 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47회] ☐

↳ 신성 지역인 소도의 역할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63회] ☐

■ 삼한의 천군과 소도 [52회] ☐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 『삼국지』 동이전 -

• [마한] 목지국 등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52회] ☐

↳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47회] ☐

• [변한]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금관가야]. [62회] ☐

• [변한]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59회] [57회] ☐

↳ 낙랑군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63회] ☐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 등에 수출하였다. [58회] ☐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다. [56회] ☐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52회] ☐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였다. [50회] ☐

↳ 낙랑군에 수출할 덩이쇠를 주조하는 장인 [51회] ☐

■ 변한 [55회] ☐

읍마다 우두머리가 있어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 하고, ……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예(濊), 왜(倭) 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

◆ 사진으로 보는 여러 나라의 성장



▲ 부여 금동제 가면(봉화강 유역의 동탄산 유적) [51회] ☐



▲ 부여 금동 얼굴 모양 장식 [60회] ☐



▲ 부여 위치 [62회] ☐



▲ 허리띠 고리(부여)(지린성 라오허선)(자료 배경) [47회] ☐

주제 05 삼국의 형성과 성장

1 삼국의 성립

- [졸본]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국내성 X]. [55회] □
- [고구려]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65회] □
- [고구려 태조왕]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48회] □
- [고구려 동천왕]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65회] □
 - ↳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60회] □
 - ↳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55회] □
 - ↳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50회] □
- [백제]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57회] □
- [백제 고이왕] 16관등제 시행, 관리의 복색 제정 [56회] □
- [신라] 삼국유사에 실린 김알지 신화를 분석한대[탐구 활동]. [63회] □
- [신라]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50회] □
- [신라] 최고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를 검색한대[탐구 활동]. [58회] □
- [신라 내물왕]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다. [62회] [50회] □
 - ↳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57회] [49회] □
 - ↳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51회] □
 - ↳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하였다. [48회] □
 - ↳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47회] □
- [신라 내물왕]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하였다. [48회] □

2 삼국의 정치적 발전

- [백제 근초고왕]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62회] □
- [백제 근초고왕]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59회] □
 - ↳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57회] □
 - ↳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64회] □
 - ↳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47회] □

- [백제 근초고왕] 왜에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55회] □
- [백제 침류왕]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67회] [59회] [57회] □
- ↳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수용되었다. [55회] □
- ↳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66회] [50회] □
- ↳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48회] □
- ↳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53회] □
- [나제 동맹] 비유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47회] □
- [고구려 미천왕]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56회] □
- ↳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49회] □
- ↳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50회] □
- [고구려 미천왕]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66회] [60회] □
- ↳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61회] □
- ↳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65회] □
- ↳ [미천왕]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48회] □
- [고구려]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54회] □
- ↳ 고국원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50회] □

■ 고구려 고국원왕의 전사 [65회] [53회] □

-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하였다.

- [고구려 소수림왕]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 [62회] □
- [고구려 소수림왕]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61회] [56회] □
- ↳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62회] □
- ↳ 불교 수용, 전진에 사신 파견 [56회] □
- ↳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 [62회] □
- [고구려 소수림왕]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62회] □
- ↳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였다. [64회] □
- ↳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65회] □

- [신라 지증왕]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63회] [51회] □

↳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키다. [62회] □

↳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64회] [60회] [54회] [50회] [48회] □

↳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66회] [61회] □

↳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67회] [57회] □

■ 신라 국호 및 국왕 칭호 사용(지증왕) [51회] □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는 '사방(四方)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帝)나 왕(王)을 칭하였는데,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방언으로만 부르고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삼가 신라국왕(新羅國王)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따랐다.

- 『삼국사기』 -

- [신라 법흥왕]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62회] [50회] □

↳ 상대등, 병부 설치 [56회] □

↳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51회] □

■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년) [54회] □

이것은 국보 제242호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법흥왕 때 건립되었습니다. 이 비석에는 신라 6부의 성격과 관등 체계, 지방 통치 조직과 촌락 구조 등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신라 법흥왕]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63회] [59회] [54회] [48회] □

↳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다. [62회] □

↳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61회] [47회] □

↳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51회] □

↳ 불교 공인 [56회] □

- [신라 법흥왕]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60회] [52회] □

↳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67회] [48회] □

↳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다. [49회] □

- [신라 법흥왕]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58회] □

↳ 금관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52회] □

■ 금관가야 병합[복속] [49회] □

금관국의 김구해가 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고 하네. / 나도 들었네.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써 대접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그가 다스리던 금관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는군.

◆ 사진으로 보는 삼국의 형성과 성장

 ▲ 호우총 청동 그릇(호우명 그릇)(고구려) [65회] [63회] □			
---	--	--	--

■ 호우총 청동 그릇 [65회] □

- 종목: 보물
- 지정(등록)일: 2015년 9월 2일
- 소개
 - 1946년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됨
 -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있음
- 의의
 -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됨

주제 06 가야의 형성과 성장

1 전기 가야 연맹의 성립

-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62회] □
- 포상 8국의 난 진압 과정을 찾아본대[3세기 초]. [63회] □
-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의 도읍인) 금성을 공격하였다. [57회] □
- [금관가야] (신라)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60회] □
 - ↳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58회] □
 - ↳ [신라 법흥왕]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57회] □

■ 금관가야의 유물 [50회] □

문화재청이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3점에 대한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유물은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금관)가야의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출토지가 명확하고 보존 상태가 온전하여 학술 및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김해 양동리 고분군 [60회] □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금관가야의 유적이다. 발굴 조사 결과 널무덤, 독무덤 등 600여 기의 유구와 토기, 청동기, 철기 등 5,2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 김해 대성동 고분군 [48회] □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호분 발굴 조사 설명회 현장입니다. 대형 덩이쇠 40매와 동근고리큰칼, 화살촉 등 130여 점의 철기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발굴로 김수로왕이 건국하였다고 전해지는 금관가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 후기 가야 연맹의 성립과 멸망

-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8회] □
 - ↳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4회] □
- 이진아시왕이 고령 일대에 세운 대가야[경상북도 고령군] [54회] □
 - ↳ 금동관, 투구와 갑옷, 지산동 고분군 [54회] □
- [신라 진흥왕]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51회] □
 - ↳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64회] □

■ 대가야의 멸망 [58회] ☐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대가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 **대가야**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하였고,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멸망시켰다.

■ 가야 고분군 [52회] ☐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말이산 등 7개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가야의 형성과 성장

 ▲ 철제 판갑옷과 투구 [59회] [54회] ☐	 ▲ 철제 판갑옷 [48회] ☐	 ▲ 금동관 [64회] [54회] ☐ (사진 교체함)	 ▲ 도기 기마 인물형 뿔잔 [47회] ☐
 ▲ 금관가야 대성동과 양동리 출토 목걸이 [50회] ☐	 ▲ 가야 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군) [52회] ☐	 ▲ 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 전경 [60회] ☐	 ▲ 김해 양동리 고분군 발굴 유물 [60회] ☐
 ▲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8호분 발굴 조사 설명회 현장 [48회] ☐			

주제 07 삼국 간의 경쟁

1 고구려

- [광개토 대왕]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66회] [61회] □
 - ↳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60회] □
- [광개토 대왕]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63회] [56회] □
 - ↳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59회] □
 - ↳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57회] □
 - ↳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49회] □
 - ↳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50회] □
 - ↳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지원하였습니다. [47회] □

■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 [66회] □

-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귀부하여 명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군대가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적이 많았다. 군대가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 [광개토 대왕]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56회] □

■ 광개토 대왕 [61회] □

- 원년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다.
- 10년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다.
- 13년 후연을 공격하다.
- 18년 왕자 거련(巨連)을 태자로 삼다.

■ 장수왕 [60회] □

- 56년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다.
- 60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다.
- 63년 백제 도성을 함락시키다.

- [장수왕]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62회] □
 - ↳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66회] □
 - ↳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60회] [56회] □
 - ↳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하였다. [61회] □
- [장수왕] 복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63회] □

-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58회] □
- ↳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49회] □
- [안원왕]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56회] □
- 영양왕이 온달을 보내 아단성을 공격하였다. [58회] □

■ 온달의 출전 [53회] □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고구려 영양왕)

2 백제

- [개로왕]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64회] [59회] □
- ↳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다. [67회] □

■ 백제 개로왕의 군사 지원 요청 [61회] □

연흥 2년에 여경[개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우호가 돈독하였는데, 고구려의 선조인 쇠[고국원왕]가 우호를 가벼이 깨트리고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신의 선조인 수[근구수왕]는 군대를 정비하고 공격하여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다니, 이후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져 침략하고 위협하니 원한이 쌓였고 전쟁의 참화가 30여 년 이어졌습니다. …… 속히 장수를 보내 구원하여 주십시오.” (북조 북위에 보낸 국서)

■ 백제 개로왕의 전사 [53회] [50회] □

- 9월에 왕[장수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 백제 왕 부여경[개로왕]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 고구려 왕 거련(巨璉)[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개로왕]이 성문을 닫고서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네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니,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해쳤다.

■ 문주왕 즉위[웅진 시대] [65회] [55회] □

- 문주왕(미상~477) **웅진**에 백제의 새로운 터전을 잡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파괴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였다. 그에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 겨울 10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 『삼국사기』 -

-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61회] □

■ 혼인 동맹(제2차 나제 동맹) [58회] [48회] □

- 자네 들었는가?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셨다더군. / 들었네. 우리 마립간께서 이별찬 비지의 딸을 보내신다고 하네.
- 백제왕 모태가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신라]왕은 이별찬 비지(比智)의 딸을 보냈다. (동성왕, 소지 마립간)

- 『삼국사기』 -

- [무령왕]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66회] [62회] [52회] [50회] □
- ↳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60회] [59회] [57회] [56회] [49회] □
- ↳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47회] □
- ↳ 지방을 통제하기 위하여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55회] □
- ↳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58회] [54회] □
- [무령왕]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하였다. [53회] □

■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행사 [53회] □

백제 제25대 왕인 무령왕의 무덤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공주시에서 열립니다. '무령왕은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그의 무덤은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 왕릉입니다.

- [성왕]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61회] [59회] [57회] □
- ↳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53회] □
- ↳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64회] □
- ↳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67회] □
- [성왕]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 [50회] □
- ↳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48회] □

■ 백제 성왕 [67회] [64회] □

• 무령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이 왕은 국호를 고치고 중앙 관청을 22부로 정비하였어. /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신라에 다시 빼앗겼지. / 결국 신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어.
 • 백제 제26대 왕 명농,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다. (1/3)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 (2/3)
 구천(관산성 부근)에서 신라의 복병에게 목숨을 잃었다. (3/3)

-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62회] [61회] □
- ↳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54회] □
- ↳ [성왕]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왕이 피살되었다. [53회] □

■ 백제 성왕의 전사 [59회] [55회] [48회] □

• 왕 31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 [이듬해]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적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

•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

•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

3 신라

- [진흥왕]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57회] □
- [진흥왕]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57회] □
-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66회] □

↳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63회] □

↳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다. [62회] □

↳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48회] □

↳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59회] □

↳ 원화(源花)에 기원을 두고 있다. [55회] □

■ 진흥왕의 업적 [63회] [52회] □

6년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다. (545)

11년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점령하다. (550)

27년 황룡사를 완공하다. (566)

• 담당 관청에 명하여 월성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는 [계획을] 바꾸어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었다.

■ 화랑도 개편 [47회] □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서 화랑이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초이다.

- 『삼국유사』 -

- [진흥왕]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66회] □

↳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51회] □

↳ [창녕비]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이다. [55회] □

■ 대가야 정복 [47회] □

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국(加羅國)을 습격하게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 그 나라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하였다.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 『삼국사기』 -

- [진흥왕] 마운령, 황초령 등에 순수비를 세웠다. [52회] □
- [선덕 여왕]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60회] □
- [선덕 여왕]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우다. [60회] □

↳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59회] [51회] [49회] □

↳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64회] [58회] □

↳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55회] [47회] □

↳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66회] □

↳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52회] ☐

↳ 첨성대에서 별자리 찾아보기 [59회] ☐

• [선덕 여왕]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58회] ☐

↳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64회] ☐

• [진덕 여왕] 최고 행정 관서로 집사부를 두었다. [58회] ☐

•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5세기][문무왕(기록)]. [63회] ☐

↳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60회] [48회] ☐

↳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56회] [51회] ☐

◆ 사진으로 보는 삼국 간의 경쟁



▲ 백제 문주왕 캐리커처
[65회] ☐



▲ 백제 성왕 [67회] ☐



주제 08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 [살수 대첩]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61회] [60회] □
 - ↳ [영양왕]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56회] □
 - ↳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66회] □
 - ↳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54회] [50회] □
 - ↳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67회] □
 - ↳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5회] [64회] [52회] [47회] □
 - ↳ [을지문덕]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59회] □

■ 살수 대첩 [49회] □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 우둔위 장군 신세웅을 죽이니, [수의] 군대가 걸잡을 수 없이 모두 무너져 9군의 장수와 병졸이 도망쳐 돌아갔다.

- 『삼국사기』 -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 [영류왕~보장왕]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61회] □
 - ↳ [연개소문]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였다. [59회] □
 - ↳ 연개소문을 보내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51회] □
-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61회] [49회] □

■ 연개소문의 정변 [52회] □

정관 16년에 ……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의논하여 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일이 누설되자 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불러 모아 군병을 사열한다고 말하고 ……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 건무를 죽인 다음 대양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

- 『구당서』 동이전 -

■ 제1차 여·당 전쟁 [58회] □

이곳은 높은 성벽과 치를 갖춘 백암성이야. / 당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지. / 병력의 열세와 내부의 분열로 함락되었지만, 그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어.

■ 안시성 전투 [64회] [50회] □

- 며칠 전 우리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 요동성, 백암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안시성에서 끝내 물리쳤다네.
-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 60일 동안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았다. 토산의 정상은 성에서 몇 길 떨어져 있고 성 안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도중에 토산이 허물어지면서 성을 덮치는 바람에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다. …… 황제가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안시성을 공격하였으나, 3일이 지나도록 이길 수 없었다.

■ 당 태종과 싸운 연개소문 [59회] □

이 그림은 명 대 간행된 소설에 실린 『막리지비도대전』입니다. 그림에서 당 태종을 향해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인물이 연개소문입니다. /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시해하고 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한 뒤, 당의 침략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중국인들이 그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 막리지비도대전 [59회] □	 ▲ 백암성 [58회] □ (사진 교체함)		
---	--	--	--

주제 09 신라의 삼국 통일

1 나당 동맹의 형성

- [백제 의자왕]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61회] ☐

L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60회] [58회] ☐

L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67회] [64회] [50회] ☐

L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56회] ☐

■ 대야성 함락 [59회] [57회] [47회] ☐

- 대야성에서 패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이때 도독인 이찬 품석과 사지(舍知) 죽죽, 용석 등이 죽었다.
-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하자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김품석을 따라 죽었다. 김춘추가 이에 한을 품고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그 원한을 갚고자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 [53회] ☐

고구려 왕이, “마목현과 죽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였다. 김춘추가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은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가두었다. ([고구려 보장왕](#))

-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65회] [64회] [62회] [61회] [54회] ☐

L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다. [67회] ☐

L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58회] ☐

L[김춘추]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52회] ☐

-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53회] [47회] ☐

■ 김춘추, 당의 군사 지원 약속받고 귀국 [48회] ☐

당에 파견되었던 이찬 김춘추가 오늘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김춘추는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았고,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백제의 멸망

-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60회] □
- ↳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55회] □
- ↳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58회] □
- ↳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 항전하였다. [66회] □
- ↳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 [61회] □
- ↳ 백제의 결사대 5천 명이 황산벌에서 패하다. [67회] □
- [김유신]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59회] □

■ 황산벌 전투 [63회] [62회] [56회] [47회] □

• [당익]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대총관(神丘道大總管)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시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 하도록 하였다. 계백은 장군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 명을 뽑아 이들을 막고자 하였다. …… 황산의 벌판에 이르러 세 개의 군영을 설치하였다. 신라군을 만나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자, [계백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지난 날 구천(句踐)은 5천 명으로 오(吳)의 70만 무리를 격파하였다. 오늘 마땅히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하였다. 드디어 격렬히 싸우니, 일당천(一當天)이 아닌 자가 없었다.

- 『삼국사기』 -

-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였다[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하였다].
- 김유신 등이 황산 벌판으로 진군하자 백제의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 군데에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김유신 등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네 번을 싸웠으나 전세는 불리하고 병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 신라 화랑, 관창 [53회] □

관창이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 하리라.”라고 말하였다. 관창은 적진에 돌입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 이를 본 신라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격하니 백제 군사가 대패하였다.

-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59회] □

■ 백제 멸망 [58회] [57회] [54회] □

-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부리 벌판으로 나아갔다.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 진진하지 않자 김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네 길로 일제히 펼쳐 일어났다.
- 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소]정방 및 여러 장수들은 당상(堂上)에 앉고, 의자와 그 아들 용은 당하(堂下)에 앉혔다. 때로 의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는 모두 목이 메어 울었다.
-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여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유수(留守)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 이를 쳐서 쫓아냈다. …… 당 황제가 좌위중랑장 왕문도를 응진도독으로 삼았다.

- [백제 부흥 운동]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55회] [53회] □

↳ [흑치상지] 임존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52회] □

↳ 흑치상지가 당의 유인궐에게 항복하다. [67회] □

- [백제 부흥 운동]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48회] □

- [백제 부흥 운동]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62회] [58회] [52회] [47회] □

↳ 복신과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49회] □

■ 백제 부흥 운동 [60회] [59회] [57회] □

•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는 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다. 소정방이 연로한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이를 두려워한 흑치상지는 추장 10여 인과 함께 도망하여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열흘 만에 휘하에 3만여 명이 모였으며 곧 200여 성을 되찾았다. 소정방이 병사를 이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 『삼국사기』 -

• 복신은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왜국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

•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여 명이었다. ……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

- [백제 부흥 운동]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61회] □

↳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53회] □

↳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우다. [67회] □

↳ [백제]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52회] □

-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59회] □

■ 백강 전투(백촌강 전투) [65회] [58회] □

•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궐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의 군사를 만나 ……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궐과 별수(別帥) 두상과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국 군사를 만나 ……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3 고구려의 멸망

-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일어난다. [67회] □

■ 연개소문 사후 집권층의 내분 [64회] [52회] □

• 건봉 원년에 …… 개소문이 죽고 아들 (천)남생(?~679)이 막리지가 되었다. 남생은 아우 남건·남산과 화목하지 못하여 각자 봉당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였다. 남생은 두 아우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달아났다.

- 『구당서』 동이전 -

• 고구려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 연남건이 자신의 형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하네. / 결국 연남생은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에 바치며 투항했다더군.

•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12성과 3,500여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해 왔다.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의복·물품·식량 집을 주었다. (666년)

■ 고구려의 멸망(평양성 함락) [63회] [49회] □

•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英公)에게 항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덕남,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갔다.

- 『삼국사기』 -

• 우리 부대[대군(大軍)]와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보장왕이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덕남 및 대신 등 20여만 명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야찬 조주는 영공을 따라 돌아갔다.

•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59회] □

↳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하였다. [52회] □

↳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대[탐구 활동]. [58회] [54회] □

• [검모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59회] □

↳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56회] □

↳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65회] □

↳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64회] □

■ 고구려 부흥 운동 [62회] [55회] [51회] □

• 검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신라로 향하였다. 안승을 맞아들여 임금으로 삼았다. 다식(多式) 등을 신라로 보내어 고하기를,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신라 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정착하게 하였다.

• 검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부흥하려고 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순[안승]을 세워 임금으로[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동주도(東州道)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 『삼국사기』 -

4 나당 전쟁

• 당이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62회] □

•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59회] □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52회] ☐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50회] ☐

■ 매소성 전투 [65회] [61회] ☐

-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머물렀다. 신라군이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노획한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남겨 놓은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62회] ☐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 [47회] ☐

신라 수군이 기벌포에서 승리하다. [67회] ☐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58회] ☐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66회] ☐

[시득]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64회] ☐

■ 기벌포 전투[해전] [56회] [54회] ☐

-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여 명을 죽였다.
-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잇달아 패배하였다. [시득은]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 『삼국사기』 -

신라 문무왕 때 청방인문표를 보내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강수]. [62회] ☐

■ 흥무대왕 김유신 [64회] ☐

이 전경은 김유신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의 모습입니다.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인 그는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다섯 임금을 섬기며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사후에 '흥무대왕'에 봉해지며 신라의 왕이 아니면서도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

◆ 사진으로 보는 신라의 삼국 통일

			
▲ 김유신 탄생지(충북 진천) [64회] ☐			

주제 10 삼국의 경제와 사회

1 삼국의 경제

- [고구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고국천왕]. [57회] [52회] [50회] □

↳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62회] [49회] □

↳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어요. [64회] □

↳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54회] □

↳ [고국천왕]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61회] □

↳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65회] □

↳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60회] □

↳ [진대법]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마련되었다. [55회] □

↳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58회] □

- [신라]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62회] [58회] [48회] □

↳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67회] [63회] □

↳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지증왕]. [56회] □

↳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52회] □

↳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의 관리 [51회] □

↳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54회] □

↳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64회] □

↳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53회] □

↳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66회] □

↳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하였다. [61회] [55회] □

↳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65회] □

-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를 하였다. [63회] [60회] □

↳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다. [64회] □

- [백제 사비 시대] 수도에 도시부(都市部)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다. [58회] □

2 삼국의 사회

- [고구려]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61회] □
 - ↳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54회] □
- [고구려]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다. [64회] [61회] □
 - ↳ 육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65회] [59회] □
 - ↳ 육살, 처려근지 등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다. [56회] □
 - ↳ 지방의 여러 성에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52회] □

■ 고구려의 행정(각 5부) [63회] □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육살 1인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 …… [수도는] 5부로 나뉘어 있다.

- 『신당서』 -

- [백제]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57회] [51회] [49회] □
 - ↳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어요. [64회] □
 - ↳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61회] □
- [백제]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63회] □
 - ↳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60회] □
 - ↳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67회] [66회] [57회] [56회] □
 - ↳ 국가 중대사를 정사암에서 논의하였다. [49회] □
 - ↳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어요. [62회] □
 - ↳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64회] [50회] □
 - ↳ 정사암 회의를 개최하였다. [65회] [58회] □
- [백제] 내신좌평, 위사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62회] [51회] □
 - ↳ 내신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60회] [52회] □

■ 백제의 행정(5부 5방) [63회] [61회] □

• 왕의 성은 부여씨이고, [왕을] ‘어라하’라고 하며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부른다. 모두 중국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 도성에는 1만 가(家)가 거주하며 5부로 나뉘는데 상부·전부·중부·하부·후부라고 하며, 각각 5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다. [지방의] 5방에는 각기 방령 1인을 두는데 달솔로 임명하고, 군에는 군장(郡將) 3인이 있으니 덕솔로 임명한다.

- 『주서』 -

• 벼슬은 16품계가 있다. 좌평은 5명으로 1품, 달솔은 30명으로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이다. 6품 이상은 관(冠)을 은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다.

• 그 나라의 지방에는 5방이 있다. 중방은 고사성, 동방은 득안성, 남방은 구지하성, 서방은 도선성, 북방은 웅진성이라 한다.

- 『주서』 -

• [신라]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62회] [60회] [47회] □

↳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50회] □

• [신라]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였다. [67회] [49회] □

↳ 골품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엄격하였어요. [64회] □

• [신라]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63회] [62회] [57회] [50회] [47회] □

↳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61회] □

↳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48회] □

• [골품제]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55회] □

• [6두품] 신라에서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며, 득난이라고도 불렸다. [58회] □

■ 신라의 골품제 [55회] □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아찬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고맙네. 하지만 6두품인 자네는 골품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 그려.

• [신라] 관리 감찰을 위해 사정부를 두었습니다[진흥왕, 태종 무열왕]. [47회] □

• [신라] 위화부, 영객부 등의 중앙 관서를 설치하였다[진평왕]. [61회] □

↳ 위화부 등 13부를 두어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50회] □

↳ [진평왕]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를 창설하였다. [67회] □

주제 11 삼국의 문화(불교)

1 고구려의 불교

-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60회] □

■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52회] □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백제의 불교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53회] □

국보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교통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무왕]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67회] [64회] [63회] [60회] □

↳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59회] [57회] [53회] [50회] □

↳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55회] □

■ 익산 미륵사지 석탑 [66회] [62회] [51회] □

• 금제 사리봉영기가 남긴 고대사의 수수께끼

2009년 이 탑의 해체 수리 중에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사리봉영기에는,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라는 명문이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 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발견 당시 모습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무왕**이 왕후인 신라 선화 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금제 사리봉영기에는 왕후가 백제 귀족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륵사 창건 배경과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현존하는 삼국 시대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목탑 양식을 반영하여 건립되었다. 탑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기둥(심주)이 4층까지 연속된다. 1층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봉영기의 기록을 통해 석탑의 건립 연도가 639년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국보 제11호]

3 신라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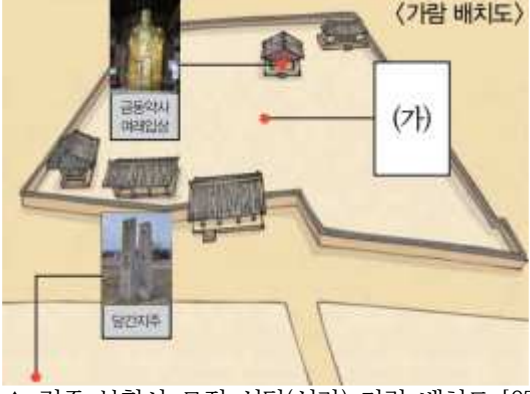
- [신라 법흥왕]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63회] ☐
L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다. [62회] ☐
- [자장]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67회] [61회] [53회] ☐
L[황룡사 구층 목탑] 자성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첨성대 X]. [48회] ☐
- [경주 분황사지 모전 석탑]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탑이 남아 있다. [48회] ☐

■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67회] ☐

국보로 지정된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선덕 여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광]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65회] [60회] [51회] ☐
L원광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64회] ☐
L화랑도의 규범인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55회] ☐
- [원광]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지었다. [61회] ☐
L원광이 왕명으로 결사표를 작성하였다. [65회] ☐

◆ 사진으로 보는 삼국의 문화(불교)

 ▲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고구려) [66회] [65회] [64회] [60회] [59회] [57회] [52회] □	 ▲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 삼존 불상(신라) [60회] □	 ▲ 신라 금관 [66회] [62회] [47회] □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서산 마애 삼존불] 매(백제) [67회] [59회] [53회] [47회] □	 ▲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신라) [67회] [62회] [59회] □	 ▲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신라) 가람 배치도 [67회] □
 ▲ 익산 미륵사지 석탑(백제) [67회] [63회] [62회] [57회] [53회] [51회] □	 ▲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금제 사리봉영기 [66회] [62회] □	 ▲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백제) [67회] [63회] [57회] [56회] [51회] □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국보 제83호) [63회] [60회] [57회] □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국보 제78호) [52회] □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국보 제83호) [57회] □

삼산관을 쓰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의 이 불상을 가상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 나도 그래. 다음 전시실에는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이 있다고 해. 그것도 보러 가자.

주제 12 삼국의 문화(불교 외)

1 유교

- [고구려]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소수림왕, 장수왕]. [63회] □
 - ↳ 교육 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47회] □
 - ↳ 태학의 설립 취지를 찾아본대[탐구 활동]. [65회] □
- [고구려 장수왕]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57회] □
 - ↳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을 설치하였어요. [64회] □
 - ↳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하다. [48회] □
- [백제 근초고왕]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67회] [62회] [53회] [50회] □
 - ↳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64회] □
 - ↳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66회] □
- [신라 진흥왕]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60회] □
 - ↳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54회] □
 - ↳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67회] [55회] □
 - ↳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하였다. [51회] [49회] □
 - ↳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61회] [47회] □
 - ↳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다. [52회] □

■ 신라 진흥왕의 국사 편찬 [63회] □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문사(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였다.

- 『삼국사기』 -

- [신라 진흥왕 또는 진평왕]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탐구 활동]. [54회] □
- [신라 선덕 여왕]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다. [48회] □

2 도교

3 고분 축조

- [고구려 장군총] 돌무지무덤 [55회] □
- [고구려 고분 벽화] 도움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 주로 남아 있는데, 일상생활과 풍속, 신앙과 의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 [54회] □

■ 고구려의 문화유산 [64회] [55회] □

- 환도산성 → 국내성 → 오회분 5호묘 → 광개토 대왕릉비 → 장군총
-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안악 3호분 벽화 중 일부로, 무덤 주인공과 호위 군사 등의 행렬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벽화를 남긴 나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

- [백제 계단식 돌무지무덤]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한성 시대]. [51회] □
- [백제 무령왕릉] 매지권(買地權)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55회] □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하였다. [51회] □

■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51회] □

올해는 백제의 고분 중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인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학회는 이를 기념하여 '무령왕릉 출토 유물로 본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 발표 주제 ◆

- 진묘수를 통해 본 도교 사상
- 금동제 신발의 제작 기법 분석
- 금송으로 만든 관을 통해 본 일본과의 교류

■ 무령왕 동상과 진묘수 모형 [57회] □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는 무령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한 동상 앞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무령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 모형입니다.

- [신라(통일 이전)] 돌무지덧널무덤 [55회] □
- 나무로 곁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51회] □

4 과학 기술의 발달 및 기타

- 백제 문화의 국제성 [66회] □

◆ 사진으로 보는 삼국의 문화(불교 외)

 ▲ 백제 금동 대향로(도교와 불교 사상) [66회] [64회] [63회] [59회] [47회] □	 ▲ 백제 무령왕 동상과 진묘수 모형 [57회] □	 ▲ 무령왕릉 [53회] □	 ▲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 [65회] [62회] [57회] [51회] [48회] [47회] □
 ▲ 백제 칠지도 [65회] [48회] □	 ▲ 백제 산수문전 [48회] □	 ▲ 고구려 고분 벽화 [54회] □	 ▲ 고구려 문화유산(왕릉 및 성) [55회] □
 ▲ 고구려 덕흥리 고분 복두칠성[천문] [56회] □	 ▲ 고구려 오회분[천문] [56회] □ (사진 교체함)	 ▲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평남 강서) [54회] □	 ▲ 고구려 강서대묘 현무도(평남 강서) [54회] □
 ▲ 고구려 무용총 접객도 (지린성 지안) [54회] □	 ▲ 고구려 각저총 씨름도 (지린성 지안) [54회] □	 ▲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일부) [64회] □	
 ▲ 울진 봉평리 신라비 [54회] □	 ▲ 신라 경주 첨성대[천문] [59회] [56회] □	 ▲ 신라 기마 인물형 토기 (주인상) [65회] [64회] □	

■ 백제 금동 대향로 [64회] [47회] □

-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백제의 공예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이 문화유산은 국보 제287호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은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걸작입니다.

■ 하늘에 길을 묻다. 천문(天文) [56회] □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해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측하였습니다. 덕흥리 고분의 별자리 벽화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주제 13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1 삼국·가야 문화의 교류

2 삼국·가야 문화의 왜 전파

-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66회] □

주제 14 통일 신라의 발전과 사회 동요

1 통일 신라의 발전

- [태종 무열왕]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58회] □
 - ↳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55회] □
 - ↳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원성왕 이전까지]. [53회] □
- [문무왕]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61회] [59회] [53회] [49회] □
 - ↳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54회] [50회] □
 - ↳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52회] □
-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61회] □
 - ↳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다. [67회] □
 - ↳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60회] [47회] □
 - ↳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53회] □
 - ↳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다. [58회] □
 - ↳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에 책봉되었다. [49회] □
 - ↳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되었다. [54회] □
 - ↳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52회] □
- [신문왕]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67회] [58회] [51회] □
 - ↳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다. [55회] [53회] □
 - ↳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64회] [49회] □
 - ↳ 김흠돌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56회] □
 - ↳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63회] □

■ 신문왕 [60회] □

-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어.
- 아버지인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를 완공했지.
- 완산주와 청주를 설치하여 9주를 갖추었어.

■ 만파식적 설화 [67회] [50회] □

•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금·옥으로 보답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은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이 감은사에서 유숙하고 …… 행사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에 보관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물 때 비가 오고 비 올 때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 『삼국유사』 -

• 대왕암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경주 이견대입니다. 선왕을 기리며 감은사를 완공한 **신문왕**은 이곳에서 용을 만나는 신묘한 일을 겪었고, 이를 통해 검은 옥대와 만파식적의 재료가 된 대나무를 얻었다고 합니다.

- [신문왕] 집사부를 포함한 14부를 두었다. [52회] □
- [신문왕]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62회] [56회] [54회] [51회] □
 - ↳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65회] [61회] [57회] [50회] □
 - ↳ 9서당 10정을 설치하였다. [59회] □
 - ↳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60회] □
 - ↳ 군사 조직을 9서당 10정으로 편성하였다. [48회] □
 - ↳ [9서당] 옷깃 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48회] □
- [신문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67회] [63회] [54회] [51회] [49회] [48회] □
 - ↳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다. [62회] □
 - ↳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어요. [56회] □
 - ↳ 관료전을 지급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60회] □
 - ↳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61회] [57회] □
 - ↳ 녹읍 폐지를 명하는 국왕 [66회] □
- [신문왕]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55회] [49회] □
 - ↳ 9주 5소경의 지방 제도를 운영하였다. [51회] □
 - ↳ 신문왕 재위 시기에 정비되었다. [64회] □

■ 신문왕 대의 사실 [62회] [48회] □

1년 김흠돌 등이 반란을 도모하다 죽임을 당하다.
(진골 귀족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다.)
2년 국학을 세우다.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다.)
5년 서원소경을 설치하다.
(9주를 정비하여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다.)
9년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다.

■ 9주 5소경의 설치 [64회] [57회] [47회] □

-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나누어[빠서] 청주(靑州)를 두니 처음으로 9주가 되었다. 대아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 서원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仕臣)으로 삼았다. 남원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 중원경(충주) 서원경(청주) 남원경(남원) 금관경(김해) 복원경(원주) (지도 표시)

- [신문왕]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진흥시켰다. [51회] □
 - ↳ [국학]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60회] □
- [경덕왕] 관료전이 폐지되고 녹읍이 지급되었어요. [64회] □
- [경덕왕] 불국사 삼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52회] □
- [선덕왕] 예성강 이북에 패강진을 설치하였다. [63회] □

2 신라 말의 동요

-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해공왕]. [56회] □

↳ 대공이 난을 일으키자 귀족들이 동참하였다. [48회] □

-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되었다. [64회] □

↳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53회] □

■ 해공왕 피살 [67회] □

이찬 김지정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 여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양상 등이 왕의 시호를 해공왕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

■ 원성왕(김경신) 즉위 [66회] □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후에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주원의 집은 왕경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침 큰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오지 못하였다. ……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 『삼국사기』 -

- [헌덕왕]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67회] [47회] □

↳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49회] □

■ 김헌창의 난 [61회] [55회] [54회] □

- 며칠 전에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난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으로 정했다더군. /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모양이야.
- 웅천주 도독 헌창은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에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 이곳은 명주군왕(溟州郡王) 김주원의 묘야. 그의 아들 김헌창은 아버지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 / 김주원과 김헌창의 삶을 통해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거듭된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

■ 전(傳)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 석탑 납석사리호(민애왕) [65회] □

이 유물에는 민애왕을 추모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는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희강왕을 축출하고 왕이 되었으나, 다른 진골 세력에 의해 1년 만에 제거되었습니다. (9세기 전반)

-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 [67회] □

■ 장보고의 난 [64회] [54회] □

-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였다. “김명은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 장군의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 『삼국사기』 -

- 청해진의 궁복은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환난이 생길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우려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무주 사람 염장이란 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기로 당시에 소문이 났는데, 와서 아뢰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 『삼국사기』 -

■ 해상왕 장보고 [62회] [53회] □

-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어요.
-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을 창건했어요.
-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어요.
- 적산 법화원은 산둥 반도에 있었던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워진 절이다. 이 절을 창건한 장보고는 당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가 흥덕왕 때 귀국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 암살당했다.

■ 진성 여왕 대의 사실 [49회] □

- 1년 죄수를 사면하고 주군의 조세를 면제해 주다.
- 2년 삼대목을 편찬하다.
- 3년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키다.
- 10년 서남쪽에서 적고적이라고 불리는 도적이 일어나다.
- 11년 태자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진성 여왕]. [63회] [62회] [61회] [56회] [51회] □

↳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58회] □

↳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48회] □

■ 원종과 애노의 난 [66회] [59회] □

-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삼국사기』 -
- 나라 안의 모든 주군(州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 [최치원]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65회] [63회] [62회] □

↳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49회] □

↳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64회] □

↳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다. [58회] □

↳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52회] □

↳ 시무 10조를 바친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겠노라. [51회] □

■ 고운 최치원 [63회] □

-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다.
- 격황소서를 써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다.
-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다.
- 관직에서 물러나 해인사에 은거하다.
- (6두품 출신 학자)

■ 최치원과 시무책 10여 조 [57회] [52회] □

- 이곳은 중국 양저우에 있는 최치원의 기념관입니다. 그는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서(檄黃巢書)'를 지어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당에서 쓴 글을 모은 계원필경을 남겼습니다.
-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함양 상림입니다. 이 숲은 당에서 귀국한 최치원이 천령군(현 함양군)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최치원은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 여왕에게 올렸습니다.

■ 적고적의 난 [54회] [53회] □

-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색 바지를 입어 모습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고 하네. / 적고적 말이지? 7년 전에는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독촉 때문에 봉기하더니, 요즘 들어 나라에 변란이 자주 일어나 걱정이구만.

-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51회] □

■ 견훤 [63회] [50회] □

•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 [왕의] 총애를 받던 측근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기강이 문란해졌다.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여러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이에 견훤이 몰래 [왕위를] 넘겨다보는 마음을 갖고 ……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아직 감히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는 못하였다. ……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환영하였다.

- 『삼국사기』 -

•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견훤에 대해 말해 볼까요? /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어요. /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귀부하였어요.

- [후백제]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견훤]. [66회] [64회] [63회] [62회] [60회] [56회] □

↳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50회] □

↳ 후당, 오월에 사신을 보냈다. [49회] □

↳ [견훤]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54회] [52회] □

■ 후백제의 승탑 [57회] □

연호 정개(正開)가 새겨진 편운화상 승탑

전북 남원 실상사 조계암터에 있는 이 승탑에는 '정개 10년 경오(正開十年庚午)'가 새겨져 있어 건립 연도를 알 수 있다. '정개'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며 완산주에 나라를 세운 견훤이 사용한 연호이다.

■ 전주 동고산성 발굴 특별 전시회(후백제) [47회] □

우리 박물관에서는 전주 동고산성 발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고산성에서는 전주성(全州城)명 수막새 등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후당, 오월과 교류한 후백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궁예]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세우다. [64회] □

■ 궁예 [52회] [49회] □

• 궁예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다. 그래서 평양 옛 도읍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 궁예가 미륵불을 자칭하였다. 머리에 금책(金幘)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으며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이라고 불렀다.

- 『삼국사기』 -

• 신라 왕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으며,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운 인물

- [궁예]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65회] [64회] [60회] [50회] □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57회] □

[후고구려]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66회] [59회] [55회] □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두었다. [56회] [47회] □

광평성 등 여러 정치 기구를 마련했어. [49회] □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52회] □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67회] □

- [궁예]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55회] [50회] [49회] □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63회] [54회] [47회] □

국호를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하다. [64회] □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다. [64회] □

- [후고구려]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58회] [53회] □

궁예가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었다. [48회] □

- [궁예] 미륵불을 자처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61회] □

미륵불을 자칭하며 폭정을 일삼기도 했지. [49회] □

■ 후고구려[태봉] 석등 [60회] □

이 사진은 궁예가 세운 태봉의 철원 도성 터에서 촬영된 석등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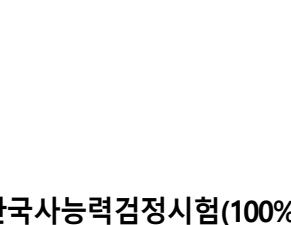
■ 천 백년 태봉의 이름, 태봉제 [61회] □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가 세운 나라 태봉! 태봉의 도읍 철원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태봉제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요 행사

태봉 제례, 어가 행렬

◆ 사진으로 보는 통일 신라의 발전과 사회 동요

 ▲ 9주 5소경(신라 지방 행정 조직) [56회] [47회] □	 ▲ 경주 이견대(신라 신문왕) [67회] □
 ▲ 장보고 동상(적산 법화원) [53회] □	 ▲ 명주군왕 김주원의 묘 [55회] □
 ▲ 함양 상림(고운 최치원) [57회] □	 ▲ 전(傳) 대구 동화사 비 로암 삼층 석탑 납석사리 호(민애왕) [65회] □
 ▲ 태봉제 태봉 제례 [61회] □	 ▲ 태봉제, 어가 행렬 [61회] □
 ▲ '전주성'명 수막새(후백제) [47회] □	

주제 15 발해의 성립과 발전

1 발해의 건국과 발전

- [고왕(대조영)]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61회] □

↳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56회] □

↳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63회] □

↳ 동모산에 도움하고 나라를 세우다. [50회] □

■ 무왕의 즉위 [65회] □

조영이 죽으니, 발해에서는 고왕이라 하였다.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 [무왕]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61회] □

↳ [장문휴] 등주를 선제공격하여 당군을 격파하였다. [59회] □

↳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67회] [65회] [58회] □

↳ 당의 등주를 공격하고 요서에서 격돌하다. [50회] □

↳ 당의 등주를 선제공격하였다. [64회] □

- [무왕]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47회] □

- [무왕, 문왕]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65회] □

■ 발해와 당의 전쟁 [52회] □

대무예[무왕]가 대장 장문휴를 보내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당 현종은 급히 대문예[무왕 동생]에게 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 신라군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 무왕·대무예와 동생 대문예의 대립 [61회] □

#36. 궁궐 안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

왕: 흑수 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 말갈을 정벌하라.

대문예: 당에 조공하였다 하여 그들을 바로 공격한다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당과 원수를 지면 멸망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 [문왕] 일본에 국서를 보내어 고려 국왕이라 칭하다. [50회] □

■ 발해의 황제국 체제 표방 [58회 [51회] □

- 이것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의 묘지(墓誌)이다. 묘지의 내용 중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부른 표현을 통해 발해가 대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사진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던 발해의 함화 4년명 불비상(佛碑像)이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비문이 있다. 비문은 함화 4년에 허왕부(許王府) 관리인 조문휴의 어머니가 불비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발해의 국왕이 '허왕' 등의 제후를 거느린 황제와 같은 위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문왕 대의 연호, 대흥 [63회] □

발해의 문왕이 사용한 연호이다. 문왕의 딸인 정효 공주의 묘지석에 기록된 이 연호와 '황상(皇上)'이라는 칭호는 발해의 자주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발해 [53회] □

■ 강좌 주제 ■

- 제1강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난 역사 인식
- 제2강 정혜 공주 무덤의 구조로 알 수 있는 고분 양식
- 제3강 장문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대외 인식
- 제4강 인안, 대흥 연호 사용에 반영된 천하관

■ 해동성국(선왕 대) [65회] □

처음에 발해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의 태학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혀 가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그 땅에는 5경 15부 62주가 있다.

- 『신당서』 -

2 발해의 통치 체제

- [문왕] 중앙 관제를 3성 6부로 정비했습니다. [47회] □
- 중앙 관제가 3성 6부로 정비된 계기를 파악한다[탐구 활동]. [58회] □
-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50회] □
- [정당성] 좌사정, 유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59회] □

■ 발해의 중앙 관제 [57회] □

[그 나라의]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좌상·좌평장사·시중·좌상시·간의가 소속되어 있다. 중대성에는 우상·우평장사·내사·조고사인이 소속되어 있다. 정당성에는 대내상 1명을 좌·우상의 위에 두었고, 좌·우사정 각 1명을 좌·우평장사의 아래에 배치하였다.

- 『신당서』 -

-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60회] [51회] [48회] ☐
-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62회] [58회] [52회] [49회] ☐
- ↳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60회] ☐
- ↳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47회] ☐
- ↳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67회] [59회] ☐
- ↳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57회] ☐
- ↳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66회] ☐
- ↳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64회] ☐
-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선왕]. [56회] [54회] [51회] ☐
- ↳ [선왕]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확립하였다. [63회] ☐

◆ 사진으로 보는 발해의 성립과 발전

 ▲ 정효 공주 묘지 [58회] ☐	 ▲ 동모산(발해의 첫 도읍지) [50회] ☐ (사진 교체함)	 ▲ 발해의 전성기(선왕) [64회] ☐	
--	---	--	--

주제 16 남북국의 경제와 사회

1 남북국의 경제 생활

-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성덕왕]. [63회] □
- [신라 촌락 문서] 조세 수취를 위해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58회] □
 - ↳ 조세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어요. [66회] □
 - ↳ 세금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작성되었다. [54회] □

■ 신라 촌락 문서 [63회] [49회] □

- 이 문서는 조세 수취와 노동력 동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신라의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인구 현황, 토지의 종류와 면적, 뽕나무와 잣나무 수, 소와 말의 수 등을 3년마다 조사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소장처: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인구 수, 토지 종류와 면적, 소와 말의 수 등을 기록한 문서로,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문서의 내용을 통해 신라가 촌락의 경제 상황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흥덕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51회] □
- 청해진이 국제 무역 거점으로 번성하였다. [48회] □
- [장보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62회] [47회] □
 - ↳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되었다. [55회] [53회] □
 - ↳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다. [63회] □
 - ↳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61회] □
 - ↳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58회] [49회] □
 - ↳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57회] □
 - ↳ 청해진을 통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52회] □
 - ↳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56회] □
- [9세기 전반]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65회] □

■ 청해진 설치 [66회] [59회] □

- 장보고가 귀국 후 왕을 알현하여, “온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 지도는 이 국가의 교역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이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 볼까요?

• [신라]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63회] [57회] [56회] [49회] ☐

↳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61회] [59회] ☐

↳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어요. [64회] ☐

↳ 울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59회] ☐

•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였다. [53회] ☐

• [발해]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63회] [62회] [58회] ☐

↳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어요. [66회] ☐

↳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61회] [59회] ☐

↳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거래되었다. [53회] [48회] ☐

↳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67회] [54회] ☐

■ 발해 솔빈부의 말 [64회] ☐

이 지도는 발해의 전성기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각지에서 말이 사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솔빈부의 말은 당에 수출될 정도로 유명하였습니다. 특히,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산둥 반도 지역을 장악하였던 이정기 세력에게 많은 말을 수출하였습니다.

2 남북국의 사회 모습

◆ 사진으로 보는 남북국의 경제와 사회

			
▲ 신라 촌락 문서 [63회] [49회] ☐	▲ 통일 신라 교역로 [66회] ☐		

주제 17 남북국의 문화

1 불교 사상

- [원측]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67회] [57회] □
- [원효]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61회] □
- [원효]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57회] □
- [원효]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47회] □

■ 화쟁국사 원효 [61회] □

이곳은 **원효**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입니다. 그는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을 저술하여 불교 교리 연구에 힘썼으며, 무애가를 짓고 정토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 [원효]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60회] [55회] □
 - ↳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53회] [51회] □
 - ↳ 무애가를 지어 정토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67회] □
 - ↳ 무애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지요. [56회] □

■ 원효의 무애가 [47회] □

원효는 설총을 낳은 이후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갖고 놀던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을 따라서 도구로 만들어 화엄경의 구절에서 이름을 따와 '무애(無碍)'라고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 [의상]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66회] [60회] [56회] [55회] [54회] [51회] □
 -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는 승려 [65회] □

■ 원교국사 의상 [61회] □

의상은 화엄 사상의 요지를 정리한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였다. 또한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고,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 [의상]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56회] □
 - ↳ 부석사는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60회] □
 - ↳ [특별 프로그램] 선묘 설화 미이어 아트 영상 관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열쇠고리 제작 [60회] □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47회] □

■ 부석사 창건 설화 [67회] [51회] □

•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는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여 절의 지붕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하자 많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떴다'는 의미의 부석사(浮石寺)로 불렀다.

• POST CARD

○○에게

나는 지금 영주 부석사에 와 있어, 이곳은 당에 가서 화엄학을 공부한 이 승려가 세운 절이야, 선묘각과 부석을 통해 그가 선묘 낭자의 도움을 받아 사찰을 건립했다는 설화를 떠올릴 수 있었어, 그리고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에 멀리 풍경을 보니, 너와 함께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이만 줄일게, 안녕, △△가

• [의상]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67회] □

• [혜초]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62회] □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61회] □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60회] [55회]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56회]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65회]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기다. [63회]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51회] □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47회] □

■ 혜초의 저서,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되다 [55회] □

- [기획 의도]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승려가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혜초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재조명한다.
- [차별화 전략] 기존에 간과해 왔던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 제국에 대한 기록까지도 현지답사를 통해 고증하고자 한다.
- [주요 촬영국]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 [체징] 9산 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도의 선사(도의 국사)를 종조로 삼음]. [62회] □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61회] □

체징이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가지산문의 제3조]. [55회] □

■ 강릉 굴산사지[신라 문성왕] [58회] □

여기는 범일대사가 창건한 굴산사가 있던 곳이야. 거대한 당간 지주는 이 절의 규모와 위상을 잘 보여주지. / 굴산사는 가지산문 개창 이후 선종 불교가 유행하던 이 시기에 창건되었어.

2 유학

- [국학]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60회] ☐

↳ [신문왕]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진흥시켰다. [51회] ☐

■ 국학 [60회] ☐

학생의 재학 연한은 9년으로 하되 우둔하여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주와 기량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관등이 대나마, 나마에 이르면 졸업하였다.

- [강수]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65회] [52회] ☐

↳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57회] ☐

↳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짓다. [64회] ☐

↳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다. [63회] ☐

- [설총]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62회] ☐

↳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57회] [52회] ☐

- [설총]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조언하다. [63회] ☐

↳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쳤다. [51회] ☐

↳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인 화왕계를 집필하였다. [65회] ☐

■ 설총 [65회] ☐

이곳은 설총을 제사하는 경주의 서악 서원. 그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우리말로 유학 경전을 풀이하여 후학들을 가르침. 원효의 아들임.

-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7세기 말~8세기 초]. [58회] ☐

↳ [김대문]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등을 저술하였다. [52회] ☐

- [원성왕]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60회] ☐

↳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67회] ☐

↳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다. [48회] ☐

↳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59회] ☐

↳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54회] ☐

↳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삼품과가 실시되었다. [57회] ☐

↳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51회] ☐

↳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50회] □

↳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49회] □

↳ 독서삼품과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였어요. [63회] □

↳ 독서삼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53회] □

↳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66회] □

↳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 [47회] □

■ 독서삼품과 [62회] □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하였다.

• [최치원]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탑기를 남겼다. [57회] □

■ 해인사 길상탑 [48회] □

이 탑은 진성 여왕 때 해인사 부근에서 있었던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웠어. / 최치원이 작성한 탑지(塔誌)를 보면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 상황을 알 수 있지. (초적의 약탈과 전란)

■ 발해의 한시 [67회] □

이 글은 양태사가 지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라는 한시로, 정효 공주 묘지(墓誌) 등과 함께 발해의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에는 문왕 때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그가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리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
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홀로 앉아 지새는 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
홀연히 들리누나 이웃집 아낙네 다듬이질 소리
바람결에 그 소리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
밤 깊어 별빛 기우는데 잠시도 쉬지 않네
나라 떠나온 뒤로 아무 소리 듣지 못하더니
이제 라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
:

3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

4 과학 기술과 문화

- [천마총] 내부에서 천마도가 수습되었다. [48회] □

■ 천마총 천마도 [66회] □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천마총은 **신라**의 대표적인 돌무지덧널무덤 중 하나로 발굴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천마도의 실물이 9년 만에 세상에 공개됩니다.

- [경덕왕]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하였다. [67회] [58회] □
- [불국사] 경내의 삼층 석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48회] □
 - ↳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60회] □
- [진성 여왕]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각간 위흥, 대구화상]. [67회] [65회] [55회] [51회] □
- [신라 김유신 묘] 무덤의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51회] □
-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 [66회] □
 - ↳ [발해] 크라스키노 성 유적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 [66회] □
 - ↳ [발해] 콕샤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 [66회] □
- [발해 정효 공주 묘]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56회] □

■ 발해,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다 [62회] □

[1관] 고구려 문화의 계승: 연꽃무늬 수막새와 치미
[2관] 당 문화의 수용: 상경성 평면도
[3관] 말갈 문화의 요소: 말갈계 토기
[4관] 서역과의 교류: 청동 낙타상

■ 발해의 온돌 유적 [59회] □

이곳은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발해**의 온돌 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의 숫자를 늘려서 난방의 효율을 높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해**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 사진으로 보는 남북국의 문화

 ▲ 원효 전시실 [61회] □	 ▲ 원효(우)와 의상(좌) 캐리커처 [56회] □	 ▲ 강릉 굴산사지 당간 지주 [58회] □ (사진 교체함)	 ▲ 경주 불국사 다보탑(신라) [57회] [53회] [51회] □
 ▲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탑] [67회] [63회] [56회] □	 ▲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탑] 금동제 사리외함 [63회] □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60회] □	 ▲ 석굴암 본존불(신라) [63회] [59회] [50회] □
 ▲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입상(신라) [57회] □	 ▲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좌상(신라) [52회] □	 ▲ 경주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 좌상 [67회] [55회] [47회] □	 ▲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53회] □
 ▲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 석탑 [62회] □	 ▲ 안동 신세동 칠층 전탑 [53회] □	 ▲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 [63회] [56회] □	 ▲ 양양 진전사지 삼층 석탑 [56회] □

 ▲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 석탑 [66회] [62회] □	 ▲ 합천 해인사 길상탑(최치원) [48회] □ (사진 교제함)	 ▲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통일 신라) [58회] □	 ▲ 경주 서악 서원(설총) [65회] □
 ▲ 천마총 천마도 [66회] □	 ▲ 발해 이불병좌상 [66회] [64회] [63회] [59회] [57회] [55회] [52회] □	 ▲ 발해 온돌 유적(함남 신포시 오매리) [59회] □	
 ▲ 발해 삼채 향로[도기삼채수족세발향로] [53회] □	 ▲ 함화 4년명 불비상(발해) [51회] □	 ▲ 발해 돌사자상(정혜 공주 묘 앞) [48회] [47회] □	 ▲ 발해 정묘 공주 묘 [60회] □
• 전시관 안내 [1관] 고구려 문화의 계승  연꽃무늬 수막새와 치미 [2관] 당 문화의 수용  성경성 평면도 [3관] 말갈 문화의 요소  말갈계 토기 [4관] 서역과의 교류  청동 낙타상 ▲ 발해 문화 [62회] □		 영광탑 정효 공주묘 석등 ▲ 발해 문화유산 [60회] □  ▲ 발해 영광탑 [67회] [66회] [62회] [60회] [57회] [51회] □  ▲ 발해 석등 [60회] □	

 ▲ 크라스키노 성 유적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발해) [66회] □	 ▲ 콕샤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발해) [66회] □		
---	--	--	--

■ 신라 석가탑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외함 [63회] □

경주 불국사에서 있는 **석가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외함이다. 2층 탑신부에 봉안되어 있던 이 유물 안에는 은제 사리내·외함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뛰어난 공예 기술 및 사리 장엄 방식과 특징을 알 수 있다.

■ 발해의 이불병좌상 [55회] □

이것은 **발해**의 5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보탑(寶塔) 안의 다보불이 설법하던 석가불을 불러 함께 나란히 앉았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주제 18 남북국의 대외 교류

1 통일 신라의 대외 교류

- 빈공과 응시를 준비하는 6두품 유학생 [65회] ☐
- ↳ 빈공과를 준비하는 6두품 출신 유학생 [64회] ☐

■ 신라와 일본의 교류 [58회] ☐

이것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에서 들어온 물품을 매입하고자 그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여 일본 정부에 제출한 '매신라 물해(買新羅物解)'라는 문서입니다. 통일을 이루고 9주 5소경을 설치한 이후의 시기에 일본과 교역하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라와 서역의 교류 [66회] ☐

2 발해의 대외 교류

-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55회] ☐
-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53회] [47회] ☐
- ↳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64회] ☐
- ↳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63회] ☐

■ 발해와 일본의 교류 [54회] [49회] ☐

- 이것은 일본의 이시아마사에 소장된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입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린 **발해**의 사신 이거정이 가져간 것으로, 당시 양국의 교류와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것은 **발해**의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에 보낸 외교 문서의 사본입니다. 문서에는 정당성의 좌운 하복연 등 주요 사신단의 명단과 두 나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사신을 파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 발해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47회] ☐

속일본기에 “**발해**의 왕 대무예가 고인의 등을 보내어 국서와 선물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고인의, 덕주, 사나루 등 24명에게 서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아울러 담비 가죽 300장을 정중히 보내니 때때로 소식을 보내 우의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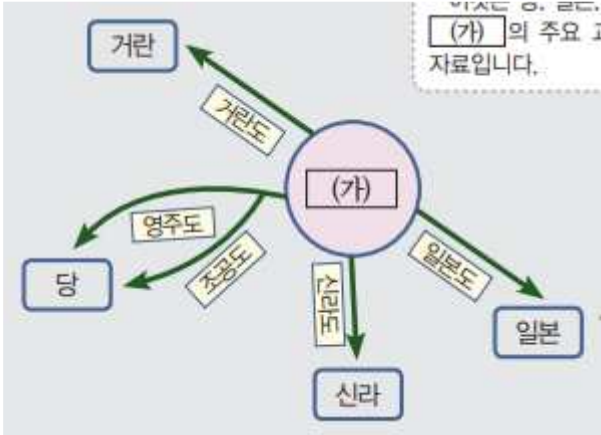
- 『해동역사』 -

■ 발해 관련 목간 [48회] ☐

이것은 일본 나라현 헤이조쿄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목간에 보이는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 일본은 **발해**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간 내용: 고려에 보낸 사절이 귀국하였으니, 천평보자 2년(758) 10월 28일 위계를 두 단계 올린다.

◆ 사진으로 보는 남북국의 대외 교류

 ▲ 매신라물해(신라) [58회] □	 ▲ 가구영험불정전승다라니기(발해) [54회] □	 ▲ 발대 중대성 외교 문서 사본 [49회] □	 ▲ 발해 관련 목간(일본 나라현 헤이조쿄 유적) [48회] □
 ▲ 발해의 주요 교통로 [56회] □			

주제 19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 통일

1 고려의 건국

- [왕건(태조)] 고려 건국의 위업을 이루었어요. [58회] ☐
- [태조]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56회] [52회] ☐
- [태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61회] ☐
- [태조]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58회] ☐

■ 왕건의 즉위 [51회] ☐

날이 밝아오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더미 위에 앉히고는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사람을 시켜 말을 달리며, “왕공(王公)께서 이미 의로운 깃발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微服) 차림으로 복문을 빠져나갔다.

- 『고려사절요』 -

2 후삼국 통일 전쟁

- [견훤]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927년]. [57회] ☐
↳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47회] ☐
- [고려]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신숭겸, 김락]. [63회] ☐
↳ 신숭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67회] [51회] ☐

■ 공산 전투 [48회] ☐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公山)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숭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배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 『삼국유사』 -

■ 대구 표충단(신숭겸) [61회] ☐

저는 지금 신숭겸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 대구 표충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산 전투 당시 위기에 빠진 왕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고려 태조)

■ 삼태사,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55회] ☐

고창 전투에서 왕건을 도와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太師)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장길(장정필)·권행, 그리고 후삼국 통일을 염원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견훤] 신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61회] □

↳ 신라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55회] □

↳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50회] □

■ 견훤의 신라 경주 침략 [58회] [54회] □

•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 병사 1만 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王京)에 침입하였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연희를 즐기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경애왕)

- 『삼국사기』 -

• 견훤은 왕의 족제(族弟)인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런 후에 왕의 아우 효렴과 재상 영경을 사로잡았다.

• [견훤] 금산사에 윤패된 후 고려에 귀부하였다. [49회] □

■ 후백제의 왕위 승계 문제 [67회] [66회] [54회] □

•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 특히 아끼어 왕위를 전하려 하니, [금강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 몹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 『삼국유사』 -

• 파진찬 신덕, 영순 등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윤패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권하였다. 신검이 대왕을 자칭하고 국내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교서에서 이르기를, "…… 왕위를 어리석은 아이에게 줄 뻔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제께서 진정한 마음을 내리시니 군자들이 허물을 고쳤고 맡아들인 나에게 명하여 이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점이다. ……“ 라고 하였다.

• 금산사는 삼국 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이 아들 신검 등에 의해 윤패되었다가 탈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찰은 국보인 미륵전을 비롯하여 여러 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훤의 금산사 윤패)

■ 후백제 견훤의 고려 귀부 [51회] □

여름 6월 견훤이 막내아들 능예와 딸 애복, 애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달아나 입조를 요청하였다. …… 도착하자 그를 상보(尙父)라 일컫고 남궁(南宮)을 객관(客館)으로 주었다. 지위를 백관의 위에 두고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

- 『고려사』 -

• [고려(왕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56회] □

• [신라 귀부]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58회] □

↳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48회] □

■ 신라 경순왕의 고려 귀부 [62회] □

왕이 천덕전에 거둥하여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굳게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같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社稷)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매우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뜰에서 예를 올리니 여러 신하가 하례하여 함성이 궁궐을 진동하였다. ……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 [왕건]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60회] ☐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64회] ☐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52회] ☐

└왕건이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67회] ☐

└[후백제] 신검이 일리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51회] ☐

■ 일리천 전투 [48회] ☐

[태조를] 신검의 군대가 막아서자 일리천(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태조가 견훤과 함께 병사들을 사열한 후 …… 신검이 양검, 용검 및 문무 관료들과 함께 항복하여 오니, 태조가 그를 위로하였다.

- 『고려사절요』 -

◆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



▲ 대구 표충단(신숭겸)
[61회] ☐



▲ 삼태사(고창 전투)[(김
선평·장길(장정필)·권행]
[55회] ☐



▲ (전북) 김제 금산사(견
훤 유패) [66회] ☐

주제 20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1 고려 초기 집권 체제의 구축

- [태조]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다. [62회] □
 - ↳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61회] □
 - ↳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60회] □
 - ↳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되었다. [59회] □
 - ↳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49회] □
 - ↳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다(민생 안정) [65회] □
- [태조]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59회] [50회] □

■ 고려 시대의 연호 [67회] □

고려 시대 연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 고려는 중국의 연호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다른 연호를 쓴 사례가 있나요?

(답변)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후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 [왕건(태조)]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57회] □
 - ↳ 명주의 순식이 투항하자 왕씨 성을 내리다(지방 호족 포섭) [65회] □
- [태조]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대[사심관 제도]. [58회] □
 - ↳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원인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67회] □

■ 사심관 임명 [49회] □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 투항한 김부의 공을 치하하고,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대한 일을 맡게 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 [태조]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64회] [58회] □
 - ↳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55회] [54회] [53회] [50회] □
 - ↳ 「정계」와 「계백료서」를 징 반포하다(관리의 규범 제시) [65회] □
 - ↳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료서가 반포되었다. [63회] □
 - ↳ 계백료서를 읽는 관리 [66회] □

- [태조]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52회] □

↳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67회] □

■ 만부교 사건 [64회] □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하여 친선 관계를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교빙을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 [태조]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요 10조를 남겼다. [67회] □

■ 왕규의 난 [55회] □

왕규가 광주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침실에 잠입시켜 왕을 해하려 하였다. (945년, 혜종 2)

- [광종]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55회] □

-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본대[탐구 활동]. [62회] □

- [광종]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61회] [49회] □

↳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60회] □

↳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59회] □

↳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를 살펴본대[탐구 활동]. [67회] □

↳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54회] [53회] □

↳ 노비안검법에 의해 양인으로 해방된 노비 [50회] □

↳ 노비안검법이 실시되었다. [47회] □

■ 광종 대의 사실 [53회] □

1년 연호를 광덕으로 정하다.

3년 후주에 토산물을 보내다.

11년 백관의 공복을 정하다.

19년 혜거와 탄문을 국사와 왕사로 삼다.

■ 노비안검법 시행 [67회] □

왕 7년,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하자, 노비로 주인을 배반한 자가 매우 많아지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행해졌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대목 왕후가 이를 간절히 간언하였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광종]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58회] [53회] [49회] □

↳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48회] □

↳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66회] □

↳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운영하였다. [61회] □

↳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58회] □

L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57회] □

L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52회] □

L쌍기가 과거제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51회] □

L과거제를 도입하였다. [67회] □

■ 과거제 시행 [62회] [59회] [55회] [50회] □

-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시·부·송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詩)·부(賦)·송(頌)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하였다. 위봉루에 친히 나가 급제자를 발표하여, 갑과에 최섬 등 2명, 명경에 3명, 복업에 2명을 합격시켰다.
- 얼마 전 왕께서 친히 위봉루에 나가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셨다더군, / 한림학사 쌍기가 이번에 처음 치러진 과거의 지공거를 맡았다네.

■ 광종의 정치 [57회] □

안성 망이산성에서 ‘준풍 4년(峻豐四年)’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던 **광종**은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개경을 황도로 명명하는 등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 [광종]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62회] □

L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58회] [54회] □

L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65회] □

L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63회] □

■ 충주 승선사지 [63회] □

승선사는 **광종**이 어머니인 신명 순성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절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승선사(崇善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다양한 고려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광종은 치열한 왕위 쟁탈전 속에서 외가인 충주 유씨 세력 등 여러 호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즉위 이후 노비안검법 등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 [성종]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63회] [48회] □

L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66회] □

L[최승로] 시무 28조를 올려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함. [60회] □

L신 최승로,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하여 올립니다. [47회] □

-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58회] [53회] [50회] □

L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대[탐구 활동]. [62회] □

- [최승로] 예기(禮記) 중 월령(月令)에 근거하여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시무 28조]. [57회] □

■ 최승로의 시무 28조 [57회] [54회] □

- [20조] 유불도 삼교(三敎)는 각자 업(業)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왕이,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최승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이제 앞선 5대 조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행적들을 기록하고, 거울로 삼거나 경계할 만한 것들을 삼가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 신이 또 시무(時務)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하여 올립니다.”

- 『고려사절요』 -

- [성종]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62회] [56회] □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54회] □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53회] □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49회] □

↳12목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61회] □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67회] [57회] □

■ 12목 설치 [65회] [59회] [50회] □

-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번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 낮은 곳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고자 어질고 현명한 이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에 수령들의 공로에 의지해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고자 한다. 「우서(虞書)」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니, 주나라가 8백 년간 지속하였듯이 우리의 국운도 길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 있다. …… 이에 지방 수령들의 공(功)에 의지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고자 12목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 내 몸은 비록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있노라. 지방 수령들의 눈과 귀를 빌어 백성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한다. 이에 우서(虞書)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할 터이니, 주나라가 8백 년간 지속되었듯이 우리의 국운도 길이 이어질 것이다. (983년)

■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 [58회] [55회] □

-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典籍)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하여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로 삼아, 12목에 각각 1명씩 파견하여 돈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성종) (987년)
- #11. 궁궐 안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며 말한다.
왕: 몇 해 전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에 각각 경학박사 1명과 의학박사 1명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떠하오?
신하: 송승연, 전보인 등 박사들이 정성스레 가르쳐 성과가 있는 듯하옵니다.
왕: 12목을 설치하고,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인의 뜻에 부합하였소. 고생한 송승연에게 국자박사를 제수하고, 전보인에게 공복과 쌀을 하사하시오.
신하: 분부를 따르겠나이다.

- [문종]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56회] □

2 통치 체제의 정비

- [중서문하성]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 관서였다. [53회] □
- [중추원(추밀원)]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67회] □
- [도병마사] 고관들의 합좌 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성종]. [51회] □

↳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59회] □

↳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53회] □

↳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67회] [66회] [48회] □

↳ [원 간섭기] 도평의사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65회] □

■ 도병마사 [63회] [59회] [48회] □

• 고려의 회의 기구로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과 함께 합의제로 운영되었다.

(관련 사료) 판사(判事)는 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로 임명하였으며, 사(使)는 6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으로 임명하였다. …… 무릇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사(使) 이상의 관료가 모여서 의논하였으므로 합좌라는 이름이 있었다.

- 『고려사』 -

• 고려의 독자적 정치 기구인 도병마사에 대해 말해 보자. /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참여했어. /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어.

•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안서도호부에서 바친 철은 예전에는 무기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근래에 홍왕사를 창건하면서 또다시 철을 더 바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염주, 해주, 안주 세 곳에서 2년 동안 바치는 철을 홍왕사 창건에 쓰게 하여 수고로운 폐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문종대]

- [어사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60회] □

↳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67회] [53회] □

↳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66회] □

↳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48회] □

■ 어사대 [66회] [53회] □

1. 개요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함.

2. 관련 사료

유사(有司)에서 아뢰기를, “중광사 조성도감의 책임자 정장이 관리 감독하는 물품을 이서(吏胥) 승적과 함께 도둑질하였으니, 법에 따라 장형에 처하고 유배 보내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어사대에서 논박하기를,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윤허하였다.

- 『고려사』 -

• 시정(時政)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초에는 사헌대(司憲臺)라 불렸다. 성종 14년(995)에 어사대로 고쳤으며 [관원으로] 대부, 중승, 시어사, 전중(殿中)시어사, 감찰어사가 있었다.

- 『고려사』 -

- [삼사]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60회] □

↳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였다. [48회] □

↳ 화폐·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67회] □

↳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59회] □

- [춘추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59회] □

- 지방관으로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47회] □

■ 5도 양계(지방 행정 조직) [64회] [57회] □

•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와 75도 안무사를 두었으나, 얼마 후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와 8목을 두었다. 그 이후로 5도·양계를 정하니, 양광·경상·전라·교주·서해·동계·북계가 그것이다.

• 왕이 명을 내리기를, “양계와 5도의 진병법석(鎭兵法席)*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내고(內庫)의 은병 300개를 내어서 여러 도에 나누어 주었다.

*진병법석: 병화(兵禍)를 물리치기 위해 거행한 불교 의식

- [고려] 2군 6위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55회] □

↳ 중앙군을 2군 6위로 조직했습니다. [47회] □

- [응양군] 용호군과 함께 2군으로 불렸다[2군 6위]. [59회] □

↳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하였다. [55회] □

■ 2군 6위(중앙군) [51회] □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2군을 설치하고, 6위의 위에 있게 하였다. 뒤에 또 중방을 설치하고, 2군·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두 회합하게 하였다.

- [광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되었다. [48회] □

↳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62회] □

- [주진군]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양계]. [58회] □

- [고려]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56회] □

- [고려의 과거제]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62회] □

↳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었다. [62회] □

- [음서]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55회] □

◆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 충주 숭선사지 유적 발굴 현장(광종) [63회] ☐	 ▲ 안성 망이산성 출토 기와(광종) [57회] ☐		
--	---	--	--

주제 21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1 거란[요]과의 관계

- [정종]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63회] [58회] [53회] [50회] □
 - ↳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54회] [49회] □
 - ↳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외침에 대비하였습니다. [66회] □
 - ↳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67회] [65회] □
 - ↳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되었다. [64회] □
 - ↳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 하므로 군사 30만 명을 선발하여 광군이라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56회] □
-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성종]. [61회] □
 - ↳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60회] □
 - ↳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52회] □
 - ↳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65회] [59회] □
 - ↳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67회] □
 - ↳ [서희]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다. [64회] □
 - ↳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였습니다. [66회] □
 - ↳ 서희를 보내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58회] □
 - ↳ [성종] 왕이 소손녕의 봉산군 공격 소식을 듣고 서희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소손녕이 침공을 중지하였다. [56회] □

■ 거란의 제1차 침입(서희의 외교 담판) [62회] [55회] □

- 왕이 서경에서 안북부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손녕이 봉산군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희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침공을 중지하였다.
 -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담판을 벌여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는가? (성종) / 신, 서희가 폐하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폐위하였다. [62회] □
 - ↳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66회] □
 - ↳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켰다. [55회] □

↳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61회] [59회] [49회] □

↳ [강조]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였다. [51회] □

↳ [현종]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 [52회] □

■ 강조의 정변 직전의 상황 [60회] □

이주정이 김치양과 결탁한 것 같소, 그를 서북면 도순검부사로 보내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짐을 호위하게 하시오. (목종)

• [거란의 제2차 침입]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현종]. [60회] □

↳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하였다. [55회] □

↳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 나주까지 피란을 가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어. [52회] □

↳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66회] □

↳ 양규가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여 2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여 명을 되찾았다. [56회]

□

■ 거란의 제2차 침입(양규의 항전) [64회] [63회] [62회] [53회] [50회] □

- 거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 거란이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화진에 보내어 항복하라고 설득하였다.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백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천여 명을 수습하였다. 밤중에 객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 거란의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하여 궁궐을 불사르고 퇴각하였다. 양규는 거란의 군대를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0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000여 명을 되찾았다. 다시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고 추격하여 석령까지 가서 2,5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1,000여 명을 되찾았다.
- 양규가 적을 무로대와 이수 등지에서 크게 무찌르고 포로를 되찾았다고 하옵니다. (현종)

■ 현종의 험난한 피란길 [67회] □

<역사 연극 시나리오 구상>

장면 1: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한 거란군이 서경까지 이르자 강감찬이 왕에게 남쪽으로 피란할 것을 권유한다.

장면 2: 왕이 개경을 떠나 전라도 삼례에 이르는 동안 호위군이 도망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장면 3: 나주에 도착한 왕은 강화가 성립되어 거란군이 물러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한다.

• [거란의 제3차 침입]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4회] [52회] □

↳ [귀주 대첩]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66회] □

↳ 강감찬 등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아 싸웠다. 고려군이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북으로 도망쳤다. [56회]

□

■ 귀주 대첩(거란의 제3차 침입) [63회] [60회] □

- 거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전투를 벌였다. 적병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아군이 그 뒤를 쫓아가서 공격하였는데,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기까지 시신이 들에 가득하였다.
-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강감찬과 장수들을 맞이할 연회를 준비하라. (현종)

• [현종] 외침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61회] □

↳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53회] □

↳ [거란]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65회] [59회] □

■ 나성 축조 [55회] □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조하게 하였다. [현종 대, 1009년~1029년]

• [덕종~정종]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67회] □

2 여진[금]과의 관계

•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58회] □

↳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49회] □

↳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47회] □

•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60회] □

↳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51회] □

↳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63회] □

↳ [별무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48회] □

↳ 별무반을 편성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56회] □

↳ [숙종]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52회] □

■ 윤관 [60회] □

- 출생년 미상
- 1095년 상서성 좌사낭중
- 1101년 추밀원(중추원) 지주사
- 1102년 어사대 어사대부
- 1103년 한림원 학사승지
- 1108년 중서문하성 문하시중
- 1111년 별세

■ 별무반 창설 [59회] □

신이 싸움에서 진 이유는 적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대의 창설이 필요합니다. (윤관) /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대로 별무반을 창설하여 여진과 맞서도록 하라. (숙종)

■ 별무반 부원수 오현총 [55회] □

이곳은 오현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별무반의 부원수로 활약하였습니다.

•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55회] □

•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61회] □

↳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53회] □

↳ [윤관]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56회] □

ㄹ[별무반]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54회] □

ㄹ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65회] □

ㄹ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쌓았다. [66회] □

ㄹ이 그림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설치한 후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그린 척경입비도입니다. [51회] □

ㄹ윤관이 동북 9성을 쌓았어요. [47회] □

■ 동북 9성 축조 [67회] [62회] [50회] □

- 윤관 등이 여러 군사들에게 내성(內城)의 목재와 기와를 거두어 9성을 쌓게 하고, 변경 남쪽의 백성을 옮겨 와 살게 하였다.
- 윤관이 포로 346구와 말 96필, 소 300여 마리를 바쳤다. 의주와 통태진·평양진에 성을 쌓고, 함주·영주·웅주·길주·북주, 공험진과 함께 북계 9성이라 하였다.
-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동북 지역의 경계는 공험진(公嶮鎭)으로 삼았다는 말이 전하여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지금 듣건대 선춘점(先春站)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공험진이 선춘점의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 윤관이 여진을 쫓고 9성을 설치하였는데, 그 성이 지금 어느 성이며, 공험진의 어느 쪽에 있는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써서 아뢰라.”라고 하였다. (조선 세종)

■ 동북 9성의 반환 [57회] □

행영병마별감 승선 최흥정과 병마사 이부상서 문관이 여진 추장 거위이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하라.”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의 밖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소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 나라(蕃土)는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최흥정 등은 길주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9성의 전투 장비와 군량을 내지(內地)로 들여왔다.

- 『고려사』 -

◆ 사진으로 보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 윤관 [60회] □	▲ 척경입비도(동북 9성) [51회] □	▲ 덕산사(오연총 장군)(별기군)(전남 곡성) [54회] □	

주제 22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1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2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55회] □

■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이자겸의 출세 [67회] □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은 1108년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출세하였다.

1109년 ㉠추밀원(중추원) 부사, 1111년 ㉡어사대의 대부가 된다. 1113년에는 ㉢상서성의 좌복야에 임명되었고, 1118년 재신으로서 판이부사를 맡았으며, 1122년 ㉣중서문하성 중서령에 오른다.

-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63회] □

■ 금의 사대 요구 수용 [60회] [48회] □

•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

•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하였다.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 부근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왕조의 호적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당시에 권신(權臣)이 왕명을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신하를 칭하고 이로 인해 서표(誓表)를 올렸다. 진실로 인종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공이 심히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

- 윤언이 묘지명 -

-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51회] □

■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66회] [49회] □

-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해 축출되었다. [62회] □

■ 이자겸의 난 [65회] [64회] [59회] □

• 이것은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연 묘지명으로, 딸 셋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 권력을 누렸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南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보린, 최탁 등 17인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52회] [48회] □

ㄹ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66회] ☐

ㄹ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51회] ☐

•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62회] ☐

ㄹ[묘청]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로 하였다. [50회] ☐

• 묘청이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57회] ☐

ㄹ[묘청]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52회] ☐

ㄹ묘청 등이 칭제 건원과 금 정벌을 주장하였다. [67회] ☐

•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49회] ☐

•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63회] ☐

ㄹ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59회] ☐

ㄹ[묘청의 난]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55회] ☐

■ 묘청의 난 [65회] [61회] [55회] [47회] ☐

-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그 군대를 천건충의군이라 불렀다.
- 서경 천도와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났어. / 연호를 천개로 하는 대위국이 선포되었어. /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으로 평가하였어.
-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大華勢)에 해당하니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겨 가면 천하를 아우르게 되니 금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 짐이 서경에 행차하여 지세를 살펴보도록 하겠노라. (인종)

• 정지상의 시, 송인(送人)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해설] 이 시의 제목은 송인(送人)으로, 고려 시대의 문인 정지상이 서경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서경 출신인 그는 묘청 등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중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김부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 이자연 묘지명 [64회] ☐	 ▲ 묘청 개리커처 [47회] ☐		
---	---	--	--

주제 23 무신 정권

1 무신 정권의 성립

-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62회] □
 - ↳ [무신 정변]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였다. [63회] □
 - ↳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어요. [47회] □
 - ↳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54회] □
 - ↳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였다. [51회] □

■ 무신 정변 [65회] [59회] □

-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가 몰래 말하기를, “오늘날 문신들은 득의양양하여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 불리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고달프니 이것을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 이고 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환궁하였다.

-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61회] □
 - ↳ 김보당이 폐위된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66회] □
 - ↳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 [64회] □
 - ↳ [김보당]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56회] □
 - ↳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52회] □
 - ↳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60회] □

■ 김보당의 난 [49회] □

- 동북면병마사 간의대부 김보당이 동계(東界)에서 군대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전왕(前王)을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 동북면지병마사 한언국이 장순석 등에게 거제(巨濟)로 가서 전왕을 받들어 계림에 모시게 하였다.

-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61회] □
 - ↳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64회] □
 - ↳ 조위총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67회] □

■ 조위총의 난 [62회] □

- 조위총이 동·북 양계(兩界)의 여러 성에 격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모아 말하기를, “소문에 따르면 개경의 중방(重房)에서 북계의 여러 성은 거칠고 사나운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이미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죽을 수 있겠는가? 각자 군사와 말을 규합하여 빨리 서경으로 달려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57회] □

■ 무신 경대승의 집권 [66회] □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 신하들이 대궐에 나아가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데, 무슨 축하인가?”라고 하였다. 이의민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날랜 사람들을 모아서 대비하였다. 또한 경대승의 도방(都房)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의민이 더욱 두려워하여 마을에 큰 문을 세워 밤마다 경계하였다.

2 최씨 무신 정권

- [명종]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59회] [57회] [52회] [49회] □

↳ [최충헌]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64회] [56회] □

↳ 최충헌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66회] □

↳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제안하다. [51회] □

■ 명종 폐위, 신종 즉위 [67회] [61회] □

- 최충헌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
-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명종의 퇴위와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62회] □

↳ 교정도감을 두어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67회] □

↳ 최충헌이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60회] □

↳ [최충헌]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51회] □

↳ 교정별감이 되어 인사, 행정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50회] □

- [희종] 국정 총괄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59회] □

↳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55회] □

↳ [교정도감]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였다. [66회] [53회] □

■ 최충헌 [50회] □

- 명종 26년 4월 이의민을 제거하다.
- 명종 26년 5월 봉사 10조를 지어 바치다.
- 신종 3년 12월 도방을 설치하다.
- 희종 2년 3월 진강후로 책봉되다.

■ 교정도감 설치 [63회] □

청교역(靑郊驛) 서리 3인이 최충헌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거짓 공첩(公牒)을 만들어 여러 사원의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공첩을 받은 귀법사 승려들은 그 공첩을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최충헌에게 고해바쳤다. [최충헌은] 즉시 영은관에 교정별감을 둔 후 성문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그 무리를 색출하였다.

- 최우가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51회] □

↳ 최우가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63회] [49회] □

↳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64회] □

↳ [정방] 최우에 의해 설치되어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59회] □

↳ 정방이 설치되었다. [47회] □

■ 정방 설치 [60회] □

백관이 최우의 집에 나아가 정년도목(政年都目)을 올리니, 최우가 청사에 앉아 받았다. 6품 이하는 당하(堂下)에서 두 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 『고려사절요』 -

• [최항]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56회] □

• [삼별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54회] □

↳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48회] □

■ 삼별초 [62회] □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짓들을 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을 야별초(夜別抄)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여러 도에서도 일어났으므로 별초를 나누어 보내 이들을 잡게 하였다. 그 군사가 매우 많아 마침내 나누어 좌우로 삼았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몽골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자들을 한 부대로 삼아 신의군(神義軍)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삼별초가 되었다.

3 농민·천민의 봉기

•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에 대해 알아본다[탐구 활동]. [67회] □

•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66회] [64회] [59회] □

↳ 망이, 망소이 등이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62회] □

↳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67회] [60회] □

↳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55회] □

■ 망이·망소이의 난[공주 명학소의 난] [56회] [53회] □

- 명학소의 백성 망이·망소이 등이 무리를 모아서 산행병마사라고 자칭하고는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양수탁을 현령으로, 김윤실을 현위로 임명하여 그들을 달래었다.
- 사건 일지
2월 10일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야사를 습격함.
3월 11일 망이 등이 흥경원에 불을 지르고 승려 10여 명을 죽임.
6월 23일 망이가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함.
7월 20일 망이·망소이 등을 체포하여 청주 감옥에 가둠.

- [김사미와 효심의 난] 무신 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59회] □

■ 김사미와 효심의 난 [59회] □

남쪽에서 적(賊)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었다. 이들은 유랑민을 모아 주현(州縣)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 노비 만적이 반란을 모의하였다. [62회] □
-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61회] □

↳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55회] □

↳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59회] □

↳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어요. [47회] □

■ 만적의 난 [67회] [51회] [49회] □

• 만적 등이 노비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만적 등 100여 명이 체포되어 강에 던져졌다.

• 만적 등 6명이 복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기를, “국가에서 경인년·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종자가 있으랴. …… 그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면 모두 공경 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만적 등 6명이 복산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공사(公私)의 노복들을 불러 모아 모의하며 말하기를, “국가에서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賤隸)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상(將相)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여러 노(奴)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 가노(家奴) 순정이 한충유에게 변란을 고하자 한충유가 최충헌에게 알렸다. 마침내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하여 강에 던졌다.

◆ 사진으로 보는 무신 정권

 ▲ 최충헌의 묘지명 탁본 [67회] □			
--	--	--	--

주제 24 대몽 항쟁

1 몽골과의 전쟁

-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1225년]. [67회] [60회] □

↳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55회] [52회] □

■ 몽골의 제1차 침입 [58회] [50회] □

- 병마사 박서는 김중온에게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에게는 성의 남쪽을 지키게 하였다. 몽골의 대군이 남문에 이르자 김경손은 12명의 용맹한 군사와 여러 성의 별초를 거느리고 성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 우별초가 모두 땅에 엎드리고 응하지 않자 김경손은 그들을 성으로 돌려보내고 12명의 군사와 함께 나아가 싸웠다.

- 『고려사』 -

-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여 굳게 지켰다. 이에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귀주성 전투)

-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65회] [54회] □

↳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장기 항전에 대비하였다. [61회] □

↳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59회] [58회] [53회] □

↳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63회] □

■ 강화도 천도 [66회] [60회] □

- 고려 고종의 능인 홍릉이 강화도에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 몽골 침략 당시 실권자였던 최우가 항전을 위해 강화 천도를 강행한 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승하했기 때문이야.
- 강화중성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건립한 내성, 주성, 외성 중 하나입니다. 강화중성은 당시 수도를 둘러싼 토성(土城)으로, 이번 발굴 조사에서 방어를 위해 성벽의 바깥에 돌출시킨 대규모 치성(雉城)이 확인되었습니다.

-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64회] [62회] □

↳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59회] □

↳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54회] □

↳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57회] □

↳ [김윤후]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51회] □

■ 처인성 전투(처인 부곡의 항전)(몽골의 제2차 침입) [67회] [63회] □

- 그해 12월 16일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적과 싸우던 중 화살로 적의 괴수인 살리타를 쏘아 죽였습니다. 사로잡은 자들이 많았으며 나머지 무리는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적을 피해 성에 와 있던 한 승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다. 국가에서 그 전공을 칭찬하여 상장군 벼슬을 주었다. 승려가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말하기를, “전투할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공 없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라고 하고,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66회] □

■ 죽주(산)성 전투 [49회] □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몽골**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사신 저고여의 피살을 빌미로 **몽골**이 쳐들어오자, 송문주 장군은 귀주성과 이곳에서 거듭 물리쳤습니다. (**몽골의 제3차 침입**)(경기도 안성)

-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66회] □

■ 충주(산)성 전투 [61회] [60회] [58회] □

•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이 되었는데 **몽골**의 군대가 쳐들어 와 충주성을 70여 일간 포위하였다. 군량이 거의 바닥나자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관노비의 문서를 불태우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니 적의 기세가 꺾여 남쪽으로 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몽골군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간 포위하니 비축한 군량이 거의 바닥났다. 김윤후가 괴로워하는 군사들을 북돋우며, “만약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니 불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나는 방호별감 김윤후입니다.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충주산성을 방어할 때 (**관**)**노비**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 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였다. [62회] □

■ 최씨 무신 정권 붕괴 [61회] □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 왕에게 아뢰어 정방을 편전 옆에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였다. (**1258년**)

■ 무신 집권자 김준(김 영공)에게 올리는 홍합젓갈 [55회] □

이것은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입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강화에 있던 김준에게 보내는 물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김준은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 고려 태자의 쿠빌라이 배알 [52회] □

고려의 태자가 배알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강희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다. ……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종**) (**1259년**)

2 개경 환도와 삼별초의 항쟁

- [삼별초]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62회] □

-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전하였다. [61회] □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다. [65회] □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에서 항전하였다. [51회] □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 항쟁을 펼쳤다. [67회] [50회] □

[배중손]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64회] □

삼별초가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60회] □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58회] □

■ 개경 환도와 삼별초의 반발 [57회] [48회] □

- 지원(至元) 7년,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松京)으로 환도할 적에 장군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임유무를 죽이고 왕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신의 가병,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화후(承化侯)를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하면서,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료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항해하여 가니 배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 이 지도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항쟁하였습니다.

-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57회] □

3 원과의 교류

-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62회] [59회] □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 [66회] □

■ 충렬왕의 변발 [55회] □

왕이 이분희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못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常例)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은 입조(入朝)하였을 때에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한 것이다.

■ 몽골풍의 유행 [47회] □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입니다. 이러한 머리 모양과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해 볼까요?

■ 제국 대장 공주의 경제 활동 [62회] □

제국 대장 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원의] 강남 지역으로 보내 많은 이익을 얻었다. 나중에는 환관을 각지에 파견하여 잣과 인삼을 구하게 되었다. 비록 나오지 않는 땅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충렬왕의 제1 왕비)

■ 제국 공주의 겁령구, 인후 [59회] □

인후는 …… 처음 이름은 흘랄대였다. 제국 공주의 겁령구였는데, 겁령구는 중국 말로 사적으로 소속된 사람이다. 제국 공주를 따라와서 중랑장에 임명되었다. 왕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싶어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자, 흘랄대가 대장군 인공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친한 사이이니 그대의 성을 빌리면 어떻겠소?”라고 하고, 드디어 성명을 바꾸어 인후라고 하였다. [인후는] 장순룡 및 차신과 더 좋은 저택을 짓기 위해 경쟁했는데, 사치스러움과 분수에 넘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대몽 항쟁

 ▲ 강화중성(강화도 천도) [66회] ☐	 ▲ 안성 죽주(산성) 전투 (송문주)(1236년) [49회] ☐	 ▲ 홍릉(고려 고종)(강화도) [64회] ☐ (사진 교체 함)	 ▲ 김준(김 영공)에게 올리 는 홍합젓갈(죽찰) [55회] ☐
 ▲ 삼별초의 대몽 항쟁 [48회] ☐	 ▲ 천산대렵도(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 [47회] ☐		

주제 25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1 원의 내정 간섭

- [원종]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하였다. [59회] □
- [충렬왕] 원 황실의 부마가 되었어요. [58회] □
-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첨의부로 개편되었다. [50회] □
-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66회] □

■ 왕실 용어 격하 [54회] □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66회] □
-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60회] □
-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대[탐구 활동]. [67회] □
-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 [61회] □

■ 충렬왕의 일본 원정 참여 [64회] □

원의 공주와 혼인한 태자께서 돌아와 왕이 되신 건 알고 있는가? 이전에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오신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네. / 나도 그랬다네. 그나저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정이 더 큰 걱정이군.

■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제1차) [65회] □

김방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홍다구와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천여 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다. 왜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마치 삼대와 같았다. 날이 저물어 이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

■ 김방경의 활약 [67회] [50회] □

- 시중 김방경과 대장군 인공수를 [상국(上國)에] 파견하여 표문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근래 역적을 소탕하는 군대에 군량을 공급하는 일로 이미 해마다 백성에게서 양식을 거두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는데 장정들이 모두 징발되었고 노약자들만 겨우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곳은 김방경의 묘입니다. 그는 개경 환도 이후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된 이 시기에 여·몽 연합군의 고려군 도원수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습니다. (2차 원정)

-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어요. [47회] □
- [충선왕]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54회] □
- [충목왕]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64회] [60회] [57회] □

■ 수령 옹주 묘지명 [61회] □

이것은 수령 옹주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온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원에 끌려가자 그 슬픔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령 옹주가 살았던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이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수령 옹주\(1281~1335\)](#)

2 공민왕의 개혁 정치

■ 정동행성 이문소의 내정 간섭 [65회] □

기철의 친척 기삼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 장(杖)을 치고 하옥하였는데 20여 일 만에 죽었다. …… 그러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잡아 가두었다.

- [공민왕]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56회] □
↳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47회] □
- [공민왕]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49회] □

■ 공민왕의 반일 자주 정책 [59회] [53회] [49회] □

•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반역죄로 숙청하셨다고 하네. / 나도 들었네.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하셨다고 하더군.

• 이곳에는 [공민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 대장 공주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종묘에 고려 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공민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 왕이 지정(至正) 연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 기철 등이 군주의 위세를 방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뒤흔들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관리를 마음대로 임명하여 정령(政令)이 원칙 없이 바뀌었고, 남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았다. …… 이제 다행히도 조종(祖宗)의 명령에 기대어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공민왕]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을 수복하였다. [63회] [53회] [50회] □
↳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58회] □
-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64회] [54회] □
↳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55회] □

■ 쌍성총관부의 설치와 수복 [66회] [60회] □

• [[설치](#)] 용진현 출신 조휘와 정주 출신 탁청이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골에 넘겨주었다. 몽골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였다.

• [[수복](#)]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키자 총관 조소생, 천호 탁도경이 도망치니 화주, 등주, 정주 등이 수복되었다.

• 이자춘이 쌍성 등지의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민(民)을 보살펴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기철이 쌍성의 반민(叛民)들과 몰래 내통하여 한패로 삼아 역모를 도모하려 한다’고 밀고하였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행군하여 유인우와 합세한 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 [홍건적의 제2차 침입]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66회] [57회] □
- [공민왕]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53회] □
 - ↳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67회] [59회] □
-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60회] □
 - ↳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62회] □
 - ↳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57회] □
 - ↳ [신돈]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다. [51회] □
 - ↳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64회] [50회] □
 - ↳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54회] □
 - ↳ 전민변정도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66회] □

■ 공민왕 시해, 우왕 즉위 [54회] □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종 이인임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 『고려사』 -

3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 [홍산 대첩]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2회] □
 - ↳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64회] [60회] □
 - ↳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47회] □
- [왜구]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진포 대첩(해전)]. [62회] □
 - ↳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56회] □
 - ↳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55회] □
 - ↳ 고려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쓰시마섬]. [62회] □
 - ↳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63회] [59회] [58회] □
 - ↳ 박위를 보내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65회] □
-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51회] □

■ 진포 대첩(진포 해전) [65회] [60회] □

• 왜구가 배 5백 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들을 불태웠다.

•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포로 334명을 구출하였으며, 김사혁은 패잔병을 임천 까지 추격해 46명을 죽였다.

- [우왕]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62회] [59회] □
 - ↳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57회] □
 - ↳ [최무선]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다. [61회] □
 - ↳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67회] [50회] □
-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되었다. [60회] □
 - ↳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되었다. [55회] □
 - ↳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64회] □
 - ↳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58회] □
 - ↳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54회] [53회] □
 - ↳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51회] [49회] □
 - ↳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52회] [47회] □
- [고려]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63회] □

■ 화약 무기 연구의 선구자, 최무선 [61회] □

중국의 군사 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의 자체 생산에 성공한 최무선. 그의 활동을 통해 국방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

- #1. 중국인 이원에게 염초 제조법을 배우다.
- #3. 나세, 심덕부 등과 함께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다.

■ 이성계의 활동 [56회] □

- 1380년 삼도 도순찰사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였습니다. (1/3)
- 조선 선조 때 이를 기념하여 대첩비를 세웠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파괴하여 파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2/3)
- 그러나 탁본이 남아 있어 적장 아지발도를 죽인 이성계의 활약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 황산 대첩비 [51회] □

이것은 황산 대첩비의 탁본입니다. 비문에는 당시 양광전라경상도 도순찰사였던 이성계가 고려군을 이끌고 전라도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크게 물리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우왕]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관음포 대첩, 남해 대첩](1383년). [59회] □
- [우왕] 최영에 의해 이인임 일파가 축출되었다. [59회] □
 - ↳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49회] □
- [창왕]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67회] [56회] □
- [창왕]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61회] □

[왜구]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쓰시마섬]. [51회] □

◆ 사진으로 보는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 김방경의 묘(고려군 도원수) [50회] □	 ▲ 수령 옹주 묘지명 [61회] □	 ▲ 공민왕과 노국 대장 공주 영정(종묘) [53회] □	
 ▲ 이성계의 활약(황산 대첩, 대첩비, 탁본) [56회] □	 ▲ 황산 대첩비 탁본(이성계) [51회] □		

주제 26 고려의 경제

1 토지 제도

-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65회] [60회] □
 - ↳ 개국 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태조]. [53회] □
 - ↳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이 지급되었다. [50회] □
 - ↳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2회] □

■ 역분전 제정 [59회] □

역분전을 제정하였는데, 통일할 때의 조신(朝臣)이나 군사들은 관계(官階)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경종]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67회] □
-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62회] [49회] □
 - ↳ [전시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63회] □
 - ↳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53회] □
 - ↳ [틀림]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수조권만 분급]. [60회] □

■ 전시과 [50회] □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구분하여 문무백관에서 부병(府兵),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科)에 해당하는 토지[전지]를 주고, 또 과에 따라 땔나무를 구할 땅[시지]을 주었다.

- [시정 전시과]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60회] □

■ 시정 전시과 [59회] [48회] □

- 경종 원년, 처음으로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이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처음으로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과등(科等)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전지 15결을 지급하였다.

■ 개정 전시과 [54회] □

이번에 개정된 토지 제도에 대해 들었는가? /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 지급 기준이 점차 정비되어 가군.

■ 경정 전시과 [60회] [48회] □

-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중서령·상서령·문화시중) …… 제18과는 전지 17결(한인·잡류)로 한다.
-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제1과는 중서령, 상서령, 문화시중으로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을 주며, …… 제18과는 한인(閑人), 잡류(雜類)로 전지 17결을 주었다.

- [5품 이상 관리]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58회] □

■ 공음전 [66회] □

문종 3년 5월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1품은 문하시랑평장사 이상으로 전지 25결, 시지 15결이다. 2품은 참정 이상으로 전지 22결, 시지 12결이다. 3품은 전지 20결, 시지 10결이다. 4품은 전지 17결, 시지 8결이다. 5품은 전지 15결, 시지 5결이다. 이를 모두 자손에게 전하여 주게 한다. ……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꾀하거나 모반이나 대역에 연좌되거나, 여러 공죄나 사죄를 범하여 제명된 것 이외에는 비록 그 아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에게 죄가 없다면 공음전시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 [원종]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50회] □

2 수취 제도

3 농업의 발달

-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67회] [65회] [62회] [57회] □
-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53회] □
- ↳ 목화 재배와 양잠 등 중국 화북 지방의 농법 소개 [50회] □

■ 농상집요 [60회] □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이암이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전해지는 농서입니다. 원에서 편찬된 이 책은 경간(耕墾)·파종 등 10문(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북 지방의 농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에, 면화, 저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4 수공업의 발달

-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하였어요. [66회] □

■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62회] □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석표 중 하나로 '상서호부(尙書戶部)의 승인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사·왕사 제도를 두어 불교를 장려했던 고려 시대에 국가와 사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사원 수공업)

5 상업의 발달과 대외 무역

- 서경에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 [63회] □
 - ↳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 [66회] □
-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66회] [61회] [52회] [49회] □
 - ↳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60회] □
 - ↳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어요. [64회] □
 - ↳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59회] [53회] □
 - ↳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57회] □
 - ↳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47회] □
- [성종]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어. [48회] □
- [성종]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63회] [62회] [59회] [56회] □
 - ↳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53회] □
 - ↳ 건원중보가 발행되어 금속 화폐의 통용이 추진되었다. [48회] □
- [숙종]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이 발행되었다. [62회] □
 - ↳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61회] □
 - ↳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하였어요. [66회] □
 - ↳ 국가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54회] □
 - ↳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64회] □
- [숙종]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65회] [59회] [53회] □
 - ↳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만드는 장인 [60회] □
 - ↳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장인 [50회] □
- [해동통보] (나) -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조되다. [67회] □
- [숙종]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66회] [63회] [58회] [53회] [47회] □
 - ↳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되었다. [65회] □
 - ↳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61회] □
 - ↳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59회] [49회] □
 - ↳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었다. [51회] □
 - ↳ 해동통보, 활구 등의 화폐를 발행하였다. [55회] □

- **[틀림]** [은병] (다) - 경북궁 중건을 위해 제작되다. [67회] □

■ 속종 대의 화폐 발행 [60회] [52회] [51회] [50회] [49회] □

-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에 따라 주조한 전(錢) 15,000관을 재추와 문무 양반 및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고 이름을 해동통보라고 하였다.
- 몇 해 전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화폐를 유통시켜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편익을 꾀하였으나,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현에 명령하여 주식점(酒食店)을 열고 백성들에게 화폐를 활용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여 그 이로움을 알게 하라. [주현에 명령하여 미곡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백성에게 교역을 허락하여 전(錢)의 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 일전에 왕께서 화폐를 주조하여 재추와 문무 관료 및 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해에 은병을 화폐로 삼았다. 은 1근으로 만드되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으며 속칭 활구라 하였다.
- 저포, 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작은 일용품은 쌀로 가격을 계산하여 거래한다. 백성들은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편하게 여긴다.
- 도평의사사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지금부터 은병 1개를 쌀로 환산하여 개경에서는 15~16석, 지방에서는 18~19석의 비율로 하되, 경시서에서 그 해의 풍흉을 살펴 그 값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대각국사 의천과 윤관의 화폐 유통 필요성 주장 [64회] □

두 분은 모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어요. 이 인물들이 활동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볼까요? / 화폐 사용을 주창한 저는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윤관) / 송에 다녀와 윤반의 편리 등 화폐 사용의 장점을 강조한 저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 (의천)

-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66회] [63회] [58회] [53회] □
 - ↳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50회] □
 - ↳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어요. [56회] □
 - ↳ 벽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였다. [64회] □
 - ↳ 벽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의 상인 [62회] □
 - ↳ 벽란도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송의 상인 [51회] □
 - ↳ 벽란도에서 교역하는 송의 상인 [49회] □

■ 팔관회와 벽란도 [65회] [61회] [53회] [47회] □

-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왕이 신봉루에 들러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 송의 상인과 탐라국도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자리를 내주어 음악을 관람하게 하였는데, 이후 상례(常例)가 되었다.
- 대식국의 객상(客商) 보나합 등이 와서 …… 물품을 바쳤다. 관리에게 명하여 객관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고,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벽란도)
- 벽란정은 예성항 연안에 있으며, 개경에서 30리 떨어져 있다. 사신(使臣)의 배가 연안에 닿으면 군사들이 금고(金鼓)를 울리며 조서를 맞아 인도하여 벽란정에 들어간다. 벽란정은 두 채로 되어 있는데, 서쪽의 것은 우벽란정이라 부르며 조서를 봉안하고, 동쪽의 것은 좌벽란정이라 부르며 정사·부사를 접대한다. …… 사신이 개경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타고 온 배들은 예성항 내에 정박하게 되므로 뱃사람은 순서를 정해 이곳에서 배를 지킨다. (벽란도)
- 명주의 정해현에서 순풍을 만나 3일이면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5일이면 흑산도에 도달하여 그 경계에 들어간다. 흑산도에서 섬들을 지나 7일이면 예성강에 이른다. …… 거기서 3일이면 연안에 닿는데, 벽란정(碧瀾亭)이라는 객관이 있다. 사신은 여기에서부터 육지에 올라 험한 산길을 30여 리쯤 가면 [고려](#)의 수도에 도달한다.

- 『송사』 -

- 이 작품은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의 정경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곳에 있던 벽란도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으로 송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조수가 들고나니

오고 가는 배의 꼬리가 이어졌구나

아침에 이 누각 밑을 떠나면

한낮이 되지 않아

돛대는 남만(南蠻)에 이르도다

사람들은 배를 보고

물 위의 역마라고 하지만

바람처럼 달리는 준마도

이보다 빠르지는 못하리

◆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경제

 ▲ 농상집요 [60회] □	 ▲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62회] □	 ▲ 고려 시대의 조운로(13곳의 조창, 개경의 경창) [56회] □
 ▲ 윤관(화폐 유통 주장) [64회] □	 ▲ 대각국사 의천(화폐 유통 주장) [64회] □	

주제 27 고려의 사회

1 고려의 신분 제도와 동요

- [양민] 고려 시대에 향, 부곡, 소에 거주하였으며,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다[향·부곡·소 거주민]. [58회] □
- 특수 행정 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56회] □

2 사회 정책과 농민 공동체

- [고려 태조]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다. [62회] □
 - ↳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60회] □
 - ↳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64회] □
 - ↳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54회] □
 - ↳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67회] □
- [광종]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58회] [54회] [52회] □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어. [48회] □
- [성종] 빈민 구제를 위해 의창이 설치되었다. [48회] □
 - ↳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 [65회] □

■ 의창 설치[성종] [56회] □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賑貸)하게 하셨다.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 바는 늘어나지 않았으니, 미(米) 1만 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義倉)으로 고친다. 또한 모든 주와 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

- 개경에 국립 의료 기관인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였다[문종]. [52회] □
 - ↳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해 동·서 대비원을 두었어. [48회] □
-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도감을 설치하였어[예종]. [48회] □
-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혜민국이 있었어[예종]. [48회] □
 - ↳ 혜민국에서 약을 받아 가는 환자 [65회] □

■ 고려의 사회 정책 [58회] [52회] □

- 중서성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관내 서도의 주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창과 공해(公廩)의 곡식을 내어 경작을 원조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창을 열어 진휼하십시오.” (문종)
- 왕이 명하였다[명하기를]. “도성 안[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라고 하였다.] (예종)
- [구제도감] 고려 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 기구로서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을 구호하였다.

- [향도] 매향(埋香)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67회] [64회] □

3 법률 제도

4 가족 제도와 여성의 지위

주제 28 고려의 문화(불교)

1 불교의 발달

- [광종]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에 임명되었다. [61회] □
- [광종]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여를 주지로 삼았다. [56회] □
 - ↳ [균여]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66회] [63회] [54회] □
 - ↳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전파하였다. [48회] □

■ 원통대사 균여 [61회] □

균여는 귀법사의 주지로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향가인 『보현십원가』 11수를 지어 화엄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62회] □
 - ↳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59회] □
 - ↳ [의천]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65회] □
 - ↳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63회] □
 - ↳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56회] □
 - ↳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교단 통합에 힘썼다. [66회] □
 - ↳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힘썼다. [51회] □
- [의천]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61회] [54회] □
 - ↳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53회] □
 - ↳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47회] □
- [의천] 이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시하였다. [48회] □

■ 대각국사 의천 [65회] [61회] [53회] [48회] □

• 왕후(王后),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佛法)을 구하려 송에 유학하였다. 귀국 후 흥왕사에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송·거란·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 의천은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다.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하였으며, 교선 통합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 이것은 개경 흥왕사 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기에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이 송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경상북도 칠곡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문종의 아들인 의천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보물 제251호)

• [지눌]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65회] [48회] □

↳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62회] □

↳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51회] □

• [지눌]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61회] □

↳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57회] [53회] □

↳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66회] [54회] □

↳ 권수정혜결사문이 작성된 목적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67회] □

↳ 참선을 강조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63회] □

• [지눌] 이 목판의 글은 '불일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그가 지은 것입니다. 그는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참선법을 강조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51회] □

■ 불일보조국사 지눌 [63회] [54회] □

• Q.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A. 8세 승려가 되어 25세에 승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하였으며,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시호는 '불일보조국사'입니다.

Q. 불교계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A.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치며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수행에 힘쓸 것을 주창하였습니다.

• 이곳은 지눌이 불교계 개혁 운동을 전개한 순천 송광사입니다. 그는 수행 방법으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 [요세]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를 이끌었다. [56회] □

↳ 백련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53회] □

↳ 백련결사를 주도하였다. [47회] □

■ 원묘국사 요세 [61회] □

요세는 12세에 출가하였다. 수행상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하였다.

• [혜심]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61회] □

↳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제창하였다. [51회] □

↳ 심성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56회] □

↳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66회] [65회] [48회] □

↳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제창하였다. [63회] □

■ 진각국사 혜심의 비 [66회] □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는 혜심의 비입니다. 비문에는 지눌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의 제2대 사주가 된 일.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出家)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62회] □
- ↳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국난 극복을 기원했어요. [47회] □
- ↳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되었다. [54회] □
- ↳ [거란의 침입]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55회] □
- ↳ [현종] 이 왕 때 초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어. [52회] □
- ↳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67회] □
- ↳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66회] [61회] □
- ↳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 [64회] □

■ 초조대장경 조판 [65회] [62회] □

-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향사입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고려 현종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왕 때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 현종 2년에 거란의 군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러 오자 왕이 남쪽으로 피란하였는데, 거란 군대는 여전히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이 여러 신하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바람을 담아 대장경판을 새겨서 완성할 것을 맹세한 뒤에야 적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 『동국이상국집』 -

2 조각과 건축의 발달, 기타

- 고려 시대에는 대형 철불이 유행하였으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50회] □

■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 [67회] □

이것은 이색의 목은집에 실린 시의 일부입니다. 그는 관촉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보았던 불상을 떠올리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한산의 동쪽으로 백여 리쯤 되는 곳에
은진현이라 그 안에 관촉사*가 있다네
여기엔 크나큰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
내 나간다 나간다며 땅속에서 솟았다네
⋮

*관촉사: 현재의 관촉사

- 안동 이천동 마애 여래 입상의 조성 배경 [49회] □
-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 구조 [49회] □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66회] □

- 종목: 국보
-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 소개: 고려 시대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탑의 꼭대기 머리 장식이 완벽하게 남아 있고 지붕들의 귀퉁이마다 풍경을 달아 화려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된 조사 결과 석탑의 조성 연대가 고려 전기로 밝혀졌다.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 [56회] □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음. [56회] □

◆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문화(불교)

 ▲ 대각국사 묘지명 탁본 (의천) [53회] □	 ▲ 경북 칠곡 선봉사 비석 (의천) [48회] □	 ▲ 대각국사 의천(왕후) [65회] [64회] □	 ▲ 순천 송광사(지눌) [54회] □
 ▲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지눌) [51회] □	 ▲ 진각국사 혜심(의비) [66회] □	 ▲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 좌상(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63회] [61회] [50회] □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광주 춘궁리 철불] [60회] [57회] [50회] □
 ▲ 금동 관음보살 좌상 [63회] [60회] [52회] □	 ▲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 [67회] [64회] [56회] [55회] [50회] [47회] □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67회] [55회] [53회] [47회] □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 입상 [67회] [55회] [53회] [50회] [47회] □

 ▲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 입상 [55회] □	 ▲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 좌상 [53회] □	 ▲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 여래 좌상 [50회] □	
 ▲ 안동 봉정사 극락전 [65회] [57회] [52회] □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65회] [64회] [59회] [57회] [52회] □	 ▲ 예산 수덕사 대웅전 [65회] [64회] [57회] [52회] □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66회] [64회] [63회] [61회] [59회] [56회] [53회] □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가람 배치도 [52회] □		 ▲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51회] □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66회] □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66회] [56회] [53회] □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 [64회] □	 ▲ 수원관음도 [64회] [62회] [59회] □	 ▲ 나주 심향사(현종)(초조 대장경) [65회] □	

■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63회] □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불상으로 우리나라 소조 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그 가치가 높다. /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옷 주름의 형태 등을 통해 고려 시대 불상임을 알 수 있다.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광주 춘궁리 철불) [60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철불이다. 고려 초기 호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이어받았다. (보물 제332호)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47회] □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불상으로 '은진 미륵'이라고 불리기도 해.
- 불상에서 발견된 기록을 통해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고 인정받아 2018년에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어.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55회] □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눈, 코, 입 등을 크게 만들어 거대한 느낌을 주며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불상 측면에는 세조의 비 정희 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물 제93호)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52회] □

국보 제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로,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 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부석사 내 석등(국보 제17호), 조사당(국보 제19호)

■ 안동 봉정사 극락전 [57회] □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공민왕 때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는 상량문의 기록을 통해 건축 연대를 추정할 수 있지. /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이야.

■ 예산 수덕사 대웅전 [65회] □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이 건물은 맞배지붕에 주심포 양식입니다. 건물 보수 중 목서명이 발견되어 충렬왕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 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53회] □

이 탑은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 국립 중앙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 /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의 대리석 탑이야.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

주제 29 고려의 불교(불교 외)

1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

- [최충]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다. [62회] ☐
- ↳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다. [60회] ☐
- ↳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56회] ☐
- ↳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쓰다. [51회] ☐
- ↳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59회] ☐
- ↳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55회] ☐
- ↳ 지공거 출신으로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52회] ☐
- ↳ [9재 학당] 문헌공도라 불리기도 하였다. [67회] ☐
- ↳ 9재 학당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65회] ☐
- [최충] 철대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켰다. [66회] ☐
- [숙종]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56회] ☐
- ↳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53회] ☐
- ↳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어요. [63회] ☐
- [예종]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하였다. [62회] ☐
- ↳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55회] ☐
- ↳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어요. [63회] ☐
- ↳ [국자감] 전문 강좌인 7재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56회] ☐
- ↳ 전문 강좌인 7재를 운영하였다. [54회] ☐
- ↳ 전문 강좌인 7재가 운영되었다. [50회] ☐
- ↳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다. [48회] ☐
- ↳ 7재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되었다. [67회] ☐
- ↳ 7재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64회] ☐

1 고려 시대의 교육 [48회] ☐

■ 강좌 내용 ■

제1강 관학의 정비

- 개경에 국자감을 두다
-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다

제2강 사학의 융성

- 문헌공도가 설립되다
- 사학 12도가 번창하다

제3강 관학 진흥책

-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다

• [예종]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65회] [61회] □

↳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59회] [50회] □

↳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58회] □

↳ 양현고를 설치하여 장학 기금을 마련하였어요. [63회] □

↳ 양현고를 두어 장학 기금을 마련하였다. [57회] [49회] □

↳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양현고가 설립되었다. [67회] □

• [예종]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54회] □

↳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67회] □

■ 7재(국자감) [60회] □

7재를 두었는데, 주역을 공부하는 여택재, 상서를 공부하는 대빙재, 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 주례를 공부하는 구인재, 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 춘추를 공부하는 양정재, 무학을 공부하는 강예재이다.

■ 관학 진흥책 [63회] [57회] □

정부, 관학 진흥에 힘쓰다

최종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 학생이 몰려들어 사학이 크게 융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자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제술업, 명경업 등에 새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자감에 300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최종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하였던 시기에 위촉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

■ 국자감 입학 자격 공고(인종) [67회] □

1. 국자학생은 문·무관 3품 이상인 자의 아들과 손자 및 훈관 2품으로 현공 이상을 지닌 자의 아들, 아울러 경관 4품으로 3품 이상의 훈봉을 지닌 자의 아들로 한다.
2. 태학생은 문·무관 5품 이상인 자의 아들과 손자, 정·종 3품관의 증손자 및 훈관 3품 이상의 봉작이 있는 자의 아들로 한다.
3. 사문학생은 훈관 3품 이상으로서 봉작이 없는 자의 아들, 4품으로서 봉작이 있는 자 및 문·무관 7품 이상인 자의 아들로 한다.

• [국자감]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54회] □

• [안향]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함. [60회] □

• [이제현]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함. [60회] □

↳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52회] □

↳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67회] □

↳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성리학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66회] □

↳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다. [51회] □

↳[충선왕] 만권당이 설립되어 원과 고려의 학자가 교류하였다. [59회] □

↳[충선왕] 만권당을 설립하여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57회] □

↳[고려] 만권당을 세워 학문 교류를 장려하였다. [63회] □

↳만권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53회] □

↳만권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65회] □

↳만권당에서 책을 읽는 학자 [50회] □

■ 익재 이제현의 편지 [56회] □

그리운 벗에게

연경에 도착해 이제야 소식을 전하네. 예전에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 그리게 한 나의 초상을 기억하는가? 잃어버렸던 그 그림을 오늘 찾았다네. 그림을 보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네. 혼탁한 세상 편치만은 없지만 곧 개경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네.

영원한 벗, 익재

• [이색]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다. [62회] □

■ 목은 이색의 초상화 [62회] □

이 그림은 고려 말 삼은(三隱) 중 한 사람인 목은(牧隱)의 초상화이다. 이곡(李穀)의 아들인 이색은 고려와 원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문하시중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이 초상화는 당시의 관복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 [공민왕]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59회] □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58회] □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고려, 조선 시대]. [51회] □

• [김부식]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62회] □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64회] □

↳[인종] 삼국사기 편찬을 명령하였다. [67회] □

• [삼국사기]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58회] □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51회] □

• [삼국사기]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61회] □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51회] □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 [55회] □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함. [60회] □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54회] [50회] □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66회] □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54회] □

■ 삼국사기[진삼국사기표] [66회] [61회] □

•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삼국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우리의 옛 기록은 빠진 사실이 많아 후세에 교훈을 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뛰어난 역사서를 완성하여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史官)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진(晉)의 승(乘)과 초(楚)의 도올(樛杻)과 노(魯)의 춘추(春秋)는 모두 한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해동(海東)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어 편집하도록 하셨습니다. …… 신의 학술이 이처럼 부족하고 얕으며, 옛말과 지나간 일은 이처럼 아득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부어 겨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기에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 [동명왕편]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66회] [54회] [52회] □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67회] [52회] □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되었다. [59회] □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50회] □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58회] □

• [동국이상국집]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인 동명왕편이 실려 있다[이규보]. [47회] □

■ 동명왕편과 동국이상국집(이규보 문집) [58회] [47회] □

•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편 서사시로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다. 왕 탄생 이전의 역사, 출생과 건국, 유리왕의 즉위 과정과 저자 이규보의 감상이 적혀 있다. (동명왕편)

• 이 책은 이규보의 문집으로 전집 41권, 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가전체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어 그의 문학 세계와 역사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국이상국집)

• [각훈]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67회] [61회] □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63회] □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였다. [60회] [54회] □

[해동고승전]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59회] □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50회] □

- [일연]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51회] [48회] □
 - ↳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65회] □
- [삼국유사]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67회] [66회] [52회] □
 - ↳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 [55회] □
 - ↳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61회] □
 - ↳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58회] [54회] [51회] □
 - ↳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50회] □
 - ↳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었다. [59회] □
 - ↳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47회] □

■ 삼국유사 [61회] [50회] □

•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의로 가르침을 폈으니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러한 후에야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다.

• 삼국유사 범어사본, 국보로 승격

부산 범어사가 소장한 **삼국유사** 권4~5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범어사 소장본은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의 현존 판각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미 국보로 지정된 판각본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밝혔다.

■ 경북 군위 인각사 [59회] □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로 승려 일연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삼국유사**)

- [제왕운기]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되었다. [47회] □
 - ↳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 [55회] □

■ 제왕운기 [51회] □

이승휴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본조편년강목(민지)]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 [55회] □
- [이제현] 역옹패설과 사략을 저술하였다. [62회] □
 - ↳ [사략]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59회] □
 - ↳ 역사서인 사략을 저술하였다. [56회] □

2 도교, 풍수지리설, 토착 신앙의 발달

3 과학 기술의 발달

- [팔만대장경]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찍었다. [60회] □
 - ↳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되었다. [57회] □
 - ↳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 [51회] [49회] □
 - ↳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침을 막고자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48회] □
- [직지심체요절]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하였다. [60회] □
 - ↳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59회] □
 - ↳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51회] □
 - ↳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57회] □
 - ↳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하는 기술자 [50회] □
 - ↳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의 특징 [49회] □
 -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4회] □
-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64회] □

4 자기 공예와 문학의 발달, 기타

- 논산 개태사 철학의 제작 시기 [49회] □

■ 벨기에 소장 고려 문화유산 특별전 [62회] □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내에 들여와 보존 처리를 마친 벨기에 왕립 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고려**의 공예품 8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상감 청자 6점을 비롯하여 청동 정병, 금동 침통 등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연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진으로 보는 고려의 문화(불교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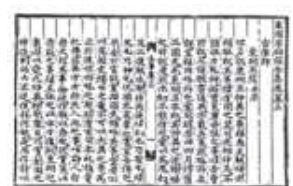
▲ 범어사본 삼국유사 [50회] □



▲ 경북 군위 인각사(일연) [59회] (사진 교체함)



▲ 동국이상국집(이규보) [47회] □



▲ 동명왕편(이규보) [58회] □

 ▲ 익재 이제현 캐리커처 [56회] ☐	 ▲ 목은 이색 초상화 [62회] ☐	 ▲ 팔만대장경 [60회] ☐	 ▲ 직지심체요절 [63회] [60회] ☐
 ▲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61회] [59회] [58회] [53회] [49회] ☐	 ▲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66회] [61회] [58회] [49회] ☐	 ▲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63회] ☐	 ▲ 청자 참외형 병 [53회] [49회] ☐
 ▲ 벨기에 소장 고려 공예품 [62회] ☐	 ▲ 나전 국화 녕쿨무늬 합 [62회] [61회] ☐	 ▲ 천산대렵도 [63회] ☐	 ▲ 밀양 박익 벽화묘(일부) [54회] ☐

■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58회]

흙으로 빛은 푸른 보물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려 시대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비색의 순청자와 음각한 부분에 백토나 흑토를 채워 화려하게 장식한 상감 청자가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나전 국화 녕쿨무늬 합 [61회]

이것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나전 합입니다. 고려에 온 송의 사신 서궁이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고려의 나전 칠기 기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 나전 합을 비롯해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제 30 조선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

1 조선의 건국과 초기의 정치

- 최영이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61회] □

L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54회] □

L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64회] □

L철령위 설치 문제로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60회] □

■ 명의 철령위 설치 통고와 고려의 반발 [67회] □

명 황제가 말하기를, “철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開元路)가 관할하던 군민(軍民)이 속하던 곳이니, 한인·여진인·달달인·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라.”라고 하였다. …… 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사냥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하였다.

*개원로(開元路): 원이 설치한 행정 구역

■ 우왕과 최영의 요동 정벌 [65회] [63회] [58회] □

- 이번엔 왕이 최영에게 명하여 요동을 정벌한다고 하네. / 명 황제가 철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의 영토로 귀속시키려 한 것이 원인이라더군.
-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의논하였다. …… 마침내 8도의 군사를 징발하고 최영이 동교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우왕) / 전하, 네 가지 이유로 불가하옵니다. (이성계)

- [이성계(태조)]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56회] □

L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65회] [47회] □

L[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5회] □

L[이성계]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였다. [51회] □

L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의 시행 [66회] □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63회] □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다. …… 이성계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 이방원의 정몽주 격살 [66회] □

#12. 이성계의 집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다.

이성계: 대신을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효로 소문났는데, 네가 감히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되었구나.

이방원: 정몽주 등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입니다.

-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하였다. [47회] □
- ↳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탐구 활동](경복궁). [50회] □
- ↳ 한양 천도를 위한 궁궐 조성(신도궁궐조성도감 설치)[1394년] [58회] □
- [경복궁]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60회] □
- ↳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64회] □

■ 조선의 법궁, 경복궁 [58회] [48회] □

-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도감을 설치하고 심덕부 등을 판사로 임명하여 궁궐을 조성하게 하시오. (태조)
- 이곳은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을 지닌 궁궐입니다. 궁궐 안에는 국왕의 정무 공간과 왕실의 생활 공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적 제117호)

- [정도전]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 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48회] □
- ↳ [조선경국전] 주례의 6전 체제를 참조하였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 [52회] □
- [정도전] 경제문감을 저술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다. [51회] □
- [정도전]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67회] [56회] [52회] [51회] □
- ↳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함. [60회] □

■ 정도전의 불씨잡변 [57회] [48회] □

- 저 불씨(佛氏)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는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부처에게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열 가지의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면 화를 면하게 되고, 아무리 도가 높은 선비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할 것이다.
- 선유(先儒)가 불씨(佛氏)의 지옥설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 불법(佛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 소위 시왕(十王)*이란 것을 본 자가 없단 말인가? 그 지옥이란 없기도 하거니와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하였다.

*시왕(十王):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열 명의 대왕

- 『삼봉집』 -

- 정도전 등이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 [59회] □
- ↳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50회] □
- [정종]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60회] [47회] □
- ↳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본다[탐구 활동]. [65회] □

■ 제2차 왕자의 난 [57회] □

이것은 마천목을 좌명공신에 봉한다는 녹권입니다. 마천목은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회안공 이방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방원[태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이방원[태종]은 마천목을 3등 공신으로 책봉하였습니다.

- [정종]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66회] □
- [태종]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하였다. [62회] □
- [태종] 문하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52회] □
 - ↳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49회] □
 - ↳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65회] □

■ 신문고와 사간원 설치(태종) [59회] □

얼마 전에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 / 뿐만 아니라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키셨다네.

- [태종, 세조]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59회] □
 - ↳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57회] □
 - ↳ [태종]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계하자고 건의하였다. 지금까지는 겨를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으나, 이제 경들이 의논하도록 하라. [52회] □
 - ↳ [세조]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 판서 [56회] □

■ 육조 직계제 부활(세조) [51회] □

계유년엔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즉위한 왕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자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 이번 조치는 형조의 사형수 판결을 제외한 육조의 서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육조 직계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통교 [62회] □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광통교도 옛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 광통교에는 능에 썼던 석물들이 있어요.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태종이 태조의 계비인 신덕 왕후의 능을 이장하고, 이전 능에 있던 병풍석과 난간석 등 석물 일부를 다리 제작에 사용하게 한 것이에요.

- [세종]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66회] □
- [세종] 4군 6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하였다[영진군]. [62회] □
 - ↳ [영진군] 4군과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54회] □
 - ↳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55회] □
 - ↳ 국경 지역에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49회] □
 - ↳ 북방에 4군과 6진을 설치하였다. [56회] □
 - ↳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설치하였다. [65회] [63회] □
 - ↳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65회] □

- ↳ [김종서] 여진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하였다. [67회] ☐
- [성종]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58회] ☐
- ↳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65회] ☐
- [성종]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62회] [47회] ☐
- ↳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55회] [54회] [53회] ☐
- ↳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66회] ☐
- ↳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59회] ☐
- ↳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64회] [60회] [58회] ☐
- ↳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51회] ☐
- ↳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54회] ☐
- ↳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52회] ☐
- ↳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49회] ☐
- ↳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50회] ☐

■ 경국대전 [65회] ☐

경국대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 줄래? / 이·호·예·병·형·공전의 육전 체제로 구성되었어. / 경제육전과 수교, 조례 등에서 영구히 준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여 엮었대. /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하여 반포했지.

■ 2 통치 체제의 정비

- [의정부] 6조 직제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50회] ☐
- [호조] 고려의 삼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61회] ☐
- [사헌부, 사간원]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61회] ☐
- ↳ 5품 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49회] ☐
- ↳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55회] ☐
- ↳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58회] ☐
- ↳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51회] ☐
- ↳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48회] ☐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60회] [53회] ☐

■ 사헌부 [61회] [49회] □

• 조선 시대에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기구이다. 대사헌, 집의, 장령, 감찰 등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

건국 초기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설치하였다. …… 『경국대전』에는 “정사를 논평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허위를 금지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 『순암집』 -

• 이것은 악장가사에 실린 상대별곡(霜臺別曲)으로 '상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를 맡은 **사헌부**를 의미합니다. **사헌부**의 대사헌을 역임한 권근은 이 가사에서 관원들이 일을 끝내고 연회를 즐기는 장면 등을 흥미롭게 묘사하였습니다.

•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56회] □

↳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였다. [50회] □

■ 미원계회도(사간원) [56회] □

이 그림은 종종 때 그려진 미원계회도(薇垣契會圖)입니다. '미원'은 **사간원**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렸다. [62회] □

↳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63회] [59회] [56회] [54회] [48회] □

↳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로 불리었다. [58회] □

• [홍문관]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계승하였다. [49회] □

• [홍문관]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어. [54회] □

↳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였어. [54회] □

↳ 옥당, 옥서 등의 별칭이 있었어. [54회] □

↳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하였다. [64회] □

• [승정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62회] [56회] □

↳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60회] □

↳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54회] □

↳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불리었다. [61회] [55회] □

↳ 은대(銀臺)라고도 불렸다. [49회] □

↳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도 칭하였다. [59회] □

■ 은대조례(승정원) [62회] □

이 책은 1870년에 편찬된 은대조례입니다. 서문에서 흥선 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린 **승정원**의 업무 처리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니 앞으로 승지들의 사무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은대계회도(승정원) [60회] □

이것은 우부승지 이현보와 그가 속한 **승정원** 관원들의 친목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상단에는 계회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단에는 축하 시, 하단에는 도승지 등 계원의 관직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은대는 **승정원**의 별칭이며, 정원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 [의금부]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다. [62회] □

↳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벌하였다. [54회] □

↳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벌하였다. [60회] □

↳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렸다. [56회] □

↳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중죄인을 다스렸다. [59회] □

↳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 기구였다. [58회] □

■ 의금부 [58회] □

이 책에는 조선 시대에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중죄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조옥(詔獄)이라고도 불린 **의금부**는 강상죄·반역죄 등을 처벌하였으며 판사·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다. (**추안급국안**)

- [춘추관]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62회] □

↳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60회] [56회] □

- [한성부]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60회] □

↳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56회] [48회] □

↳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54회] □

- [사역원]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였다. [60회] □

↳ 한어(漢語), 왜어(倭語),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50회] □

- [관상감] 천문 연구, 기상 관측 등의 일을 맡았다. [62회] □

↳ 천문, 지리, 기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60회] □

- [집현전]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대[**세종**]. [60회] □

↳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 [57회] □

↳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47회] □

-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대[**세종**]. [65회] □

↳ 사가독서제를 시행하여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67회] □

- [성균관] 대사성을 수장으로 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63회] □

↳ 대사성을 중심으로 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55회] □

↳ 대사성 이하 좌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67회] □

↳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고려, 조선 시대]. [51회] □

↳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고려, 조선 시대] [66회] □

■ 조선 초의 지방 행정 조직(8도제) [64회] □

각 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라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로 하였으니, 평양·안주·영흥·길수가 계수관이기 때문이다.

• [관찰사]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58회] □

↳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64회] □

↳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50회] □

■ 관찰사 [50회] □

이 그림은 평양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를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벽루연회도입니다. **관찰사**는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도 불리었는데, 대개 종2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임명되었습니다.

• [수령]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51회] □

• [향리] 이방, 호방 등 6방에 소속되었다. [58회] □

↳ 단안(壇案)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었다. [58회] □

↳ 연조귀감에 연혁이 수록되었다. [58회] □

↳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58회] □

↳ [틀림]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58회] □

↳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50회] □

• [중앙의 고관[훈·척신]] 출신지의 경재소를 관장하고 유향소 품관을 감독하였다. [50회] □

• [유향소(향청)]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57회] □

↳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51회] □

↳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67회] □

↳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 [47회] □

■ 유향소(향청) [67회] [57회] [51회] □

-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재소라고 합니다. 경재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유향소에 두고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였습니다.
- 유향소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말은 바를 중시 여긴 것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니,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 그 지역의 기강을 맡도록 하여 수령의 눈과 귀로 삼았다.
- 교활한 아전이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이 듣고 보는 것으로써 다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경재소와 지방의 유향소가 서로 들은 대로 규찰하여 교활한 아전을 억제시키고 향촌의 풍속을 유지시킨다면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종실록』 -

- 우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고려 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한 향리가 저절로 없어서 5백 년간 풍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시애의 난* 이후 유향소가 혁파되자 간악한 향리들이 불의를 자행하여서 건국한 지 1백 년도 못 되어 풍속이 쇠퇴해졌습니다. …… 청컨대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여 향풍(鄉風)을 규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

- [세조] 진관 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49회] □
- [잡색군]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였다. [62회] □

↳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였다. [48회] □

- [한양 도성]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하였다. [62회] □

↳ 도성조축도감이 축조를 관장하였다. [62회] □

↳ 조선 시대 축성 기술의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62회] □

↳ 일제 강점기 도시 정비 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 [62회] □

■ 한양 도성 [62회] □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습니다. 총 둘레는 약 18km로 4대문과 4소문 및 암문, 수문, 여장, 옹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조선의 과거제]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뉘었다. [62회]

□

↳ [기술관]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58회] □

◆ 사진으로 보는 조선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

 ▲ 조선의 법궁, 경복궁 [48회] ☐	 ▲ 조선의 법궁, 경복궁 안내도 [48회] ☐	 ▲ 광통교(태종) [62회] ☐	 ▲ 마천목 공신 녹권(태종) [57회] ☐
 ▲ 삼봉 정도전 캐리커처 [52회] ☐		 ▲ 상대별곡(악장가사)(사헌부) [49회] ☐	 ▲ 미원계회도(사간원) [56회] ☐
 ▲ 은대조례(승정원) [62회] ☐	 ▲ 은대계회도(승정원) [60회] ☐	 ▲ 추안급국안(의금부) [58회] ☐	 ▲ 부벽루연회도(관찰사) [50회] ☐
 ▲ 한양 도성 [62회] ☐			

주제 31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1 명과의 관계

- 하정사, 성절사 등을 파견하였다. [58회] □
 - ↳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등 사절단을 보내었다. [55회] □
 - ↳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53회] □

■ 의순관영조도 [50회] □

명 사신이 만력제(신종)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있던 의순관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렸다. 조선의 관리들이 예를 갖추어 의순관 앞에서 사신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2 여진과의 관계

-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62회] □
 - ↳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58회] □
- [세종] 사절 왕래를 위해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58회] □
- [세종] 최윤덕이 4군을 개척하였다. [60회] □
- [세종]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67회] [61회] □
- [세종] 김종서를 보내 6진을 개척하였다. [58회] □
 - ↳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51회] □

3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 [일본]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태종]. [59회] [58회] [55회] [50회] □
 - ↳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56회] □
 - ↳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였다. [63회] □
- [삼포(3포) 개항] 일본과 교역을 위해 부산포, 염포, 제포를 개항하였다[세종]. [61회] □
 - ↳ 부산포, 제포, 염포의 삼포를 개항하였다. [58회] □
 - ↳ 염포의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53회] [52회] [50회] [47회] □
- [세종]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61회] □
 - ↳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51회] □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규정한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63회] □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하였어요. [56회] □

└계해약조를 맺어 일본과의 무역을 규정하였다. [55회] □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하였다. [65회] □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47회] □

└계해약조의 초안을 작성하는 관리 [53회] □

└계해약조의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 [52회] □

• [이에] 일본에 파견되어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하다. [64회] □

■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에 [58회] □

■ 생몰: 1373년~1445년

■ 경력: 통신부사, 첨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

울산의 아전 출신으로 호는 학파(鶴坡),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수십 차례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세건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하였다.

•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62회] [59회] □

└[이종무]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67회] □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66회] □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47회] □

└[세종]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57회] □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64회] □

■ 이종무의 쓰시마섬[대마도] 정벌 [65회] □

좌의정 박은이 상왕(上王)에게 아뢰기를, “이제 왜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곧 이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대마도에 나가 적이 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아서 치게 되면 적을 파함에 틀림없을 것이니, 진멸(殄滅)시킬 기회를 잃지 마소서.”라고 하니, 상왕이 옳게 여겼다.

• [중종]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56회] □

└삼포에서 왜인들이 난을 일으키다. [64회] □

• [중종]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62회] [50회] □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신설하였다. [65회] □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56회] □

└외침의 침입에 대응하여 임시 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48회] □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53회] □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55회] □

[비변사]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55회] □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54회] □

■ 비변사 설치 [59회] □

1. 개요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 양 난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

2. 관련 사료

중외(中外)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議政)이 겸하고, 제조는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 이·호·예·병·형조 판서, 양국 대장, 양도 유수, 대제학은 당연히 겸직한다.

- 『속대전』 -

◆ 사진으로 보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에 [58회] □	 ▲ 의순관영조도(의주)(선조) [50회] □		
---	---	--	--

주제 32 사람의 성장과 봉당의 형성

1 훈구와 사람의 형성

- 계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57회] □
-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55회] □
 - ↳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65회] □
 - ↳ 수양 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탐구 활동]. [53회] □
 - ↳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48회] □

■ 절재[충익공] 김종서 [67회] □

- 생몰: 1383년~1453년
- 호: 절재(節齋)
- 생애
 - 태종 5년 문과에 급제함
 - 세종 17년 함길도 병마도절제사에 임명됨
 - 문종 2년 고려사절요를 찬술함
 - 단종 1년 계유정난 때 살해됨

■ 계유정난 [59회] □

이 작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한 김종서가 지은 시조로, 장수로서의 호방한 기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 한명회 등이 주도한 **계유정난**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작품은 나모 굿티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춘디
만리변성에 일장검 집고 서서
긴 푸람 큰 훈 소리에 거칠 거시 업세라

- [단종 복위 운동]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다. [61회] □
 - ↳ [세조]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60회] [59회] [47회] □
 - ↳ 상왕의 복위를 목적으로 성삼문 등이 일으켰다. [49회] □
- [세조]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55회] □

■ 단종 복위 운동 [65회] [59회] □

- 교지를 내려 이르기, “전날 성삼문 등이 상왕(上王)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왕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얼마 전 노산군이 이곳 영월에 유배를 왔다고 하네. / 성삼문 등이 주도한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보내졌다 더군.

- [세조] 이시애가 길수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55회] □
 - ↳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 [65회] □
 - ↳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였다. [49회] □
- [성종] 김종직 등 사람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62회] □

2 사회의 발생

- [무오사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61회] [52회] □

↳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54회] □

↳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종직 등이 화를 입다. [64회] □

↳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연산군]. [51회] □

↳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57회] □

- [김종직]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60회] □

↳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어. [50회] □

↳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미가 되었다. [49회] □

■ 무오사화 [66회] [63회] [59회] [57회] [48회] [47회] □

• 유자광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자 한 권을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의제문을 지적하여 여러 추관(推官)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주석을 달아 왕에게 아뢰었다.

• 유자광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감히 이와 같은 부도한 말을 했으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 정문형, 한치례 등이 아뢰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와 백성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정문형 등의 의견을 따랐다.

• 정문형, 한치례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들과 백성들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미천한 선비였는데, 선왕께서 발탁하여 경연에 두었으니 은혜와 총애가 더없이 컸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 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싣고서 그 글을 찬양하였으니, 형명(刑名)을 의논하여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 김종직의 자는 계온이고 호는 점필재이며, 김숙자의 아들로 선산 사람이다. 효행이 있고 문장이 고결하여 당시 유학자의 으뜸으로 추앙받았는데, 후학들에게 학문을 장려하여 많은 사람이 학문을 성취하였다. 후학 중에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효인 등은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 밖에도 명성을 얻은 이가 매우 많았다.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어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 [갑자사화]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62회] [52회] □

↳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65회] □

↳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발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66회] [59회] □

■ 갑자사화 [61회] [54회] [48회] □

-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를 모두 대역죄로 추죄(追罪)하여 팔촌까지 연좌시켰다.
- 윤필상, 유순 등이 폐비(廢妃)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며,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시호만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였다. ……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폐비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 등을 승정원일기에서 조사하여 아뢰라.”라고 하였다.
- 향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향과 봉을 불러 엄씨,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라고 하였다. …… 왕은 대비에게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라고 하며 불손한 말을 많이 하였다.

- [중종반정] 성희안 일파가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었다. [61회] □

↳ 반정(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하다. [64회] □

↳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다. [47회] □

■ 중종반정 [59회] □

박원종 등이 결문 밖에 진군하여 대비(大妃)에게 아뢰기를, “지금 임금이 도리를 잃어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종사는 위태롭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 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고자 하오니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 중종 대의 사실 [55회] □

5년 4월: 제포·부산포·염포에서 왜인이 난동을 일으키다. (삼포왜란)
13년 9월: 정광필 등의 건의에 따라 소격서 혁파를 전교하다.
14년 10월: 대사헌 등이 정국공신의 훈적 삭제에 대해 아뢰다.

- 중종 때 사림과 연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해 본대[탐구 활동]. [62회] □

- [소격서]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대[조광조]. [58회] □

↳ 조광조 일파의 건의로 폐지되었다. [67회] □

↳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51회] □

- [조광조]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제안함. [60회] □

- [중종]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64회] [54회] □

↳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55회] □

↳ 현량과를 통해 신진 사림이 등용되었다. [47회] □

■ 현량과 실시 제안 [62회] [56회] □

- 조광조가 아뢰기를,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대궐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량과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 [조광조]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67회] [57회] □

↳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하였다. [62회] □

■ 조광조의 위훈 삭제 주장 [56회] [52회] [47회] □

- 정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대사헌 등이 아뢰기를, “정국공신은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廢主)의 총신(寵臣)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 조광조가 아뢰기를, “정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 사람은 다 부귀를 피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익의 근원이 크게 열렸으니, 이때에 그 근원을 분명히 끊지 않으면 누구인들 부귀를 피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속히 고치지 않으면 뒤에는 개정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종]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사되었다[기묘사화]. [60회] □

↳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59회] □

↳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다. [64회] □

↳ [기묘사화]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49회] □

■ 기묘사화 [66회] [61회] [49회] [48회] □

-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조광조, 김정 등은 서로 사귀어 무리를 이루고 자기 편은 천거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배척하면서, 위세를 높여 서로 의지하며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하였다. …… 이 모든 일들을 조사하여 밝혀라.”라고 하였다.
-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 후진을 유인하여 꾀격(詭激)이 버릇되게 하고, 일을 의논할 때에도 조그만 이익을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하여 꺾어서 따르게 하였다. …… 조광조·김정 등을 원방(遠方)에 안치하라.”라고 하였다.
- *꾀격(詭激): 언행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
- 이것은 능주 목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 선생 적려 유허비입니다. 정암 선생은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다가 기묘사화로 능주에 유배되었습니다.
- 언문으로 쓴 밑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자고 청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더니 …… 경들은 먼저 그를 없애 뒤엔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 [명종]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62회] □

↳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47회] □

↳ [을사사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61회] [52회] □

↳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66회] □

↳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7회] [49회] □

L윤임 일파가 축출되는 과정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65회] □

■ 을사사화 [54회] [48회] □

- 이덕응이 진술하였다. “윤임과는 항상 대운, 소운이라는 말 때문에 화가 미칠까 우려하여 서로 경계하였을 뿐이었고, 모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 윤임이 신에게 ‘주상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만약 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윤원로가 뜻을 얻게 되면 우리 집안은 멸족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윤임 사위 이덕응의 거짓 자백)
 -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대신들 사이에는 대운이니 소운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 자전(慈殿)*은 밑지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임백령 등이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 냈다.
-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

• [명종]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1547년](정미사화). [57회] □

L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63회] [55회] □

L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47회] □

■ 양재역 벽서 사건(정미사화) [62회] □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 임금께 올리세. /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 벽에 이런 참담한 내용을 써 붙이다니 당장 고하러 가세나.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증추월 그믐날

■ 조선 명종의 정치 [65회] □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후(母后)가 수렴청정을 하고, 사람 간에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妖僧)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으나 모두 왕의 뜻은 아니었다. ……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달프고 도적이 성행하여 국내의 재력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왕이 비록 성덕(盛德)을 품었어도 끝내 하나도 펴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그러다가 문정 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자 ……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을 풀어 주고 먼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모두 내지로 옮겼다.

3 봉당의 출현

• [선조]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62회] [47회] □

L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55회] □

L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60회] □

■ 김효원 세력(동인)과 심의겸 세력(서인)의 대립 [63회] [52회] □

-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봉당이 나뉘어 대립하였다.
- 처음에 심의겸이 외척으로 권세를 부리니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섬겨 따랐다. 그런데 김효원이 전랑(銓郎)이 되어 그들을 배척하자 심의겸의 무리가 그를 미워하니, 점차 사람이 나뉘어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66회] [57회] [54회] ☐
- ↳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다. [64회] ☐
- ↳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58회] ☐
- ↳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49회] ☐
- ↳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51회] ☐
- ↳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분석한다[탐구 활동]. [53회] ☐
- ↳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55회] ☐

■ 정여립 모반 사건 [55회] ☐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을 토벌하기 위하여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진안 죽도에 숨어 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 [세자 책봉 문제(건저의 문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57회] ☐

◆ 사진으로 보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 정암 선생 적려 유허비
(전남 화순 능주) [49회]
☐



▲ 고려사절요 [67회] ☐

주제 33 조선 전기의 경제

1 토지 제도의 변화

- [과전법]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고려 공양왕]. [60회] ☐
- [공양왕]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58회] ☐
 - ↳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49회] ☐
 - ↳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여 토지를 개혁하였다. [47회] ☐
 - ↳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60회] ☐
 - ↳ [틀림]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수조권만 분급]. [60회] ☐
 - ↳ [공양왕]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59회] ☐
 - ↳ 관리가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48회] ☐
 - ↳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64회] ☐
 - ↳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 [52회] ☐

■ 과전법 [63회] [60회] ☐

-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1품부터 9품의 산직까지 나누어 18과로 하였다.
-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여야 한다. 무릇 수도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는 자는 현직, 산직(散職)을 불문하고 각각 과(科)에 따라 받게 한다.

- [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61회] ☐
 -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55회] ☐
 -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63회] ☐
 -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51회] ☐
 - ↳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59회] ☐
 -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53회] ☐
 - ↳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49회] ☐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였다. [57회] □

- [직전법] 수신전, 휴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54회] □

세조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 휴양전을 폐지하였다. [52회] □

수신전과 휴양전을 폐지하였다. [65회] [47회] □

■ 직전법 [56회] [53회] □

•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 / 이제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을 지급 받게 되겠군.

• #3. 궁궐 안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성종: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 / 김유: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양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 [성종] 관수 관급제가 시행되었다. [62회] □

■ 관수 관급제 [47회] □

직전(職田)의 폐단으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더군. /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이 문제였지. / 그래서 소재지의 관청에서 그 해 생산량을 조사하여 전세를 거둔 후 지급하기로 했다네.

- [녹봉제]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명종]. [53회] □

2 수취 제도의 정비와 문란

- [세종] 연분9등법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가 정비되었다. [58회] □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65회] [57회] □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54회] □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47회] □

- [세종] 전제상정소가 설치되고 전분6등법을 제정하였다. [52회]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거두었다. [50회] □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49회] □

■ 세종의 공법 윤택 [55회] □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택하셨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전품을 6등급으로,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왕께서는 법안을 논의할 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명하셨고, 전제상정소에서 이를 참조하여 마련 하였습니다.

3 조선 전기의 산업

주제 34 조선 전기의 사회

1 조선의 신분 제도

- [서얼 금고법] 서얼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경국대전](#)]. [55회] ☐
- [양인] 조선 시대에 봉수,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신량역전](#)]. [58회] ☐

2 향촌 사회의 운영

- [서원]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 [57회] ☐
 - ↳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 [67회] ☐
 - ↳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54회] ☐
 - ↳ 선현의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56회] ☐
 - ↳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47회] ☐
- 서원을 세워 후진 양성과 선현 제향에 힘썼다. [57회] ☐
- [주세붕]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64회] [52회] ☐
 - ↳ 백운동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 [61회] ☐
-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어요. [63회] ☐
 - ↳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다. [48회] ☐

■ 조선의 교육 기관, [서원](#)을 찾아서 [56회] ☐

중종 38년(1543)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하였다.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 흥선 대 원군에 의해 정리되어 47곳이 남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향약]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64회] ☐
- [이항]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안 향약을 시행하였다. [62회] ☐
 - ↳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56회] [52회] ☐
- [이이]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함. [60회] ☐

■ [향약](#) [64회] ☐

1. 처음 [향약](#)을 정할 때 약문(約文)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 약계(約契)에 참례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 놓고 약법(約契)에 참례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 서원에 모아 놓고 약법(約法)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도약정(都約正), 부약정 및 직월(直月)·사화(司貨)를 선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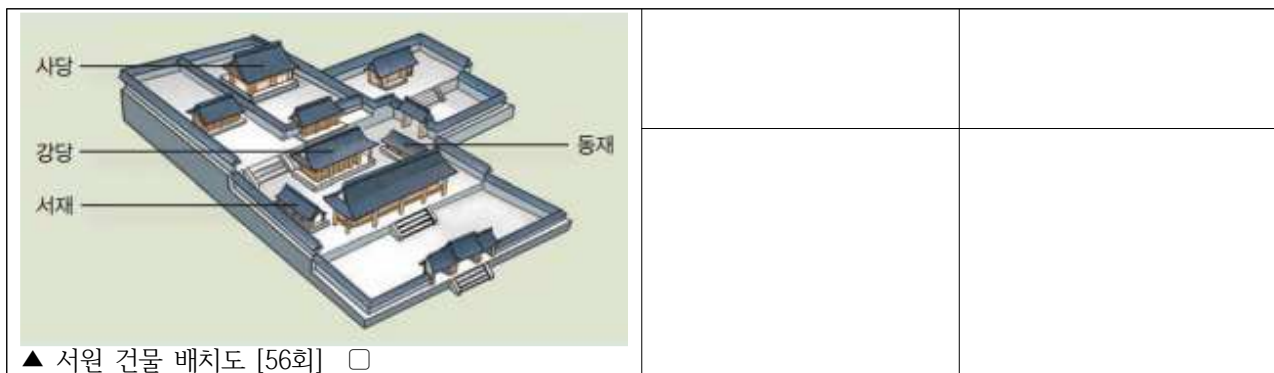
1. 물건으로 부조할 때는 약원이 사망하였다면 초상 치를 때 사화가 약정에게 고하여 삼배 세 필을 보내고, 같은 약원들은 각각 쌀 다섯되와 빈 거적매기 세 닢씩 내어서 상을 치르는 것을 돕는다.

- [임꺽정의 난] 윤원형 일파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61회] [59회] ☐
- ↳ [명종]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 [56회] ☐

3 사회 정책

-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서를 두었다. [58회] ☐

◆ 사진으로 보는 조선 전기의 사회



주제 35 조선 전기의 문화

1 훈민정음 창제

-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집현전 학자 [53회] □
-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을 파악한다[여주 영릉(세종 대왕릉)]. [50회] □

2 조선 전기의 교육

- [성균관]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하였다. [60회] □
- [성균관]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56회] □
 - ↳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54회] □
 - ↳ 생원이나 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50회] □
 - ↳ 소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47회] □

■ 성균관 [60회] [50회] □

- 입학생은 생원·진사인 상재생과 유학(幼學) 중에서 선발된 기재생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동재와 서재에 기숙하면서 공부하였으며, 아침·저녁 식당에 들어가 서명하면 원점 1점을 얻었다. 원점 300점을 얻으면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 이 그림은 효명 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의식을 그린 『왕세자입학도첩』 중 「입학도」이다. 효명 세자는 이날 궁을 나와 성균관에 도착하여 먼저 대성전의 공자 신위에 술을 올린 후, 명륜당에 가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 [성균관, 향교] 대성전을 세워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 [57회] □
 - ↳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두었다. [67회]
 - ↳ 명륜당과 대성전의 기능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65회] □
- 중등 교육 기관으로 4부 학당을 설립하였어요. [63회] □
- [향교]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60회] [50회] □
 - ↳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67회] □
 - ↳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56회] □
- [향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57회] □
 - ↳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57회] [56회] □

중양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47회] □

중양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51회] [50회] □

중양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67회] □

중양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54회] □

중양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64회] □

■ 향교 [54회] [47회] □

-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 시대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입니다. 대부분 지방 관아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제향 공간인 대성전, 강학 공간인 명륜당,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조선 시대에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교육 기관이다. 대부분 관아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대성전 중심의 제사 공간과 명륜당 중심의 강학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입학 정원은 고을의 위상과 크기에 따라 달랐으며, 학생들은 소학과 사서오경을 주로 배웠다.

• [중종] 아동용 윤리 역사 교재인 동몽선습이 간행되었다[박세무]. [58회] □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 학생 [56회] □

■ 퇴계 이황 [60회] □

- 1501년 경상도 예안현 출생
- 1534년 문과 급제
- 1552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
- 1561년 도산 서당 설립 및 제자 양성
- 1570년 별세

3 성리학의 발달

• [이황]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60회] □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57회] □

■ 이황의 이기호발설 [57회] □

[성학십도]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중에서 하도(下圖)는 이(理)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예를 들면 사단(四端)의 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의 발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려진 연후에야 선하지 않게 됩니다.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만약 기가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지 않으면 그 이를 멸하게 되어 악이 됩니다.

• [이황]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48회] □

성학십도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54회] □

성학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다. [51회] □

■ 성학십도 [52회] □

이 자료는 **이황**이 지어 왕[**선조**]에게 바친 성학십도의 일부입니다. 그는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군주가 스스로 인격과 학문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이]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학집요가 집필되었다. [58회] □

└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집필하였다. [63회] □

- [이이] 동호문답에서 수취 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57회] □

└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51회] □

■ **율곡 이이** [63회] [51회] □

- 해주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에 힘썼던 이 인물에 대해 말해 보자. / 동호문답에서 수취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어. / 격몽요결을 저술하여 체계적인 성리학 교육에 힘썼어.
- 이곳 파주 자운 서원에는 **이이**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집필하여 임금에게 바쳤으며, 해주 향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4 편찬 사업

- [조선왕조실록]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62회] □

└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51회] □

└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66회] □

└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61회] □

└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 [55회] □

└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58회] □

└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54회] [50회] □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되었다[고려사절요 포함]. [62회] □

└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47회] □

- [고려사]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67회] □

- [고려사] 세가, 열전, 지,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되었다[문종]. [52회] □

└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51회] □

■ **고려사** [67회] [52회] □

- 대개 이미 지나간 나라의 흥망은 장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고, 대의(大義)는 모두 왕께 아뢰어 재가를 얻었습니다. 본기(本紀)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世家)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가짜 왕인 신씨들[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린 것은 그들이 왕위를 도둑질한 사실을 엄히 논죄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재청은 **고려사**를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하였다.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자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 이 책은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 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문종 대에 완성되었다. 정인지 등이 쓴 서문에서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범례를 본받아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동국정운** [64회] □

-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집현전 학사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국어 연구 자료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 [승정원일기] 국왕의 비서 기관에서 작성하였다. [51회] □

■ 승정원일기 [51회] □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 행정 사무, 의례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이다. 편년체로 기록되었으며, 승지가 이를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최종 완성되었다.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국보 제303호],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연도는 2001년]

- [동국통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하였다[성종]. [61회] □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67회] □

↳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52회] □

- [동국통감]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조선 후기 안정복의 『동사강목』도 해당]. [66회] □

■ 동국통감 [61회] □

삼국 삼국 이후의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범례는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자치통감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것은 줄이고 요령만 남겨두도록 힘썼습니다. 삼국이 서로 대치한 때는 삼국기라고 하였고, 신라가 통합한 시대는 신라기라고 하였으며, 고려 시대는 고려기라 하였고, 삼한 이전은 외기라고 하였습니다.

- [의궤]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되었다. [62회] □

↳ 병인양요 당시 일부가 프랑스군에게 약탈되었다. [62회] □

■ 의궤 [62회] □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 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 왕후의 혼례식 행렬을 1,100여 점의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인 의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태종]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62회] □

↳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만들어졌다. [49회] □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과정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9회] □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이다. [54회] □

- [세종] 유교 윤리의 보급을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62회] □

↳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58회] □

↳ 충신, 효자, 열녀를 알리기 위해 간행되었다. [54회] □

↳ 삼강행실도를 읽고 있는 양반 [61회] □

- [성종]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완성하였다. [63회] □

■ 신숙주 [62회] □

- 생몰: 1417년~1475년
- 호: 희헌당(希賢堂), 보한재(保閑齋)
- 생애
 -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함.
 -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훈됨.
 - 세조 때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을 주도함.
 - 예종 즉위 후 한명회 등과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논의함.

ㄹ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64회] [58회] □

ㄹ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55회] □

ㄹ 국조오례의를 통해 본 조선의 의례[예악 정비 사업] [54회] □

■ 국조오례의 [60회] □

세종 대왕께서는 집현전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오례의를 상세히 정하게 하셨다. …… 예종 대왕과 우리 주상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이 방대한 책을 완성하게 하셨다. …… 예(禮)를 기술한 것은 3,300가지나 되지만. 그 요점은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 다섯 가지일 뿐이다. (성종)

• [신숙주]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62회] □

ㄹ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56회] □

ㄹ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60회] [52회] [48회] □

ㄹ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64회] □

ㄹ 해동제국기의 작성 목적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9회] □

• [성종]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61회] □

ㄹ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52회] □

■ 동국여지승람 [64회] [49회] □

• 동국여지승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 줄래? / 노사신, 양성지 등이 팔도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한 지리지야. / 각 지역의 지도와 지리, 풍속 등을 총 50권에 수록하였고, 이후 증보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편찬되었어.

• 무술년 봄에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바치고, 서거정 등이 동문선을 바쳤더니, 전하께서 드디어 노사신, 양성지, 서거정 등에게 명하여 시문을 팔도지리지에 넣게 하셨습니다. …… 연혁을 앞에 둔 것은 한 고을의 흥함과 망함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 경도(京都)의 첫머리에 팔도총도를 기록하고, 각 도의 앞에 도별 지도를 붙여서 양경(兩京) 8도로 50권을 편찬하여 바치나이다.

• [성종]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58회] [49회] □

ㄹ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되었다. [55회] □

ㄹ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66회] [57회] □

ㄹ 악학궤범을 바탕으로 재현한 처용무[예악 정비 사업] [54회] □

ㄹ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56회] □

■ 악학궤범 편찬 [61회] □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악원에 소장된 의궤와 악보를 새로이 교감하여 악학궤범을 완성하였습니다. / 예조 판서 성현을 비롯하여 편찬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도록 하라.

■ 관현맹(管絃盲) 공연, 경복궁에서 재현 [62회] □

조선 시대 관현맹의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 관현맹은 궁중 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세종** 때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종**이 작곡한 여민락(與民樂)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

- [조선방역지도] **[해설]** 전국 8도의 주현과 수영 및 병영을 표시하였다[명종]. [52회] □

5 과학 기술의 발달

- [세종]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55회] □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54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53회] □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66회] [63회] □

└[농사직설] 정초, 변효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 [50회] □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 [65회] [61회] □

└농사직설을 읽고 있는 지방관 [47회] □

■ 농사직설 편찬 [58회] □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기를, 주현의 나이든 농부들을 방문하여 농사지은 경험을 아뢰게 하시고 또 신(臣) 정초에게 그 까닭을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을 버리고, 요약한 것만 뽑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습니다.

- [금양잡록] 강희맹이 손수 농사를 지은 경험과 견문을 종합하여 서술 [50회] □

- [세종]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양부일구 [53회] □

- [장영실]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했어. [50회] □

└자동 시보 장치를 갖춘 자격루를 제작하였다. [52회] □

■ 과학자 장영실 [54회] [47회] □

• 왕이 말하였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뛰어나 자격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만대에 이어 전할 만한 기물로 그 공이 작지 아니하니 호군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 황희가, “장영실에만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 장영실 님, 국왕의 명으로 이번에 시각을 스스로 알려주는 자격루를 제작하셨는데,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물받이 통에 물이 고이면 지렛대의 힘으로 굴러간 쇠구슬이 인형을 작동시켜 종, 북, 징을 울리게 하고 팻말로 시각을 알리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세종** 대)

- [세종]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간행되었다. [62회] □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59회] □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산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63회] □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이 제작되었다.[49회] □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 [53회] □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이 제작되었다. [61회] □

↳[이순지]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였습니다. [48회] □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는 학자 [47회] □

• [세종]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58회] □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간행되었어. [48회] □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 [53회] □

• [세종] 백과사전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59회] □

• [명종]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촬요가 간행되었다. [62회] □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황촬요를 간행하였다. [52회] □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58회] □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54회] □

↳구황촬요를 읽고 있는 지방관 [51회] □

↳구황촬요 [50회] □

• [태종]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61회] [54회] [51회] □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59회] □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63회] □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만드는 장인 [65회] □

↳주자소를 설치하여 인쇄하였다. [60회] □

•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계미자[태종]와 갑인자[세종] [53회] □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세종]. [52회] □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64회] □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제작하는 장인 [47회] □

■ 천문학자 이순지 [48회] □

• 생몰: ?~1465년

• 주요 활동

-세종 때 문과 급제

-갑인자 제작에 참여

-천문의상을 교정·제작

• 저서: 제가역상집, 교식추보법 등

■ 주자소 설치와 계미자 [49회] □

• 왕은 우리나라에 서적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글자 자형을 떠서 활자를 만드는 대로 인출(印出)하게 하였다. (태종)

• 왕이 시경·서경·좌전의 고주본(古註本)을 자본(字本)으로 삼아 이직 등에게 십만 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계미자이다. (태종)

■ 세종 대의 금속 활자, 경자자와 갑인자 [66회] □

이전에 주조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다. 이에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셨다. 그리하여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이를 경자자라고 하였다. 갑인년에 다시 『위선음즐(爲善陰鷟)』*의 글자 모양을 본떠 갑인자를 주조하니, 경자자에 비하여 조금 크고 활자 모양이 매우 좋았다.

- [자치통감(갑인자본)] 이전, 장영실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세종]. [60회] □
- [최해산]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하다. [61회] □
- ↳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신무기, 신기전과 화차 [53회] □

6 양반 문화의 발달

-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조선 전기]. [59회] □

■ 분청사기 [53회] □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야. /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거른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야. /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 백자 청화 죽문 각병 [49회] □

국보 제258호인 이 자기는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되었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 [안견] 안평 대군의 꿈을 소재로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63회] □
- ↳ [몽유도원도]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5회] □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59회] □
-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의 건립 목적. [49회] □

◆ 사진으로 보는 조선 전기의 문화



▲ 『왕세자입학도첩』 중 「입학도」(효명 세자)(성균관) [50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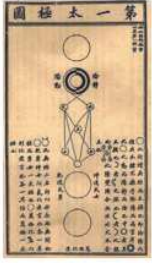
▲ 향교(경기도 수원시) [54회] □



▲ 향교 [47회] □



▲ 이황의 성학십도 [60회] □

 ▲ 성학십도(일부)(이항) [52회] ☐	 ▲ 파주 자운 서원(울곡이이) [51회] ☐	 ▲ 승정원일기 [51회] ☐	 ▲ 자치통감(갑인자본) [60회] ☐
 ▲ 보한재 신숙주(해동제국기) [62회] ☐	 ▲ 의궤(파리 한지 공예특별전) [62회] ☐	 ▲ 천상열차분야지도[천문] [56회] ☐	 ▲ 칠정산 내편[천문] [56회] ☐
 ▲ 혼천의[천문] [56회] ☐	 ▲ 장영실 캐리커처 [47회] ☐	 ▲ 천문학자, 이순지 [48회] ☐	 ▲ 관현맹 공연 [62회] ☐
 ▲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 병[분청사기 음각어문 편 병] [53회] [49회] ☐	 ▲ 분청사기 상감 운용문 향아리[호] [58회] ☐	 ▲ 백자 청화 매죽문 향아리[호] [58회] [53회] ☐	 ▲ 백자 청화 죽문 각병 [49회] ☐
 ▲ 몽유도원도(안견) [65회] [56회] [54회] [47회] ☐	 ▲ 고사관수도(강희안) [65회] [51회] ☐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 [57회] ☐	 ▲ 원각사 창건 계문(契文) [63회] ☐



▲ 동국정운 [64회] □

■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 [57회] □

- 세조 때 축조하였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대리석으로 만든 이 탑의 각 면에는 부처, 보살, 천인상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여 이들을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 원각사 창건 당시 작성된 계문(契文) [63회] □

원각사의 낙성을 축하하는 경찬회 때 **세조**가 조정 신하와 백성에게 수록재 참여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원각사 계문이 공개되었다. 조선의 임금과 왕실이 불교 행사를 직접 후원하였다는 기록이 희소하기에 의미가 있다.

한명회,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고 원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후원하였다.

주제 36 왜란과 호란(양 난의 극복)

1 왜란의 발발과 전개

-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64회] [55회] □

↳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67회] □

■ 동래성 전투 [63회] □

부사 송상현은 왜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과 군사 그리고 이웃 고을의 군사를 모두 불러 모아 성에 들어가 지켰다. …… 성이 포위당하자 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 전투를 독려했으나 한나절 만에 성이 함락되었다. 상현은 갑옷 위에 조복(朝服)*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 적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상현이 발로 걷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

*조복(朝服):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입던 예복

-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 [62회] □

↳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51회] □

↳ 신립이 탄금대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67회] □

■ 신립, 탄금대에서 패배 [55회] □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관군이 탄금대에서 적군에게 패배, 충주 방어에 실패하였다. 신립은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으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적군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신립은 종사관 김여물과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자 전장에서 순절하였다.

■ 오희문이 겪은 임진왜란 [60회] □

적군은 세 길로 나누어 곧장 한양으로 향했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 했다고 한다. 조정에서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신립과 이일 두 장수가 병권을 받고 내려와 방어했지만 중도에 패하여 조령의 험지를 잃고, 적이 중원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몽진하고 도성을 지키지 못하니, 불쌍한 백성들은 모두 흉적의 칼날에 죽어가고 노모와 처자식은 이리저리 흩어져 생사를 알지 못해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었다.

- 『쇄미록』 -

- 광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57회] □

↳ 광재우가 의병장이 되어 의령 등에서 활약하였다. [60회] □

↳ 광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65회] □

↳ 광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48회] □

- [옥포 해전] 옥포에서 26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어. [49회] □

•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61회] □

•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62회] □

↳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55회] □

↳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7회] □

↳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승리하였다. [54회] □

↳ [한산도 대첩] 견내랑에 머물던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학익진 전술을 펼쳐 물리쳤다. [49회] □

• 조현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54회] □

↳ 조현은 금산에서 7백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였습니다. [64회] □

■ 의병장 조현의 격문 [56회] □

조현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영남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그 기세가 산악을 진동하고 있다. 이 격문을 읽은 자들은 각자의 심력을 다하여라! 지혜를 가진 자는 계책을 내고, 용력을 가진 자는 역량을 발휘하라!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바치고, 힘을 가진 자는 대열에 참여하라! 만일 왜적을 치는 데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전란이 끝나는 날 그 죄를 성토하여 중형에 처하리라. (임진왜란)

•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66회] [61회] [47회] □

↳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하였다. [55회] □

■ 진주(성) 대첩(제1차) [65회] □

왜장이 군사 수만 명을 모두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성 안의 군사는 3천여 명이였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여러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 10여 일 동안 4~5차례 큰 전투를 벌이면서 안팎에서 힘껏 싸웠으므로 적이 먼저 도망하였다.

■ 김시민 공신 책봉 교서 [54회] □

이 자료는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그는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전라도의 곡창 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65회] [55회] [54회] □

↳ 며칠 전 우리 군사들이 명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번 승리는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1회] □

• 불랑기포를 활용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다. [61회] □

■ 조·명 연합군, 평양성 탈환 [67회] □

평안도 도체찰사 류성룡, 도원수 김명원이 이끄는 관군이 명 제독 이여송 부대에 합세하여 평양성을 되찾았다. 이번 전투에서 아군의 불랑기포를 비롯한 화포가 위력을 발휘하여 일본군은 크게 패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전투의 승리는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 불랑기포 [47회] □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랑기포는 [임진왜란](#) 당시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행주 대첩]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67회] [55회] [53회] □

↳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58회] □

↳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54회] □

■ 행주 대첩 [62회] □

권율이 정병 4천 명을 뽑아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는 책(柵)을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 적을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 탄환도 맞히지 못하는데 반해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여 쏘는 대로 적중시켰다. …… 적이 결국 패해 후퇴하였다.

- 『선조수정실록』 -

- [선조]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63회] [62회] [52회] [50회] □

↳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66회] [59회] [49회] □

↳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54회] □

↳ [훈련도감]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58회] □

↳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55회] □

↳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48회] □

↳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체제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조직하였다. [67회] □

↳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57회] [56회] □

↳ 훈련도감 설치 [47회] □

■ 훈련도감 [58회] [55회] □

• 전시된 그림은 **훈련도감**의 분영인 북일영과 활터의 풍경을 묘사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임진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로 편성된 **훈련도감**은 직업 군인의 성격을 띤 상비군이었습니다. (**북일영도**)

• 오늘은 5군영 중 가장 먼저 설치된 **훈련도감**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훈국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훈국등록에는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인 **훈련도감** 소속 군인들의 궁궐과 도성 수비, 국왕 호위, 훈련 상황 등 업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휴전 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62회] □

- [명량 대첩]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58회] [51회] □

↳ 10여 척의 배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어. [49회] □

- [이장손]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뢰를 발명하다. [61회] □

2 광해군의 정치

- [계축옥사] 영창 대군이 사사되고 인목 대비가 유폐되었다. [47회] □

■ 계축옥사 [51회] □

양사(兩司)가 합계하기를, “영창 대군 이의(李璣)를 왕으로 옹립하기로 했다는 설이 이미 역적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자복(自服)한 역적만도 한두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 왕법은 지극히 엄한 만큼 결코 용서해주기 어려우니 유사로 하여금 법대로 적용하여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 후금 정벌 [66회] □

4월 누르하치의 군대가 무순을 함락하고, 7월에는 청하를 함락하였다. 이에 명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군사 징발을 요구하였다. 명의 총독 왕가수의 군문(軍門)에서 약 4만의 병사를 요구하였으나, 경략(經略) 양호가 조선의 병사와 군마가 적다고 하여 마침내 그 수를 줄여서 총수(銃手) 1만 명만 징발하였다. 7월 조정에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았다.

- 『책중일록』 -

-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65회] [61회] □
 - ↳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64회] [49회] □
 - ↳ [사르후 전투]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57회] □

■ 강홍립의 투항 [53회] □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알아서 처분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광해군)

- [인조반정]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58회] □
 - ↳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62회] [59회] [51회] □
 - ↳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65회] [63회] □
 - ↳ [틀림] [광해군]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어요[연산군]. [58회] □

■ 인조반정 [52회] □

왕은 군사를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뒤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로 내쫓고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3 호란의 발발과 전개

- [정묘호란]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58회] □
 - ↳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47회] □
 - ↳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66회] [49회] □
 - ↳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53회] □

↳ [용골산성]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다. [62회] □

↳ 정봉수가 후금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60회] □

■ 용골산성 전투 [63회] □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적병이 두 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왔지만 정봉수는 홀로 고립된 성을 지키면서 충성과 용맹을 더욱 떨쳤습니다.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를 더 모집하여 육로로 혹은 배편으로 달려가서 기세(氣勢)를 돕게 하소서. 용골산성이 비록 포위에서 풀렸으나 이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 [병자호란]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61회] □

↳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60회] [54회] □

• [남한산성] 인조가 피신하여 청과 항전을 벌인 과정을 살펴본대[탐구 활동]. [50회] □

■ 남한산성 항전(인조) [61회] [58회] [52회] □

• 왕이 김상용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해 들어갔다. 김류, 이귀, 최명길, 김자점 등의 신하들이 모두 따라갔다.

• 최명길을 보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왕이 수구문(水構門)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변란이 창졸간에 일어났기에 도보로 따르는 신하도 있었고 성안 백성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초경을 지나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 이 책은 조선 시대 문신 어한명이 작성한 강도일기(江都日記)이다. 전란을 피해 봉림 대군과 인평 대군 등이 강화로 이동할 때 당시 경기좌도 수운판관이었던 저자가 왕실을 보호하여 강화 앞바다를 건너게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국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병자호란)

• [병자호란]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66회] [64회] [60회] [47회] □

• [병자호란]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65회] [57회] □

↳ 김준룡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48회] □

• 삼전도비가 건립된 계기를 찾아본대[탐구 활동]. [67회] □

■ 삼전도의 굴욕(삼궐구고두레) [53회] [52회] □

• 항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전도에 이미 쌓았으니, 내일 황제 폐하 앞에서 의식을 거행할 것이요.

•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 [57회] □

이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홍명구와 유림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피란해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왕병을 이끌고 김화에서 적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 [병자호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53회] □

■ 봉림 대군의 한글 편지 [49회] □

이것은 병자호란의 결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봉림 대군이 쓴 한글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척화론을 내세우다 끌려와 함께 있던 김상헌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 남한산성에서 삼학사의 충절을 만나다 [63회] □

현절사(顯節祠)는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충절을 기려 남한산성에 세운 사당이다. 그들은 **청**의 침입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화의를 반대하며 결사 항전을 주장하였다. 항복 이후 그들은 **청**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그들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던 김상헌, 정운도 추가로 이곳에 모셔졌다.

■ 소현 세자의 죽음 [48회] □

소현 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그런데 시신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 나왔다는군. / 이 전쟁에 패하여 청에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돌아오실 때도 건강하셨던 세자께서 어찌 두 달 만에 그리되셨는가? (**병자호란**)

■ 충렬록(김창협) [65회] □

이 책은 조선 후기 문인 김창협이 편찬한 『충렬록』이다. **병자호란**에서 충의를 지키고자 죽은 김상용 등에 관한 기록과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의 건립 경위를 담고 있다. 김상용은 세자빈과 봉림대군 등 왕실 사람들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왜란과 호란((양 난의 극복)

 ▲ 김시민 공신 책봉 교서 [54회] □	 ▲ 북일영도(훈련도감) [58회] □	 ▲ 훈국등록(훈련도감) [55회] □	 ▲ 평양성 탈환 [51회] □
 ▲ 불랑기포(임진왜란) [47회] □	 ▲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병장 [64회] □	 ▲ 임진왜란 관련 문화유산 [66회] □	
 ▲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병자호란) [57회] □	 ▲ 강도일기(어한명)(병자호란) [61회] □	 ▲ 현절사(삼학사)(1) [63회] □	 ▲ 현절사(삼학사)(2) [63회] □

 ▲ 충렬록(김창협)[병자호란] [65회] ☐	 ▲ 봉림 대군의 한글 편지 [49회] ☐		
--	--	--	--

■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화유산 [66회] ☐

- 동래부순절도: 동래 부사 송상현과 관민의 항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 금산 칠백의총: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 7백여 명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 징비록: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이 전쟁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제 37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1 정치·군사 제도의 변화

- [비변사]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61회] □
 - ↳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49회] □
 - ↳ [비변사등록] 비국 등록이라고도 불렸다. [51회] □
- [어영청]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인조]. [55회] □
- [인조] 총융청과 수어청을 창설하여 도성을 방어하였다. [52회] □
 - ↳ 도성을 방비하기 위하여 총융청을 설치하였다. [50회] □
 - ↳ 이괄의 난 이후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 총융청을 설치하였다. [67회] □
- [숙종]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58회] [51회] □
 - ↳ 수도 방위를 위해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64회] □
 - ↳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67회] □

2 수취 제도의 개편

- [인조]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66회] [58회] [55회] [50회] □
 - ↳ [영정법] 1결당 쌀 4~6두로 납부액을 고정하였다. [49회] □
 - ↳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53회] □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62회] □
 -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47회] □
- [광해군]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66회] □
- [광해군]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63회] [59회] □
 - ↳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48회] □
 - ↳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61회] □

■ 대동법 최초 시행 [65회] □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 맨 먼저 경기도 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니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게 여겼다.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 방납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

- [김육]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다[효종]. [52회] □

↳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다. [67회] □

- [대동법] 특산물 대신 쌀,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49회] □
- [대동법]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부과하였다[대동미]. [47회] □
- [숙종]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하였어요. [51회] □

■ 대동법 확대 시행 [57회] [49회] □

- [공납의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베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줄 것입니다. (농민) / 하지만 대동법이 시행되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양반 지주)
-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충청도에 먼저 시행하시오.

- 균역법이 시행되는 배경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67회] □
- [영조]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61회] [53회] □
- ↳ 균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56회] □
- ↳ 농민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51회] □
- ↳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50회] □
- [균역법]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57회] □
- ↳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였다. [47회] □
- [균역법]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57회] □
- [균역법]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54회] □
- ↳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49회] □

■ 균역법 시행 [66회] [55회] [54회] [52회] [47회] □

- 국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 왕은 늘 양역의 폐단을 염려하여 군포 한 필을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각 도의 어염·은결의 세를 걷어 보충하니, 그 은택을 입은 백성들은 서로 기뻐하였다. 이런 시책으로 화기(和氣)를 끌어올려 대명(大命)을 이을 만하였다.
-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경들은 1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영조)
-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 친경(親耕)과 친참(親蠶)을 거행하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의입니다. 그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민생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균역사실』: 균역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균역청의 운영 등을 담은 책

■ 군정의 문란 [58회] □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탄(軍丁歎)’입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항구첨정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영조는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균역법).

남편은 세상을 떴으나
 뱃속에 아기가 있었지요.
 :
 포대기로 짠 갓난아기
 장정으로 군적에 올려
 문이 닳도록 찾아와
 군포를 바치라고 독촉하니
 :

◆ 사진으로 보는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 경잡기의(영조) [55회] ☐	 ▲ 균역사실(영조) [66회] ☐		
--	--	--	--

주제 38 봉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

1 봉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 [인조]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53회] □
 - ↳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49회] [47회] □
 - ↳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였다. [61회] □
 - ↳ 이괄이 난을 일으켜 도성을 점령하다. [64회] □
 - ↳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66회] □
 - ↳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장악하였다. [60회] □
 - ↳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48회] □
 - ↳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충남 공주]. [55회] □

■ 이괄의 난 [58회] [51회] □

-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인 이전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괄은 군영에 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 앞서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임금은, “필시 반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인 이전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전은 그때 이괄의 군영에 있었고 이괄은 결국 금부도사 등을 죽이고 여러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 예송 논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65회] □
-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67회] [66회] [64회] [60회] [51회] [49회] □
 - ↳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57회] □
 - ↳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전개된 예송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53회] □
- [서인]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62회] □

■ 기해예송 [63회] □

기해년에 왕이 승하하자 재신 송시열이 사종(四種)의 설을 인용하여 “대행 대왕은王大비에게 서자가 된다.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이니 기년복(基年服)*을 입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허목 등 신하들은 전거를 들어 다투기를 “대행 대왕은王大비에게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둘째이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기년복(基年服): 1년 동안 입는 상복

- [경신환국]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54회] □

↳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다. [64회] □

↳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51회] □

- [경신환국, 갑술환국]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49회] □
- [숙종]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한국을 통해서 정국을 주도하였어요. [51회] □

■ 경신환국 [61회] [57회] □

- 임금이 궐내에 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궐내에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명회도 못하던 짓이다.”라고 하였다. …… 임금이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하였다.
-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문안(文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하여 감출 수가 없었다. 그에게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기사환국]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한국이 발생하였다. [66회] [60회] [59회] [52회] □

↳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49회] □

- [기사환국]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65회] [63회] □

↳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3회] □

- [기사환국]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57회] □

■ 기사환국 [61회] [49회] □

- 이항 등이, “지금 왕자의 명호를 원자(元子)로 정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송시열은 방자하게도 상소를 올려 민심을 어지럽혔으니, 멀리 유배 보내소서.”라고 상소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元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갑술환국의 전개 양상을 정리한다[탐구 활동]. [65회] □

- [남인] 갑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62회] □

■ 갑술환국 [61회] [57회] [49회] □

- 비망기를 내려, “국운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 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예는 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임금이 명하기를, “국운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도리이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 주도록 하라.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것은 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임금이, “기사년 송시열의 상소는 한때의 실수였을 뿐 그가 어찌 다른 뜻을 가졌겠는가, 이제 그동안 잘못된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 특별히 그의 관작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고 하교하였다.

- [숙종] 명의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1704년]. [59회] □
- [경종] 묵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신임사화]. [63회] □
- ↳ 묵호룡의 고변으로 조정이 떠들썩하다는군. 왕세제와 노론이 곤경에 처할지도 모르겠네. [60회] □

2 탕평 정치의 전개

- [이인좌의 난(무신란)]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영조]. [64회] [63회] [60회] □
- ↳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65회] [55회] □
- ↳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59회] □
- ↳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53회] □
- ↳ 이인좌의 난 진압 [47회] □
- [영조]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65회] [52회] [47회] □
- ↳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55회] □
- ↳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54회] [49회] □
- ↳ 봉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62회] □
- ↳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되었다. [67회] □
- ↳ 봉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세워졌다. [57회] □
- ↳ 성균관에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 [53회] □
- ↳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56회] □
- [영조]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65회] □
- ↳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63회] □
- ↳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간행되었다. [61회] □
- ↳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66회] [54회] □
- ↳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58회] □

■ 속대전 [57회] □

영조 때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실지 않고, 기존 규정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목만을 수록하였다.

- [영조]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 [52회] □

■ 청계천 준설 [66회] [63회] □

• 이것은 『어전준천제명첩』에 담긴 어제사언시(御製四言詩)로, 영조가 홍봉한 등 청계천 준설 공사에 공이 있는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은 것이다. / 청계천 준설을 추진한 영조는 탕평, 균역 등도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한 글을 남겼다.

• 「수문상친림관역도」: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 실시한 청계천 준설 공사 현장을 영조가 지켜보는 모습을 담은 그림

• [영조]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되었다. [59회] □

↳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만들어졌다. [64회] □

↳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66회] □

↳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49회] □

↳ 동국문헌비고를 열람하는 관리 [50회] □

• [영조]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 하라[임오화변]. [60회] □

• [정조]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통치 체제를 재정비했어요. [58회] □

• [정조]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57회] [54회] □

↳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어요. [63회] □

↳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58회] □

↳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67회] □

↳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의 운영 [66회] □

↳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64회] [52회] □

↳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50회] □

↳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51회] □

↳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56회] □

↳ [규장각]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주관하였다. [55회] □

■ 정조 [47회] □

한국사 퀴즈

-1단계 힌트: 조선의 제22대 국왕

-2단계 힌트: 초계문신제 시행

-3단계 힌트: 신해통공 실시

-4단계 힌트: 규장각 설치

■ 만천명월주인옹, 정조 [59회] □

이것은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현판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정조가 지은 것으로 군주를 모든 하천에 비치는 달에 비유하여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만천명월주인옹 자서)

■ 초계문신제명록 [48회] □

이 책은 초계문신제로 선발된 학자들의 명단을 정리한 인명록입니다. 정조 때부터 시행된 초계문신제는 인재 양성과 문풍 진작을 위한 문신 재교육 과정으로 37세 이하의 문신 중 학문에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정조]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을 간행하였다. [62회] □

↳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48회] □

↳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55회] □

■ 대전통편 [64회] [57회] □

-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내용에 원(原), 속대전의 내용에 속(續), 새로 추가된 내용에 증(增)을 붙여 구분하였다.
-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 왕이 말하기를, “속전(續典)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먼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김치인 등에게 명하여 원전(原典)과 속전 및 지금까지의 왕명을 모아 한 책으로 편찬한 것이었다.

- [정조]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59회] □

↳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54회] □

↳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57회] [53회] □

↳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48회] □

↳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조직되었다. [51회] □

↳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52회] □

↳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47회] □

↳ [장용영]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58회] □

↳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55회] □

↳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았다. [63회] □

↳ [수원 화성] 장용영 외영의 창설 배경을 알아본대[탐구 활동] [50회] □

■ 축만제 [56회] □

이곳은 수원 화성 성역과 연계하여 축조된 축만제입니다. 정조는 축만제 등의 수리 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을 통해 수원 화성의 수리, 장용영의 유지, 백성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조]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었다. [64회] □

↳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었다. [54회] □

- [정조]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62회] [60회] [56회] [48회] □

↳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61회] [53회] □

↳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66회] [65회] [50회] □

↳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58회] □

↳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55회] □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49회] □

↳신해통공 시행 소식에 기뻐하는 난전 상인 [57회] □

■ 금난전권 철폐 [51회] □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에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네. / 나도 들었네. 다만 육의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군.

• [수원 화성] 포루, 공심돈 등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 [62회] □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62회] □

↳수원 화성 건설 [47회] □

■ 수원 화성 [62회] □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 축조한 수원 화성 안의 모습이 참 예쁘네. / 정조가 행차할 때 머물렀던 행궁과 장용영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도 보여.

•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62회] □

↳[유득공]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59회] □

• [규장각]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63회] □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66회] [58회] □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48회] □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49회] □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 [65회] □

• [규장각]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하였다. [61회] [59회] □

■ 규장각 내각일력 [55회] □

내각일력은 규장각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 규장각은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으로, 이 책은 어제(御製)의 봉안, 검서 등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 소속 관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하고 있다.

• [정조]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회고를 간행하였다. [52회] □

↳외교 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회고가 편찬되었다. [64회] □

• [일성록]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하였다. [51회] □

■ 정조의 을묘년 화성 원행 [67회] [65회] □

- 이 그림은 화성능행도 8폭 중 일부로,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릉원에 다녀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위엄을 갖춘 행렬의 장대함과 구경꾼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는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길에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도 세자에 대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정신성*의 그리움 다할 길 없어
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
곳은 비는 침원에 부슬부슬 내리고
이 마음은 재전**을 끝없이 배회하누나
어찌하려 사흘 밤을 잤던고
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
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 들어 바라보니
오운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

*혼정신성: 부모님께 효도하는 도리

**재전: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

◆ 사진으로 보는 봉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

 ▲ 어제사언시(영조) [63회] ☐	 ▲ 속대전(영조) [57회] ☐	 ▲ 탕평 군주 영조 [66회] ☐	 ▲ 수문상친림관역도(영조) [66회] ☐
 ▲ 만천명월주인옹 자서 (정조) [59회] ☐	 ▲ 수원 화성 [62회] ☐	 ▲ 축만제(수원 화성 성역) [56회] ☐	 ▲ 대전통편(정조) [57회] ☐
 ▲ 내각일력(규장각)(정조) [55회] ☐	 ▲ 초계문신제명록(정조) [48회] ☐	 ▲ 정조 검색 연관어 [53회] ☐	 ▲ 화성능행도 8폭(일부) [67회] ☐

주제 39 양 난 이후의 대외 관계

1 청과의 관계

■ 청과의 사신 왕래 [58회] □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조선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 청을 왕래하였는데, 이 사행에 참여한 만장은 국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입연정도도\(入燕程途圖\)](#)

- [나선 정벌]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효종](#)]. [64회] [60회] □

↳ [변급, 신류]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참여하다. [61회] □

↳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58회] [53회] [49회] □

↳ [효종]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63회] [57회] [52회] □

↳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54회] [48회] □

↳ 나선 정벌을 위하여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50회] □

↳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51회] □

↳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65회] [55회] □

↳ 나선 정벌 단행 [47회] □

■ 조선 효종 [66회] □

- (한국사 교양 강좌) 강의 주제
 - [제1강] 청에서의 볼모 생활과 귀국 후 즉위 과정
 - [제2강] 제주도에 표착된 외국인 하멜과의 만남
 - [제3강]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
 - [제4강] 나선 정벌과 조총 부대 파병

■ 신류(신유)의 신도비 [59회] □

이 비석은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참여했던 총병관 신유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입니다. 이 비에는 그의 조총 부대가 흑룡강 일대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청]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효종](#)]. [59회] □

↳ [효종]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57회] [53회] □

↳ [조선] 어영청을 강화하는 등 북벌을 추진하였다. [63회] □

↳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 [66회] □

- [송시열]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51회] □

■ 효종의 북벌 정책 [52회] □

- 청에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1/3)
- 왕이 된 그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2/3)
- 하지만 냉혹한 국내외의 현실로 북벌은 미완의 꿈으로 남았습니다. (3/3)

■ 김만균의 청 사신 접대 회피 논란 [56회] □

모화관에 도착한 청 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며 김만균이 사직소를 올렸습니다.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나라일이 먼저이니 사직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하도록 하라. (현종)

- [숙종]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57회] □
 - ↳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52회] □
 - ↳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65회] [49회] □
 - ↳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53회] □
 - ↳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청과의 국경 확정 [66회] □
 - ↳ [청]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정하였다. [58회] □
 - ↳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다. [47회] □
- [청]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보내 교류하였다. [56회] □
 - ↳ [연행사]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19세기]. [53회] □
- [청] 어윤중을 서북 경력사로 임명하여 사무를 관장하였다[1882년]. [55회] □

2 일본과의 관계

- 포로 송환을 위해 회답 겸 쇄환사를 파견하였다. [59회] □
 - ↳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로 파견하였다. [58회] [50회] □
 - ↳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로 파견하였다. [63회] □
 - ↳ 유정이 회답 겸 쇄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56회] □
 - ↳ 회답 겸 쇄환사로 파견되었다. [52회] □
- 조선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62회] □
 - ↳ [광해군] 기유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 재개 [66회] □
 - ↳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50회] □
 - ↳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49회] □
- 통신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문물을 전파하였다. [56회] □
 - ↳ [통신사]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 [53회] □
 - ↳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55회] □

에도 막부에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67회] ☐

통신사를 수행해 일본으로 가는 역관 [51회] ☐

■ 해사록(김세렴) [53회] ☐

이 해사록(海槎錄)은 김세렴이 통신사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작성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쓰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간 여정,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양 난 이후의 대외 관계

 ▲ 해사록(김세렴) [53회] ☐	 ▲ 입연정도도(入燕程途圖) [58회] ☐	 ▲ 신류[신유] 신도비 [59회] ☐	
 ▲ 미완의 꿈(효종의 복별) [52회] ☐			

주제 40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1 농촌 경제의 변화

-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조선 후기]. [60회] [50회] □
 - ↳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49회] □
 - ↳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48회] □
- 담배, 면화, 생강 등 상품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조선 후기]. [61회] □
 - ↳ 담배,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59회] □
 - ↳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64회] □
 - ↳ 고추, 담배를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52회] □
 - ↳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63회] □
 - ↳ 인삼, 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47회] □
 - ↳ 인삼,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65회] □
 - ↳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57회] □
 - ↳ 시장에 팔기 위해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 [56회] □
 - ↳ 채소,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54회] □
 - ↳ 면화,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53회] □
 - ↳ 면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50회] □
 - ↳ 담배,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51회] □
 - ↳ 목화,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49회] □
 - ↳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67회] □
 - ↳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53회] □

■ 조선 후기의 상품 작물 재배 [66회] □

5월 ○○일, 앞 밭에 담배를 파종했다.

5월 ○○일, 비록 비가 여러 날 내렸으나 큰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가물어서 고답(高沓)은 모두 이앙을 하지 못하였다.

5월 ○○일, 목화 밭에 풀이 무성해서 노비 5명에게 김매기를 하도록 시켰다.

■ 노상추일기 [60회] □

- 집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는데, 재산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
- 어제 울타리 밖의 몇 되지기 밭에 담배를 파종하였다.
- 금년에는 목화가 풍년이 들었는데, 어제는 시장에서 25근에 100전이었다고 한다.

-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다[조선 후기]. [60회] □

↳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49회] □

↳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하였어요. [66회] [56회] □

↳ 감자, 고구마 등이 구황 작물로 재배되었다. [55회] [52회] □

↳ 구황 작물로 감자, 고구마를 널리 재배하였다. [64회] □

2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다. [55회] □

↳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였다. [54회] □

↳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66회] [48회] □

■ 설점수세제 시행 [64회]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 우리나라는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요역이 매우 무겁습니다. 매번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은관(採銀官)에게 명해 광산을 개발한 이후 백성을 모집하여 [채굴할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세를 거두도록 하되 그 세금의 많고 적음은 [채은관이] 적당히 헤아려 정하게 한다면 관에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입이 저절로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조선 후기]. [65회] [62회] [51회] [48회] □

↳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52회] □

↳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하였다. [60회] □

-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59회] [50회] □

↳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어요. [56회] □

↳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하였다. [47회] □

↳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 [57회] □

↳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53회] [49회] □

3 상업 발달과 화폐 유통

- [대동법]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조선 후기]. [57회] □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65회] □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66회] [51회] □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49회] □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공인 [67회] □

■ 공인의 등장 [62회] □

■ 직업 소개

선혜청 등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

■ 요구 능력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기일에 맞춰 조달할 수 있는 능력

-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조선 후기]. [54회] [49회] □

대규모 자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도고 [65회] □

■ 도고의 폐단 [50회] □

김상철이 말하기를, “도성 백성들의 생계는 점포를 벌여 놓고 사고파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기강이 엄하지 않아서 어물과 약재 등 온갖 물건의 이익을 중간에서 독점하는 도고(都庫)의 폐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조(大朝)께서 여러 차례 엄하게 다스렸으나, 점차 해이해져 많은 물건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시서(平市署) 등에서 적발하여 강하게 다스렸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정조]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58회] □

-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하였다[조선 후기]. [66회] □

장시에서 물품을 파는 보부상 [62회] □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54회] □

- 한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조선 후기] [60회] □

- [숙종]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56회] □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조선 후기]. [66회] □

허적의 제안에 따라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63회] □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하였다. [54회] □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법화로 사용되었어요. [64회] □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47회] □

- [상평통보] (라) - 법화로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다. [67회] □

■ 조선 후기의 장시의 모습 [63회] □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
온갖 재화가 이익을 좇아
수레가 끊임없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삼베, 한산의 모시
쌀, 콩, 벼, 기장, 조, 피, 보리
.....

[해설] 이것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이다. 시의 내용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전황(錢荒)의 발생 [48회] □

선혜청 당상 민응수가, “지금 돈이 귀해진 것은 공가(公家)에서 거두어 숨겨 두고 부민(富民)들이 쌓아 두어 유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만일 관가의 돈을 쌓아 두는 폐단을 없애고 민간의 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게 한다면, 전황(錢荒)의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더 주조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니, 후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4 대외 무역

-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조선 후기]. [51회] [48회] □

↳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62회] □

-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61회] □

↳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58회] [53회] [52회] □

■ 공인과 송상 [54회] □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이의 양이 부족한 데도 각 지방의 군영과 관아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중앙에 공물로 납부할 종이가 부족해 공인이 처벌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송상들이 각 사찰에 출입하여 종이를 몰래 사들여 책문에 가서 시장을 만드는 행위를 엄금해 은밀히 국경을 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거상(巨商)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 무역으로 큰 수익 [67회] [61회] □

- 연행사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간 만상(灣商) 임상옥이 인삼 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 북경 상인들이 불매 동맹을 통해 인삼을 혈값에 사려 하자, 그는 가져간 인삼 보따리를 태우는 기지를 발휘해 북경 상인에게 인삼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 만상 임상옥이 인삼 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네. / 그러게. 중국 상인들이 연행사를 따라오는 상인들에게 인삼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인삼국을 차렸다는군.

-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66회] ☐

↳ 책문 후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였다. [52회] ☐

■ 책문 후시 [49회] ☐

사행(使行)이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되돌아올 때는 수레를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하고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거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 후시라 한다.

- 내상, 만상 등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47회] ☐
- 왜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조선 후기]. [48회] ☐
-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60회] [54회] [49회] ☐

↳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61회] ☐

↳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66회] [65회] ☐

↳ 초량 왜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내상 [51회] ☐

■ 초량 왜관 [59회] [55회] ☐

• 초량으로 왜관 이전 결정

오늘 왕이 두모포 왜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다. 두모포 왜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왜관으로 기유약조 이후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나 두모포 왜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왜인들의 잦은 요청이 있어 마침내 오늘 초량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 이것은 기유약조로 교역이 재개된 **일본**과의 무역 중심지인 초량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 그림 아래 부분의 동관 지역은 **일본** 상인들과 관리들의 집단 거주지였으며, 거류민 관리와 조선과의 교섭 등을 담당하던 관수의 관사(官舍)도 위치해 있었다.

◆ 사진으로 보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 초량 왜관도 [55회]

☐

주제 41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

1 신분제의 동요와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

■ 호패법 재실시 발표(인조)(1626년) [50회] □

금일,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문란해진 군적을 정비하고 이괄의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패법은 반정(反正)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새로 군역에 편입될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 [서얼] 조선 후기에 통청 운동으로 청요직 진출을 시도하였다[중인]. [58회] □

↳ 서얼이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56회] □

↳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얼 [50회] □

- [공노비] 조선 순조 때 궁방과 중앙 관서에 소속된 6만여 명이 해방되었다. [58회] □

↳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55회] □

↳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하였다[순조]. [57회] [50회] □

■ 공노비 해방(순조)(1801년) [67회] □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는 귀천이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赤子)로 여겨야 하는데, 노(奴)와 비(婢)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36,974명과 시노비 29,093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 문서를 거두어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2 사회 정책과 농민 공동체

※ 사실상 관련 기출 자료 없음

- [김만덕] 재산을 기부하여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다. [60회] □

↳ 제주의 거상이자 자선가 [60회] □

↳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탐구 활동]. [56회] □

3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

■ 향전(鄕戰) [47회] □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新鄕)은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구향(舊鄕)과 마찰을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상화가 비에 젖자 신향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 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 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4 가족 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하락

- 적장자 위주의 상속 제도가 확립되었다[조선 후기]. [56회] □
- [이빙허각] 가정생활의 지혜를 담은 규합총서를 저술하다. [60회] □
 - ↳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 [60회] □

주제 42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

1 성리학의 절대화와 실학의 등장

- [김장생]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례집람을 지었다. [63회] ☐
 - ↳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람이 저술되었다. [64회] [58회] ☐
 - ↳ 가례집람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57회] ☐
 - ↳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52회] ☐
- [송시열]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63회] ☐
 - ↳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60회] [48회] ☐
 - ↳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51회] ☐
- [박세당]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하였다. [52회] ☐
 - ↳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했어. [50회] ☐
 - ↳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 사서(四書)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사상 등을 도입해 유학의 실리적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57회] ☐
 - ↳ 색경을 편찬한 인물,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 당시 학계에서 배척당했어. [50회] ☐
- [정제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67회] [64회] [63회] [62회] [60회] [54회] [52회] [51회] [47회] ☐
 - ↳ 양명학을 연구해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59회] ☐
- 인물성동이론을 두고 전개된 호락논쟁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3회] ☐
-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63회] ☐
 - ↳ [이수광]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60회] ☐
 - ↳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66회] ☐

2 농업 중심의 개혁론

- [이익]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62회] ☐

■ 이익의 화폐 사용 반대론 [52회] ☐

우리나라 은화는 연경과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 이 보화를 가지고 비단·식물·그릇·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 와 하루도 못가서 소비해 버린다.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까닭에, 일본 은을 들여다가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이 난다. 병화(兵禍)가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익]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58회] □
- ↳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67회] [65회] □
- ↳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57회] □
- ↳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47회] □
- [이익] 성호사설에서 사회 폐단을 여섯 가지 쯤으로 규정하다. [56회] □

■ 여섯 가지 쯤(성호 이익) [65회] □

성호사설에서 6가지 쯤의 하나로 과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 요즈음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 부모 형제와 생업도 팽개치고 종일토록 글공부만 하고 있으니, 이는 인간의 본성을 망치는 재주일 뿐입니다. 다행히 급제라도 하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져, 끝없이 백성의 것을 빼앗아 그 욕심을 채웁니다. 때문에 나라를 쯤먹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 성호사설 [57회] [47회] □

- 이 책은 **이익**이 학문과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 엮은 성호사설입니다. **이익**은 노비 제도의 개혁, 서얼 차별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책은 **이익**이 평소 학문을 연구하여 기록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것을 정리한 백과전서류의 저서이다. 천지문·만물문·인사문·경사문·시문문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인사문에는 노비제, 과거제, 별열(閼閼) 등을 나라를 해치는 6가지 쯤벌레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정약용]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60회] □
- ↳ 저는 경세유표를 저술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67회] □
- ↳ 경세유표에서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58회] □
- [정약용] 목민심서에서 지방 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하다. [56회] □

■ 다산 정약용 [64회] [60회] [58회] □

-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과회통을 편찬하다
 - 조선 시대 홍역과 천연두 치료법
- 강진 유배지에서 편지를 보내다
 - 가족에 대한 각별한 사랑
-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목민관의 자세를 논하다
 - 지방관의 청렴과 근검, 애민 정신
- 흠흠신서, 마과회통 등을 저술한 **정약용**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 강진 유배지 [보은산방] 해장선사의 주선으로 거처한 곳
 - [사의재] 읍내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아학편훈의』를 편찬한 곳
 - [다산초당] 10여 년간 머무르며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집필한 곳

- [정약용]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67회] □

3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 [유수원]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54회] [49회] □

• [홍대용, 박지원]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에 다녀와 연행록을 남겼다. [62회] □

↳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 [47회] □

• [홍대용]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67회] [65회] [60회] [59회] [58회] [49회] □

↳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다. [56회] □

↳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66회] [52회] □

↳ 무한 우주론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하였다. [50회] □

■ 과학 기술인, 홍대용 [66회] [52회] □

• **홍대용**이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에 조예가 깊어 기존의 혼천의를 개량했으며, 그의 학문은 담헌서로 정리되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 <화재의 신간>

담헌 평전 -시대를 앞선 조선의 실학자
목 차

- 1장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다
- 2장 농수각을 세우고 천문을 관측하다
- 3장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에 가다
- 4장 『연기』, 『을병연행록』을 저술하다

■ 담헌 홍대용의 지전설 [62회] □

실용이 으뜸이며 말하기를, “……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는 9만 리이고 하루는 12시이다. 9만 리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라고 하였다. (『의산문답』)

• [홍대용] 담헌서를 통해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55회] □

• [박제가]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58회] □

↳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다. [56회] □

↳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49회] □

↳ 북학의를 저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47회] □

↳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였다. [66회] □

↳ 북학의를 저술한 저는 청의 문물 도입과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주장하였습니다. [67회] □

↳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55회] □

↳ 북학의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54회] □

↳ 북학의를 저술하는 학자 [57회] □

■ 초정 박제가의 시 [54회] □

육지의 재화는 연경과 통하지 않고
바다의 상인은 왜의 물건을 싣어 오지 않네
비유컨대 들판의 우물물과 같아
길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 버리네

[해설] 이 시는 연행사의 일원으로 다녀온 그가 청의 발달된 문물을 경험하고 지은 것이다.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된 그는 시의 내용처럼 재화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하였다.

- [박지원]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56회] □

↳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4회] □

■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62회] □

허생이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온갖 물건이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곤 하지 않나. …… 어떤 물건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한다면, 그 물건은 한 곳에 갇혀서 유통되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라고 하였다.

4 국학 연구의 확대

- [동사강목(안정복)]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조선 전기의 『동국통감』도 해당]. [66회] □

- [발해고]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하였다. [67회] □

- [발해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63회] [54회] [52회] [51회] □

↳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59회] [58회] □

↳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65회] □

↳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하였다. [47회] □

■ 발해고 [66회] [61회] □

•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씨가 동남쪽에 살면서 신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그러니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한다.

•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진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고, 거란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다.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 …… 내가 내규장각 관리로 있으면서 비밀스런 책(秘書)을 꽤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하여, 군고(君考)·신고(臣考)·지리고(地理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등 9편으로 구성된 책을 만들었다.

■ 영재 유득공 [59회] □

유득공은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전고(典故)에도 밝았다. …… 발해고를 지어서 인물과 군현, 왕실 계보의 연혁 등을 상세하게 잘 엮어서 두루 모아놓으니 기뻐할 만하다. 그런데 그의 말에 왕씨가 고구려의 옛 강역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탄식한 부분이 있다. 왕씨가 옛 강역을 회복하지 못하니 계림과 낙랑의 옛터가 마침내 어두워져 스스로 천하와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 [이극익]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하였다. [55회] □
-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전국의 지리 정보에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였다[김수홍]. [54회] □
- [택리지]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이중환]. [54회] □

↳북거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52회] □

↳[해설]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되었다. [52회] □

- [정상기]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62회] □

↳100리 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50회] □

↳100리 척을 최초로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67회] □

↳[동국지도] 정상기가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52회] □

↳최초의 100리 척이 적용되었다. [54회] □

- [해동역사] 한치윤이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52회] □

- [대동여지도]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김정호]. [54회] □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며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52회] □

↳[김정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48회] □

■ 대동여지도(김정호) [54회] □

이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고,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현별로 다른 색이 칠해진 채색본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유희] 우리말 음운 연구서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55회] [50회] □
- [김정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64회] [63회] [57회] [51회] [47회] □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50회] □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59회] □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65회] [60회] [49회] □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66회] □

■ 김정희의 북한산비 고증 [55회] □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라고 잘못 불러 왔다. …… 탁본을 한 결과 비의 형태는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의 진(眞) 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여러 차례 탁본을 해서 보니, 진(眞)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진흥왕의 고비(古碑)로 정하고 보니, 1200년 전의 고적(古蹟)임이 밝혀져 무학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깨지게 되었다.

- 『완당집』 -

- [김정희]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55회] □
- [영조]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되었다. [59회] □
- ↳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52회] □
- ↳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54회] □

5 과학 기술의 발달

- [김육]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63회] □
- ↳ 청으로부터 시헌력 도입을 건의했어. [50회] □
- [정약용]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64회] [63회] [54회] [52회] □
- ↳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했어. [50회] □
- ↳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설계한 거중기 [53회] □
- ↳ 거중기를 설계하였습니다. [48회] □

■ 거중기(정약용) [49회] □

수원 화성 건설을 위해 설계한 거중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공사에 참여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기도설에 실린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거중기의 사용으로 4만 냥의 비용을 절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최석정]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數論)을 전개한 구수략(九數略)을 저술하였다. [55회] □
- [최한기]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63회] [57회] [52회] □
- [광해군]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허준]. [63회] □
- ↳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55회] □
- ↳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61회] [54회] □
- ↳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64회] □
- ↳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49회] □
- ↳ [허준]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관 [53회] □
- ↳ 동의보감을 완성하였습니다. [48회] □
- ↳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66회] □
- ↳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중국 사신 [56회] □
- [허임] 침구술을 집대성하여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였다. [50회] □

- [정약용] 마과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였다. [65회] □
 ↳마과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하였다. [49회] □
- [이제마]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여 사상 의학을 정립하였다. [66회] □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59회] □
 ↳사상 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였다. [52회] □
- [산림경제] 인삼, 고추 등의 상품 작물 재배법과 원예 기술 수록[홍만선] [50회] □
- [임원경제지] 농촌 생활을 위한 백과사전으로 서유구가 저술 [50회] □

6 새로운 사상의 등장

-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47회] □

■ 조선이 만난 이방인 [59회] □

조선 전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류큐 등의 아시아 국가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조선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 이외의 세계에서는 낯선 존재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지리 지식의 확대와 더불어 조선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져 갔다. 조선과 서양인의 만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서양 선박이 난파하여 조선에 표착한 경우이다. 둘째, 크리스티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이다. 셋째,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이다. 넷째, 조선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접근하는 경우이다.

- [미륵 신앙]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예언 사상]. [58회] □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는 양반[조선 후기] [60회] □

■ 예언 사상의 유행 [47회] □

이 불상은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입니다. 이 불상 안에 있는 비기(秘記)가 세상에 나오는 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 사상이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의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시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 [정두원]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이포 등을 들여왔다[1631년]. [50회] □
- [천주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58회] □
- [정약용]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정약전, 정약종]. [57회] □
- [천주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57회] □

■ 진산 사건(신해박해)(1791년) [63회] [52회] [50회] □

- 진산의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의 장례에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태연하였으니, 정말 흉악한 자입니다. /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사학(邪學)을 따르는 죄인을 처벌하여 경계로 삼으라.
-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가 [진산의] 죄인 윤지충과 권상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아뢰었다. “…… 근래에 그들은 평소 살아 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한 일입니다. 제사를 폐지한 일은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 한영규가 아뢰기를, “서양의 간특한 설이 윤리와 강상을 없애고 어지럽히니 어찌 진산의 권상연, 윤지충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제사를 폐하고 위패를 불태웠으며, 조문을 거절하고 그 부모의 시신을 내버렸으니 그 죄가 매우 큼니다.”라고 하였다.

- [천주교]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66회] [53회] □

↳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61회] □

- [천주교] 황사영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신유박해]. [53회] □

↳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66회] [64회] [63회] [48회]

□

↳ 황사영 백서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살펴본다[탐구 활동]. [65회] □

■ 신유박해(1801년) [55회] [50회] □

-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여 주소서. / 아뢴 대로 하시오.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아! 통분스럽습니다.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의 죄가 무거우니 이를 어찌 다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학(邪學)이란 것은 반드시 나라에 흉악한 화를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황사영 백서 사건 [67회] □

사학(邪學) 죄인 황사영은 사족으로서 사술(邪術)에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다. [그는] 의금부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감춘지 반년이 지났다. 포청에서 은밀히 염탐하여 지금에야 제천 땅에서 붙잡았다. 그의 문서를 수색하던 중 백서를 찾았는데,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전하려고 한 것이었다.

-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64회] □
-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의 활동을 알아본다[탐구 활동](기해박해). [59회] □
- [동학]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53회] [47회] □

↳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48회] □

■ 동학 창시 [48회] □

경주 사람 최복술은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양학(洋學)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차마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어, 동학이라 불렀다. 양학은 음(陰)이고, 동학은 양(陽)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읽고 하였다.

■ 동학 탄압(교조 최제우 처형) [55회] □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두목인 최제우를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으소서. / 그리 하시오.

- [동학] 최시형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58회] [47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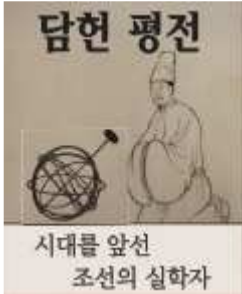
└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58회] □

└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66회] □

■ 동학의 교세를 크게 확장한 해월 최시형 [66회] □

해월 선생은 제자들에게 ‘최보따리’라고도 불렸다. 포교를 위해 잠행을 하면서 보따리를 자주 씻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교조 최제우의 처형으로 위축되었던 동학의 교세는 2대 교주였던 그의 노력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1897년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고 1898년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중에는 고부 학정의 원흉 조병갑이 있었다.

◆ 사진으로 보는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

 ▲ 성호사설(이익) [57회] □	 ▲ 성호사설(이익) [47회] □	 ▲ 성호 이익 [57회] □	   ▲ 다산 정약용의 활동 [60회] □
 ▲ 혼천의(홍대용) [52회] □	 ▲ 담헌 평전(홍대용) [66회]□	 ▲ 거중기(정약용) [56회] □	
 ▲ 조정 박제가 캐리커처 [67회] □	 ▲ 다산 정약용 캐리커처 [67회] □	 ▲ 거중기(정약용) [49회] □	
 ▲ 정약용의 강진 유배지를 찾아서 [64회] □		 ▲ 금동 천문도[천문] [56회] □	 ▲ 대동여지도(김정호) [54회] □
		 ▲ 고창 동불암지 마애여래 좌상(예언 사상) [47회] □	 ▲ 해월 최시형(동학) [66회] □

주제 43 서민 문화의 발전

1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 홍길동전, 박씨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조선 후기]. [64회] [57회] □

↳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62회] [60회] □

↳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녀자 [50회] □

↳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 주는 전기수 [54회] □

↳ 장사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49회] □

■ 패설(한글 소설)의 유행 [59회] [53회] □

-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 소설책을 빌려주는 세책가가 성행하였어요. /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인기를 끌었어요.
-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일이다.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류가 이미 엄청나게 되었다. 세책가에서는 패설을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 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다. 부녀들은 …… [패설을]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온종일 허비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

- 『번안집』 -

*패설(稗說):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 중인들이 시사(詩社)를 조직하였다[조선 후기]. [57회] □

↳ 시사를 조직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 [65회] □

↳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역관 [60회] □

↳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54회] [53회] □

↳ 시사(詩社)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67회] [49회] □

↳ 시사(詩社)에서 문예 활동을 하는 역관 [47회] □

- [박지원]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하였다. [63회] □

↳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66회] [60회] □

↳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58회] □

2 판소리와 탈놀이

-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하였다[조선 후기]. [64회] [57회] □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62회] □

└장사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50회] □

└장사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소리꾼 [67회] □

■ 조선 후기에 유행한 판소리 [65회] □

범 내려온다 ♪ 범이 내려온다 ♪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 ㄹ

내가 준비한 것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장면이야. / 한글 소설과 함께 판소리는 이 시기에 유행했지. / 판소리는 신재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어.

-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이 성행하였다[조선 후기]. [64회] □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공연되었다. [57회] □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62회] □

└장사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53회] □

- 송파장에서 산대놀이를 공연하는 광대 [65회] □

3 풍속화와 민화, 기타 회화

■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화 [64회] □

이 그림은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인부들이 말발굽에 징을 받는 모습과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재 김득신의 대장간도 [57회] □

이 그림은 김득신이 대장간의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이다. 한 명이 화덕에서 달궀진 쇳덩어리를 방울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자 두 명이 쇳망치로 두드리는 모습, 도리에 매어 놓은 그네에 상체를 기대고 어깨너머로 구경하는 아이의 모습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 [51회] □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인가요? / 맞아요. 신윤복은 이 그림 외에도 양반들의 풍류와 남녀 사이의 애정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 민화, 책가도 [62회] □

이 그림은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 등이 놓인 책가를 그린 책가도입니다. 책가도가 유행한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민화가 왕실과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 인왕제색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졌다. [59회] ☐

└ 금강전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졌다. [64회] ☐

└ 겸재 정선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54회] ☐

◆ 사진으로 보는 서민 문화의 발전(1)

 ▲ 인왕제색도(정선) [65회] [63회] [61회] [56회] [54회] [47회] ☐	 ▲ 양화환도(좌), 압구정(우)(경교명승첩)(정선) [54회] ☐	 ▲ 광진(경교명승첩)(정선) [47회] ☐	 ▲ 말장박기(조영석) [64회] ☐
 ▲ 기와의기(김홍도) [64회] ☐	 ▲ 벼타작도(김홍도) [61회] ☐	 ▲ 씨름도(김홍도) [51회] ☐	 ▲ 총석정도(김홍도) [47회] ☐
 ▲ 추성부도(김홍도) [61회] ☐	 ▲ 송석원시사야연도(김홍도) [54회] ☐	 ▲ 대장간도(김득신) [57회] ☐	 ▲ 파적도(야묘도추)(김득신) [51회] ☐
 ▲ 단오풍정(신윤복) [61회] ☐	 ▲ 월하정인(신윤복) [56회] [51회] ☐	 ▲ 미인도(신윤복) [51회] ☐	 ▲ 옥순봉도(김홍도) [65회] ☐

 ▲ 영통동구도(강세황) [61회] [56회] [54회] [51회] [47회] □	 ▲ 한강임진강유람사경도 권(일부)(정수영) [54회] □	 ▲ 책가도(민화) [62회] □	
 ▲ 세한도(김정희) [65회] [61회] [56회] [47회] □	 ▲ 세한도(김정희) [63회] □	 ▲ 제주도 김정희 유배지 (서귀포) [50회] □	

■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 [47회] □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이 한양 근교의 경치를 그린 경교명승첩 중 한 작품이야. (**광진**) / 그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 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금강전도를 비롯한 뛰어난 작품을 남겼지.

■ 김홍도의 추성부도 [61회] □

이 작품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秋聲賦圖)로, 인생의 허망함과 쓸쓸함을 묘사한 글인 추성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화서 화원 출신인 그는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63회] [56회] □

• 제주에서 다시 만난 세한도

이 작품은 **김정희**의 세한도로, 완당이라는 그의 호가 도인(圖印)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청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동안 기탁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일 때 사제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화(詩書畵)의 일치를 추구하였던 조선 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4 공예와 음악, 건축

◆ 사진으로 보는 서민 문화의 발전(2)

 ▲ 보은 법주사 팔상전 [65회] [64회] [61회] [59회] [57회] [55회] ☐	 ▲ 구례 화엄사 각황전 [65회] [57회] [55회] [52회] ☐	 ▲ 김제 금산사 미륵전 [55회] ☐	 ▲ 부여 무량사 극락전 [55회] ☐
 ▲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55회] [52회] ☐			

■ 보은 법주사 팔상전 [55회] ☐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다고 해. / 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목탑이야.

주제 4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1 세도 정치의 전개와 폐단

2 농민 봉기의 발생

- [홍경래의 난]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61회] [59회] [49회] □

↳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하였다. [51회] □

↳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58회] □

↳ 지역 차별에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하였다. [48회] □

↳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56회] □

↳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54회] [52회] □

↳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64회] □

↳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55회] □

↳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47회] □

↳ 1811년 12월부터 1812년 4월까지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 [56회] □

■ 홍경래의 난 [59회] [56회] [53회] [52회] □

• 19세기 초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 순무영에서 보고하다. “정주성을 점령하고 …… 남녀 총 2,983명을 생포하여, 그 중 여자와 10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제외한 1,917명을 모두 효수하였습니다.”

- 『순조실록』 -

• 평안 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

• 적도의 우두머리는 성은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우군칙·오용진 등이 그의 부하라고 하옵니다. 또한 선천 부사 김익순이 그들에게 항복했다고 하옵니다. / 적도들을 즉시 토벌하라.

■ 정주성 공격도 [49회] □

이것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에 반발하여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이 정주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후 관군은 땅굴을 파고 성벽을 폭파하는 전술로 봉기군을 진압하였습니다.

- [진주 농민 봉기]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64회] □

■ 진주 농민 봉기의 발생 [59회] [54회] □

-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 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니,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잘 위무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내려보내 사태를 수습토록 하라.

■ 진주 농민 봉기 일지 [48회] □

- 2월 7일 수곡 도회(都會) 주모자 유계춘을 병영에 감금
- 2월 13일 집안 제사 참석을 요청한 유계춘을 임시 석방
- 2월 14일 덕천 장시 등에서 농민 시위 전개
- 2월 18일 목사 홍병원이 사족(士族) 이명운에게 농민 시위 무마를 부탁하며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문서 전달
- 2월 19일 우병사 백낙신이 시위를 해산하려 하자 성난 농민들이 그를 포위하여 감금
- ⋮

- [진주 농민 봉기]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61회] [59회] [54회] [51회] □

↳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계기를 조사한다[탐구 활동]. [67회] □

↳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53회] [47회] □

↳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66회] □

↳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65회] □

↳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57회] □

↳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두었다. [52회] □

↳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50회] □

↳ 박규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60회] □

↳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58회] □

↳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59회] □

↳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56회] [49회] □

↳ 사건 수습을 위하여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50회] □

↳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67회] [55회] □

↳ 상황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48회] □

▬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52회] □

▶[틀림]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 일어났다. [51회] □

■ 진주 농민 봉기의 수습 [64회] [61회] [57회] [53회] [51회] □

• 경상 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고 보고하니, 왕이 하교하였다. “난민들의 행동이 극에 달했으니, 만약 평시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달랬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대신들은 의논하여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

• 진주 안핵사 박규수에게 하교하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 일은 전에 없던 변괴였다. 관원은 백성을 달래지 못하였고, 백성은 패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하겠는가. 신중을 기하여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포리(逋吏)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할 방법을 상세히 구별하라.”라고 하였다.

*포리(逋吏):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아전

•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는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포악스럽게 행동한 까닭에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

•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아뢰옵니다. 금번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변란을 격발시킨 죄를 물어 그를 엄중히 처결하도록 하소서.

• 며칠 전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가 전하께 특별 기구 설치를 상소하였다고 하네. / 그렇다네.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각 고을마다 대책을 모아 올려 보내라고 명하셨지.

• 임술 농민 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본대[탐구 활동]. [62회] □

◆ 사진으로 보는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 정주성 공격도 [49회] □	 ▲ 한종대왕국장도감의궤 모사본 [47회] □	 ▲ 홍경래의 난 [56회] □	 ▲ 환재 박규수 캐리커처 [51회] □

주제 45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양요

1 왕권 강화를 위한 국정 혁신 노력

■ 고종 즉위(흥선 대원군의 집권) [65회] [47회] □

•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어서 [신정]익황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여 대원군으로 삼아 모든 정사에 참여하게 하고 신하의 예와는 달리 대우하였다.

- 『대한계년사』 -

•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 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비변사]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63회] [59회]

↳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67회] □

■ 비변사 혁파 [63회] □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어, 의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 간택 등의 일까지도 모두 비변사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고쳐 정당(政堂)으로 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판하(判下): 안건을 임금에 허가하는 것

• [고종]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58회] □

↳ 삼군부가 부활하여 군국 기무를 전담하였다. [50회] □

• [만동요 철폐] 만동요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53회]

■ 만동요 철폐 [52회] □

대왕대비께서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만동요를 철폐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에 대해서 선현의 훈령이 알게 되더라도 올바른 예법이라고 여기고 유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고종]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59회] □

↳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51회] □

■ 대전회통 [53회] □

대전통편 이후 80여 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다. 기존 법전을 기본으로 삼고,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 시대 마지막 통일 법전이다.

- [서원] 흥선 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57회] [47회] □

■ 서원 철폐 [54회] [50회] [48회] □

• 신(臣) 병창이 **흥선 대원군** 앞에 나아가 품의했더니, 이르기를 ‘성묘(聖廟) 동서무(東西廡)에 배향된 제현 및 충절과 대의가 매우 빛나 영원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향사(享祀)를 중단하고 사액을 철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시를 받들어 이미 사액된 서원 중 앞으로 계속 보존할 곳 47개를 별단에 써서 들인 바 계하(啓下)*하시면 각 도에 알려드립니다.

- 『승정원일기』 -

*계하(啓下): 국왕의 재가

• 왕이 말하기를, “요즘에 서원마다 사무를 자손들이 주관하고 봉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서원을 훼손(毀撤)*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 버리는 등의 절차를 **흥선 대원군**의 분부대로 거행하도록 해당 관청에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알리라.”라고 하였다.

*훼손(毀撤): 헐어서 치워 버림

- 『승정원일기』 -

■ 서원 철폐 관련 매주 시설 첫 발견 [58회] □

창녕의 관산 서원 터에서 매주(埋主)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서원에 모셔져 있던 신주를 옹기에 넣고 기와로 둘러싼 뒤 묻은 것입니다. 이번 발굴로 만동묘 철거 이후 서원을 철폐하던 시기에 신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종]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65회] [57회] □
- [경복궁 중건] 당백전을 발행하여 건설 비용에 충당하였다. [62회] □
- ↳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57회] □
- ↳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55회] □

■ 경복궁 중수 [60회] □

대왕대비가 전교하였다. “**경복궁**은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란에 의해 불타버린 후 미처 다시 짓지 못하여 오랫동안 뜻있는 선비들의 개탄을 자아내었다. …… 이 궁궐을 다시 지어 중흥의 큰 업적을 이루려면 여러 대신과 함께 의논해보지 않을 수 없다.”

- 『고종실록』 -

■ 경복궁 영건일기 [55회] □

경복궁 영건일기는 한성부 주부 원세철이 경복궁 중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에 광화문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금자(墨質金字)'가 적혀 있어 광화문 현판의 옛 모습을 고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2 민생 안정을 위한 삼정 문란 시정 노력

- [호포제(호포법)]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65회] [49회] □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57회] □

■ 호포제 시행 [48회] □

왕이 말하기를, “요즘 각 고을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작년부터 **흥선 대원군**이 분부를 내려 양반 호(戶)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布)를 내게 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신포(身布)로 내게 하였다. …… 의정부에서는 각 도에 알려 이를 만년의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55회] [47회] □

호조에서 정한 사창절목에 따라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52회] □

한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창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48회] □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1회] □

3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 [병인박해]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52회] □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어요. [57회] □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56회] [47회] □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53회] □

■ 병인박해 [63회] [59회] [58회] [53회] [50회] □

•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얼마 전 죄인 남종삼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외적을 끌어들이려 음모를 꾸몄으니, 즉시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 [베르뇌를 비롯한] 서양인 4명을 군영에 넘겨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 의금부에서, “죄인 남종삼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외적을 끌어들이려 하였으니, 그 죄는 만 번을 죽여도 모자랍니다. 죄인이 자백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가 청에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조선에서 프랑스 주교 2명 및 선교사 9명과 조선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었다. 이에 제독에게 요청하여 며칠 안으로 군대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해미순교성지, 국제 성지로 지정

해미순교성지가 전 세계에 30여 곳밖에 없는 국제 성지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다. 병인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곳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남연군 묘 등 여러 역사 유적이 있는 내포 문화권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 병인박해를 묘사한 희곡, ‘조선의 순교자들’ 발굴

프랑스 선교사 베르뇌 주교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룬 ‘조선의 순교자들’ 초판 원본이 공개되었다. 베르뇌 주교는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은 **병인박해**로 새남터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의 유해는 현재 절두산 성지에 봉안되어 있다.

- [병인양요]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52회] □
- [병인양요] 이항로와 기정진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59회] □
- [병인양요]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57회] □

↳ 외규장각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4회] □

↳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7회] □

↳ 외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하였다. [52회] □

↳ [외규장각]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하였다. [51회] □

■ 프랑스군의 침략과 의궤 약탈(병인양요) [60회] [55회] □

- 해군 제독 로즈 귀하

당신이 지휘하는 해군 병력에 주저없이 호소합니다.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 조선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복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휘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조선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빨리 개시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7월 13일 베이징에서

벨로네

•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임금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처하지 않는 저택의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꾸며진 340 권을 수집하였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내겠습니다.

- G.로즈 -

[해설] 로즈 제독이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도서 등이 약탈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 프랑스에서 의궤 모사본 발견 [47회] □

프랑스에서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궤 모사본이 발견되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규장각 의궤 중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와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를 프랑스인이 베껴 그린 것으로 보이는 모사본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병인양요]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61회] □
- [병인양요]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60회] □

↳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50회] □

↳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하였다. [55회] □

■ 병인양요(정족산성 전투) [56회] □

양헌수가 은밀히 정족산 전등사로 가서 주둔하였다. …… 산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며 좌우에서 총을 쏘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적장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서양인 10여 명이 죽었다. 달아나는 서양인들을 쫓아가니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도망갔다.

•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61회] [56회] [55회] [53회] [52회] [50회] □

↳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 [47회] □

↳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64회] □

↳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65회] □

↳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는 독일 상인[오페르트] [51회] □

↳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60회] □

•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65회] □

•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61회] [60회] [52회] [50회] [48회] □

↳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57회] [55회] [51회] □

↳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 관민 [53회] □

↳ [박규수]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하였다. [63회] □

↳ 제너럴 셔먼호 사건 관련 자료를 찾아본대[탐구 활동]. [59회] □

■ 제너럴 셔먼호 사건 [66회] [64회] □

• 평양부 방수성 앞 물가에 큰 이양선 한 척이 머무르다가 끝내 물러가지 않으며 상선을 약탈하고 총을 쏘 백성들을 살상하였습니다. 이에 평양 감사 박규수가 관심을 이끌고 공격하여 불태웠다고 합니다.

• 온 성의 군민이 모두 울분을 품고, …… 총환과 화살을 어지러이 발사하였으며 사생을 잇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반드시 오랑캐를 도륙하고야 말 태세였습니다. 강 아래 위의 요해처에서 막고, 마침내 화선(火船)으로 불길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모조리 죽여 살아남은 종자가 없게 된 것은 모두 이들이 …… 용감하게 싸운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해설] 자료는 『환재집』의 일부로,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전말을 서술한 것이다. 평안 감사가 여러 차례 조정에 올린 장계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하였다. [58회] □

↳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64회] □

↳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66회] □

• [신미양요]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53회] [48회] □

↳ 전개 과정에서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67회] □

↳ 이곳은 강화도 광성보 끝자락 용두돈대. 광성보는 신미양요 당시 침입한 미군에 맞서 어재연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군이 결사 항전한 곳임. [62회] □

↳ 이것은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당시의 미국 신문 기사입니다[광성보(광성진) 전투]. [54회] □

■ 어재연의 전사 [49회]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양 오랑캐가 광성진을 침범하였을 때 진무 중군 어재연의 생사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수령이 대신할 진무 중군을 임명해 달라고 이미 청한 것을 보면 절개를 지켜 싸우다 전사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 『고종실록』 -

■ 진무사 정기원의 장계 [52회] □

진무사 정기원의 장계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저의 불찰인데, 광성보에서는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으니 저의 죄가 더욱 큼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에 전교하기를, “병가의 승패는 늘 있는 일이다. 저 흉측한 무리들이 지금 다소 물러가지는 했으나 목전의 방비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 충장새인천 강화군 [61회] □

이곳은 어재연 장군과 그의 군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충장사입니다. 어재연 장군의 부대는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결사 항전하였지만 끝내 함락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 [신미양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61회] [56회] [53회] [52회] □

↳ [흥선 대원군]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54회] □

↳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50회] □

↳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1회] □

↳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47회] □

↳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57회] □

■ 척화비 건립 [67회] [65회] □

•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에서 이르기,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고 하였다.

• 이 척화비는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척화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신미양요](#)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양 세력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 흥선 대원군 하야(고종 친정) [52회] [47회] □

•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지위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하였다. (1873년)

•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자리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자리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하였다. …… 대원군이 분노하여 양주 직곡으로 물러나자 권력은 모두 민씨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 『대한계년사』 -

◆ 사진으로 보는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양요

 ▲ 서원 철폐 관련 매주시설 [58회] ☐	 ▲ 대전회통(고종) [53회] ☐	 ▲ 해미순교성지(충남 서산) [58회] ☐	 ▲ 베르뇌 주교 캐리커처 (병인박해) [53회] ☐
 ▲ 경복궁 영건일기 [55회] ☐	 ▲ 강화도 광정보 용두돈대(신미양요) [62회] ☐	 ▲ 충장사(어재연)(인천 강화군) [61회] ☐	 ▲ 광정보 전투(어재연) [54회] ☐
 ▲ 적화비(자연석) [67회] ☐			

주제 46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1 조선의 문호 개방

-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66회] [62회] [60회] [56회] [53회] [52회] □

↳ 일본의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65회] □

↳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64회] [55회] □

↳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하였다. [54회] □

↳ 운요호 사건이 일어났다. [47회] □

- [최익현] 지부복궐척화의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함. [60회] □

↳ 최익현, 지부복궐척화의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다. [67회] □

■ 최익현의 개항 반대 상소 [50회]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洋賊)입니다.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 섞여 들어오게 되고, 조금 지나면 전도사와 신도가 전수하여 사학이 온 나라에 두루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 지부복궐척화의소 -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53회] □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53회] □

↳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9회] [48회] □

↳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되었다. [62회] □

↳ 부산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었다. [49회] □

- [신현]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63회] [57회] □

↳ 신현,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기다. [67회] □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1회] [53회] [52회] □

↳ 김기수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60회] [48회] □

↳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59회] [56회] □

↳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50회] □

↳ [김기수]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51회] □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체결 [61회] [59회] [48회] □

• 발신: 의정부

수신: 각 도 관찰사, 수원·광주·개성·강화의 유수, 동래 부사

제목: 조약 체결 알림

1. 관련

가. 영종진 불법 침입 보고(강화부, 을해년)

나. 교섭 결과 보고(신헌, 병자년)

2. 일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 알립니다. 해당 관아에서는 연해 각 읍에 통지하여, 앞으로 일본국의 표식을 게양 또는 부착한 선박이 항해 또는 정박 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조약 본문 등사본 1부. 끝,

• 이칭: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연도: 1876년

협상 대표: 신헌, 구로다 기요타카

• 주요 조항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제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 (치외법권 조항)

■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보고 [54회] □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 옳드리니 왕이 말하였다. “전선, 화륜과 농기계에 관하여 들은 것은 없는가? 저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하던가?” 김기수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54회] □

2 개화 정책의 추진

•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66회] [62회] [49회] □

↳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하였다. [47회] □

↳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60회] □

↳ 통리기무아문 설치와 개화 정책 추진 [67회] □

↳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 [54회] □

↳ 통리기무아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52회] [48회] □

↳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61회] □

↳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56회] □

- ↳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제2차 수신사 파견]. [55회] [51회] □
-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66회] [56회] [52회] [49회] □
- ↳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62회] [47회] □
- ↳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되었다. [60회] □
- ↳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53회] □
- ↳ [별기군]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55회] □
- ↳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50회] □
-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59회] □
-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영으로 통합하였다[무위영, 장어영]. [58회] □
- ↳ 5군영을 2영으로 통합하였다. [63회] □
- ↳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었다. [66회] □
- ↳ 5군영에서 2영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54회] □
-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국내에 조선책략을 소개하였다. [62회] □
- ↳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56회] □
- ↳ [김홍집] 조선책략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52회] □
- ↳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51회] □
- ↳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67회] [49회] □

■ 김홍집과 황준헌의 대화 [47회] □

현재 조선에 가장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집) /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며, 미국과 연계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합니다. (황준헌)

- [조사 시찰단]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53회] □
- ↳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출국하였다. [52회] □
- ↳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51회] □
- ↳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 [55회] □

■ 조사 시찰단 파견 [54회] □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서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정국의 형세, 풍속·인물·교방·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날날이 탐지하여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라는 내용이었다.

-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65회] □
- [김윤식]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었다. [57회] □
 - ↳ 김윤식이 청에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66회] [49회] □
 - ↳ 청에 영선사로 김윤식을 파견하였다. [47회] □
- [영선사]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53회] □
 - ↳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51회] □
 - ↳ 영선사 일행으로 청에 가는 생도 [59회] [53회] □
 - ↳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59회] □
 - ↳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58회] [50회] □
 - ↳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52회] □

■ 음청사(김윤식 일기) [52회] □

음청사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된 김윤식이 쓴 일기이다. 당시 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실상은 물론 이홍장과 나눈 대담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근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밀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55회] □

3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47회] □
 - ↳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 [57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48회] □
 - ↳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57회] □
 - ↳ 거중 조정 조항을 포함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50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67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59회] □
 - ↳ 최혜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51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61회] [57회] [51회] □

제1관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
 제5관 ……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 (관세 자주권 조항)
 제14관 …… 미국과 그 상인이 종래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것 또한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 (최혜국 대우 조항)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지 표석 [62회] □

영어, 중국어 안내문을 추가한 표석 설치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체결된 장소에 새로운 표석이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한글 안내판에 영어와 중국어 안내문을 추가한 이번 표석 설치의 개항기 대외 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장소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 입구 인근)

-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푸트 공사를 파견하였다. [65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62회] □
 - ↳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63회] □
 - ↳ [민영익] 보빙사의 전권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되다. [64회] □
 - ↳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냈다. [59회] □
 - ↳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51회] □
 - ↳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52회] □
 - ↳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관리 [61회] □
 - ↳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60회] □
 - ↳ 미국에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54회] □
 - ↳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었다. [56회] □

■ 보빙사 [51회] □

보빙사,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하다

◆ 기획 의도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보빙사의 발자취를 통해 근대 문물을 시찰한 과정을 살펴본다.

◆ 장면별 구성

- #1.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하다
- #2.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다
- #3.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다
- #4.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다

- [박정양] 초대 주미 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다[1887년]. [49회] □
-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59회] □
 - ↳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48회] □
 - ↳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54회] □
 - ↳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되었다. [66회] □
 - ↳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51회] □

■ 죽천 박정양 [67회] [48회] □

- 생몰: 1841년~1905년
- 시호: 문익(文翼)
- 주요 활동
 -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 파견
 - 초대 주미 공사 부임
 - 호조 판서, 한성부 판윤 역임
 - 군국기무처 부총재 겸임
- 저서: 일본내무성시찰기, 미속습유 등
- 초대 주미 공사인 박정양은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 활동을 펼친 후 귀국하여 미속습유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4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64회] [60회] [47회] □

↳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65회] [56회] □

↳ 영남만인소에 동참하는 유생 [51회] □

■ 영남만인소 [50회] □

지금 조정에서는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하여 러시아가 없는 마음을 먹게 하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 오랑캐를 끌어들이려 하십니까? 저 황준헌이라는 자는 스스로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일본을 위해 말하고 예수를 좋은 신이라 하며, 난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짐승과 같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 영남만인소 -

-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57회] □
- [임오군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63회] □
 - ↳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61회] □
 - ↳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사건 [51회] □
 - ↳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9회] [51회] □
 - ↳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53회] □
 - ↳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55회] [49회] □
- [임오군란]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55회] □
- [임오군란]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56회] [52회] □
 - ↳ [일본 공사관] 임오군란 때 구식 군인들의 습격이 있었다. [49회] □
 - ↳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48회] □

■ 임오군란 당시 일본 공사의 보고 [61회] □

발신: 조선 주재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수신: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이달 23일 오후 5시 성난 군중 수백 명이 갑자기 공사관을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방화함. 전력으로 방어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원병이 오지 않았음. 한쪽을 돌파하여 왕궁으로 가려 해도 성문이 열리지 않았음. …… 성난 군중이 왕궁 및 민태호와 민겸호의 집도 습격했다고 들었음. …… 교관 호리모토 외 8명의 생사는 알 수 없음.

- [임오군란] 왕비가 궁궐을 빠져 나와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59회] □

■ 임오유월일기 [55회] □

이것은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 사건 당시 민응식이 왕비를 호종(扈從)하며 기록한 자료입니다. 궁궐을 빠져 나온 왕비의 피란 과정과 건강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임오군란] 흥선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9회] □

■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 [54회] [51회] □

-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도 가담했어. / 고종은 흥선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지.
- 흥선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궐내에서 거처하며 5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난병(亂兵)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 [임오군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56회] [47회] □

↳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67회] [60회] □

↳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56회] [54회] □

↳ 흥선 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5회] □

■ 청으로 압송된 흥선 대원군 [53회] □

제1조

이하응을 보정성성(保定省城)으로 이송하여 청하도의 옛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 이하응에게 오가는 서신 일체는 밀봉할 수 없으며 간수 위원의 검열을 거쳐야 보낼 수 있다. 밀봉되었거나 한글로 된 서신은 위원이 반송한다.

[해설] 청으로 끌려간 흥선 대원군(이하응)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이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은 그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 [임오군란]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60회] □

↳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59회] □

↳ [제물포 조약]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65회] [55회] [53회] [51회] □

↳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67회] □

↳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59회] □

- [임오군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65회] [56회] [53회] □

■ 하도감 터 [65회] □

동대문 일대 재개발 당시 발견된 하도감 터 사진이군요.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장소인가요? / 여기는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작했던 곳입니다. 1881년부터 이듬해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임오군란 때까지 교련병대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59회] □	▲ 면암 최익현의 상소,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 [64회] □	▲ 음청사(김윤식) [52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57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지 표석 [62회] □	▲ 임오유월일기(임오군란) [55회] □	▲ 하도감 터(임오군란) [65회] □	
▲ 초대 주미 공사(죽천 박정양) [67회] □		▲ 죽천 박정양 [48회] □	

주제 47 개화파의 형성과 갑신정변

1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

- 오경석의 해국도지를 국내로 들여왔다. [48회] □

■ 개화사상의 선구자, 환재 박규수 [63회] □

박지원의 손자이며,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자신의 사랑방에서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 정세를 전하였으며, 청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호 개방을 주장하는 등 개화사상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 광기락의 동도서기론 [48회] □

우리 조정은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비록 황준헌의 책자로 말하더라도 그 글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신은 진실로 모르지만 ……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 및 식목에 대한 책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하여 시행할 일이지, 굳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광기락의 상소 -

2 갑신정변

-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52회] □

↳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51회] □

- 급진 개화파의 정치 개혁 운동 [57회] □

■ 갑신정변 모의 [56회] □

김옥균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에게 국왕의 호위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그는 호위를 요청하는 국왕의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친서는 박영효가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케조에는 조선에 주둔한 청군 1천 명이 공격해 들어와도 일본군 1개 중대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65회] [61회] [55회] □

↳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56회] [48회] □

↳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 [53회] □

■ 갑신정변의 발생과 전개 [66회] [64회] [60회] [59회] □

•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초청했다. ……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 우영사 민영익이+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서 문밖으로 나왔는데, 자객 다섯 명이 잠복하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며 습격했다.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되돌아와서 대청 위에 쓰러졌다.

- 『대한계년사』 -

• 17일에 흥 참판이 우정총국에서 개국 연회를 열었다. 그동안에 [담장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민 참판은 양해를 구한 뒤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연회에 참석한 일본 공사를 호위하기 위해 온 일본 병사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는 그들을 지나쳤다. 민 참판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 몸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었다.

-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일기』 -

•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연회를 열어 세인들이 독립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각국 사관(使官) 등을 초대하였다. 연회가 끝날 무렵에 우정국 옆에서 불이 일어났다. …… 마침내 어젯밤의 사변에 따라 독립당이 정권을 획득하였다. 조보(朝報)에서는 새롭게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취지를 포고하였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은 승지가 되었고, 김옥균은 해상공국 당상을 겸하였다.

- 「조난기사」 -

•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 활동과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하여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궁으로 옮기시게 한 후 일본 병사로 하여금 호위할 방심을 세웠다. 곧이어 주상께 일본군의 지원을 구하도록 요청하니, 주상은 곧 영숙문 앞 노상에서 연필로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라는 글을 친히 쓰시어 주시느니라. …… 졸지에 변란을 만난 사대당의 거두들은 주상께서 경우궁에 계심을 듣고 입궐하다가 …… 민영목, 민태호 등은 용감한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였다.

•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 [59회] □

■ 개화당의 개혁 정강 [49회] □

이것은 개화당이 갑신정변 당시 발표한 개혁 정강의 일부입니다. 개화당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1.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 의정소에서 회의하고 왕에게 보고한 후 정령을 반포해서 시행할 것.

•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61회] □

↳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변수]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54회] □

↳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67회] [60회] □

↳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56회] [54회] □

• [한성 조약, 텐진 조약]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67회] [53회] [51회] □

↳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어요. [57회] □

↳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3회] [50회] □

L 조선과 일본이 한성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52회] □

L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66회] [49회] □

L 청·일 간 텐진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50회] □

■ 러시아 외교관의 갑신정변 보고 [52회] □

이반 세스타코프 각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에서 수 명의 조선 고관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하면서 서울 주재 청국 수비대와의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며, 패배한 일본인들은 제물포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H. 기르스

■ 갑신정변에 대한 의견 [63회] □

- 이번 시간에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김옥균 등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그들이 개혁안에서 내세운 인민 평등권 확립 등은 이후의 근대적 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하지만 일부 급진 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고, 청과의 사대 관계 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힘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정세

-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60회] □
-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53회] □
 - L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49회] □
 - L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점령하였다. [58회] □
 - L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54회] □
 - L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65회] [50회] [48회] □
 - L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과정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63회] □
 - L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61회] [59회] □
 - L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영국군 [57회] □
-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되었다. [60회] □

■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55회] □

나오리,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 없이 점령했다고 들었네.

• [유길준]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하였다. [63회] ☐

↳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54회] ☐

◆ 사진으로 보는 개화파의 형성과 갑신정변



▲ 환재 박규수 [63회] ☐

주제 48 동학 농민 운동

1 동학의 교세 확장과 교조 신원 운동

- 최시형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58회] [47회] □
- 포접제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57회] □
-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며 삼례 집회를 개최하였다. [64회] □
 - ↳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열린다. [58회] □
 - ↳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55회] □
 - ↳ 서울에서 교조 신원을 위한 복합 상소를 올리다. [47회] □
 - ↳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보은 집회가 개최되었다. [67회] □
 - ↳ 보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63회] [51회] □
 - ↳ 보은 집회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59회] □
 - ↳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56회] □
- [최시형]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조 신원 운동을 주도하였다. [49회] □

1 동학의 교조 신원 운동 [65회] [57회] □

• 외무부 장관께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는 동학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 사흘 전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 문 앞에 모여 엎드려 절하고 상소를 올렸으나 국왕은 상소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교도들은 처형된 교조 최제우를 복권하고 동학을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조선 국왕이 들어줄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 H. 프랑델

• 복합 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라던 국왕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날로 심해졌다. …… 최시형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제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보은 집회를 개최하였다.

2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와 의의

- 고부 농민 봉기 → (안핵사 이용태 파견) → 황토현 전투 → 전주 화약 체결 → (교정청 설치)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남접과 북접의 연합 → 우금치 전투 → (전봉준 체포) [62회] □
- [고부 농민 봉기] 조병갑의 탐학이 계기가 되었다. [52회] □
 - ↳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59회] □

- ↳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해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51회] □
- ↳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65회] □
- ↳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여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56회] □
- ↳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67회] □
- ↳ 고부 농민들, 폭정에 항거하여 봉기하다. [47회] □
- ↳ 고부 민란이 일어나다. [58회] □
- ↳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고부 농민 봉기]. [66회] □
- ↳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53회] □

■ 고부 농민 봉기 [59회] □

군수 조병갑은 탐학이 심하여 군민들이 그 주구에 시달려왔다. 그러던 중 조병갑이 다시 만석보 보수를 빙자하여 백성을 강제 노력시키고 불법적인 징세를 자행하였기에 군민들이 더욱 한을 품게 되었다. …… 전봉준은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관아를 습격하고 관청에서 쌓은 보를 허물어 버렸다.

- [동학 농민 운동]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1차 봉기, 고부 백산 대회]. [63회] [59회] [51회] □
- ↳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51회] □
- ↳ 백산에서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다. [47회] □
- [동학 농민 운동]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다. [58회] □
- ↳ 황토현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56회] □
- ↳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다. [47회] □
- ↳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50회] □
- ↳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67회] □

■ 황토현 전투 [65회] □

동학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현에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그 아래에 진을 쳤다. ……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한 채 한쪽 모퉁이만 빼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다. [47회] □
- ↳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64회] [55회] □
- ↳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61회] □

■ 전주 화약 체결 [67회] [54회] [51회] □

-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시오. / 알겠소. 폐정 개혁과 농민군의 신변 보장을 해주시오.
- 이제 화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주성에서 해산하시오. / 알겠소. 대신 우리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 지난달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이 마침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민군은 곧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65회] [51회] □
-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51회] □
- 폐정 개혁안 실천을 위해 집강소 설치를 요구하였다. [49회] □
- ↳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48회] □
- ↳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57회] □
-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56회] □
- ↳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다. [63회] □
- [2차 봉기]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61회] [48회] □
- ↳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54회] [52회] □
- ↳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으니 왜적을 몰아내는 데 온 힘을 다합시다. [51회] □
- ↳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67회] [56회] □
- ↳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하다. [58회] □
- ↳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65회] □
-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53회] □
- ↳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웠다. [56회] □
- ↳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49회] □
- ↳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47회] □
- ↳ 우금치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였다. [51회] □
- ↳ 우금치에서 패배하다. [58회] □
- [전봉준]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64회] □
-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65회] □

■ 우금치 전투 [50회] □

이곳은 공주 우금치 전적으로 **동학 농민 운동** 당시 남접과 북접 연합군이 복상하던 중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장소입니다. 우금치는 도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되다. [47회] □
- [동학 농민 운동] 낡은 체제와 외세의 압박에 맞섰던 농민들, 그들이 이끈 변혁의 과정 [58회] □

■ 전봉준 사형 선고서 [49회] ☐

고부 군수 조병갑이 부임하여 학정을 행하니 **전봉준**은 그 무리를 이끌고 고부 관아의 창고를 털어 곡식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 무장에서 일어나 장성에 이르러 관군을 격파하고, 밤낮없이 행군하여 전주성에 들어가니 전라 감사는 이미 도망하였다. …… 위에 기록한 사실은 피고와 공모자 손화중 등이 자백한 공초, 압수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니 이에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 사진으로 보는 동학 농민 운동

 ▲ 동학 농민 운동 전개 과정 [62회] ☐	 ▲ 1894, 녹두꽃 피고 지다(동학 농민 운동) [58회] ☐	 ▲ 백산 봉기 [56회] ☐	 ▲ 전주성 점령 [56회] ☐
 ▲ 공주 우금치 전적 [50회] ☐			

주제 49 갑오·을미개혁

1 갑오개혁

-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65회] ☐
 - ↳ 개혁 추진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63회] ☐
 - ↳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58회] [50회] ☐
 - ↳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54회] ☐
 - ↳ 교정청 설치 [62회] ☐
-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51회] ☐
 - ↳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49회] ☐
 - ↳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65회] ☐
 - ↳ 군국기무처가 창설되었다. [66회] ☐

■ 도원 김홍집 [57회] [49회] ☐

- 1842년 출생
- 1867년 문과에 급제함
-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됨),
국내에 조선책략을 가져옴
- 1884년 한성 조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을 맡음,
좌의정으로 임명됨
- 1896년 아관 파천 후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됨[사망]

■ 군국기무처 [64회] [63회] [47회] ☐

- 이 그림은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총재 김홍집 등 회의에 참여한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개월 동안 20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는군. / 은본위제 채택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고 들었네.
-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각하께
전임 일본 공사는 국왕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개혁 위원회[군국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 놓았습니다. …… 이후 개혁 위원회[군국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몇몇 조치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니 이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 게다가 조선인들은 이 기구가 왕권을 빼앗고 일본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면서, …… 어떤 지방에서는 왕권 수호를 위해 봉기했다고 합니다. (제1차 갑오개혁)

주 조선 공사 르페브르 올림

- [김홍집] 총리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하였다. [57회] ☐
- [1차 갑오개혁]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52회] ☐
- [1차 갑오개혁]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 [61회] ☐
 - ↳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59회] [56회] [49회] [47회] ☐
 - ↳ 공사 노비법 폐지 [55회] ☐

↳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52회] □

↳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64회] □

↳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47회] □

■ 공사 노비법 혁파 [58회] [53회] □

- 나는 군국기무처의 총재 김홍집입니다. 신분 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노비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습니다.
- 군국기무처 의안에서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 갑오개혁(제1차) [67회] [51회] [48회] □

- 1. 지금부터는 국내외의 공사(公私) 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 1.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 1.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 1.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 1.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 1. 과부가 재가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 1.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 [1차 갑오개혁]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52회] □

↳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56회] [49회] [47회] □

↳ 행정 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49회] □

■ 과거제 폐지 [54회] □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하네. / 앞으로 인재 등용에 큰 변화가 있겠군.

- [1차 갑오개혁] 은본위제를 도입하였다. [63회] □

↳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60회] □

- [1차 갑오개혁]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64회] □

- [1차 갑오개혁]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47회] □

- [2차 갑오개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57회] [54회] □

↳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다. [63회] □

↳ 개혁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반포 [67회] □

↳ 홍범 14조 반포를 계기로 시행되었다. [62회] □

↳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65회] □

↳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55회] □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49회] □

■ **홍범 14조** [51회] □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

- [2차 갑오개혁] 지방 행정 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61회] □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52회] □

23부로의 지방 제도 개편과 지방관 권한 축소 [67회] □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49회] □

〔틀림〕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64회] □

■ **지방 행정 구역, 23부로 개편** [64회] □

전국을 23부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 부, 군, 현이 명칭과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판관, 현령, 현감의 관명을 다 없애고 읍의 명칭을 군이라고 하며 읍 장관의 관명을 군수라고 한다.

- [2차 갑오개혁]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59회] □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66회] □

■ **한성 사범 학교 규칙** [64회] □

제1조 한성 사범 학교는 칙령 제79호에 의해 교원에 활용할 학생을 양성함

제2조 한성 사범 학교의 졸업생은 소학교 교원이 되는 자격이 있음

제3조 한성 사범 학교의 본과 학생이 수학할 학과목은 수산·교육·국문·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작문·체조로 함

⋮

- [2차 갑오개혁]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53회] □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63회] □

■ **갑오개혁(제2차)** [59회] [55회] [52회] □

•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다더군. / 그렇다네. 이제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한다는군.

• 군국기무처 폐지 이후 김홍집·박영효 주도로 추진

1) 정치 분야

○ 중앙: 의정부 → 내각, 8아문 → 7부

○ 지방: 전국 8도 → 23부로 개편, 재판소 설치(지방관 권한 축소)

•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1895년 2월]. [57회] [53회] □
- ↳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64회] □
- ↳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48회] □
- ↳ 교육입국 조서 반포 [55회] □
- [청일 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54회] □
- [청일 전쟁] 삼국 간섭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한다[탐구 활동]. [63회] □

■ 삼국 간섭 [49회] □

며칠 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압력으로 일본이 청에 랴오둥반도를 반환한다는 소식 들었는가? / 들었네. 우리도 이 기회에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네.

-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66회] [53회] □
- ↳ [경복궁 건청궁 곤녕합] 일본 낭인들이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49회] □
- ↳ 아관 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51회] □

■ 을미사변[명성 황후 시해 사건] [56회] [47회] □

- 광화문을 통해 들어온 일본 병사들이 건청궁으로 침입하였다. …… 일본 장교는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자객들은 여러 방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왕후를 찾아내어 시해하였다.
- 일본군의 엄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청궁으로 침입하였다. 그들은 왕과 왕후의 처소로 달려가 몇몇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하였다. 폭도들이 달려들자 궁내부 대신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아 섰다. ……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 주었다.

2 을미개혁(제3차 개혁)

-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64회] [58회] [50회] □
- ↳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66회] [54회] □
- ↳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다. [61회] □
- ↳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49회] □
- ↳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62회] □
- ↳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47회] □

■ 단발령 시행(을미개혁) [51회] [48회] [47회] □

- 이번 단발은 위생에 이익이 되고 일을 할 때 편하기 위하여 우리 성상 폐하께서 정치 개혁과 국가의 부강함을 도모하고자 솔선하여 표준을 보이심이라. 무릇 우리 대조선국 인민은 이와 같은 성의를 본받되 의관 제도는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망건은 폐지함
 1.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함
-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臣民)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라.”라고 하셨다.

•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63회] [59회] ☐

↳ 태양력을 시행하였다. [56회] ☐

↳ [을미개혁] 태양력 도입 [58회] ☐

↳ 태양력 사용 [55회] ☐

■ 태양력 도입 [58회] ☐

고종실록에 1895년 12월의 기록이 없어. 1895년 11월 16일 다음 날이 1896년 1월 1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 그건 당시 추진된 **을미개혁**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야.

3 아관 파천

•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59회] [50회] ☐

↳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를 찾아본다[탐구 활동]. [63회] ☐

■ 아관 파천 [53회] [47회] ☐

• 발신: 고무라(일본국 변리공사)

수신: 사이온지(일본국 외무대신)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여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의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으나, 조금도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음.

•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이범진, 이윤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김홍집 등이 군중에게 잡혀 살해되자 유길준, 장박 등은 도주하였다.

◆ 사진으로 보는 갑오·을미개혁



▲ 도원 김홍집 [57회]
[49회] ☐



▲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
[63회] ☐



▲ 태양력 도입 [58회] ☐

주제 50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

1 아관 파천 이후의 상황

2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

-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54회] ☐

↳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52회] ☐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55회] [47회] ☐

- [서재필]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54회] ☐

- 독립 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51회] ☐

↳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54회] [53회] ☐

↳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61회] ☐

↳ 독립문의 건립 과정을 알아본대[탐구 활동]. [66회] ☐

↳ 독립문이 건립된 과정을 살펴본대[탐구 활동]. [50회] ☐

■ 독립문 이전 결정 [57회] ☐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 독립문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독립문은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독립 협회가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웠습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 부근에 있는 독립문은 이번 결정으로 원래 자리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공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 [열강의 이권 침탈] 독립 협회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60회] ☐

-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61회] [47회] ☐

↳ 만민 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48회] ☐

↳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66회] ☐

↳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57회] ☐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56회] ☐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어요. [62회] ☐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64회] [48회] ☐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65회] □

독립 협회의 주요 간부인 이상재, 정교 등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밝히려는 글이군. 듣기에 절영도에 러시아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땅을 청구한다고 하니 러시아 사람의 요청대로 빌려줄 건지, 잠깐만 빌려줄 건지, 영영 줄 건지, 빌려줄 때에는 정부 회의를 거치는지, 홀로 결정하여 도장을 찍는지

-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59회] [53회] □

↳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다. [63회] □

↳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50회] □

↳ 관민 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 내용을 분석한다[탐구 활동]. [51회] □

-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관민 공동회, 헌의 6조]. [65회] [61회] [49회] □

↳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62회] □

■ 독립 협회의 헌의 6조 제출 [64회] □

독립 협회는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다. 회장은 모임을 여는 큰 뜻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황제 폐하께서 대황제라는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계천(繼天) 경축일이니, 대한의 신민은 이를 크게 경축드립니다. 우리는 관민 공동회에서 황실을 공고히 하고 인민을 문명 개화시키며 영토를 보존하고자 여섯 개 조항의 의견안을 바쳤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회원들은 조칙 5조와 헌의 6조 10만 장을 인쇄하여 온 나라에 널리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다. 경축연을 마친 회원들은 울긋불긋한 종이꽃을 머리에 꽂은 채 국기와 독립 협회의 깃발을 세우고 경축가를 부르며 인화문 앞으로 가서 만세를 외치고 종로의 만민 공동회로 갔다.

- [자강 개혁 운동{관민 공동회}]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65회] [56회] □

↳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61회] [51회] □

- [박정양] 참정대신 자격으로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였다. [54회] □

↳ 독립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67회] [48회] □

■ 관민 공동회(중추원 신관제) [51회] □

제1조 중추원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議定)하는 곳으로 할 것이다

1.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혹은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일체 사항

⋮

제3조 의장은 대황제 폐하가 글로 칙수(勅授)하고, 부의장은 중추원에서 공천에 따라 폐하가 칙수하며, 의관은 그 절반은 정부에서 나라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을 회의에서 상주하여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협회(人民協會) 중에서 27세 이상되는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선거할 것이다.

■ 독립 협회의 활동 [63회] □

독립 협회. 공론의 장을 열다

■ 제작 의도

지식인뿐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독립 협회 활동을 살펴본다.

■ 장면별 구성 내용

- #1. 독립문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으다
- #2.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 #3.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다
- #4. 황국 협회의 습격으로 사망한 구두 수선공의 장례를 치르다

■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한서 남궁억 [53회] □

- 생몰년: 1863~1939
- 생애 및 활동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고, 동문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1896년 서재필과 함께 독립 협회를 창립하여 활동하였다. 독립 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이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이상재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하는 논설과 기사를 실은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해산 명령에 대한 독립 협회원의 항의 [49회] □

해산 명령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정부가 우리 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보부상까지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종로에 모여 해산 명령 철회와 탄압 중지를 요구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독립 협회의 창립과 활동

 ▲ 독립문 이전 결정 [57회] □	 ▲ 한서 남궁억 [53회] □		
--	---	--	--

주제 51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1 대한 제국의 수립

■ 고종 환궁 요청 장소 [65회] □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곳 유리창과 분칠한 담장은 화려하지만, 그을음 나는 석탄을 때는 전돌(甌堧)은 옥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 온 나라 신하들의 심정을 염두에 두시어 간하는 말을 따라 바로 환궁하여 끓어오르는 여론에 부응하시고 영원히 누릴 태평의 터전을 공고히 만드소서. (1896.2)

• [경운궁(덕수궁)]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환궁한 곳이다. [62회] [48회] □

• [환구단(원구단)] 대한 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49회] □

↳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이다. [65회] □

■ 대한 제국의 수립 [60회] [56회] [47회] □

• 고종은 이곳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경운궁에서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환구단은 일제에 의해 헐려버렸고 지금은 황궁우가 외로이 남아 있습니다.

• 며칠 전 폐하께서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로 즉위하셨다는 소식 들었는가? / 들었네. 어제는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하셨다고 하더군.

•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끝내 거절할 수 없어 ……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고 올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

2 광무개혁

•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이 추진되었다. [52회] □

↳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50회] □

↳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추진한 정책 [67회] □

■ 광무개혁 [49회] □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추진된 개혁에 대해 말해보자. / 상공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공 학교를 세웠어. /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했어.

•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60회] [58회] □

↳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65회] [50회] □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57회] □

대한국 국제 반포와 황제 중심 정치 구조 [67회] □

-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60회] [49회] □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59회] □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65회] [53회] □

원수부 창설과 황제의 군 통수권 강화 [67회] □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두었다. [57회] □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47회] □

원수부를 두었다. [63회] □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51회] □

■ 원수부 설치 [66회] [48회] □

<원수부 관제>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軍機)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제1조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와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제1조 중복 출제)

제2조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제3조 원수부는 황궁(皇宮) 내에 설치한다.

■ 주판임관시험급임용규칙 [62회] □

제4조 의정부 및 각 부 판임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 장관이 전권으로 임명한다. 단, 졸업자가 없을 시에는 문필과 산술이 있고 시무에 통달한 자로 시험을 거쳐서 임명한다.

- 관립 의학교와 광제원을 설립하였다. [62회] □
-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61회] [54회] □
-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60회] □
-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64회] □
-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65회] [64회] [48회] □
-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계가 발급되었다. [56회] □
-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54회] [47회] □
-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는 관리 [59회] □

지계아문을 설립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60회] □

지계아문을 설립하였다. [58회] □

지계아문이 설치되었다. [66회] □

지계 발급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 [67회] □

지계 발급 [55회] □

-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한 목적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57회] □

지계 발급 [51회] □

이제 지계사무(地契事務)를 강원도에서 실시하여 영동은 울진군부터 시작하고, 영서는 춘천군부터 시작하여 토지를 개량(改量)한 후 관계(官契)를 발급합니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답가사(田畓家舍)를 강원도에 두고 있는 인민은 구권(舊券)을 가지고 음력 8월 15일 내로 토지가 있는 군에 가서 관계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광무 ○년 ○○월 ○○일 지계아문

파리 만국 박람회 참가 [62회] □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삽화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르미타주)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한국관은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뒤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은 만국 박람회 참가를 통해 대한 제국을 세계에 소개하고, 서구의 산업과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 환구단과 황궁우 [60회] □	 ▲ 황궁우 [60회] □	 ▲ 황제지보 [55회] □	 ▲ 광무개혁 [54회] □
 ▲ 파리 만국 박람회 한국관 [62회] □	 ▲ 지계 [67회] □		

환수된 황제지보 특별 전시전 [55회] □

초대의 글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대한 제국 시기에 사용하였던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를 공개합니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지난 2014년 문화재청과 미국 당국의 공조로 60여 년 만에 환수된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주제 52 일제의 국권 침탈

1 러일 전쟁

- 제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다[1902년]. [55회] ☐
-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1903년]. [55회] ☐
- ↳ 러시아가 용암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65회] ☐
- ↳ 용암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66회] [53회] ☐
-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47회] ☐
-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53회] ☐
- ↳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50회] ☐

2 일제의 국권 침탈

-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되었다. [64회] ☐
- [제1차 한일 협약]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53회] ☐
- ↳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51회] [48회] ☐
- ↳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64회] ☐
- ↳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59회] ☐
- ↳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57회] ☐
- ↳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되었다. [50회] ☐
- [스티븐스, 외교 고문]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을 알아본대[탐구 활동]. [63회] ☐

■ 제1차 한일 협약 [67회] ☐

두 달 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가타가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온다는군. /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인 것 같네.

- 일본과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64회] ☐
- ↳ 일본과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48회] ☐

■ 포츠머스 조약 [59회] [54회] □

• 오늘 신문에 강화(講和) 조약 전문이 공개되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보호 및 감리(監理)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다. 조선은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

- 『윤치호 일기』 -

•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감리의 조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덕수궁 증명전](#)]. [66회] [65회] [57회] □

•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외교권이 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52회] □

↳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50회] □

↳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66회] □

↳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67회] [59회] □

↳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 [55회] □

↳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57회] □

↳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1회] □

■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53회] [50회] □

• 11월 10일 이토,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를 전달

11월 15일 이토, 고종을 접견하고 협상 초안을 제출

11월 16일 이토, 대한 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 강요

11월 17일 일본군을 동원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 진행

11월 18일 이토, 외부인(外部印)을 탈취하여 고종의 윤허없이 조인

•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서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48회] □

■ 을사늑약 반대 상소(조병제) [55회] □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 포고한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전하겠다는 말을 폐하는 과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역지로 만든 헛된 조약에 불과합니다.

■ 국권 침탈의 아픔이 서린 덕수궁 중명전 [51회] □

지상 2층 지하 1층의 붉은 벽돌 건물인 중명전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황실의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04년 경운궁의 대화재 이후 고종 황제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다.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 [대한매일신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47회] □

•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53회] □

↳ [이상설, 이준, 이위종]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55회] □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50회] □

↳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67회] □

↳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54회] □

↳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66회] □

↳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목적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1회] □

■ 헤이그 특사 파견과 관련된 일제 외무대신의 통고 [65회] 57회] [48회] □

• 전보: 제○○○호

발신인: 외무대신 하야시

수신인: 통감 이토

네덜란드에 파견된 전권 대사 쓰즈키가 보낸 전보 내용임.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 회의의 위원 대우를 받고자 진력하고 있다고 함. 그들은 오늘 아침 러시아 수석 위원 넬리도프를 방문하려 했는데, 넬리도프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평화 회의 위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함. 이들은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정책에 대해 항의서를 인쇄하여 각국 수석 위원(단, 영국 위원은 제외한 것으로 보임)에게도 보냈다고 함.

• 전보 제○○○호

발신인: 하야시 외무대신(도쿄)

수신인: 이토 통감(한성)

헤이그에서 발행된 평화회의보는 한국 전 부총리대신 이상설 외 2명이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고 보도함. 기사에는 우선 그 한국인이 평화회의의 위원으로 한국 황제가 파견한 자라는 것이 기재되었고, 이어서 일본이 한국 황제의 뜻을 배반하고, 병력으로 한국의 법규 관례를 유린하고 동시에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한 점, 그 결과 자신들이 한국 황제가 파견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유감이라는 점 등이 실렸음.

• 대한 제국이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귀국 총통 및 대표의 호의적인 중재를 부탁한다.

■ 연해주 교민들, 이상설 유허비 지킴이로 나서 [49회] □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이상설**의 유허비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비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이끈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위종 [52회] □

주요 활동

1.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활동함

2. 연해주에서 결성된 동의회(同義會)의 회장으로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52회] ☐

↳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48회] ☐

-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58회] ☐

↳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53회] ☐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53회]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4조 한국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66회] ☐

-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군대 해산에 맞서 시위대 봉기 [60회] ☐

↳ 대한 제국의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51회] ☐

↳ [대한 제국 군대]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되었다. [62회] ☐

↳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66회] [57회] ☐

■ 대한 제국 군대 해산 [67회] [60회] [58회] ☐

•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한 데 이어 시위대 부대원들이 해산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해 일본군과 남대문 일대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박승환은 병대(兵隊)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국가가 망하였는데도 일본인 하나를 죽이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마 제군들이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둘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결하였다.

• 지난달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 군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군. / 들었네. 일부는 의병에 합류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네.

- 대한 제국이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64회] ☐

↳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67회] [52회] ☐

↳ 기유각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인되었다. [58회] ☐

-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8회] ☐

◆ 사진으로 보는 일제의 국권 침탈

 ▲ 덕수궁 중명전(을사늑약) [51회] ☐	 ▲ 이위종(만국 평화 회의 특사) [52회] ☐	 ▲ 보재 이상설 유허비(연해주 우수리스크) [49회] ☐	 ▲ 대한 제국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박승환) [60회] ☐
 ▲ 헤이그 특사 캐리커처 [48회] ☐			

주제 53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항거

1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

-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 게재되었다[장지연]. [51회] □
↳ 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싣다. [67회] □
- [장인환, 전명운]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62회] [59회] □
↳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56회] □

■ 스티븐스 저격 사건 [63회] □

해외 언론 보도로 본 민족 운동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그는 대한 제국의 외교 고문에 임명되어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자행하였다. …… 나는 어떤 처벌에도 불만이 없으며, 조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몸이 된다면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 [나철]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59회] [56회] □
-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59회] □
↳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53회] [48회] □
↳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였다. [49회] □

■ 안중근이 밝힌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유 [64회] □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 /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 하였다.

- [안중근]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56회] □

■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53회] □

이 자료는 1910년 **안중근**이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 평화론으로, 원래 5편으로 구상되었으나 사형 집행이 앞당겨져 서문과 전감(前鑑)만 집필되었.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한 한중일 삼국의 대등한 연합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국내에서 삼흥 학교 등을 세워 인재 양성에 힘쓰던 **안중근**은 망명하여 연해주 의병의 우영장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 [56회] □

이곳은 최근 다시 개관한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입니다. **안중근** 동상 위의 시계는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시각입니다.

- [이재명]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63회] [59회] [56회] □

↳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49회] [48회] □

↳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51회] □

2 항일 의병 항쟁

-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유인석, 이소응 등 유생들의 주도하에 일어났어요. [55회] □

↳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54회] □

↳ 이소응, 유인석 등이 주도하였다. [50회] □

↳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50회] □

↳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49회] □

■ 독립신문의 을미의병 보도 [66회] □

근일에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부에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며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견하여 환궁하실 기약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하는 고로, 의병을 일으켜 서울로 올라와 궁궐을 지키고 대군주 폐하를 환궁하시게 한다.”라고 하였다.

- [을사의병]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59회] □

- [을사의병]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어요. [55회] □

↳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 [52회] □

↳ [최익현]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64회] □

↳ [최익현]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섬에서 순국 [54회] □

■ 위정척사 운동과 면암 최익현(최익현의 상소,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 [64회] [57회] □

- (흥선 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다. [64회])

- [강화도 조약]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지부복궐척화외소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다. [64회])

- [(을미)변복령]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단발령에 반발하는 상소를 올리다. [64회])

- [을사늑약]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 [대한매일신보] 의병 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67회] □

-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결성 [62회] □

↳ [13도 창의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65회] □

ㄹ[이인영]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하였다[군사장 허위]. [63회] □

ㄹ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67회] [57회] [53회] □

ㄹ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64회] [49회] □

ㄹ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어요. [55회] □

ㄹ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48회] □

ㄹ[허위]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47회] □

ㄹ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 전개 [54회] □

ㄹ13도 창의군의 활동을 검색한다[탐구 활동]. [51회] □

■ 왕산 허위(1855~1908) [54회] □

- 단발령 반대 의병에 참여
- 평리원 재판장 역임
-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 전개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13도 창의군 [65회] [52회] □

• 한국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

지금 서울 근처 각 지방에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하는 모양인데,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곳에는 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 기동하는데 곳곳의 철로와 전선을 끊고 일본 순검이나 철로와 전보국의 사무원을 만나는 대로 죽인다 하며 …… 녹도 땅에 의병을 치러 갔던 일본 원정대는 처참하게 몰살되었다고 한다.

•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 …… 각 도에 격문을 전하니 전국에서 불철주야 달려온 지원자들이 모여 명이더라. 이에 서울로 진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 먼저 이인영은 심복을 보내 각국 영사에게 진군의 이유를 상세히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각 도의 의병으로 하여금 일제히 진군하게 하였다.

3 애국 계몽 운동

• [을사늑약] 대한 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63회] □

• [대한 자강회]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57회] [53회] □

ㄹ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61회] □

ㄹ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63회] □

ㄹ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49회] □

•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하였어요. [62회] □

ㄹ[안창호] 신민회 결성을 주도했어요. [47회] □

• [신민회]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49회] □

ㄹ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54회] □

ㄹ오산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전개하였어요. [51회] □

ㄹ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세웠다. [64회] □

↳ [이승훈]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67회] □

↳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57회] □

↳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다. [63회] □

■ 대성 학교 [56회] □

이것은 평양에 있던 대성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신민회**가 설립하였습니다.

• [안창호] 대성 학교를 세우고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50회] □

↳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47회] □

↳ 서북 학회를 조직했어요. [47회] □

↳ 흥사단을 창설했어요. [47회] □

■ 전덕기의 편지 [61회] □

이 편지는 비밀 결사인 **신민회**의 재무를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것이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주요 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

• [신민회]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61회] □

↳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51회] □

↳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 서적을 보급하였다. [64회] □

↳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63회] □

↳ 태극서관을 운영하며 계몽 서적을 보급하였다. [52회] □

↳ 태극서관을 운영하며 계몽 서적 등을 보급하였다. [65회] □

↳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56회] □

■ 태극서관 [62회] [48회] □

• 이 신문 광고를 낸 태극서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운 **신민회**의 산하 기관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에 태극서관이 게재한 서적 할인 광고입니다.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신민회**가 운영한 기관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성 학교도 설립한 **신민회**에 대해 말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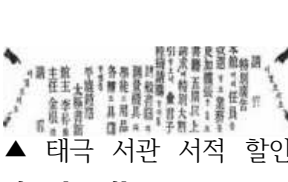
• [신민회]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50회] □

• [신민회]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60회] □

↳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53회] [48회] □

- └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67회] □
- └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63회] □
- └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66회] □
- └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56회] □
- └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다. [58회] □
- └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다. [47회] □
- └ 일제에 의해 조작된 105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65회] □
- └ 105인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51회] □
- └ 105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0회] □
- [교육 운동(학회 조직, 사립 학교 설립)] 사립 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1908년]. [54회] □

◆ 사진으로 보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항거

 ▲ 왕산 허위 [54회] □	 ▲ 스티븐스 저격 사건(장인환-전명운) [63회] □	 ▲ 동양평화론(안중근) [53회] □	 ▲ 안중근 동상(하열빈 안중근 기념관) [56회] □
 ▲ 전덕기 편지(신민회) [61회] □	 ▲ 대성 학교(신민회) [56회] □	 ▲ 태극서관 서적 할인 광고 [62회] □	 ▲ 태극서관 서적 할인 광고 [48회] □

주제 54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 운동

1 청과 일본의 무역 경쟁

- [임오군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56회] [53회]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52회] [49회]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67회] □

제4조 ……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 [조일 통상 장정]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53회] [51회] □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60회] □

↳ 조일 통상 장정의 조항을 검토한다[탐구 활동]. [66회] □

■ 조일 통상 장정 [67회] [53회] [51회] □

-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네. / 그렇지만 이 장정으로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더군.
-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2회 출제)

- [조일 통상 장정]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67회] □

2 열강의 이권 침탈

- [독일] 당현 금광 채굴권 [52회] □
- [일본] 경부선 철도 부설권 [52회] □
- [미국] (평북) 운산 금광 채굴권 [52회] □

↳ 경인선 철도 부설권 [52회] □

↳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하였다[1898년]. [55회] □

- [러시아] 울릉도 삼림 채벌권 [52회] □
- 독립 협회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60회] □
- [메가타 다네타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 [62회] □

ㄹ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61회] [53회] □

ㄹ[화폐 정리 사업]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60회] □

-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탐구 활동]. [57회] [55회] □

ㄹ화폐 정리 사업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탐구 활동]. [66회] □

■ 화폐 정리 사업 [50회] □

백동화를 제일 은행권으로 바꾸려고 교환소에 갔더니,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 바꿔 주더군. / 백동화는 곧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손해를 보더라도 교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 화폐 정리 사업의 폐해 [60회] □

한국에서 유통되는 백동화에 대한 처분안을 들어보면,

갑(甲) 구 백동화는 1개당 신화폐 2전 5리의 비율로 교환한다.

을(乙) 부정한 구 백동화는 1개당 신화폐 1전의 비율로 매수한다. 매수를 바라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것을 절단하여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병(丙) 형체와 품질이 화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다.

⋮

이른바 폐제(幣制) 개혁은 통화를 금절(禁絶)하여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한국 폐제 개혁에 관한 진정서」 -

-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65회] [53회] □

ㄹ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66회] □

ㄹ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살펴본다[탐구 활동]. [55회] □

3 경제 침탈에 대한 조선 정부와 상인의 대응

- [방곡령]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탐구 활동]. [57회] □

ㄹ방곡령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를 알아본다[탐구 활동]. [55회] □

ㄹ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곡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4회] [48회] □

ㄹ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49회] □

ㄹ함경도 관찰사가 방곡령을 선포하였다. [47회] □

■ 방곡령 [57회] □

이달 20일,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큰 수해를 당하여 조만간 여러 곡식의 피해가 클 듯한데, 콩 등은 더욱 심하여 모두 흉작이 될 것이라고 고하고 있으니, 궁핍하여 식량난을 겪을 것이 장차 불을 보듯 흰합니다. 도내(道內)의 쌀과 콩 등의 곡물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걷이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삼아 잠정적으로 유출을 금지하여 백성들의 식량 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리시어, 일본의 상민들이 일체 준수하게 해주십시오.”

- 해상공국이 설립되었다. [56회] □
-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 상회가 설립되었다. [62회] □
-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1898년]. [54회] □
 - ↳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67회] [54회] □
 - ↳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창립되었어요. [65회] □
 - ↳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53회] □
 - ↳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51회] □
 - ↳ [상권 수호 운동] 황국 중앙 총상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48회] □
 - ↳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목적을 분석한다[탐구 활동]. [66회] □
 - ↳ 황국 중앙 총상회의 활동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0회] □
 - ↳ 황국 중앙 총상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4회] □
 - ↳ 시전 상인의 상권 수호 운동 [57회] □

4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보안회가 조직되었어요. [65회] □
- [보안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67회] [62회] [61회] [58회] [56회] □
 -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64회] □
 -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49회] □
 -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57회] □
- 보안회의 경제적 구국 운동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5회] □
 - ↳ 보안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66회] [50회] □
- 농광 회사가 설립되었다. [49회] □
 - ↳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 회사가 설립되었다. [48회] □

■ 송수만 등 체포 경위 보고 [57회] □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됨. 종로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을 모집하여 집회·논의하고 있는 자임. 오늘 경부와 순사 두 사람이 출장하여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행하기를 요구하였음. …… 이때 회원과 인민들 약 200명 정도가 떠들썩하게 모여들어 송수만의 동행을 막음.

■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66회] [50회] □

•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어 산림, 천택(川澤),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2~3년 걸쳐 윤작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주어버린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빈곤에 빠져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고 우리 강토를 보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1904년 ○○월 ○○일

- 신(臣) 등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外部)에서 산림과 원야(原野)와 진황지(陳荒地)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에 청의(請議)하여 도하(都下)의 인심이 매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 『해학유서』 -

- 종로에서 송수만, 심상진 씨 등이 각 부(府)·부(部)·원(院)·청(廳)과 각 대관가(大官家)에 알리노라. 지금 산림과 하천 및 못, 원야, 황무지를 일본인이 청구하니,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 있노라.

- 황성신문 -

5 국채 보상 운동

-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51회] □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49회] □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50회] □

-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60회] □

-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금주, 금연 등을 통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65회] □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9회] □

- 김광제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대구]. [57회] □

└김광제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63회] □

└김광제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54회] □

└김광제, 서상돈 등이 주도하였다. [47회] □

- [신채호] 논설 단언보국채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63회] [62회] □

-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61회] [48회] □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56회] □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67회] □

└[대한매일신보]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67회] [64회] [55회] □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47회] □

-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국채 보상 운동 당시 15전부터 10원까지 성금을 보낸 50여 명의

명단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기사 [54회] ☐

•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63회] [60회] [47회] ☐

↳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 [64회] ☐

↳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56회] ☐

↳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54회] ☐

↳ [틀림]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65회] [48회] ☐

■ 국채 보상 운동 [61회] ☐

우리나라가 채무를 지고 우리 백성이 채노(債奴)가 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 대항제 폐하께서 진 외재가 1,300만 원이지만 채무를 청산할 방법이 없어 밤낮으로 걱정하시니, 백성된 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보상하려고 해도 겨를이 없습니다. …… 우리 동포는 빨리 단체를 결성하여 열성적으로 의연금을 내어 채무를 상환하고 채노*에서 벗어나, 머리는 대한의 하늘을 이고, 발은 대한의 땅을 밟도록 해 주시기를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채노(債奴):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사람

■ 국채 보상 운동 기념비 [48회] ☐

이것은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일어난 국채 보상 운동을 기념하여 대구에 세운 조형물입니다. 개화 지식인, 상인, 여성이 엽전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 운동

 ▲ 성금 명단(국채 보상 운동)(대한매일신보) [54회] ☐	 ▲ 국채 보상 운동 기념비 [48회] ☐		
---	--	--	--

주제 55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의식의 성장

1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

2 근대 시설의 도입과 언론, 의학의 발달 등

■ 전화 도입 [58회] □

전화 설비 가설 및 운용권을 가진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군. / 새로운 문물이 계속 들어오니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겠군.

*<모집 공고> 전화를 연결해주는 교환수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목소리가 분명하고 신체가 튼튼한 자(광무 6년)

-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58회] □

■ 우정총국 발행 우표 [50회] □

이것은 우정총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발행한 국내 최초의 우표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문(文)’이어서 문위 우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김옥균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폐쇄되면서 이 우표는 더 이상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 전등 가설 [50회] □

이 문서는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가 프레이저를 자사의 조선 총대리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사는 총대리인을 통해 경복궁 내의 전등 가설 공사를 수주하였고, 이에 따라 경복궁 내에 발전 설비를 마련하여 건청궁에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하였다.

- [철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58회] □

↳ 경부선이 완공되었어요. [49회] □

↳ 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64회] □

↳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50회] □

■ 전차 개통 [60회] [57회] [49회] □

• 이것은 한성 전기 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던 전차입니다. 전차가 개통된 이후에 도입된 근대 문물에 대해 말해 볼까요?

•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에 한성 전기 회사가 신문에 낸 안전 주의 사항입니다. 낮선 교통수단인 전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안내를 하였지만, 전차에 어린이가 치이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덧거: 전차

• 전차 운행 중 사망 사고 발생

오늘 종로 거리를 달리던 전차에 다섯 살 난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격노하여 전차를 부수었고, 이어 달려오던 전차까지 전복시켜 파괴하고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알렌의 건의로 광혜원이 세워졌다. [58회] [50회] ☐

↳ [호레이스 알렌]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 설립을 주관하였다. [48회] ☐

■ 광혜원 의사, 헤론 [53회] ☐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요원

헤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초기에 운영을 주도했던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광혜원**의 진료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고종에게 2품의 품계를 받았다.

- [지석영] 종두법을 소개하였습니다. [48회] ☐

-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58회] [48회] ☐

↳ 기기창이 설치되었어요. [49회] ☐

-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56회] ☐

↳ [전환국] 백동화가 주조되었다. [65회] ☐

↳ 백동화를 주조하는 전환국의 기술자 [57회] ☐

- [백동화] (마) - 전환국에서 화폐가 발행되다. [67회] ☐

- 박문국이 세워졌어요. [49회] ☐

-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62회] ☐

↳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54회] [51회] ☐

↳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58회] [50회] ☐

↳ 박문국에서 발간하였다[한성순보, 한성주보]. [47회] ☐

↳ [박문국]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간행되었다[한성순보]. [65회] ☐

↳ [한성순보] 납으로 만든 활자를 사용해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60회] ☐

↳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53회] ☐

↳ 순 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67회] [64회] ☐

↳ 한성순보 발행 [55회] ☐

↳ 한성순보 [56회] ☐

■ 한성순보 [67회] ☐

- 분류: 국가등록문화재

· 소개: 1883년 박문국에서 창간된 근대 신문으로, 세계정세를 폭넓게 전하고 정부의 개혁 정책을 홍보하였다.

- 한성주보가 발행되었어요. [49회] ☐

↳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한성주보]. [55회] [47회] ☐

↳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다. [64회] □

-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55회] [47회] □

↳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54회] □

↳ 독립신문 [56회] □

- [독립신문]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발행되었다. [67회] □

■ 독립신문 [56회] □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 신문이다. 창간 당시에는 한글판 3면과 영어판 1면으로 발행되었다.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06호]

-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63회] [55회] □

↳ 제국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50회] □

↳ 제국신문 [56회] □

- 황성신문 [56회] □

- [만세보]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64회] [55회] □

-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60회] □

↳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59회] □

↳ [양기탁]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63회] [57회] □

↳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였다. [53회] □

↳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49회] □

■ 대한매일신보 [64회] □

경천사지 십층 석탑에 대한 일본인의 약탈 행위에 관해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읽어 보았는가? 보도 내용을 접한 헐버트가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 의견을 청취했다더군. / 일본인의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네.

■ 베델의 묘 [55회] □

여기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한 베델의 묘입니다. 그는,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살려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해외에서 독립 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 열려 [47회] □

독립 유공자의 명패를 부착하는 행사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베델의 손녀 집에서 열렸습니다. 베델은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신채호]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66회] □

- [연해주] 해조신문[1908년] [56회] ☐

↳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에 힘썼다. [49회] ☐

↳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에 힘썼어요. [51회] ☐

3 근대 교육의 전개

-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 학사를 설립하였다. [64회] ☐

↳ 원산 학사 [49회] ☐

■ 원산 학사 [49회] ☐

덕원부의 관민이 힘을 합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 이 교육 기관은 무엇일까요?

-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64회] ☐

↳ 정부가 외국어 교육 기관인 동문학을 세웠다. [50회] ☐

↳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 [60회] ☐

↳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 설립 [67회] ☐

↳ 동문학 [49회] ☐

- 동문학과 육영 공원의 운영 목적을 분석한다[탐구 활동]. [65회] ☐

- 육영 공원이 설립되었다. [57회] ☐

↳ 육영 공원이 설립되었어요. [49회] ☐

↳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56회] ☐

↳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54회] [47회] ☐

↳ 험버트, 길모어 등이 교사로 초빙되었다. [67회]

↳ 길모어 등이 육영 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64회] ☐

↳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59회] ☐

↳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55회] ☐

■ 육영 공원 [67회] [60회] ☐

•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들, 우원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명문가 자제들을 입학시켰다.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하였으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공원(公院)에서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 이 학교는 신학문을 가리키는 관립 교육 기관이야.

· 젊은 관리가 소속된 좌원과 명문가의 자제를 선발한 우원으로 구성되었어.

· 주요 과목으로 영어, 산학, 지리 등이 있었어.

- [호머 헐버트]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64회] [61회] □
 ↳ 한글로 된 교재인 사민필지를 집필하였다. [62회] □
- [호머 헐버트] 육영 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48회] □

■ 호머 헐버트 [62회] [48회] □

- 나는 23세 때 육영 공원에 교사로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소. 고종의 특사가 되어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 헤이그를 방문하였고, 대한 제국 멸망사를 출간하기도 했소. 나는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염원하오.
- 미국인
 -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함
 - 을사늑약 직후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함
 - 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한성 사범 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60회] □
 ↳ 교육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졌다. [67회]
- ↳ [2차 갑오개혁]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59회] □
- ↳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54회] □
- 명동 학교 [1908년] [49회] □
- [찬양회]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1898년]. [63회] □
 ↳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62회] □
- ↳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였다. [57회] □
- ↳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였다. [52회] □
- ↳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54회] □
- ↳ [황성신문] 여권통문을 처음 보도하였다. [67회] □

■ 4 국학 연구

- [대한 제국 학부]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63회] □
 ↳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48회] □
- ↳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하였어요. [62회] □
- ↳ 국문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57회] □
- [국문 연구소]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55회] [50회] □
 ↳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였다. [50회] □

- [주시경]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67회] [64회] □

↳ 국문 연구소의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61회] □

↳ 국문 연구소의 위원으로서 국문 연구에 힘썼다. [47회] □

■ 한힌샘 주시경 [61회] □

(국어 연구에 앞장선 **주시경**은) 호는 한힌샘으로,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큰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 [유길준]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뒤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64회] □

↳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49회] □

↳ 유길준,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다. [67회] □

- [유길준]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50회] □

■ 구당 유길준 [54회] □

이 그림은 **유길준**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쓴 노동야학독본에 실린 삽화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서유견문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 [최남선]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 민족 고전을 간행하였다. [48회] □

5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 [원각사] 은세계,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 [49회] □

- [천도교]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61회] [59회] □

↳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67회] [57회] □

↳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65회] □

- [대종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인다. [61회] □

↳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58회] □

■ 홍암 나철의 대종교 [59회] [55회] □

공의 이름은 인영(寅永)인데 뒤에 철(喆)로 고쳤다. …… 보호 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지와 함께 오적(五賊)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1907년에 계획이 새어 나가 일을 그르쳤다. 뒤에 **대종교**를 제창하고 교주를 자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진흥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북간도에 가서 그의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였다. …… 그의 문인(門人)들은 그를 숭상하여 오백 년 이래 다시 없는 대종사로 여겼다.

- 『유방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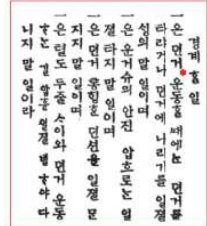
• 저는 지금 전라남도 보성군에 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오기호 등과 함께 대종교를 창시하고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나철**의 호를 딴 홍암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 [천주교]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52회] □
- [개신교]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59회] [55회] [52회] [48회] □
 - ↳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다. [61회] □
 - ↳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66회] □
 - ↳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힘썼다. [67회] □
 - ↳ [아펜젤러] 배재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였다. [54회] □
 - ↳ 배재 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53회] □
 - ↳ 배재 학당 [49회] □
- 배재 학당, 이화 학당의 설립 시기를 파악한다[탐구 활동]. [65회] □
- [개신교]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 학당을 설립하였다[메리 스크랜튼]. [62회] □
 - ↳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52회] □
 - ↳ 여성 교육을 위해 배화 학당을 설립하였대[남감리회]. [56회] □
 - ↳ [메리 스크랜튼] 이화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적 여성 교육에 기여하였다. [48회] □
- [박은식]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60회] □
 - ↳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56회] □
 - ↳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하였다. [55회] □
 - ↳ [박은식]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 하였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 구국 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57회] □

■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57회]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求新)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결코 흥왕할 수 없으리라. …… 소위 3대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는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 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는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바꾸려는 주의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학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나를 찾아야 한다.”라는 주의를 고수한 것이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유가는 간단하고 절실한 가르침을 요구하지 않고 지리하고 한만(汗漫)한 공부만 해 온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의식의 성장

 ▲ 우정총국 발행 우표 [50회] □	 ▲ 프레이저 조선 총대리인 위촉 문서(에디슨 설립 전기 회사) [50회] □	 ▲ 전차(한성 전기 회사) [49회] □	 ▲ 전차 안전 주의 사항 (한성 전기 회사) [57회] □
 ▲ 해조신문 [56회] □	 ▲ 제국신문 [56회] □	 ▲ 한성순보 [60회] [56회] □	 ▲ 독립신문 [56회] □
 ▲ 황성신문 [56회] □	 ▲ 베델의 묘(대한매일신보) [55회] □	 ▲ 독립 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베델)(영국) [47회] □	 ▲ 헤론(광혜원 의사)(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원) [53회] □
 ▲ 호머 헐버트 [48회] □	 ▲ 호머 헐버트 [62회] □	 ▲ 한헌샘 주시경(국어학자) [61회] □	 ▲ 노동야학독본 수록 삽화(유길준) [54회] □
		 ▲ 홍암 나철 기념관(전남 보성군) [59회] □	

 ▲ 근대 역사의 현장 [65회] □		
--	--	--

주제 56 일제의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

1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 구축

- [한일 병탄]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하였다. [58회] [52회] □

↳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67회] □

■ 조선 총독부 설치 [55회] □

-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제의 정무를 통할하도록 한다.
-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하도록 한다.

2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

-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62회] □

↳ 헌병 경찰 제도를 시행하였다. [47회] □

↳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67회] □

↳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 [65회] □

↳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66회] □

↳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58회] □

↳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53회] □

↳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51회] □

■ 조선주차헌병조례 [48회] □

제1조 조선 주차(駐紮)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을 담당한다.

제5조 헌병은 직무에 관해 정당한 직권을 가진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18조 헌병의 복무 및 헌병 보조원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 범죄즉결례 [54회] [51회] □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

제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즉시[곧바로] 언도해야 한다.

제11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유치 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일을 태 5로 절산하여 태 수에 산입하며,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일을 1원으로 절산하여 그 금액에 산입한다.

- 조선 태형령이 제정되었다. [57회] ☐
- ↳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55회] ☐
- ↳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66회] ☐
- ↳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67회] ☐
- ↳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53회] ☐
- ↳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63회] [61회] ☐
- ↳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56회] [49회] ☐
- ↳ 헌병 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64회] ☐
- ↳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총독부 관리 [54회] ☐
- ↳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관리 [48회] ☐
- ↳ 조선 태형령 실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직원 [52회] ☐

■ 태형 선고 판결문 [65회] ☐

피고인: 박○○

주문: 피고인을 태 90에 처한다.

이유

피고 박○○은 이○○가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한 것에 찬동하였다. ……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은 …… 태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선 태형령 제1조, 제4조에 준하여 처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1차 조선 교육령]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1911년]. [62회] ☐

■ 제1차 조선 교육령 [57회] ☐

제1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 [개량 서당 설립 운동] 서당 규칙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1918년]. [47회] ☐
- ↳ 서당 규칙이 제정되었다. [65회] ☐
-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립되었다. [65회] ☐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58회] ☐
- ↳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66회] [59회] [47회] ☐
- ↳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49회] ☐
- ↳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였다. [62회] ☐

기한 내에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였다. [48회] □

• [토지 조사 사업]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60회] □

• 토지 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7회] □

■ 토지 조사 사업 [64회] [61회] □

• 임시 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

제1장 면과 동의 명칭 및 강계(疆界) 조사와 토지 신고서의 접수

제2장 지주 지목(地目) 및 강계 조사

제3장 분쟁지와 소유권에 부의(付疑)* 있는 토지 및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조사

제4장 지위(地位) 등급 조사

⋮

- 조선 총독부 관보 -

*부의(付疑): 이의를 제기함

• [지적 원도(일부)] 이것은 일제가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작성한 지적 원도의 일부입니다. 토지를 측량해 그 위치와 경계 및 지번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61회] □

기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58회] □

기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50회] □

기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57회] □

기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53회] □

기회사령이 실시되었다. [64회] □

기회사령을 시행하였다. [60회] □

기회사령을 제정하였다. [59회] □

기회사령이 제정되었다. [49회] □

기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56회] □

■ ‘허가제’ 회사령 [66회] □

어려움에 빠진 한인 회사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인의 회사는 큰 영향을 받아 손해가 적지 않기에 실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에 있는 회사를 헤아려보니 한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회사가 171개인데 자본 총액이 5,021만여 원이요, 외국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한국에 설립한 회사가 52개인데 자본 총액이 1억 1,230만여 원이다. 그중에 일본인의 회사가 3분의 2 이상이고, 몇 개 되지 않는 한인의 회사는 상업 경쟁에 밀리고 회사 세납에 몰려 도무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3 문화 통치와 경제 수탈

■ 사이트 마코토 새 총독의 시정 방침 [55회] [54회] □

-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더욱 고려하여 …… 정치·사회상의 대우에서도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 제도로 대신할 것이다. 또한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대검(帶劍)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도 고려한다.

■ 제2차 조선 교육령 [65회] □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국어[일본어]를 상용(常用)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 여학교령에 의한다.

제3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으로 한다.

-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66회] [59회] [47회] □

↳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67회] [55회] □

↳ 경성 제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63회] □

↳ 경성 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61회] □

↳ 경성 제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 [48회] □

↳ 경성 제국 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 총독부 관리 [52회] □

■ 경성제국대학령 [57회] □

제2조 총장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 제국 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통독(統督)한다.

제4조 경성 제국 대학에 예과를 둔다.

- 치안 유지법을 공포하였다. [62회] □

↳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60회] □

↳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58회] □

-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50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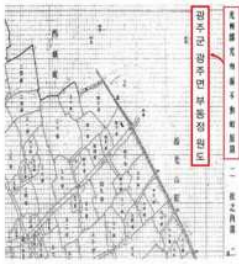
-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7회] □

↳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5회] □

■ 산미 증식 계획 [55회] □

- 내지(内地)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하였다. ……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반면 조선은 관개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논이 빗물에 의존하는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
-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결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일제의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

 ▲ 지적 원도(일부)(토지 조사 사업) [61회] □	 ▲ 간토 대지진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비(일본 도쿄) [67회] □		
--	---	--	--

■ 간토 대지진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비 [67회] □

이것은 1923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추도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해 온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조직한 자경단 등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주제 57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

1 병참 기지화 정책

- 평양 등지에서 반중 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다[1931년]. [53회] ☐

2 농촌 진흥 운동

3 황국 신민화 정책

-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58회] [53회] ☐

↳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57회] [55회] ☐

↳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67회] ☐

↳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63회] ☐

↳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54회] [49회] ☐

■ 황국 신민 서사 강요 [65회] ☐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기 전 고향 생활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 그때는 중일 전쟁이 시작된 뒤여서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표 사기도 어렵던 시기였어요.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황국 신민 서사를 외워 보라고 시켰었지요.

■ 황국 신민 체조 실시 요령 [59회] ☐

이 자료는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만든 황국 신민 체조 실시 요령입니다. 일제는 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 황국 신민 체조의 날을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신사 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56회] ☐

↳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교사 [49회] ☐

- [신사 참배]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되었다. [67회] ☐

■ 창씨개명 [66회] ☐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후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말해 볼까요?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전

(제령 제19호)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氏)를 정하고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본령 시행 당시 호주의 성을 씨로 삼는다.

-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54회] □

4 억압 통치 강화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54회] □

제1조 치안 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 유예 연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호 관찰에 부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59회] [47회] □
 -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64회] □
 -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66회] □
 -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시행되었다. [58회] □
 -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48회] □
 - ↳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55회] □
-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61회] □
 - ↳ [최현배]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65회] □
 - ↳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탄압받는 한글 학자 [52회] □

■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이윤재** [64회] □

- 생몰년: 1888~1943년
- 호: 환산, 한뢰
- 주요 활동

김해 출신으로 합성 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영변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이후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하여 한글의 연구 및 보급에 앞장섰으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이달의 독립운동가, 외솔 **최현배** [65회] □

- 훈격: 독립장
- 서훈 연도: 1962년
 -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국어 운동의 길로 들어서다
 - 광복 이후 국어 교재 편찬과 교사 양성에 힘쓰다
 - 각종 한글 교과서를 편찬하다

5 전시 동원 체제 강화

- 육군 특별 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48회] ☐
-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1938년 4월]. [64회] ☐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60회] ☐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65회] ☐

■ 국가 총동원법 [52회] ☐

국가 총동원법 위반 벌금 150엔

이 문서에는 국가 총동원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 법을 근거로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였습니다.

-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60회] ☐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58회] ☐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 반장 [64회] ☐

■ 국민 총력 조선 연맹 [57회] [47회] ☐

• 이 포스터는 국민 총력 조선 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기름을 찹 각종 씨앗까지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내용이다.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은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에 조직되어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는데 앞장섰다.

• 이 그림은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이 발생한 애국반 회보에 실린 것입니다. 일제가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사회를 통제하던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여행 갈 때는 반드시 각반과 몸빼를 잊지 말자.

-출정 군인의 유가족에게 힘이 되자.

- 국민 징용령이 제정되었다. [55회] ☐

└국민 징용령에 의해 끌려가는 청년 [54회] ☐

■ 일제 말 강제 동원 [62회] ☐

부평 공원 내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의 무기 공장인 조병창 등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

■ 나가사키에 원폭 희생자 위령비 세워져 [58회] ☐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주도로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에 노동자 등으로 끌려갔다가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이 비의 건립은 강제 동원과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67회] □

"이제 곧 창씨개명이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겁니다.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턱에 걸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걸요. 아 왜 거년(去年) 칠월에 국가총동원법 제4조라고 하면서, 국민 징용령이 안 떨어졌습니까? 일본 본토는 그렇다 치고, 조선, 대만, 사할린, 남양 군도에까지 그 징용령이 시행되고 있는 판에, 징병령인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병 제도는 장차 징병 문제를 결정하려는 시험으로 해 보는 것이라고 허드구만요."

이기채는 가슴이 까닭 없이 덜컥, 내려앉는다.

- 『흔불』 -

[해설] 이 작품에는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노동력 수탈을 위해 국민 징용령 등을 시행하던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삶이 잘 표현되어 있다.

- 식량 배급 및 미곡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62회] □

↳ 식량 배급 및 미곡 공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48회] □

↳ 미곡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60회] □

↳ 미곡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57회] □

↳ 미곡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55회] □

■ 쌀 공출 선전 포스터 [61회] □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전쟁에 필요한 쌀을 강제로 공출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되었다.

- 금속류 회수령이 공포되었다. [50회] □

- [송탄유(松炭油) 자재 공출 명령서]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에 송탄유와 목탄의 할당량 공출을 명령한 문서 [54회] □

- 공출한 낫그릇, 수저를 정리하는 면사무소 관리 [49회] □

■ 일제 강점기 말 판결문 [64회] □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제의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의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임○○이 이웃 주민과의 잡담에서,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 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취직시킨다." 등의 발언을 하여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 지식인 [54회] □
- 학도병 출전 권고 연설을 하는 친일파 인사 [49회] □
-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다. [61회] □

↳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다. [48회] □

↳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66회] □

■ 고(故) 박영심 할머니 생전 인터뷰 및 동상 [56회] [53회] □

• 사진 속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많았지요.

• 난징 리지샹 위안소 구지(舊址) 진열관에 있는 '만삭의 위안부' 동상은 고(故) 박영심 할머니를 모델로 조성되었습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운영된 이 위안소는 박영심 할머니의 피해 증언 등에 힘입어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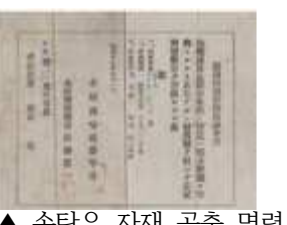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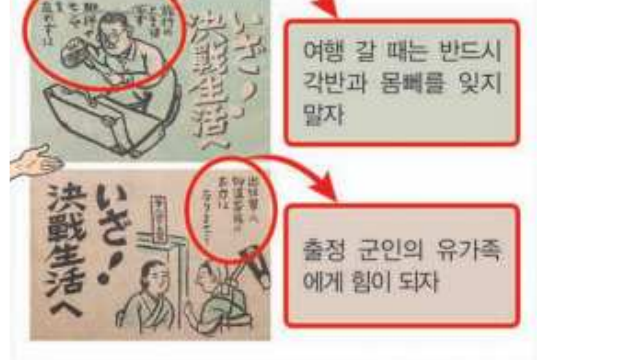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49회] □

1991년 8월 14일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는 이날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하여 2018년부터 매년 국가 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적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던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

■ 일본 역사 왜곡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48회] □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하였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의 한국인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 사진으로 보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

 ▲ 황국 신민 체조 실시 요령 [59회] □	 ▲ 쌀 공출 선전 포스터 [61회] □	 ▲ 국가 총동원법 위반 벌 금 부과 [52회] □	 ▲ 송탄유 자재 공출 명령 서 [54회] □
 ▲ 국민 총력 조선 연맹 포스터 [57회] □	 ▲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애국반 회보 [47회] □	 ▲ 일제 강점기 말 판결문 [64회]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김학순) [49회] □	 ▲ 고(故) 박영심 할머니 생전 인터뷰 [56회] □	 ▲ 난징 리지상 위안소(만 삭의 위안부 동상)(박영심) [53회] □	 ▲ 강제 동원(부평 공원) [62회] □



▲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58회] ☐



▲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이운재** [64회]
☐



▲ 외솔 최현배(조선 어학
회 사건) [65회] ☐

주제 58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

1 국내외 민족 운동

- 임병찬이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62회] ☐
 - ↳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54회] ☐
 - ↳ [임병찬]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63회] [53회] [52회] [50회] [49회] [48회] ☐
 - ↳ [독립 의군부]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이다. [55회] ☐
 - ↳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51회] ☐
- [독립 의군부]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하였다. [58회] ☐
 - ↳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다(임병찬). [65회] ☐
 - ↳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57회] ☐
- [독립 의군부]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59회] ☐
 - ↳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67회] ☐
 - ↳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66회] ☐
 - ↳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65회] ☐

■ 돈헌 임병찬 [54회] ☐

나는 지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 와 있어. 이곳에 임병찬의 동상이 있네. / 그에 대해 설명해 줄래? /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의해 쓰시마섬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어. 이후에는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지.

■ 독립 의군부 [59회] ☐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애통하다! 일본 오랑캐가 배신하고 합병하니 종사가 폐허가 되고 국민은 노예가 되었다. 짐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힘써 광복하라.

- 박상진 등이 대한 광복회를 결성하였다. [51회] ☐
 - ↳ [박상진]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67회] [64회] [62회] [50회] [49회] ☐
 - ↳ 대한 광복회의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53회] ☐

[틀림]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66회] □

- [대한 광복회]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61회] □
- [대한 광복회]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66회] □
- [대한 광복회]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65회] □

■ 박상진, 김한중 판결문 [66회] □

피고인: 박상진, 김한중

주 문: 피고 박상진, 김한중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박상진, 김한중은 한일 병합에 불평을 가지고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명분으로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선 각도의 자산가에게 공갈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 채기중 등을 교사하여 장승원의 집에 침입하여 자금을 강취하고 살해하도록 한 죄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 박상진 의사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61회] □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한 대한 광복회의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 유물은 친일 부호 처단 사건으로 체포된 박상진의 옥중 상황과 대한 광복회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태상회의 규모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국외의 민족 운동

- [서간도(남만주)]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62회] □
 - ↳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67회] □
- [서간도(남만주)]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61회] □
 - ↳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59회] □
 - ↳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49회] □
 - ↳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어요. [56회] □
 - ↳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51회] □
 - ↳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무관 학교가 설립되었다. [58회] □
 - ↳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66회] [55회] □

■ 허은 지사, 독립 유공자로 서훈 [49회]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손부(孫婦) 허은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허 지사는 서간도의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 군정서의 숨은 공로자였다. 그녀는 기본적인 생계 활동과 공식적인 행사 준비 외에도 서로 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제작·배급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다. 허은 지사의 회고록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 신흥 무관 학교 [54회] □

신흥 무관 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LIVE)

잠시 후 신흥 무관 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됩니다. 신흥 무관 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으로 무장 투쟁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기념식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북간도(동만주)]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54회] [53회] ☐

↳ [이상설]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65회] [52회] [51회] ☐

↳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건립하였다. [67회] ☐

↳ 서전서숙 [49회] ☐

• [북간도(동만주)] 대중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63회] [58회] [48회] ☐

•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되었다[1917년 7월]. [57회] ☐

↳ [신한 혁명당(동제사)]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56회] [52회] ☐

↳ 주권 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서가 작성되었다. [53회] ☐

■ 대동단결 선언 [49회] ☐

이 선언문은 상하이에서 신규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으로 주권 재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융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

*삼보(三寶): 토지, 인민, 정치

• [신한 청년당(신한 청년단)]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63회] [61회] [53회] [48회] ☐

↳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어요. [62회] ☐

↳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66회] ☐

↳ [김규식] 신한 청년당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였다. [50회] ☐

↳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되었다[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표로 임명]. [47회] ☐

↳ [김규식]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다. [65회] [64회] ☐

■ 연해주 신한촌 [54회] ☐

이것은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입니다.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한촌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지만,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되었습니다.

• [연해주]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61회] ☐

↳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창간하였다. [58회] ☐

↳ 권업회를 조직하여 권업신문을 발행하였어요. [56회] ☐

↳ 권업회를 조직하여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48회] ☐

↳ 권업회를 창립하여 항일 신문을 발행하였다. [54회] ☐

↳ 권업회의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 [53회] □

- [최재형] 권업회의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67회] □
- [최재형]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50회] □

■ 최재형 [50회] □

이 건물은 연해주의 한인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그는 1909년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11년에는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1918년 제2회 전로 한족 대표 회의에서 이동휘와 함께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20년 일본군이 자행한 4월 참변으로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 [연해주]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 사회당이 조직되었다. [58회] □
- [이상설, 이동휘] 연해주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53회] □
- ↳ [연해주]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67회] □
- ↳ [이동휘]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52회] □
- ↳ [이상설]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49회] □

■ 러시아 연해주의 민족 운동 [56회] □

저는 지금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연해주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연해주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해 올려주세요.

- 대한 국민 의회를 결성하였어요.
 -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웠어요.
- [안창호]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67회] [48회] □
 - ↳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였다. [66회] □
 - ↳ 흥사단을 창설했어요. [47회] □

■ 도산 안창호 [59회] □

여행권(여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

위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사용한 여행권으로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안창호는 여러 국가들을 이동하면서 공립 협회,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등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지병이 악화되어 이듬해 사망하였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다. [49회] □
- [하와이]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되었다. [61회] □
- ↳ 대조선 국민 군단이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58회] □
- ↳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박용만). [50회] □
- ↳ 대조선 국민 군단을 창설하여 군사 훈련을 하였다. [49회] □

■ 미주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 군단 [62회] □

박용만은 1905년 국외로 떠난 이후 네브라스카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창설하고, 국민개병설을 집필했습니다. 그 후 하와이로 건너와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 하와이 이민 [58회] [51회] □

• 우리 가족의 역사

옆 사진은 우리 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한 뒤 당시 포와(布哇)라고 불리던 **하와이**로 가셨대요. 할아버지는 이미 1903년에 갈릭호를 타고 이곳으로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고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 호놀룰루에 터전을 잡으셨고 지금도 많은 친척이 살고 있어요.

• 사진은 제물포에서 **하와이**로 수차례에 걸쳐 이민자를 수송한 갈릭호와 이민자 여권입니다. 1902년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첫 이민자 백여 명이 떠난 이후 3년간 약 7천 명이 넘는 한국인이 **하와이**에 이주하였습니다.

• [미국 네브래스카주 커니/헤이스팅스]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박용만**). [65회] □

• [미국 캘리포니아주 월로우스]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하였어요. [56회] □

• [멕시코 메리다] 승무 학교를 설립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어요. [56회] □

↳ 승무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54회] □

↳ 승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이근영**). [52회] [50회] [49회] [48회] □

↳ 독립군 양성을 위한 승무 학교가 설립되었다. [53회] □

■ 멕시코 이민과 **멕시코** 지역 이주민의 삶 [53회] [47회] □

• 이 사진은 1905년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로 계약 노동 이민자들을 수송했던 일포드호입니다.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 등을 내건 모집 광고를 믿고 이 화물선을 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한 달 넘게 걸려 에네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 탐구 내용

- 가. 에네켄 농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 나. 독립군 양성을 위한 승무 학교 설립
- 다. 성금 모금을 위한 독립운동 지원

◆ 사진으로 보는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

 ▲ 돈현 임병찬 동상(군산) [63회] ☐	 ▲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박상진) [61회] ☐	 ▲ 신한촌 기념 조형물 [54회] ☐	 ▲ 신흥 무관 학교 [54회] ☐
 ▲ 최재형의 우수리스크 거주지(연해주) [50회] ☐	 ▲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 개최 건물 [56회] ☐	 ▲ 도산 안창호 기념관(서울) [47회] ☐	 ▲ 대조선 국민 군단이 사용한 건물과 군복을 입은 박용만 [62회] ☐
 ▲ 갤릭호(하와이 이민) [58회] ☐	 ▲ 갤릭호(하와이 이민) [51회] ☐	 ▲ 안창호 여행권(여권) [59회] ☐	
 ▲ 하와이 이민(우리 가족의 역사) [58회] ☐	 ▲ 집조(여권)(하와이 이민) [51회] ☐	 ▲ 일포드호(멕시코 유카탄반도) [53회] ☐	

주제 59 3·1 운동

1 3·1 운동의 배경

-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1918년 1월]. [52회] □
-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62회] □
 - ↳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61회] [53회] [49회] □
 - ↳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66회] □
 - ↳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67회] □
 - ↳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54회] □
 - ↳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여 2·8 독립 선언서를 배포하였다. [48회] □
-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일본 도쿄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59회] □
 - ↳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50회] □
 - ↳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을 계획하였다. [57회] □

1 2·8 독립 선언서 [51회] □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니, ……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포하노라.

-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인 -

2 3·1 운동의 준비와 전개

- 기미 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53회] □
- [천도교]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52회] □
-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 [56회] □
- 민족 대표 33인 명의의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56회] [51회] □
-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58회] □
-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유관순 열사]. [50회] □
- 제암리 학살 등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63회] □
 - ↳ 전개 과정에서 일제가 제암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48회] □

■ 3·1 운동 [66회] [48회] □

• 그날 오후 2시 10분 파고다 공원에 모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10여 년간 억눌려 온 감정을 터뜨려 '만세, 독립 만세'를 외치자 뇌성벽력 같은 소리에 공원 근처에 살던 시민들도 크게 놀랐다. 공원 문을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종로 거리를 달리며 몸에 숨겼던 선언서들을 길가에 뿌리며 거리를 누볐다. 월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민족의 자결권이 실현되는 신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학생들은 덕수궁문 앞에 당도하자 봉어하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멎었다.

- 스코필드 기고문 -

• 수신: 육군 대신

발신: 조선 헌병대 사령관

오늘 1일 새벽 경성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함. 위 선언서에는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는데, 이면에는 일본 및 조선의 학생들과 비밀리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 오후 2시에 이르러 중학(中學) 정도의 학생 약 1,000명이 모이자, 민중이 이에 어울려 시내를 행진하고 시위운동을 시작함. 지금 수배 중. 위 집단은 각 장소에서 한국 독립 만세를 외치나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아 매우 불온한 형세는 없음. 주모자를 체포하고 해산 시킬 예정이고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대부분은 즉시 체포함.

■ 3·1 운동 참가자 신문 조서 [47회] □

문. 오늘 종로 1가 사거리 큰 길에서 모인 동기를 진술하라.

답. 나는 어제 오후 5시 무렵 경성부 남대문로에 있었는데, 자동차에서 뿌린 독립 선언서를 습득하였다. 나는 그 선언서를 읽고 우리 조선국이 독립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참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무렵 종로 1가 사거리 큰 길 중앙에서 독립 만세를 큰 소리로 계속 외쳤더니 5백 명 가량의 군중이 내 주위에 모여 들었고, 함께 모자를 흔들면서 만세를 계속 부르며 행진하였다.

문. 그 선언서의 내용을 진술하라.

답.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인 것을 선언함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조선 민족 대표자 33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었다.

- ○○○ 신문 조서 -

■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61회] □

‘딜쿠샤’가 복원되어 전시관으로 개관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하는 딜쿠샤는 미국인 앨버트 W. 테일러가 지은 벽돌집으로, 테일러와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

미국 연합통신(AP)의 임시 특파원으로 활동한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3·1 운동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해 보도하였다.

• [3·1 운동 답사 경로] 중앙고등학교 숙직실 → 보성사 터 → 태화관 터 → 탑골 공원 → 종로 경찰서 터 [56회] □

•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50회] □

↳ 강우규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서울역] [53회] □

3 3·1 운동의 의의 및 영향

•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67회] [61회] [49회] □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1회] □

■ 문화 통치 표방 [58회] □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인을 기만하는 거야.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 이로써 관민이 서로 협력 일치하여 조선에서 문화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한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66회] [55회] [50회] [49회]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47회] □

-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63회] [54회] □

■ 김경화 등 6명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유공 인정 [63회] □

국가보훈처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상에는 3·1 운동의 1주년에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배화 여학교 학생 여섯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최대 민족 운동인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소식을 접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3·1 운동

 ▲ 독립운동 유공 인정(배화 여학교) [63회] □	 ▲ 딜쿠사(앨버트 테일러 가옥) [61회] □	 ▲ 3·1 운동, 그날을 걷다 [56회] □
---	--	--

주제 60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 3·1 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57회] □
-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초기에 청사로 사용한 건물 모양입니다. 이 청사에서 임시 의정원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57회] □
- [이동녕]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50회] □

■ 석오 이동녕 [61회] [50회] □

- 저는 이동녕으로 이곳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임시 의정원 초대 의장으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 제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주석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독립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 이것은 국회 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 **이동녕**의 흉상입니다. 그는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국권 피탈 이후에는 서간도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 성재 이동휘 [52회] □

대한 제국 무관 출신으로 신민회 등에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후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 사회당을 창당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안창호]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였다[1919년 6월]. [59회] □

2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62회] □
-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집을 간행하였다. [57회] □
-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어요. [51회] □

■ 한일 관계 사료집 [52회] □

이 책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국제 연맹에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편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국 시대 이후의 한일 관계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 방식과 3·1 운동의 전개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57회] [53회] [52회] [48회] □
-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54회] □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59회] □

- 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65회] □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62회] □

외교 독립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57회] □

구미 위원부를 조직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61회] □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47회]

-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55회] □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66회] □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53회] □

연통제 공소 공판, 히라야마 검사의 구형, 피고 37명에 대하여 징역형 [50회] □

- 이륜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67회] [61회] □

이륜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56회] □

[조지 루이스 쇼] 중국 안동에서 무역 회사인 이륜양행을 운영하였다. [48회] □

- [안희제] 백산 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67회] [59회] □

독립 공채 발행 및 국내와의 연락 활동 [65회] □

도내 관공서의 조선인 관리·기타 조선인 부호 등에게 빈번하게 불온 문서를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수사한 결과 이○○의 소행으로 판명되어 그의 체포에 노력하고 있다. …… 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조선에 돌아가서 인쇄물을 뿌리는 등 인심을 교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행한 독립 공채를 판매하는 한편, 조선 내부와의 연락 및 기타 기관을 충분히 갖추게 하는 것 등이었다.

- 『고등 경찰 요사』 -

3 국민 대표 회의의 개최와 결렬

-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1923년]. [55회] □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50회] □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47회] □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66회] □

-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53회] □

국민 대표 회의 [54회] □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의 의사일정입니다. 국내외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져 격론을 벌였습니다.

4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변화

- 국무령에 이상룡이 취임하다[1925년 9월]. [58회] ☐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인 임청각과 그의 독립운동 [64회] ☐
- 청사에서 광저우로 청사를 이전하다[1938년 7월]. [58회] ☐

◆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한일 관계 사료집 [52회] ☐	 ▲ 이상룡, 국무령 취임 [58회] ☐	 ▲ 임정, 창사에서 광저우로 청사 이동 [58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모습(스탬프) [57회] ☐
 ▲ 국민 대표 회의 의사 일정 [54회] ☐	 ▲ 석오 이동녕의 흉상 [50회] ☐	 ▲ 석오 이동녕 생가(충남 천안) [61회] ☐	 ▲ 성재 이동휘 [52회] ☐
 ▲ 연통제公所 공판 [50회] ☐	 ▲ 조지 루이스 쇼 [48회] ☐		

주제 61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1 실력 양성론의 대두

2 물산 장려 운동

- [조만식]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55회] □

↳ 조선 물산 장려회가 조직되었다. [50회] □

-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53회] □

↳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7회] □

■ 물산 장려 운동 [64회] □

이것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된 물산 장려 운동의 선전 행렬을 보여주는 사진이야. /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지만,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어.

-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54회] □
-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61회] [48회] □

↳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60회] □

■ 경성 방직 광목 신문 광고(물산 장려 운동) [60회] □

이것은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광목 신문 광고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야. / 그래, 이 광고는 민족 기업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물산 장려 운동 중에 등장했지.

-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66회] □

■ 물산 장려 운동 표어 [48회] □

표어 모집으로 말하면 조선에 있어서는 처음 일이라 그래서 그 내용도 시원치 못하여 일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며 이번에 당선된 것으로 말하면 이등이 셋, 삼등 넷이라는데 그중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등 내 살림은 내 것으로

2등 조선 사람 조선 것

3등 우리 것으로만 살기

-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64회] □

■ 물산 장려 운동을 야기한 조선 관세령 폐지 [53회] □

조선 관세령 폐지되다

오늘 총독부가 조선 관세령 폐지를 발표하였다. 당국은 일선융화를 위해 내린 조치라 말하지만, 앞으로 조선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일본산 상품이 조선에 물밀듯 밀려와 시장을 독점하여 자본과 기술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조선의 공업을 흔적도 없게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조선의 제조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65회] [57회] ☐
-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64회] ☐
- ↳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어요. [62회] ☐
- ↳ 이상재 등의 주도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51회] ☐
-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이상재 등이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54회] ☐
- ↳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교사 [52회] ☐

■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발기] 총회 [54회] ☐

민대총회(民大總會) 개최, 460여 명의 대표 참석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 총회(민대총회)가 오후 1시부터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제 우리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른 길이 없도다. 만천하 동포에게 민립 대학의 설립을 제창하노니, 자매형제는 모두 와서 성원하라.'라는 요지의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4 민중 계몽 운동

- 언론사의 주도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66회] ☐
- [동아일보]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62회] [54회] ☐
- ↳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65회] ☐
- ↳ 브나로드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58회] ☐
- ↳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 [57회] ☐
- [농촌 계몽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47회] ☐

◆ 사진으로 보는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 물산 장려 운동 선전 행렬 [64회] ☐



▲ 물산 장려 운동 표어 [48회] ☐



▲ 물산 장려 운동(광목 신문 광고) [60회] ☐



▲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 총회 [54회] ☐

주제 62 민족 협동 전선 운동

1 6·10 만세 운동

-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61회] □
 - ↳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63회] [55회] □
 - ↳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시위를 벌였다. [66회] □
-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하였다. [54회] □
 - ↳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49회] □
-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되었다. [47회] □
 - ↳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61회] □
-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55회] □
 - ↳ 민족 협동 전선인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53회] □

■ 6·10 만세 운동 [53회] [49회] □

- 얼마 전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소식을 들었는가? 이날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곧 열린다더군. / 율희 황제의 인산일에 학생들이 격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친 그 사건 말씀이지요? 사전에 권오설 선생 등이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걱정이었는데, 학생들 덕분에 시위가 가능했지요.
- 이것은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6·10 만세 운동 당시 장례 행렬에 모인 사람들에게 뿌려진 격문의 일부입니다.
 - 대한 독립운동가여 단결하라!
 - 일제 납세를 거부하자!
 - 일본 물자를 배척하자!
 -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 보통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 교육 용어는 조선어로!

■ 6·10 만세 운동 관련 판결문 [57회] □

피고인: 이선호 외 10명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왕(李王)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즈음, 이를 봉송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불온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조선 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기도하였다.

2 신간회의 결성과 해체

-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55회] □

■ 정우회 선언 [62회] □

조선 사회 운동 단체인 정우회는 며칠 전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선언서에서 민족주의적 세력과 과도기적 동맹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타협과 항쟁을 분리시켜 사회 운동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자는 것을 말하였다.

- [신간회]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65회] [61회] □
- [신간회] 민족 협동 전선으로 결성되었다. [64회] □
-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57회] □
- ↳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65회] □

■ 신간회 창립 [50회] □

■ 기획 의도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 단체인 **신간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 장면별 구성 내용

- 정우회 선언을 작성하는 장면
- 이상재가 회장으로 추대되는 장면
- 전국 주요 도시에 지회가 설립되는 장면
- 순회 강연단을 조직하고 농민 운동을 지원하는 장면

- [근우회]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56회] □
- ↳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연합하였다. [52회] □
- ↳ 근우회의 창립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61회] □

■ 근우회 행동 강령 [52회] □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2.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3.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
7.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

■ 민중 대회 개최 모의로 지도부 대거 체포 [64회] □

허헌, 홍명희 등 **신간회**의 지도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 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 대회 개최를 추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단체는 사건 진상 조사 보고를 위한 유인물 배포 및 연설회 개최를 계획하고, 각 지회에 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시위 확산을 도모하였다.

■ 민족 독립과 여성 해방을 꿈꾼 박차정(朴次貞) [56회] □

부산 동래 출신(1910~1944). 1927년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결성된 **근우회**의 중앙 집행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동조하여 서울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불구속으로 나온 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8년 조선 의용대의 부녀 복무 단장이 되어 남편 김원봉과 함께 무장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듬해 kunlun 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 신간회 해소 [62회] □

조선 민족 운동의 중추 기관이 되려는 사명을 띠고 창립되었던 신간회가 비로소 첫 번째 전체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간신히 열리는 전체 대회에서 해소 문제 토의를 최대 의제로 하게 된 것은 조선의 현 상황이 아니고서는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다. (1931년 5월)

3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62회] □
-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62회] [56회] [47회] □

↳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53회] □

-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3회] [48회] □
-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48회] □

↳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67회] [63회] [61회] □

↳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55회] [49회] □

↳ [신간회]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52회] [51회]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57회] [50회] □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53회] □

- 신간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6회] □
-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였다. [67회] □

■ 가인 김병로(1887~1964) [54회] □

■ 공적 개요

- 1906년 최익현 의병 부대 참여
- 1923년 김상옥 의거 관련자 변호
-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조사 위원
- 1930년에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 1947년 남조선 과도 정부 사법부장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67회] [66회] [55회] □

• 2천만 피압박 민중 깨우치여!

우리 2천만 생명(生靈)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빈사(瀕死)의 중상을 입었다. 고뇌하는 청년 학생 2백 명이 불법으로 철장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하여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다. 그러나 지배 계급의 미친개의 이빨에 물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피눈물로 시위 대열에 나가는 것이다.

- 감금된 학생을 탈환하자
- 총독 폭압 정치 절대 반대
- 교육에 경찰 간섭 반대
- 치안 유지법을 철폐하라

•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 우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기념탑과 당시 학생들의 울분을 함께 형상화하여 도안되었다. 학생의 날은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이것은 1929년 11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된 이 운동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당시 민족 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동맹 휴학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 기념탑은 학생들의 단결된 의지를 타오르는 횃불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 사진으로 보는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민족 독립과 여성 해방을 꿈꾼 박차정 [56회] ☐



▲ 가인 김병로 [54회] ☐



▲ '학생의 날' 기념우표 [55회] ☐



▲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67회] ☐

주제 63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1 다양한 분야의 민족 운동

- [천도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전개하였다. [65회] □
 - ↳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하였다. [52회] □
 - ↳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하다. [61회] □
- [천도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천도교 소년회]. [64회] [50회] □
 - ↳ 어린이날을 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51회] □
- [천도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 운동을 주도하였다. [56회] [48회] □

■ 방정환이 꿈꾼 어린이를 위한 나라 [67회] □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인 천도교 계열의 방정환 등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잡지 『어린이』의 전시와 함께 여러 체험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어린이날 선포(천도교) [59회] □

이곳은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인 천도교 소속의 방정환, 김기전 등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1922년 어린이의 날을 선포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출발하여 거리 행진을 하며 선전문을 배포한 뒤 어린이날 제정 축하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1923년 5월 1일) [47회] □

어린 동무들에게

- 동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 [소년 운동]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방정환]. [54회] □
 - ↳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47회] □
- [여성 운동] 조선 여자 교육회가 조직되었다[1920년(차미리사)]. [65회] □

- [여성 운동] 근우회의 주도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48회] □
- [형평 운동]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65회] □
 - ↳ 조선 형평사의 설립 목적을 검색한다[탐구 활동]. [50회] □
 - ↳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55회] □
 - ↳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48회] □
 - ↳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여 사회적 차별에 맞섰다. [51회] □
 - ↳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된 장소[경남 진주] [53회] □
 - ↳ 형평사 창립 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기자 [64회] □
- [형평 운동]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63회] □
 - ↳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61회] □
 - ↳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48회] □
 - ↳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57회] □

■ 형평 운동 [63회] [51회] □

- 이것은 **형평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제7회 전국대회 포스터입니다. ‘모히라! 자유평등의 기치하에로’라는 문구가 있으며, ‘경성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 운동**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本良)’이라는 구호 아래 전개되었습니다.
- 진주에 있는 이곳은 독립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묘입니다. 그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라는 취지 아래 백정에 대한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전개된 **형평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2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

-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1920년]. [50회] □
 - ↳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64회] □
-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암태도 소작 쟁의**가 전개되었다. [61회] □
 - ↳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50회] □
 - ↳ 암태도 소작 쟁의를 지원하였다. [64회] □
 - ↳ 암태도 소작 쟁의에 참여하는 농민 [56회] [48회] □

■ 암태도 소작 쟁의 [49회] □

- 최근 개통된 천사대교를 건너면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소작 쟁의가 전개된 암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암태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 문재철에 맞서 목포까지 나가 단식을 벌이는 등 약 1년에 걸친 투쟁으로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설립되었다[1927년]. [58회] ☐
- ↳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창립되었다. [50회] ☐
- ↳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66회] ☐
- ↳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67회] ☐
- ↳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49회] ☐
- [노동 운동] 조선 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48회] ☐
-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50회] ☐
- ↳ [원산 총파업]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조선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51회] ☐
- ↳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65회] ☐
- ↳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64회] ☐
- ↳ 원산 총파업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였다. [53회] ☐
- ↳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56회] [48회] ☐
- ↳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52회] ☐
- [원산 총파업]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66회] [64회] [48회] ☐
- ↳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60회] ☐
- ↳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54회] ☐
- ↳ 원산 총파업에 연대 지원금을 보내는 외국 노동자 [63회] ☐
- [강주룡]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하다. [60회] ☐
- ↳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농성을 벌였다. [48회] ☐
- ↳ 일제 강점기의 노동 운동가 [60회] ☐

■ 고공 농성을 벌인 강주룡 [50회] ☐

이 사진은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강주룡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대공황 이후 열악해진 식민지 노동 환경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며 평원 고무 공장 쟁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가와 일제에 맞선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전시 징용 정책에 반대하여 동방 광산 광부들이 투쟁하였다[1942년]. [50회] ☐

3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조선 공산당 창당

- [사회주의자]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61회] ☐
- ↳ 일제가 제정한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59회] ☐

ㄹ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58회] ☐

ㄹ치안 유지법이 적용되었다. [65회] ☐

-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3회] ☐

◆ 사진으로 보는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서울) [59회] □ (사진 교체함)	 ▲ 『어린이』 제7권 제3호  ▲ 『어린이』 제9권 제1호 ▲ 잡지 어린이 [67회] □	 ▲ 조선 형평사 전국대회 포스터 [63회] □
 ▲ 강상호(형평 운동) [51회] □	 ▲ 고공 농성을 벌이는 강주룡(평양 을밀대) [50회] □	 ▲ 천사대교(암태도) [49회] □

주제 6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1 한글[국어] 연구

- [조선어 첫걸음]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존 로스]. [55회] □
-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되었다[1921년]. [65회] □
 - ↳ 최현배, 조선어 연구회 회원으로 한글을 연구하다. [67회] □
- [조선어 학회]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56회] □
 - ↳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다. [55회] □

■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50회] □

조선어 학회에서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1929년부터 13년 동안 작성한 원고이다. 이 원고는 1942년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 [조선어 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62회] [56회] [52회] [50회] □
 - ↳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63회] □
 - ↳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54회] □
 - ↳ [이윤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64회] □
 - ↳ 이윤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다. [67회] □
-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48회] □
-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66회] [61회] □

■ 조선어 학회 [63회] □

- 우리말을 힘써 모으다
 - 학생들을 통해 시골말, 놀이말, 속담 등 수집
- 최현배, 이극로 등 다수의 회원이 검거되다
 - 사전 편찬 활동 등을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
-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재개하다
 - 서울역 창고에서 일제에 압수되었던 원고 발견

■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55회] □

이것은 조선어 학회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입니다. 조선어 학회는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1942년에 치안 유지법 위반 명목으로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총론

1. 한글 맞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

2 한국사 연구

- [박은식]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하였다. [64회] [61회] □

- ↳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63회] □
- ↳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다. [65회] □
- ↳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59회] □
- ↳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49회] □
- ↳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저술 [54회] □
- ↳ 조선 국혼을 강조하는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51회] □
- ↳ 한국통사를 저술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닦았다. [48회] □
- ↳ 한국통사를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66회] □
- [박은식] 독립 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50회] □
- ↳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독립 투쟁을 서술하였다. [47회] □
- ↳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67회] □

■ 백암 박은식 [55회] [48회] □

•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국혼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일찍부터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우학회에서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쳤으며,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선생께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신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맞선 우리 독립 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 주고, 한국인의 긍지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 [신채호]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문을 발표하였다. [64회] □
- ↳ 독사신문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56회] □
- ↳ 신채호,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사를 연재하다. [67회] □
- ↳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였습니다. [50회] □
- ↳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였다[1931년]. [57회] □

■ 단재 신채호의 역사관 [66회] [60회] □

• 나는 일제 침략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전기인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습니다. 또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 [최남선]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60회] [48회] □
- [정인보, 안재홍]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66회] [61회] [55회] □
 - ↳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60회] □
 - ↳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59회] □
 - ↳ [정인보]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 [48회] □
 - ↳ 정인보,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다. [67회] □
-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병도, 이운재, 이희승, 손진태, 조운제 등]. [56회] [48회] □
 - ↳ 진단 학회를 창립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55회] □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60회] □
 - ↳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50회] □
 - ↳ 유물 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48회] □
-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53회] □

3 종교계의 활동

- [천도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였다. [56회] □
 - ↳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55회] □
 - ↳ 별건곤은 개벽이 일제에 의해 폐간된 후 발간된 월간지입니다. 취미 잡지임을 표방했으나 시사 문제를 실어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52회] □
- [불교]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59회] □
 - ↳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다. [48회] □
 - ↳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였다. [67회] □
 - ↳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하였다. [55회] □
-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63회] □
 - ↳ [한용운] 월간지 유신을 발간하여 불교 개혁 운동에 힘썼다. [1918년]. [56회] □

■ 만해 한용운 [56회] □

이곳 심우장은 한용운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님의 침묵 등을 지은 한용운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다가 광복 직전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대종교]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59회] [52회] □
 L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57회] □
 L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55회] □
 L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북간도(동만주)]. [48회] □
 L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66회] □
 L 무장 투쟁을 위해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65회] □
- [천주교]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67회] □
 L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다. [61회] □
- [원불교]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 운동을 펼치다. [61회] □
 L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59회] [57회] [55회] [48회] □
 L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58회] □
 L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67회] [66회] [52회] □

4 문예계의 활동

■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황보 염상섭의 만세전) [60회] □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 『만세전』 -

[해설]

이 소설에는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1910년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만세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 운동 이전 식민지의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

- [이기영]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하였습니다. [50회] □
- [심훈]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66회] [57회] □
 L 브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씀 [50회] □
 L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하였습니다. [50회] □
- [이육사]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57회] [51회] □
 L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66회] □

■ 민족을 이끌 초인을 염원한 **이육사** [66회] [51회] □

문학으로 보는 한국사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해설] 이 시는 독립 운동가이자 문학가인 **이육사**의 '청포도'이다. 그는 이 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식민지 현실에 맞서 꺼지지 않는 민족의식을 표현하였다.

그의 본명은 이원록으로 안동에서 태어났고, 1927년 장진흥의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에 힘쓰다가 1943년 체포되어 이듬해 베이징의 일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 본명은 이원록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1927년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그는 1932년 중국으로 건너가 김원봉이 세운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하여 독립운동에 힘썼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운동주] 별 헤는 밤, 참회록 등의 시를 남겼다. [57회] □

■ 시인 **운동주** [57회] □

도시샤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 문학가인 **운동주**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간도 출신인 그는 일본 유학 중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 [박승희, 김기진]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월회를** 조직하였습니다. [50회] □

• [나운규]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57회] □

↳ 영화 **아리랑**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았다. [51회] □

↳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습니다. [50회] □

↳ [단성사] 나운규의 **아리랑**이 처음 상용된 곳이다. [65회] □

↳ 나운규가 감독한 **아리랑**의 첫 상연을 준비하는 단성사 직원 [63회] □

↳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55회] □

↳ [단성사]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 [53회] □

◆ 사진으로 보는 민족 문화 수호 운동

 ▲ 조선어 학회 [63회] □	 ▲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조선어 학회) [50회] □  ▲ 조선상고사와 이순신전 (신체호) [60회] □  ▲ 백암 박은식 [55회] □	 ▲ 개벽(좌)과 별건곤(우) (천도교) [52회] □  ▲ 백암 박은식 캐리커처 [48회] □	
 ▲ 심훈(소설 상록수) [50회] □	 ▲ 심우장(만해 한용운) [56회] □	 ▲ 윤동주 시비(일본 도시샤 대학) [57회] □	 ▲ 이육사(이원록)(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51회] □

주제 65 192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

1 독립군 부대의 편성과 활동

-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를 조직하였다. [62회] □
↳ [북로 군정서]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47회] □
-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61회] □
↳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실시하였다. [53회] □

2 봉오동 전투

-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62회] □
- [대한 독립군]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57회] □
- [대한 독립군]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60회] [53회] □
↳ 대한 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59회] □
↳ 대한 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유인하여 크게 무찔렀습니다. [56회] □
- [홍범도] 대한 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49회] □
↳ [대한 독립군] 대한 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66회] □

■ 봉오동 전투 [52회] □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백 명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백 명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하여 120여 명을 살상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 『독립신문』 -

3 청산리 대첩

-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67회] [65회] [61회] □
↳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48회] □
-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독립군 연합 부대]. [59회] [47회] □
↳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56회] □
↳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52회] □
↳ 대한 독립군, 대한 국민군 등이 연합하여 참여하였다. [50회] □

ㄹ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66회] □

ㄹ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어요. [51회] □

■ 애국지사 강근호 길(청산리 대첩) [50회] □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 길'입니다. 그는 1920년 10월 백운평, 어랑촌, 고동하 등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청산리 대첩 당시 북로 군정서 중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4 독립군 부대의 시련과 재정비

-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52회] [48회] □

ㄹ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66회] □

■ 간도 참변(경신 참변) [59회] □

경신년 시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전 만주를 휩쓸어 애국지사들은 물론이고 농민들도 무조건 잡아다 학살하였다. ……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경신참변이다.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가족들을 두고 단신으로 길림성 오상현, 흑룡강성 영안현 등으로 흩어졌다.

-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

- [대한 독립 군단]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67회] [64회] [60회] □

ㄹ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63회] □

ㄹ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58회] □

ㄹ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48회] □

ㄹ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65회] □

ㄹ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61회] □

ㄹ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54회] [47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직할 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하였다. [59회] □

5 3부 통합 운동(국외 민족 유일당 운동)

- 자유시 참변 이후 3부가 조직되었다[1924~1925년]. [52회] □

ㄹ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성립되었습니다. [56회] □

ㄹ참의부, 신민부, 정의부가 만주 지역에 성립되었다. [47회] □

-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1925년]. [52회] □

ㄹ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66회] [59회] [47회] □

ㄹ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65회] □

•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61회] ☐

↳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53회] ☐

↳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55회] ☐

■ 미쓰야 협정 [48회] ☐

동북 3성의 군벌 장작림(張作霖)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되어 독립운동하는 한국인은 잡히는 대로 왜에게 넘겨졌다. 심지어 중국 백성들은 한국인 한 명의 머리를 베어 왜놈 영사관에 가서 몇 십 원 내지 3, 4원씩 받고 팔기도 했다.

◆ 사진으로 보는 192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



▲ 애국지사 강근호 길(청산리 대첩) [50회] ☐

주제 66 의열 투쟁과 1930년대 무장 독립 투쟁

1 의열 투쟁의 전개

- [대한 국민 노인 동맹단] 조선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가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51회] ☐
- [김원봉]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49회] ☐
-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부산]. [52회] ☐
- ↳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어요. [59회] ☐

1 박재혁 의사의 의거 [47회] ☐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의 1920년 의거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창설한 **의열단**에 가입한 후, 고서상으로 위장하여 부산 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 의열단의 밀양 폭탄 사건 [58회] ☐

검사: 폭탄을 구해 숨겨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곽재기: 재작년 3월 이후로 조선 독립을 평화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이로 가서 육혈 포와 폭탄을 구해 피로써 독립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성우: 폭탄으로 고위 관리를 죽이고 중요 건물을 파괴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한 이유이다.

- 1921년 6월 7일 밀양 폭탄 사건 공판 기록 -

- [의열단]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1923년]. [66회] [62회] [61회] [58회] [56회] [48회] [47회] ☐
- ↳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64회] [54회] ☐
- ↳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65회] ☐
- ↳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55회] ☐
- ↳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51회] ☐
- ↳ [신채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60회] ☐
- ↳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53회] [49회] ☐
- ↳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52회] ☐
- ↳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50회] ☐
-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51회] ☐

■ 청년 김상옥 [55회] □

■ 기획 의도

김상옥의 주요 활동을 영화로 제작하여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

■ 대본 개요

1.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계몽 운동에 힘쓰다.
2.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일원이 되다.
3.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4. 일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 의열단원에 대한 판결문 [67회] □

피고: 오복영 외 1인

주문: 피고 두 명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제1. 피고 오복영은 이전부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1. 대정 11년(1922) 11월 중 김상옥, 안홍한 등이 조선 독립 자금 강탈을 목적으로 권총, 불온문서 등을 가지고 조선에 오는 것을 알고 천진에서 여비 40원을 조달함으로써 동인 등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들어오게 하고
2. 대정 12년(1923) 8월 초순 **의열단** 단원으로 활약할 목적으로 피고 이영주의 권유에 의해 동 단에 가입하고
3. 이어서 피고 이영주와 함께 **의열단** 단장 김원봉 및 단원 유우근의 지휘 하에 피고 두 명은 조선 내 관리를 암살하고 주요 관아, 공서를 폭파함으로써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고 ……

■ 이종교 폭탄 사건 주역은 **의열단**의 김지섭 [66회] □

9월 1일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이 도화선

금년 1월 5일 오후 7시에 동경 궁성 이종교 앞에서 일어난 폭탄 투척 사건은 전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대사건이었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신문 게재 일체를 금지하였고, 동경 지방 재판소의 검사와 예심 판사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예심이 결정되고 당국의 보도 금지가 해제되었기에, 피고 김지섭 외 4명은 전부 유죄로 공판에 회부되었음을 보도한다. 김지섭은 조선 독립을 위해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과 함께 과격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이를 일본에서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나석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59회] [56회] [49회] [48회] □

↳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의열단**). [67회] □

↳ [김창숙]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 지원 [54회] □

- [김원봉]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62회] □
- [의열단]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김원봉**]. [62회] [60회] [52회] □

↳ [김원봉]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63회] [50회] □

↳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47회] □

■ **심산 김창숙**(1879~1962) [54회] □

-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
- 파리 장서 운동 주도
-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 지원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김원봉과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53회] □

이곳 난징의 천녕사 옛터는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의 훈련 장소입니다.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설립한 이 학교는 1932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윤세주, 이육사를 비롯한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 [한인 애국단] 김구를 단장으로 하여 활발한 의열 활동을 펼쳤다. [51회] □

↳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66회] □

↳ [김구]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63회] □

↳ 의거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53회] □

↳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어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48회] □

•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60회] □

↳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일본 도쿄]. [58회] □

↳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하였다. [55회] □

↳ [틀림]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60회] □

• [도쿄]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61회] □

↳ [이봉창]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47회] □

↳ 금년 1월 8일에 돌발한 앵전문 앞 대역 사건, 범인은 경성 출생 이봉창 [50회] □

•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47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의 피신(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직후) [48회] □

나와 공근은 상해의 프랑스 조계를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가흥(嘉興)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은 박찬익 형이 은주부와 저보성 제씨(諸氏)에게 주선하여 며칠 전에 엄항섭 군의 가족과 김의한 일가, 석오 이동녕 선생이 벌써 이사하였던 곳이다.

- 『백범일지』 -

■ 한인 애국단의 활약(최흥식 편지) [60회] □

이것은 **한인 애국단** 소속 최흥식이 관동군 사령관 등을 처단하기 위해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김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나요? /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한인 애국단**이 다양한 의거를 시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 시게미쓰 마모루의 항복 서명 [51회] □

이 사진은 1945년 9월 2일 일왕을 대신하여 일본의 외무대신이 연합군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 서명하는 인물은 시게미쓰 마모루인데, 그는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당시 폭탄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 [남자현]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여 계몽 활동에 힘썼다. [48회] □

↳ 의열 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60회] □

■ 남자현 지사 [48회] □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옛 거처입니다. **남자현**은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하였고, 국제 연맹 조사단에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된 뒤 순국하였습니다.

- [조명하]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66회] [59회] □

2 해외 동포의 활동

- 스탈린에 의해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1937년부터]. [52회] □

3 한·중 연합 작전의 전개

- [조선 혁명군]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60회] □

■ 양세봉 [62회] [47회] □

- 생몰: 1896년~1934년
- 대한 통의부 의군으로 활동
- 조선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 전개
- 일제의 밀정에 의해 사망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이곳은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양세봉의 묘입니다. 그의 묘는 북한 애국열사릉에도 있어 그가 남북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만주 일대에서 조직된 **조선 혁명군**의 총사령으로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 조선 혁명군 [63회] □

국민부 산하 군사 조직으로 편성되었다가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하여 재편되었습니다. / 총사령에 양세봉, 참모장에 김학규가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 만주 사변 이후 중국 의용군과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 [조선 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64회] □

↳ 조선 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59회] □

↳ [조선 혁명군]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58회] □

↳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63회] □

↳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57회] □

↳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47회] □

■ 영릉가 전투 [54회] [52회] □

• 조선 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과 합세하였다. ……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30여 리 정도 추격한 끝에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 『광복』 -

• **조선 혁명군**의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군이 신빈현성의 고지대를 거점으로 삼아 먼저 공격했으나 아군이 응전하여 이를 탈취하였다.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추격한 끝에 당일 오후 3시경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5일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한중 연합군은 신빈현 일대 여러 곳을 점령하는 등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

• [조선 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에서 승리하였다. [59회] □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48회] □

↳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54회] □

↳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51회] □

■ 한국 독립군 편성 [66회] □

남대관, 권수정 등은 전 한족총연합회 간부였던 지청천, 신숙 등과 함께 아성현(阿城縣)에서 한국대독립당을 조직하고 지청천을 총사령, 남대관을 부사령으로 하는 **한국 독립군**을 편성하였다. …… **한국 독립군**은 덩차오(丁超)의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대원을 모집하여 일본 측 기관의 파괴, 일본 요인의 암살 등을 기도하였다.

•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67회] □

↳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였다. [54회] □

•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64회] [49회] □

•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65회] [59회] □

↳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55회] □

↳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52회] □

↳ 중국 호로군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50회] □

• [지청천]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62회] □

↳ 만주 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53회] □

↳ [한국 독립군]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61회] [48회] □

↳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59회] □

↳ [한국 독립군]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60회] □

↳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66회] □

↳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51회] □

■ 지청천 [62회] [49회] □

- 생몰: 1888년~1957년
- 신흥 무관 학교 교정 대장으로 독립군 양성
- 정의부 총사령관 역임
- 한국 독립당 창당에 참여,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 전개
-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에 취임
-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 대전자령 전투 [67회] □

대전자령은 태평령이라고도 하는데, 일본군이 서남부의 왕칭현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이었다. 대전자령의 양쪽은 험준한 절벽과 울창한 산림 지대로 되어 있어 적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이 전투에 **한국 독립군**의 주력 부대 500여 명, 차이시밍(柴世榮)이 거느리는 중국 의용군인 길림구국군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 한중 연합군은 계곡 양편 산기슭에 구축되어 있는 참호 속에 미리 매복·대기하여 일본군 습격 준비를 마쳤다.

-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

4 만주 항일 유격 투쟁의 전개

- [동북 인민 혁명군]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61회] [59회] □
- [동북 항일 연군] 조국 광복회의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되었다. [50회] □

5 중국 관내의 항일 투쟁

-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저우에서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였다[1935년 11월]. [50회] □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 [62회] □
 - ↳ [조선 의용대]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무장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64회] □
- [조선 의용대]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67회] [66회] [52회] [48회] □
 - ↳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58회] □
 - ↳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關內)에서 창설하였다. [61회] □
 -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창설되었다. [63회] □
 - ↳ [김원봉]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53회] □

■ 조선 의용대 [65회] [61회] [48회] □

• 자료는 **조선 의용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 30여 년이나 비밀리에 행동한 조선 혁명 청년은 지금도 중국 항일전에서 혁명 행동의 기회를 얻어, …… **조선 의용대**는 10월 10일 한구(漢口)에서 성립, 중앙군의 이동에 따라 계림(桂林)으로 왔다. 대장 진빈 선생(김원봉)은 금년 41세로서, 1919년 조선의 3월 운동 및 조선 총독부 파괴의 의열단 사건 등도 그들에 의한 것이다.

- 『국민공론』 -

• 조선 민족 혁명당 창립 제8주년 기념 선언

우리는 중국의 난징에서 5개 당을 통합하여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조선 민족 혁명당을 창립하였다. ……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연합 항일 진영을 건립하여야 했다. ……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고 조선의 혁명 청년들을 단결시켜 장제스 위원장의 영도 아래 직접 중국의 항전에 참가하였고, 각 전쟁터에서 찬란한 전투 성과를 만들어냈다. …… 지난해 가을 **조선 의용대**와 한국 광복군의 통합 편성을 기반으로 전 민족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1943년)

•

조선 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59회] □

↳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52회] □

↳ 호가장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대[조선 의용대]. [51회] □

■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한 열사들 [60회] □

중국 우한(武漢)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 부대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여 1941년 7월 타이항산에서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결성하였다.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의 무장선전대로 활동하던 손일봉, 최철호, 박철동, 이정순은 호가장 전투에서 다른 대원들이 포위망을 벗어날 때까지 일본군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3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손일봉(1912~1941), 최철호(1915~1941), 박철동(1915~1941), 이정순(1918~1941)

■ 윤세주(1901~1942) [57회] □

▶훈격: 건국훈장 독립장 ▶서훈 연도: 1982년

공훈록(요약)

경남 밀양 출생. 1919년 11월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국내에 들어온 그는 의열 투쟁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조선 의용대**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였다. 1942년 타이항산에서 전사하였다.

-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되었다[**조선 의용군**]. [63회] [60회] □
- [조선 의용대] 대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65회] [57회] □
- [중국 화북] 대일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어요. [56회] □
- ↳[김두봉] 연안에서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다. [52회] □
- ↳조선 독립 동맹을 창립하여 대일 항전을 준비하였다. [48회] □
- [조선 의용군]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58회] [54회] [51회] □

◆ 사진으로 보는 의혈 투쟁과 1930년대 무장 독립 투쟁

 ▲ 박재혁 의사상(의열단) [47회] □ (사진 교체함)	 ▲ 심산 김창숙 [54회] □	 ▲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의 훈련 장소(난징 천녕사 오테) [53회] □	 ▲ 윤세주(의열단, 조선 의용대) [57회] □
 ▲ 양세봉(조선 혁명군) [62회] □	 ▲ 양세봉의 묘(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47회] □	1930년대 만주 지역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만주사변(1931.9) 일제가 만주에 침략 한중 연합군 결성 · 남만주: 조선 혁명군 · 북·동만주: 한국 독립군 · 항일 유격대 활동 만주국 수립 (1932. 3) ●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 ● 한국 독립군(총사령 지청천) ■ 독립군과 중국군의 활동 지역 ■ 1931년 이전의 일본군 점령지 ■ 1932년의 일본군 점령지 ▲ [참고 자료] 1930년대 만주 지역 무장 독립 전쟁 □	
 ▲ 백산 지청천(이청천)(한국 독립군) [62회] □	 ▲ 백산 지청천(이청천)(한국 독립군) [49회] □	 표시된 인물이 김원봉 ▲ 조선 의용대 창립 1주년 기념 사진 [65회] □	
 ▲ 남자현 옛 거처(경북 영양) [48회] □	 ▲ 최흥식 편지(한인 애국단) [60회] □	 ▲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한 열사들 [60회] □  ▲ 시게미쓰 마모루(일본 외무대신)의 항복 서명 [51회] □	
 ▲ 이봉창(앵전문 앞 대역 사건) [50회] □			

주제 67 일제 강점기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1 경제 생활의 변화

- [토막] 도시 빈민들이 거적 등으로 둘러 만든 집 [53회] ☐
- [경성역]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1925년 건축 [53회] ☐
- [미쓰코시 경성지점] 식민지 조선의 대표 백화점 [53회] ☐

1 일제 강점기의 경성 [53회] ☐

■ 주제: 경성의 거리 풍경

일제 강점기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한국인이 사는 북촌과 일본인이 주로 사는 남촌으로 나뉘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도시 빈민인 토막민은 청계천이나 도시 외곽에 터를 잡았다.

◆ 사진으로 보는 일제 강점기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 경성의 거리 풍경 [53회] ☐	(가)
---	---

2 사회 생활의 변화

3 대중문화의 보급과 체육 활동

-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64회] [55회] [47회] ☐

주제 68 건국 준비 활동

1 대한민국 임시 정부

■ 한국 독립당 재창당 [47회] □

한국 국민당, 조선 혁명당, 한국 독립당이 각각 자기 당을 해소(解消)하고 새로 한국 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중외(中外) 각계에 정중히 선언한다.

동지 동포들! 우리 3당이 1당을 조직하게 된 최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당의(黨義), 당강(黨綱), 당책(黨策)으로든지 독립운동의 의식으로든지 역사적 혁명 노선으로든지 3당 서로가 1당을 세울 만한 통일적 가능성을 충족하게 내포하였던 것이다. 둘째, 수 3년 내로 3당 통일의 예비 행동이 점차로 성숙되었던 것이다. …… 마침내 우리 민족 해방 운동의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려면 각계각층의 협력 합작을 통하여 비로소 총동원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결론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각방(各方)의 정성 단결이 확립되어야 우리의 광복 대업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1940년 5월)

•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선포하였다. [62회] □

↳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선포하였다. [56회] □

↳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58회] □

↳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64회] □

↳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공포하였어요. [51회] □

↳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되었다. [48회] [47회] □

↳ [조소앙]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작성하였다. [54회] □

↳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조소앙]. [66회] □

↳ 삼균주의를 제창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강조하였다. [50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초안 [50회] □

이 문서는 조소앙이 마련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초안이다. 건국 강령은 민족 운동의 방향과 광복 후 국가 건설의 지향을 담은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 헌장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 초안에는 조소앙이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 대일 선전(宣戰) 성명서를 발표하다[1941년 12월]. [58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공포하였다. [50회] □

■ 대일 선전 성명서 [53회] □

우리는 삼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격파(擊敗)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여한 상태이며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한다.
2. 1910년의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재차 선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 지닌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
3. 왜구를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중국 외교 활동 [56회] □

접견 기록

■ 날짜 및 장소: 1943년 7월 26일, 중국 군사 위원회 접견실

■ 참석 인물: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등
- 중국: 위원장 장제스 등

■ 주요 내용

- 장제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혁명 동지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광복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김구·조소앙: 우리의 독립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국이 지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53회] □

↳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50회] □

■ 한국 광복군 편련 계획 대강(일부) [64회] □

이것은 한국 광복군 편련 계획 대강의 일부로 병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1. 연내에 동북 방면에서 중국 관내로 들어와 화북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독립군 중에서 모집한다.
⋮
3. 한국 국내와 동북 지방 각지에 있는 장정들에게 비밀리에 군령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응모하게 한다.
⋮
5. 포로로 잡힌 한인을 거두어 편성한다.

- [한국 광복군]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67회] [63회] □

↳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47회] □

↳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54회] □

↳ 연합군과 함께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51회] □

- [한국 광복군]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60회] [59회] □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64회] □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66회] □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53회] □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61회] □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58회] □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52회] □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48회] □

미국 전략 정보국(OSS)의 지원을 받았다. [50회] □

•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다. [60회] □

■ 한국 광복군의 활약 [59회] □

인도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이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적을 향한 육성 선전, 방송, 전단 살포, 포로 신문, 정찰, 포로 훈련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영국군 당국은 우리를 깊이 신임하고 있으며, 한국 독립에 대해서도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 동지들이 인도에서의 공작에 다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 『독립신문』 -

■ 임정 군무부장 조성환 [52회] □

이곳은 독립운동가 조성환이 태어난 여주의 보통리 고택입니다. 그는 194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 창설을 주도하고, 군무 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가옥은 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하였다고 전해지며, 국가 민속 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한국 광복군 오희영, 신송식 [58회] □

이 부부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두 사람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충칭에서 창립된 한국 광복군에서 첩보 담당 및 주석 비서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오희영은 부모, 동생이 모두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 한국 혁명 여성 동맹 창립 기념 [62회] □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한국 혁명 여성 동맹의 창립 기념 사진입니다. 이 단체는 충칭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 한인 경위대 [55회] □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하던 시기에 창설된 한인 경위대의 사진입니다. 이 부대는 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가 조직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 미주 한인들의 대일 전선 동참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1942년 2월)

2 조선 건국 동맹 결성 및 기타 항일 활동

-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57회] [49회] ☐
- [여운형]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54회] ☐
 - ↳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50회] ☐
 - ↳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67회] ☐
- 부민관 폭파 사건을 주도하였다. [64회] ☐

3 국제 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

-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57회] ☐

◆ 사진으로 보는 건국 준비 활동

 ▲ 한국 혁명 여성 동맹 창립 기념 사진 [62회] ☐	 ▲ 대일 선전 성명서 [58회] ☐	 ▲ 한국 광복군 오희영(좌), 신송식(우) [58회] ☐	 ▲ 한인 경위대(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 [55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충청) [51회] ☐	 ▲ 청사 조성한(여주 보통리 고택)(임시 정부 군무부장) [52회]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초안 [50회] ☐	

주제 69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1 8·15 광복과 좌우익 세력의 갈등

- [여운형]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63회] □

↳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8회] □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 [66회] □

항복 전에 정부총감 앤드 등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여운형과 논의하였다. …… 일본인들은 그가 유혈 사태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 그런데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바를 따르지 않았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연합군이 올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 유지 위원회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인 정부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서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64회] □

↳ 조선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지에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7회] □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지부가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58회] □

■ 맥아더 포고령 1호 [57회] □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함.

제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64회] □
- [이승만]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축성 중앙 협의회를 이끌었다. [66회] [63회] □

■ ‘인공’ 부인 미군정 장관의 기자회견 발표문 [49회]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 자천자임(自薦自任)한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였노라는 대소 회합이라든가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든가 조선 인민 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재가 전혀 없는 것이다. (1945년 10월)

- 미군정 장관 육군 소장 아놀드 -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66회] [60회] □

↳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57회] [55회] [51회] □

■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결성 [57회]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여 명으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김구·김규식 등 9인을 위원회의 장정위원으로 선정하였다.

■ ‘신탁 관리 문제’에 대한 미군정 장관의 기자 회견 발표문 [51회] □

군정 장관 아놀드 소장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신문 기자단과 회견하고 신탁 통치에 관한 질문에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일문일답을 하였다. “…… 신탁 통치는 조선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코자 함이 목적일 것이다. 우선 조선인이 당면한 경제 산업에 있어 유의하여 신탁 관리 문제로 모든 기관이 중지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를 요망한다. 현 단계에 이르러 진실한 냉정이 필요할 것이다. 4개국을 믿고 있는 중에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 [미소 공동 위원회]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논쟁하였다. [47회] □

■ 미소 공동 위원회(제1차) 출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47회] □

-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3천만의 큰 희망 속에 20일 드디어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하였다.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그 추이는 자못 3천만 민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조선인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미소 공동 위원회**가 난관에 봉착함으로 인하여 미국 측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 각국은 41대 6으로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시키기로 가결하였다. …… 조선인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시간에 유엔 총회가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모인 유엔 총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55회 [51회]] □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막 [60회] □

하지 중장, 특별 성명 발표

- 오늘 오전 조선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 위원회 무기 휴회에 관한 중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덕수궁 석조전에서의 역사적인 개막 이후 49일 만의 일이다. (1946년 5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막

- 미소 공동 위원회는 제1차 회의가 무기 휴회된 지 만 1년 16일 만인 오늘 오후 2시 정각에 시내 덕수궁 석조전에서 고대하던 제2차 회의의 역사적 막을 열었다. (1947년 5월)

-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54회] □

↳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48회] □

■ 이승만의 정읍 발언 [64회] □

신문을 보니 며칠 전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네. / 한국 독립당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된다고 했다더군.

-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64회] □

↳ [여운형]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66회] □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58회] □

-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60회] □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57회] □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55회] □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47회] □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62회] [56회] □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51회] [49회] □

- 좌우 합작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65회] □

■ 좌우 합작 7원칙 [48회] □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3.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권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시가지의 기지와 큰 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1947년 3월]. [58회] □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는 기사 [63회] □

■ 서윤복 선수 환영회, 중앙청 광장에서 개최 [61회] □

제51회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환영회가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 하지 중장, 헬믹 준장 등 군정청의 주요 인사와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참석하여, 우리 민족의 의기를 세계에 과시한 서윤복 선수의 우승을 함께 기뻐하였다. (1947년 6월)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62회] □

■ 제2차 미소 공위 결렬 [64회] □

우리 소련의 주장은 작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 우리 미국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60회] [48회] □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57회] □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설치되었다. [49회] □

■ 김구의 단독 정부 반대 성명 [55회] □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단독 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64회] □

■ 몽양 여운형 [63회] □

- 생몰: 1886년~1947년
- 호: 몽양
- 신한 청년당 결성
- 좌우 합작 위원회 조직
- 서울 혜화동에서 피살

-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58회] [51회] □

■ 남북 협상을 위한 노력 [58회] □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두(關頭)*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남북통일과 민주독립을 촉진해야겠다. 우리 민족자주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하여 실현되는 남북 정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관두: 가장 중요한 지점

- [김구, 김규식]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에 참석하였다. [54회] □

↳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석하였다. [47회] □

■ 전조선[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48회] □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下記) 제 정당·단체들의 공동 명의로써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 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 백범 김구 [63회] □

- 생몰: 1876년~1949년
- 호: 백범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역임
- 남북 협상 참여
- 서울 경교장에서 피살

◆ 사진으로 보는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노력



▲ 서윤복 선수 환영회 [61회] □



▲ 몽양 여운형 [63회] □



▲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 [67회] □



▲ 백범 김구 [63회] □

■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 117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67회] □

1918년 중국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고 해방 후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한 여운형 선생의 마지막 길에 내걸린 만장(輓章)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만장이란 망자를 추모하는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만든 깃발로, 1947년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이 애도하는 만장이 내걸렸다.

이 만장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광복 후 좌우대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평가를 담은 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주제 70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 [제주 4·3 사건]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50회] ☐
-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62회] ☐
- **L**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3회] ☐

■ 제주 4·3 사건 [62회] [53회] ☐

- 기념관에 있는 이 비석은 왜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은 걸까? / 4·3 사건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래.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뒤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야.
 - 4·3 사건 옥살이 335명, 7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사건 당시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63회] [60회] [58회] [51회] ☐
- **L**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였다. [64회] ☐

■ 여수·순천 10·19 사건 [55회] ☐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 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및 40여 명의 하사관들은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계열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동월 20일 8시 여수를 점령하는 한편, 좌익 단체 및 학생들을 인민군으로 편성하여 동일 8시 순천을 점령하였다.

- 국가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64회] ☐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64회] [55회] [47회] ☐
- [5·10 총선거]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다. [65회] ☐
- **L**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65회] ☐

■ 5·10 총선거 기념 우표 [63회] ☐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른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 [제헌 국회] 일부 지역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63회] □
- ↳ [제헌 헌법]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50회] □
- ↳ [제헌 국회]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63회] □
- ↳ 일제가 남긴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63회] □
- ↳ 귀속 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어요. [51회] □
- [김병로]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54회] □

3 반민족 행위 처벌 문제

- [제헌 국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63회] □
- ↳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62회] □
- ↳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제정 [56회] □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61회] [52회] □
-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1회] [47회] □
-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60회] [49회] □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66회] □
- 반민 특위를 이끌던 국회 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하였다. [53회] □
-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하였다[6·6 반민특위 습격 사건(1949년)]. [64회] [58회] □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해체되었다. [59회] □

4 농지 개혁

-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62회] [58회] [48회] [47회] □
- ↳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55회] □
- ↳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57회] [54회] □

◆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4·3 사건 평화 기념관 백비 [62회] ☐	 ▲ 5·10 총선거 기념우표 [63회] ☐	 ▲ 대한민국 정부 수립(자료 배경) [56회] ☐	
 ▲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65회] ☐			

주제 71 6·25 전쟁

1 6·25 전쟁의 배경

-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62회] [61회] [51회] ☐
 - ↳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64회] ☐
 - ↳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66회] [65회] ☐
 - ↳ 애치슨 선언이 발표됐어요. [55회] ☐

■ 애치슨 선언 [58회] ☐

군사적 안전 보장의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 지역의 정세 및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이어진다.

-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50회] ☐

2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65회] [61회] ☐

■ 국민 보도 연맹 사건 [62회] ☐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되었고, 6·25 전쟁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 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내는 편지』 -

-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어요. [55회] ☐

■ 다부동 전투 [51회] ☐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한 제1사단은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공세에 맞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제1사단 12연대는 특공대를 편성, 적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66회] [62회] ☐
 - ↳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하였다. [61회] ☐

■ 서울 수복 [55회] □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 10여 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뒷면에는 맥 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하여 적의 보급선을 끊었으며, 앞으로 힘을 합쳐 공산군을 끝까지 몰아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 볼까요?

-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하였다. [64회] □

■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 [66회] □

이 사진은 6·25 전쟁 당시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찍은 거란다. 유엔군은 중국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철교를 파괴했다는구나. /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의 모습을 보니 전쟁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61회] [51회] □

↳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됐어요. [55회] □

■ 기적의 항해 [63회] □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대피시킨 / 메리디스 빅토리호! / 6·25 전쟁 중의 흥남 철수 당시 / 배에 실린 군수 물자를 내리고 /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1·4 후퇴와 직후 대통령 담화 [65회] [64회] □

-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을 이용해 철수하였고, 오후 1시경에 마지막 부대가 통과한 후 임시 교량을 폭파시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시민들에게 피란을 지시하였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란길에 나섰다.
- 피하는 것은 죽는 것이요,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은 사는 길이니 비록 중국군 2백만 명이 들어오기로서니 우리 2천만 명이 일어나면 한 놈도 살아나갈 수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각 도시나 촌락에서 모든 인민들은 쌀을 타다가 밥을 지어 주먹밥이라도 만들면 실어다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며, 또 장년들은 참호라도 파며 한편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적의 전진을 뚫고 적군 속에 들어가 백방으로 싸워야만 될 것이다. (1951.1.9.)

[해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독려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이다.

-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64회] □
-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61회] [58회] □

↳ 국민 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63회] □

-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회담이 개최됐어요. [55회] □

■ 정전 회담 [51회] □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 회담에서 UN군 대표단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제의 논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동시에 침략 재발의 방지를 보장하는 화평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공산군 대표단에게 경고하였다.

- 원조 물자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 [63회] □

- 지가 증권을 싼값에 매각하는 지주 [63회] □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다. [58회] □
-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반공 포로 [63회] □

3 6·25 전쟁의 결과와 영향

-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50회] □
- ↳ 정전 협정의 체결 [56회]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64회] [61회] [59회] [51회] □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65회]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8회]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해 주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 대성동 마을 [61회] □

- 대성동 마을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마을입니다. (1/3)
- 6·25 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직후 비무장 지대에 남북이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만 남긴다는 후속 합의에 따라 마을로 조성되었습니다. (2/3)
- ‘자유의 마을’로 불리는 대성동 마을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 지역으로,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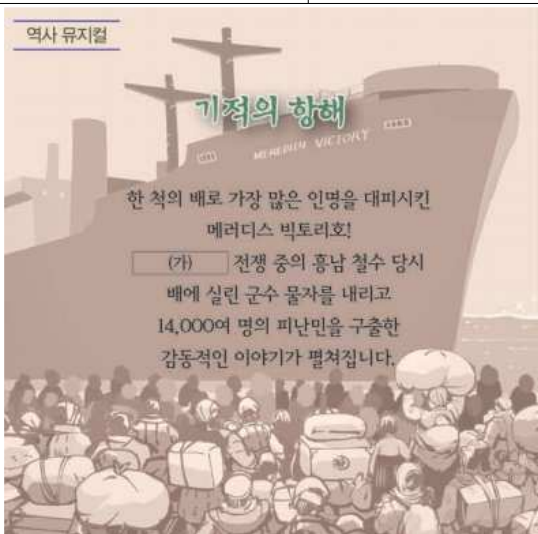
■ 노래로 읽는 한국사 [59회] □

이별의 부산 정거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란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해설]

이 곡은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에 발표된 노래로, 낯선 부산에서의 판잣집 피란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피란민의 심정을 애절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피란살이는 힘들었지만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힘이 되었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

 1/3 ▲ 대성동 마을(1/3) [61회] ☐	 2/3 ▲ 대성동 마을(1/3) [61회] ☐	 3/3 ▲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1/3) [61회] ☐	 ▲ 서울 수복 전단지 [55회] ☐
 역사 뮤지컬 기적의 항해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대피시킨 메리디스 빅토리호! (가) 전쟁 중의 흥남 철수 당시 배에 실린 군수 물자를 내리고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기적의 항해(메리디스 빅토리호) [63회] ☐		 ▲ 대동강 철교 위 피란민 [66회] ☐ (사진 교체함)	

주제 72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1 1950년대의 이승만 정부

-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59회] □
 - ↳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50회] □
 - ↳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6·25 전쟁]. [66회] [51회] □
-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발췌 개헌]. [52회] □

■ 발췌 개헌(제1차 개헌) [60회] [50회] □

- 이날 본회의는 하오 8시 정각에 개회되어 전원 위원회의 발췌 조항 전원 합의 보고를 접수한 후 김종순 의원의 각 조항 설명이 있는 다음, 질의도 대체 토의도 아무것도 없이 …… 표결은 기립 표결로 작성하여 재석 166인 중 163표로써 실로 역사적인 결정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표결이 끝나자 신익희 임시 의장은 정중 침통한 태도로써, “본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선포한다.”고 최후의 봉을 힘있게 3타 하였으며 그 음성은 몹시도 떨렸다.
-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58회] □
 - ↳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67회] □
 - ↳ [틀림]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67회] □
 - ↳ [틀림] 호헌 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50회] □

■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 [67회] [50회] □

- 제2차 개정 배경
1954년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국회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 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다.
-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부칙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56회] [49회] □

↳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54회] [52회] □

•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64회] [63회] [62회] □

↳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61회] □

↳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53회] □

↳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55회] □

↳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65회] □

↳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58회] □

■ 진보당 사건 재심 결과 [59회] □

1.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

5.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서 극형인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이다.

6. 국가는 ……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보고서』 -

■ 제3대 정·부통령 선거 [58회] □

이번 선거에 자유당,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이 출마했군. /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군. (1956년 5월)

•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61회] [58회] □

↳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59회] □

↳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48회] □

■ 보안법 파동 [53회] □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과거 부산 정치 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구국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여생을 민주주의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67회] □

↳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61회] □

↳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였다. [53회] □

2 4-19 혁명과 장면 정부

- [대구] 2·28 민주 운동이 시작되었다. [52회] □

■ 2·28 대구 민주 운동 [63회] □

학생들, 불의에 저항하여 일어서다

2월 28일 일요일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2월 28일에도 등교할 것을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지시하였다. 각 학교가 내세운 등교의 명분은 시험, 단체 영화 관람, 토끼 사냥 등이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날의 시위는 3·15 의거 등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위의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어 2018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대전 3·8 민주 의거 기념탑 [50회] □

이것은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를 기회로 삼아 시작한 3·8 민주 의거를 기리는 탑입니다. 3·8 민주 의거는 대구의 2·28 민주 운동, 마산의 3·15 의거와 더불어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승만 정부]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53회] □

↳ 3·15 부정 선거로 여당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47회] □

- [4·19 혁명]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61회] □

■ 마산의 3·15 의거 답사지 [57회] □

3·15 의거 발원지 → 3·15 의거 기념탑 →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 마산의료원(구 도립마산병원) →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 김주열의 죽음 [52회] □

역사 속 오늘: 4월 11일

오늘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그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4·19 혁명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4·19 혁명]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56회] □

↳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경무대로 행진하였다. [58회] □

↳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62회] [55회] □

↳ 대학 교수들이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섬 [64회] □

↳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50회] □

↳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였다. [48회] □

↳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63회] □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57회] □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해야하였다. [67회] □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4회] □

당시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6회] □

■ 4·19 혁명 [66회] □

○○○○년 ○○월○○일

학생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우리는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행진했다.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분노와 얼마 전 마산에서 일어난 규탄 대회에서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눈 부분을 맞고 마산 앞바다에 죽은 채 떠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던 터였다. 시위대의 물결이 경무대로 향했다. 그때 귀청을 뚫을 듯한 총소리가 연발로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총소리가 멈춘 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같은 반 친구가 바지가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힘이 없었다.

■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 [54회] □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4·19 혁명]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63회] □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61회] □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53회] □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52회] [49회] □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60회] □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51회] □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65회] □

양원제 국회가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3회] □

• [제3차 개헌]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58회] □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60회] □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55회] □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54회] [47회] □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64회] □

↳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4·19 혁명]. [48회] □

↳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60회] □

↳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였다. [52회] □

- [장면 정부(제2공화국)]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제3차 개헌]. [62회] □

↳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63회] □

- [장면 정부]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61회] □

■ 제3차 개헌 [62회] □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군. /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정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

■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집회 [58회] □

이 사진은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구호를 외치며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961년 5월)

◆ 사진으로 보는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 제3대 정·부통령 선거 [58회] ☐	 ▲ 2·28 민주 운동(대구) [63회] ☐	 ▲ 대전 3·8 민주 의거 기념탑 [50회] ☐ (사진 교체함)	 ▲ 김주열 열사 [52회] ☐
 ▲ 고려대 학생 시위 [60회] ☐	 ▲ 경무대 앞 경찰의 발포 [60회] ☐	 ▲ 교수단 시위 [60회] ☐	 ▲ 교수단 시위 [64회] ☐
 ▲ 시위에 참여한 수송초 학생 [60회] ☐	 ▲ 제3차 개헌 [62회] ☐	 ▲ 3·15 의거 기념 답사(경남 마산) [57회] ☐	
 ▲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집회(1961년 5월) [58회] ☐			

주제 73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1 5·16 군사 정변과 1960년대의 박정희 정부

-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63회] ☐

↳[군사혁명위원회]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47회] ☐

■ 5·16 군사 정변 직후 발표된 혁명 공약 [54회] ☐

1. 반공을 국시의 제일 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 [5·16 군사 정변]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61회]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65회] [56회] ☐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출범 [49회] ☐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3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출범하였다.

-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63회] [55회] ☐

↳[6·3 시위]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64회] [61회] [53회] ☐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54회] ☐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60회] [50회] ☐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52회] ☐

↳6·3 시위가 발생하였다. [62회] ☐

- 한일 기본 조약의 비준 [56회] ☐

-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50회] ☐

-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62회] ☐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58회] [49회] ☐

-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였다(1968.1). [65회] ☐

- [3선 개헌(제6차 개헌)]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60회] □
- [3선 개헌 반대 투쟁]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66회] [57회] □

■ 3선 개헌 반대 시위 [61회] □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네요. / 야당인 신민당과 재야 세력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를 막아내려 했지요.

-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55회] □
- ↳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49회] □

■ 3선 개헌(제6차 개헌) [63회]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2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60회] □
- ↳ 농촌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57회] □
- ↳ 새마을 운동의 추진 [56회] □

■ 새마을 운동 노래 [53회] □

이 노래는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정부에서 보급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이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 볼까요?

새마을 노래

1.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2.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 제7대 대통령 선거 [55회] □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네. /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더군.

2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61회] □
 - ↳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10월 유신]. [55회] □
- [유신 헌법(제7차 개헌)]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2회] □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67회] [59회] [58회] □
 - ↳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60회] □
 - ↳ 대통령이 국회 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67회] □
 - ↳ 대통령의 국회 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50회] □

■ 제7차 개헌[유신 헌법] [63회]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발족 [49회] □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통일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발족하였다.

-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59회] □

■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60회] □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이 헌법 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장준하)

■ 유신 체제의 폭압적 판결 [57회] □

• 김○○ 씨가 모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지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 발표하였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 사상 연구소 소장 백기완이 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 ‘민청학련 사건’ 기록물, 세상 밖으로 [67회] □

박정희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 사례 중의 하나로 알려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의 관련 기록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년 만에 관련 인물 180명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53회] □

↳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받았다. [63회] □

■ 김상진 열사의 양심 선언문 [59회] □

들으라!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 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 우리 대한 학도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엄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 긴급 조치 9호가 발동되었다[1975년 5월]. [49회] □

■ 대통령 긴급 조치 9호 [64회]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52회] [51회] □

↳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62회] □

↳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58회] [50회] □

↳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59회] [54회] [47회] □

↳ 긴급 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65회] □

↳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66회] □

↳ 장기 독재에 저항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67회] □

↳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64회] □

↳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53회] □

-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다[YH 무역 사건]. [63회] □

↳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59회] □

↳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47회] □

■ YH 무역 사건 [52회] □

시사만화로 보는 현대사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180여 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1천여 명의 무장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 [김영삼] 야당 총재가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65회] □
-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62회] [52회] □
- ↳ 야당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을 계기로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59회] □
- ↳ 야당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63회] [55회] □
- ↳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56회] □
- ↳ [부마 민주 항쟁]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0회] □
- ↳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53회] □

◆ 사진으로 보는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 3선 개헌 반대 시위 [61회] □	 ▲ 새마을 노래 [53회] □	 ▲ 제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55회] □	 ▲ YH 무역 사건(시사만화) [52회] □
 ▲ 장준하 캐리커처 [60회] □	 ▲ '민청학련 사건' 기록물 [67회] □		

주제 74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1 5·18 민주화 운동

-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49회] ☐
 - ↳ 신군부에 의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었다. [47회] ☐
-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60회] [53회] ☐
 - ↳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58회] ☐
-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62회] [57회] [51회] ☐
-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55회] ☐
 - ↳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64회] ☐
 - ↳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저항하였다. [66회] ☐
-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11년]. [63회] [61회] [58회] [57회] [53회] [48회] ☐

■ 5·18 민주화 운동 [61회] [55회] ☐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질서 유지, 진압이라는 명목 아래 저 잔인한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살육하였고 더군다나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 언론은 순수한 광주 시민의 의거를 불순배의 선동이니, 폭도의 소행이니, 나동이니 하여 몰아부치고만 있습니다. …… 이번 광주 의거를 몇 십 년 뒤의 사건 비화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수많은 사망자의 피맺힌 원혼과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껍데기 과도 정부와 계엄 당국은 민주의 피맺힌 소리를 들으라! ……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계엄 당국이 진지하고도 순수한 데모 대열에 무차별한 사격을 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 및 연행자는 추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계엄 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 염원을 묵살함은 물론 민주 투사들을 난동자·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

■ 경찰관 부당 징계 취소 [48회] ☐

경찰청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기를 맞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중앙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되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62회] [51회]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라라

[해설]

이 곡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고(故)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고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다. 1997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서 제창되었다.

•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하는 온라인 협동 수업

이 곡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노래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2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의 수립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65회] [54회] [49회] □

↳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였다. [47회] □

• [제8차 개헌]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60회] □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50회] □

■ 제8차 개헌 [56회] [49회] □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40조 ①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63회] □

↳ 삼청 교육대의 설치 [56회] □

■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1985년 2월) [47회] □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 창당 한 달 만에 제1 야당으로 급부상했군. / 여당인 민주 정의당과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 같아.

- 직선제 개헌을 청원하는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47회] □
- 언론 통제 보도 지침 [52회] □

■ 보도 지침 사건 [65회] [60회] □

-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과 민주 언론 운동 협의회가 **전두환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지침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이후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1986년 9월)
- 이것은 부천 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 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내린 정부의 보도 지침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습니다.

부천서 성 고문 사건 지침

- 검찰 발표 결과만 보도할 것
- ∴
-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 아닌 '성 모욕 행위'로 할 것
- ∴
- 독자적 취재 보도 불가

3 6월 민주 항쟁

- [6월 민주 항쟁] 박종철 열사 추모 시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 6·29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들, 이한열 열사 장례식 행렬 [53회] □
- ↳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48회]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60회] □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62회] [55회] □
-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4·13 호헌 조치가 선언되었다. [67회] □
-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51회] □
- ↳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호헌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57회] □
- ↳ 4·13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62회] □
-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66회] □
-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61회] □
- ↳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60회] [55회] [53회] [50회] [48회] □
- ↳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확산되었다. [58회] □
- ↳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10 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59회] □
- ↳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10 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56회] □

↳ 호헌 철폐 국민 대회 [52회] □

■ 6월 민주 항쟁 [63회] [49회] □

•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과 호헌 조치를 규탄하는 국민 대회 당시의 모습이야. 정부의 원천 봉쇄 방침에도 각 지역에서 열렸어.

• 이 대회를 주최한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는 4·13 호헌 조치가 무효라고 선언하였지.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더욱 거세졌어.

•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 대회 열려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만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국 집회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국민 대회가 열렸다.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는,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발표하면서 민주 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 정부 수립 의지를 밝혔다.

•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62회] [51회] □

• 명동 성당에서 시민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함 [64회] □

• [6월 민주 항쟁]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 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64회] □

• [6월 민주 항쟁]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63회] □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65회] [49회] □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50회] □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64회] □

• [6월 민주 항쟁] 명동 성당(박종철 고문 은폐 조작 발표 장소) → 향린 교회(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지) → 성공회 성당(6·10 국민 대회가 시작된 곳) [58회] □

• [9차 개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54회] □

↳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67회] □

↳ 현행 헌법 체제를 가져온 6월 민주 항쟁 [53회] □

■ 제9차 개헌(현행 헌법) [56회]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노태우 정부]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67회] □

4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

-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60회] □
- [노태우 정부]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50회] □

■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방문 [51회] □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 최초 방문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날 성사된 한중 수교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한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 [노태우 정부] 한국·헝가리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국·중국 수교 [48회] □

■ [추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기념 경축사[한소 수교] [45회] □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난날 냉전 체제의 다른 한쪽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 우호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동중부 유럽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무역 대표부를 교환 설치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전환일 것입니다.

- [김영삼 정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60회] [52회] [49회] [47회] □

↳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어요. [51회] □

↳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어요. [53회] □

↳ 금융 실명제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되었다. [55회] □

↳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62회] □

■ 금융 실명제 시행 발표 [56회] [48회] □

•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반포합니다. …… 금융 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제도 개혁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조(목적) 이 명령은 실지명익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익(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익이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기존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익을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김영삼 정부]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63회] [49회] □

↳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56회] □

■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54회] □

오욕의 침탑 철거

오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역사적 작업이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대중 정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2회] [47회] □

↳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53회] □

■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65회] □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 약속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공동 선언문에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표현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김대중 정부] 국제 통화 기금(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다. [54회] □

■ 김대중 정부의 IMF 채무 조기 상환 [49회] □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외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노사정 위원회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지원금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상환하였습니다.

■ 김대중 정부의 정책 [53회] □

- 대북 화해 협력: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 합의
- 복지 제도 확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 국민 인권 보호: 국가 인권 위원회 설립
- 외환 위기 극복: 국제 통화 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

■ 김대중 대통령, 공명선거와 사회 정책 방향 제시 [50회] □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로 국운 융성의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공명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자치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 [59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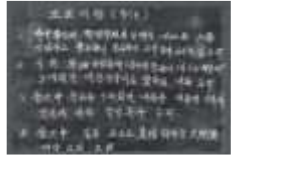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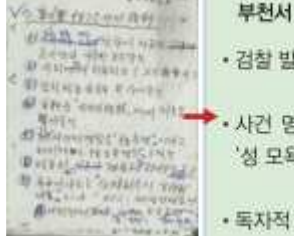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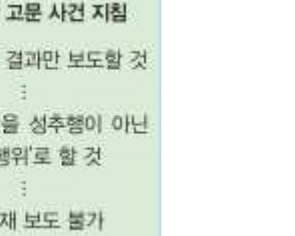
대통령, 63일 만에 직무 복귀

오늘 헌법 재판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이명박 정부] G20 서울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55회] □

└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 경제 협의 기구인 G20 정상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2회] □

◆ 사진으로 보는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 임을 위한 행진곡(5·18 민주화 운동) [62회] □	 ▲ 제12대 총선(국회 의원 선거)(1985년) [47회] □	▲ 6월 민주 항쟁의 현장을 찾아서 [58회] □	
 ▲ 보도 지침 폭로 기자회견(전두환 정부) [60회] □	 ▲ 언론 통제 보도 지침 [52회] □	 ▲ 호헌 철폐 국민 대회(6월 민주 항쟁) [63회] □	
 ▲ 부천시 성 고문 사건 지침 [65회] □	 ▲ 호헌 철폐 국민 대회(6월 민주 항쟁) [52회] □	 ▲ 6월 민주 항쟁(명동 성당) [64회] □	
 ▲ 6월 민주 항쟁 자료집 만들기(수행 과제) [53회] □		 ▲ 한국·중국 수교(노태우 정부) [48회] □	
 ▲ 금 모으기 운동(김대중 정부) [49회] □	 ▲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김대중 정부) [65회] □	 ▲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 기각 결정(헌법 재판소)(노무현 정부) [59회] □	

주제 75 산업화와 경제 성장

1 6·25 전쟁 이전의 경제

- [미군정기]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66회] [64회] [56회] [49회] ☐

↳ 귀속 재산 관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52회] ☐

↳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를 설립하였다. [58회] ☐

↳ 신한 공사가 설립되어 귀속 재산을 관리하였다. [61회] ☐

↳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62회] [53회] ☐

2 6·25 전쟁 직후의 경제

- [이승만 정부]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60회] [48회] ☐

↳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64회] ☐

- 미국의 경제 원조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66회] ☐

3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지향 경제 발전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61회] [56회] ☐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48회] ☐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66회] ☐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65회] [51회] ☐

• 희망에 찬 전진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서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나라가 새롭고 희망에 찬 생활을 향하여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날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도약 단계에 들어선 조국의 발전에 일대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새 출발의 해인 것이다. 앞으로 4~5년 후에는 아시아에 빛나는 공업 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이다.

• 이것은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도표로서 분야별 주요 계획, 국토 건설 현황 등이 그림과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시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 볼까요?

- 경부 고속 도로를 준공하였다. [56회] [48회] ☐

↳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64회] ☐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어요. [51회] □

■ 경부 고속 도로 준공 [66회] □

서울-부산 간 고속 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전-대구 구간을 마지막으로 경부 고속 도로가 완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5개월여의 단기간에 고속 도로를 완공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58회] □
-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대[1972년]. [55회] □

■ 8·3 조치 [58회] □

이것은 경제 관련 긴급 명령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경부 고속 도로 개통 등으로 경제 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사채에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그 상환을 동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전경 유착이 심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7·3 준공]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됐어요. [53회] □
-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61회] □

■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축하 조형물 [47회] □

이것은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하고자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지 7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상징합니다.

-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52회] [49회] □

3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 [전두환 정부]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63회] [60회] [52회] □
 -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64회] □
 -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했어요. [53회] □
- [김영삼 정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64회] [60회] [56회] [54회] [50회] [48회] [47회]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어요. [51회]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63회] □
 -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52회]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61회] □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경제 개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폐허 속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 국제 통화 기금(IMF) 구제 금융 신청[외환 위기] [66회] [52회] □

•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동성 부족 사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과 참여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셸 캉드쉬 총재 귀하

1. 첨부된 경제 계획 각서에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실행할 정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한국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향후 3년간 특별 인출권(SDR) 155억 달러 규모의 국제 통화 기금(IMF)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 [김대중 정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57회] □

• [김대중 정부] 국제 통화 기금(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다. [54회] □

• [노무현 정부]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사 [62회] □

↳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54회] [48회] □

• [노무현 정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61회] □

↳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60회] [49회] □

↳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58회] [56회] [47회] □

↳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했어요. [53회] □

↳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어요. [51회] □

↳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63회] [55회] □

• [박근혜 정부]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59회] □

◆ 사진으로 보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

 ▲ 박정희 정부 발행 우표 모음첩 [60회] □	 ▲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박정희 정부 [62회] □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도표 [51회] □	 ▲ 경부 고속 도로 준공 [66회] □	 ▲ 8·3 조치 발표 [58회] □
 ▲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축하 조형물(광화문 사거리) [47회] □	 ▲ 김영삼 대통령 캐리커처 [61회] □	 ▲ 국제 통화 기금(IMF) 구제 금융 신청(외환 위기)(김영삼 정부) [66회] □

주제 76 사회·문화의 변화

1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 [박정희 정부] 향토 예비군 창설식[1월 21일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 [56회] □
- [박정희 정부] 정부의 도시 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1971년 8월] [62회] □

■ 광주 대단지 사건 [64회] [50회] □

• 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탈취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정비를 명목으로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약속한 이주 조건을 지키기 않자 주민들이 대지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반발하였습니다.

• 광주 대단지 주민 5만여 명, 대규모 시위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울 도심을 정비하기 위하여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서울시가 처음 내건 이주 조건과 달리, 상하수도나 교통 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시위 과정에서 관공서와 주유소 등이 불에 탔고, 주민과 경찰 다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구속되었다.

-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다[1970년 11월]. [52회] □

■ 평화시장 노동자(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63회] □

오늘 오후 2시경 서울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시위 도중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씨는,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박정희 정부]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63회]
- [전두환 정부] 언론의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56회] □
- [전두환 정부]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60회] □
- [전두환 정부]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66회] [63회] □
 - ↳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58회] □
 - ↳ 최저 임금법 제정으로 최저 임금을 심의하는 위원 [62회] □
- [노태우 정부]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54회] □
- [김영삼 정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56회] □
- [김영삼 정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66회] [61회] [52회] [49회] □
 - ↳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어요. [51회] □
 - ↳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어요. [53회] □

↳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58회] □

↳ 금융 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57회] □

↳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62회] □

- [김영삼 정부]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59회] [54회] [52회] □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 [62회] □

- [김대중 정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2회] [47회] □

↳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64회] □

↳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53회] □

- [김대중 정부]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59회] □

- [김대중 정부]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2000년 10월]. [61회]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실시되었다. [50회] □

■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감사 서신 [55회] □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룩해냈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전개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 금융, 기업, 공공, 노사의 4대 개혁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지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3년을 앞당겨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틀을 갖추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 체제를 완비했습니다. (2003년 2월)

- [노무현 정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59회] □

- [노무현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54회] □

- [노무현 정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56회] □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54회] □

↳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50회] □

- [노무현 정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2007년 4월]. [50회] □

- [노무현 정부]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7회] □

■ 노무현 정부의 정책 [54회] [47회] □

- 질병 관리 본부 출범[설치](국민 보건 증진)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주최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시작[추진][국토 균형 발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구성[과거사 정리]

- [이명박 정부]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시행하였다. [56회] □

2 교육과 대중문화의 성장

- [미군정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48회] □
- [이승만 정부]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48회] □
- [박정희 정부] 국민 교육 헌장이 선포되었다[1968년 12월]. [57회] □
 - ↳ 국민 교육 헌장이 공포되었다. [49회] □

■ 국민 교육 헌장 선포 1주년 기념사 [48회] □

오늘 국민 교육 헌장 선포 1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온 국민과 더불어 뜻깊은 이날을 경축하면서 헌장 이념의 구현을 위한 우리들의 결의를 새로이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 교육 헌장은 우리 민족이 지녀야 할 시대적 사명감과 윤리관을 정립한 역사적 장전이며, 조국 근대화의 물량적 성장을 보완, 촉진시켜 나갈 정신적 지표이며, 국가의 백년지계를 기약하는 국민 교육의 실천 지침인 것입니다.

- [박정희 정부]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54회] [48회] □
 - ↳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되었다. [50회] □
- [전두환 정부]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1980년 '7·30 교육 조치']. [50회] □
 - ↳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48회] □
- [전두환 정부]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63회] [60회] [49회] □
 - ↳ 프로 야구 6개 구단 창단 [52회] □
- [노태우 정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60회] □
 - ↳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59회] □
- [김영삼 정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48회] □
- [김대중 정부]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57회] □

◆ 사진으로 보는 사회·문화의 변화



▲ 향토 예비군 창설식(박정희 정부) [56회] □



▲ 광주 대단지 사건(박정희 정부) [50회] □



▲ 광주 대단지 사건(박정희 정부) [64회] □



▲ 프로 야구 6개 구단 창단(전두환 정부) [52회] □



▲ 김대중 정부의 정책 [53회] □



▲ 사진으로 보는 노무현 정부 [54회] □



▲ 노무현 정부의 정책 [47회] □

주제 77 통일을 위한 노력

1 남북의 긴장 고조

2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 [박정희 정부]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63회] □

↳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62회] □

↳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51회] □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53회] □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를 취재하는 기자 [52회] □

↳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4회] □

↳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8회] □

↳ 7·4 남북 공동 성명 실천을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7회] □

↳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조절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57회] [56회] □

↳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5회] [63회] [61회] [59회] □

↳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62회] □

↳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47회] □

↳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8회] □

↳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다. [60회] □

↳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50회] □

■ 남북 조절 위원회 발족 [66회] □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나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남북 조절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남북 조절 위원회는 판문점에 공동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으며, 회의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 [박정희 정부]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49회] □

- [박정희 정부]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6·23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64회] □

- [전두환 정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56회] □
 - ↳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실현하였다. [49회] □
 -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54회] □
- [전두환 정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66회] [62회] □
 -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67회] □
 -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하였다. [57회] □
 -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59회] □
 - ↳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65회] [63회] □
 - ↳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61회] □
 - ↳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60회] □
 - ↳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51회] □
 - ↳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성사 [47회] □
 - ↳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58회] □
 - ↳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 [53회] □
 - ↳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 고향 방문단 [52회] □
- [노태우 정부]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67회] [58회] □
 - ↳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54회] □

■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7·7 선언] [63회] □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복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

셋째,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 [노태우 정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남북 기본 합의서]. [64회] □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58회] □
 - ↳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57회] [51회] □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 [47회] □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66회] [60회] □

•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양측의 국호를 사용하였다.

• 대통령, 내일 북한 대표단 접견

대통령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상황을 보고받고, 내일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남북 관계에 큰 전환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노태우 정부]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62회] □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50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65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48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서명 [53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56회] [49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47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61회]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외교부 당국자 [52회] □

• [노태우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61회] [59회] [57회] [50회] [49회] □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67회] [63회]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53회] □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52회] □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56회] □

나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서울 올림픽의 감명을 전했습니다. …… 며칠 전 남북한이 다른 의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일을 위해 거쳐야 할 중간 단계입니다. 남북한의 두 의식이 하나로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49회] □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48회] □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단체 여행객 [52회] □

■ 금강산 관광객 실은 크루즈, 동해항에서 첫 출항 [61회] □

정주영의 소 때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56회] □

↳ 남북 정상 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51회] □

•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58회] □

↳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65회] [61회] □

↳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66회] □

■ 6·15 남북 공동 선언 [62회] □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6·15 남북 공동 선언 후 평양 출발 성명 [64회] □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남북이 열과 성을 모아, 이번의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 출발에 온 세계가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 정상 회담을 이뤄냈듯이 남과 북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 [김대중 정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60회] □

↳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59회] □

↳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 합의 [53회] □

↳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64회] □

↳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습니다. [54회] □

↳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6회] □

↳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63회] □

↳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48회] □

• [김대중 정부]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55회] □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59회] □

저는 지난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이룩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할 때 저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땅을 처음으로 가게 된 감회도 컸고, 또 과연 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염려도 갖고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 지난 6월의 평양 회담 이후 우리 한국은 두 가지를 당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당면 목표는 50년 간의 단절과 불신과 적대로부터, 다시 교류와 신뢰와 동족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

■ 한·미 정상, 도라산역 방문 [58회] □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경의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산역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역의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2년 2월)

- [노무현 정부]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66회] □
- [노무현 정부] 개성 공업 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62회] □
 - ↳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50회] □
 - ↳ 개성 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 관료 [52회] □
 - ↳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 [51회] □
 - ↳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되었다. [66회] □
 - ↳ 개성 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61회] □
- [노무현 정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하였다. [57회] □
-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60회] □
 -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하였다. [64회] □
 -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67회] □
 - ↳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57회] [50회] [48회] □
 - ↳ 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63회] □
 - ↳ 10·4 남북 정상 선언 발표 [47회] □

■ 10·4 남북 정상 선언 [62회] □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 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성 공단 방문 연설(노무현 대통령) [67회] □

진작부터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참여 정부 와서 첫 삼을 떴기 때문에 …… 지금 개성 공단이 매출액의 증가 속도, 그리고 근로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이 눈부시지요. 경제적으로 공단이 성공하고, 그것이 남북 관계에서 평화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함께 번영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 되면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였다[2018년]. [66회] □
- [문재인 정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2018년]. [65회] [59회] □

◆ 사진으로 보는 통일을 위한 노력

 ▲ 노태우 대통령 캐리커처 [56회] ☐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 [48회] ☐	 ▲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크루즈)(김대중 정부) [61회] ☐	 ▲ 한·미 정상, 도라산역 방문(김대중 정부) [58회] ☐
 ▲ 경의선 철도 시범 운행 (노무현 정부) [57회] ☐	 ▲ 노무현 대통령 캐리커처 [67회] ☐		

주제 78 통시대

※ 심화로 바뀐 이후 57회부터 통시대 관련 문항이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

☞ 석탑, 불상 등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문항은 제외, 사료로 된 통시대 문제 주제 제시, 기타 자료 형식으로 된 통시대 문제는 사진 이미지로 제시함(사진 제목이 곧 주제).

1 두 시대

- 주제 - 시대별 노비 해방의 역사(고려 시대, 조선 시대) [67회] □

↳ 노비 해방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 [67회] □

- 주제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전투 [65회] □
- 주제 - 남북국 시대와 고려 시대의 승려들 [61회] □
- 주제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역사서 [61회] □
- 주제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유물 관련 자료[저서] [57회] □
- ↳ 유물 관련 자료[저서] 작성 인물에 대한 탐구 [57회] □
- 주제 - 고구려와 고려 시대의 벽화 [54회] □

2 세 시대 이상

- 주제 - 시대별 역사서 작성 인물에 대한 탐구(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66회] □
- ↳ 시대별 역사서 [66회] □
- 주제 - 시대별 지방 통치 체제(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64회] □
- 주제 - 각 시대별 전투(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63회] □
- 주제 - 각 시대별 관리 임용 제도(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62회] □
- ↳ 고려 시대 과거제와 조선 시대의 현량과 [62회] □
- 주제 - 시대별 주요 교육 기관(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60회] □
- 주제 - 시대별 주요 농민 봉기(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59회] □

■ 역사 속 왕의 호칭 [58회] □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호칭을 묘호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은 ‘조’를, 그 나머지는 ‘종’을 붙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묘호를 쓴 왕은 신라의 ①태조 무열왕이다. 고려 시대에는 ①태조만 조의 묘호가 붙여졌지만,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이유로 ②정조처럼 조를 붙인 왕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③충렬왕처럼 조, 종을 붙이지 못한 왕들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연산군, ④광해군처럼 묘호를 받지 못하고 군으로 격하되어 불린 경우도 있었다.

■ 한국 교육의 역사 [65회] □

삼국 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재는 유학 경전과 역사서가 중심이었다.

고려 시대에 와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조상의 음덕을 입은 관직 진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학인 국자감 못지 않게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의 교육 기관은 ㉢관학으로 성균관·향교 등이 있었고, 사학으로 서원 등이 있었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성리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통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에서 학교를 설치하였다.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는 각종 관립 학교가 세워져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편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 문화를 보급하려고 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 사진으로 보는 통시대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올려주세요.
※ 과제 마감일은 10월 21일입니다.

번호	제 목
1	1모둠 - 명도전, (가)
2	2모둠 - 해동통보, (나)
3	3모둠 - 은병, (다)
4	4모둠 - 상평통보, (라)
5	5모둠 - 백동화, (마)

▲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화폐 [67회] □

모둠별 주제 탐구 과제 안내
인물로 보는 역사 속 외교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과제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번호	제 목
1	1모둠 - 강수, (가)
2	2모둠 - 서희, (나)
3	3모둠 - 이예, (다)
4	4모둠 - 김홍집, (라)
5	5모둠 - 김규식, (마)

▲ 인물로 보는 역사 속 외교 활동 [64회] □

(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나) 팔만대장경
(다) 직지심제요집
(라) 자치통감 (갑인자본)
(마) 한성순보

▲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역사 [60회] □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
<차례>

- 선덕 여왕,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3
- (가)
- 이빙허각,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 9
- (나)
- 김만덕, 재주의 거상이자 자선가 15
- (다)
- 남자현, 의열 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21
- (라)
- 강주룡, 일제 강점기의 노동 운동가 27
- (마)

▲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 [60회] □

주제 79 지역사(향토사)

1 국내

- [서울] 행주산성 → 절두산 순교 성지(잠두봉 유적) → 국립 서울 현충원 → 풍납동 토성 → 암사동 유적 [60회] □
- [서울 암사동 유적] 갈돌과 갈판 등이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다. [60회] □
- [서울 풍납동 토성] 판축 기법을 활용하여 성벽을 쌓은 백제 토성이다. [60회] □
- [서울(4·19 의거 답사지)] 옛 경무대 앞(효자동 삼거리) → 옛 수송초등학교(종로구청) → 옛 국회의사당(서울 시의회) → 옛 서울대 문리대(마로니에 공원) [60회] □
- [서울 경복궁(북궐)]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60회] □
 - ↳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되었다. [48회] □
 - ↳ 명성 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이다. [48회] □
 - ↳ 일제에 의해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다. [48회] □
 - ↳ 광화문 → 근정전 → 사정전 → 강녕전과 교태전 → 향원정 → 건청궁 → 경회루 [48회] □
 - ↳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66회] [53회] □
 - ↳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48회] □

■ 경복궁 복원 기공식 대통령 연설문 [66회] □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길 속에 휩싸여 흥선 대원군이 그 당시의 국력을 기울여 중건할 때까지 2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우리 역사의 맥을 끊기 위해 350여 채에 이르는 전각 대부분을 헐어내고 옮겼습니다. 국권의 상징이던 근정전을 가로막아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을 복원하려는 것은 남에 의해 훼손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1991.6)

■ 조선 물산 공진회(경복궁) [63회] □

이 사진은 조선 물산 공진회가 열렸던 당시 일장기가 내걸린 근정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그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진회장 조성 과정에서 경복궁의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

- [서울 창경궁(동궐)]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66회] [64회] [60회] □

■ 창경궁 홍화문 [56회] □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은 **성종**이 정희 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수리하여 조성한 궁궐입니다. **성종**은 경국대전 완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 [서울 창덕궁(동궐)]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다. [60회] □
 L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이다. [53회] □
- [서울 경희궁(경덕궁)]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66회] [64회] [60회] □
 L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로 불리었다. [53회] □
- [서울 덕수궁(경운궁)]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석어당](#)]. [64회] [60회] [53회] □
 L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환궁한 곳이다. [48회] □
 L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석조전](#)]. [66회] [53회] □
- [서울] 국왕이 신농, 후작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례를 살펴본대[탐구 활동]([선농단](#)). [50회] □
- [서울 절두산 순교 성지]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이다. [60회] □
- [서울] 강우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을 찾아본대[탐구 활동]. [52회] □
- [서울] 나석주가 조선 식산 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53회] □
- [서울]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덕수궁 석조전](#)]. [52회] □
 L[[덕수궁 석조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49회] □

■ [덕수궁 석조전](#) [59회] □

별빛 석조전 야행

항제로 즉위한 고종이 부국강병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던 이 시기에 황궁의 정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였던 석조전에 초대합니다. 별빛이 내려앉은 석조전에서 색다른 정취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광무개혁 시기](#))(1897~1904)

- [[서울\(국립서울현충원\)](#)] 6·25 전쟁 이후 조성된 국군 묘지에서 시작되었다. [60회] □
-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 → 손탁 호텔 터 → 중명전 →석조전 → 환구단 터[근현대 역사의 현장] [49회] □
- [경기도 수원] 장용영의 외영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탐구 활동]([1793년](#)). [60회] □
 L장용영의 외영이 설치된 곳을 알아본대[탐구 활동]. [49회] □
- [경기도 수원] 축만제 → 노송지대 → 지지대비

■ [경기도 수원](#) [61회] □

서호천을 따라 [정조](#)의 자취를 느끼다

- 축만제: 왕이 수원 화성 및 장용영 운영을 위해 조성한 둔전의 수리 시설
- 노송지대: 왕이 현릉원* 식목관에 내탕금을 내려 소나무 등을 심도록 한 곳
- *현릉원: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
- 지지대비: 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아들 순조가 건립한 비

- [강화도]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장소를 살펴본대[탐구 활동]. [59회] □
 L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57회] □
 L외규장각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4회] □

외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하였다. [52회] □

외규장각]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하였다. [51회] □

• [강화도] 대몽 항쟁기에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56회] □

• [강화도] 외규장각 → 연무당 옛터 → 광정보 → 정족산성 → 초지진 [51회] □

• [강화도(연무당)]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51회] □

• [강화도(광정보)] 어재연 부대가 결사 항전하였다. [51회] □

어재연 부대가 항전했던 광정보에 가 보세요. [66회] □

• [강화도(정족산성)] 양헌수 부대가 적군을 물리쳤다. [51회] □

• [문수산성(경기도 김포)] 한성군 부대가 서양 세력에 맞서 항전한 장소를 검색한다[탐구 활동]. [49회] □

• [남화산성]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을 찾아본다[경기도 광주]. [60회] □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하였다[병자호란]. [58회] □

• [개성(개경)]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63회] [53회] [48회] □

• [개성]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첫 번째 정전 회담이 열린 곳이다. [57회] □

• [개성]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으로 설치된 공단의 위치를 파악한다[탐구 활동] [49회] □

■ 개성 [57회]

황성옛터(荒城옛터)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설운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 잠 못 이뤄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져요

[해설]

이 곡은 전수린이 고향인 개성에 들렀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설움을 대변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 이 곡의 배경인 개성의 만월대에서는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 금속활자를 비롯하여 기와 및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 [충북 괴산] 명 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48회] □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만동묘가 설치되었다. [67회] □

• [충북 청주]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48회] □

• [충북 충주(산)성] 김윤후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했어요. [59회] □

• [충북 충주]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위치를 검색한다[탐구 활동]. [64회] □

L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격전지를 조사한다[탄금대]. [52회] □

L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 [48회] □

■ 충북 충주 [59회] [48회] □

- 이것은 1872년에 제작된 우리 고장의 지방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우다 투신한 장소인 탄금대와 임경업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렬사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해 볼까요?
- 고구려비 → 탑평리 칠층 석탑(중앙탑) → 창동리 마애 여래상 → 탄금대

• [충북 제천]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다. [58회] □

• [충북 옥천]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을 검색한다[탐구 활동]. [65회] □

• [충남 예산]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50회] [48회] □

• [충남 부여]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을 파악한다[탐구 활동]. [52회] □

L성왕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지역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49회] □

• [충남 부여]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49회] □

■ 충남 부여 [56회] □

안녕!

나는 지금 왕흥사 터에 와 있어, 이곳은 금, 은, 동으로 만든 사리기가 출토되어 유명해졌대, 사리기 표면에는 위덕 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부여 지역에는 다른 문화유산도 많아, 다음에 꼭 같이 와보자! [왕흥사지 사리기]

2021년 10월

• [충남 공주]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곳을 답사한다[탐구 활동]. [65회] □

L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추천해요. [66회] □

• [충남 공주]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란했어요[공산성]. [59회] □

L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파악한다[탐구 활동]. [64회] □

L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검색한다[탐구 활동]. [52회] □

• [충남 논산]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65회] □

• [충남 천안] 친일파 연구자 선구자(임종국 선생 흉상), 일본군 '위안부' 묘역(망향의 동산), 국난 극복의 역사(독립 기념관), 초혼묘와 사우(유관순 열사 사적지) [50회] □

L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검색한다[탐구 활동]. [52회] □

• [전북 전주]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를 조사한다[탐구 활동]. [60회] □

L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았어요[완산주]. [59회] □

• [전북 전주]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이다[전주 화약]. [57회] □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었다. [53회] ☐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장소를 조사한다[탐구 활동]. [65회] ☐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장소를 알아본다[탐구 활동]. [52회] ☐

■ 전북 전주 [65회] [56회] ☐

- [동고산성]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셨던 곳이며, 그 옆에는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었다.
- 1872년에 제작된 우리 지역 지도의 일부입니다. 조선 시대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 감영, 조선 왕실의 발상지라는 의미로 한(漢) 고조의 고사에서 이름을 딴 객사 풍패지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하는 경기전,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안에 있는 성황사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전북 익산]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63회] ☐
- [전북 익산]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을 살펴본다[탐구 활동]. [65회] ☐
- [전북 부안]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탐구 활동]. [65회] ☐
- [전북 김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된 장소를 알아본다[탐구 활동]. [65회] ☐
- [전북 정읍]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 서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탐구 활동]. [65회] ☐
- [전남 나주]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하였다. [58회] ☐

■ 전남 나주 [58회] ☐

◆ 개관:

금성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는 우리 고장은 삼한 시대부터 마한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였고, 후삼국 시대에는 격전지였으며,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의 의기가 드높았던 지역이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우리 고장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 목차

1. 마한 세력의 성장, 반남면 고분군
2. 나주목(牧)의 관아 부속 건물
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도화선, 나주역

- [전남 화순]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를 검색한다[탐구 활동]. [65회] ☐
- [전남 진도] 배중손이 삼별초를 지휘하였던 근거지를 찾아본다[탐구 활동]. [49회] ☐
- [흑산도(전남 신안군)]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59회] ☐
-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검색한다[탐구 활동]. [56회] ☐
- [암태도(전남 신안군)]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장 쟁의가 일어났다. [63회] ☐
-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장 쟁의를 벌였다. [52회] ☐
-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장 쟁의가 일어난 곳을 찾아본다[탐구 활동]. [59회] ☐
- [거문도(전남 여수)]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를 살펴본다[탐구 활동]. [56회] ☐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51회] □

■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거문도 답사지 [47회] □

- 영국군 묘지: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무단 점령한 영국군의 묘지. 한 무덤의 비문에는 “1886년 3월 알바트로스호의 수병 2명이 폭발 사고로 죽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 임병찬 순지비: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임병찬이 유배되어 순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 [제주도]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주요 장소를 조사한다[탐구 활동]. [59회] □

• [제주도]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탐구 활동]. [56회] □

제주의 거상이자 자선가 [60회] □

• [제주도] 향파두리 향몽 유적 →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 셋알 오름 일제 고사포 진지 → 송악산 해안 동굴 진지 [59회] □

삼별초가 활동한 향파두리 향몽 유적에 가 보세요. [66회] □

■ 강원도 철원 [56회] □

얼마 전 강원도 철원에 다녀오셨지요? / 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의 도성 터를 현장 조사하고 왔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성 터는 비무장지대에 있어 현재는 발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강원도 강릉]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66회] □

■ 강원도 강릉(경포대) [66회] □

저는 지금 ○○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 안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 볼 만한 곳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

(ON 대화창) -양반의 주거 생활을 볼 수 있는 선교장을 추천해요.

-보물로 지정된 승탑과 당간지주가 있는 굴산사지는 어때요?

• [대구] 김광제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 [58회] □

• [대구] 2·28 민주 운동이 시작되었다. [52회] □

• [경북 안동] [1모듬] 고창 전투와 후삼국 통일 과정, [2모듬] 봉정사 극락전과 고려 후기 불교 건축물, [3모듬] 도산 서원과 퇴계 이항의 성리학, [4모듬] 임청각과 이상룡의 독립운동 [64회] □

• [경북 안동]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피란한 지역을 찾아본다[탐구 활동]. [64회] □

• [경북 경주] (신라) 천마총 → 첨성대 → 동궁과 월지 → 분황사지 → 불국사 [48회] □

포석정에서 인증샷 찍기 [59회] □

• [경주 월성(반월성)] 왕이 거처한 궁성 [59회] □

포석정에서 인증샷 찍기 [59회] □

• [경주 동궁과 월지] 나무로 만든 14면체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48회] □

L왕이 건설한 별궁 [59회] □

- [경주 감은사지] 왕을 기리기 위해 아들 신문왕이 완성한 사찰의 터 [59회] □
- [경주 대왕암] 왕의 수중릉으로 알려진 곳 [59회] □
- [경북 청도] 김사미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곳을 조사한다[탐구 활동]. [64회] □
- [경남 진주]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을 검색한다[탐구 활동]. [60회] □
- [경남 진주] 조선 형평사 창립총회가 개최된 곳이다. [57회] □
- [경남 합천]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지도에 표시한다[탐구 활동][대야성]. [65회] □

L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를 방문해 보세요. [66회] □

- [경남 김해] (금관가야) 봉황동 유적 → 수로왕릉 → 대성동 고분군 → 구지봉 → 파사석탑[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반천] [62회] □
- [부산] 동삼동 패총 전시관(신석기 문화), 정공단(정발의 충절), 백산 기념관(안희제와 백산 상회), 임시 수도 기념관(임시 수도 대통령 관저) [52회] □
- [부산]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현과 첨사 정발이 순절하였다. [53회] □
- [부산] 내상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63회] □
- [절영도(부산 영도)]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한 곳을 검색한다[탐구 활동]. [59회] □
- [부산]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52회] □

L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어요. [59회] □

■ 박재혁 의사의 의거 [47회] □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의 1920년 의거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창설한 의열단에 가입한 후, 고서상으로 위장하여 부산 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 부산 [57회] □

탐구 활동 계획서

○학년 ○반 이름 ○○○

1. 주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 관계
2. 탐구 방법: 문헌 조사와 인터넷 검색 등
3. 탐구 내용
 - 가. 대일 무역의 거점, 초량 왜관
 - 나.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
 - 다.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

- [평안도] 서희가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한 곳이다[강동 6주]. [57회] □
- [평안북도(관서 지역)]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63회] □

L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점령한 지역을 알아본다[탐구 활동]. [60회] □

- [의주]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 청과의 무역을 전개하였다. [53회] □
- [평양]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전개하였다. [52회] □
- ↳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어요. [59회] □
- ↳ 강주룡이 고공 시위를 전개한 장소를 알아본대[탐구 활동]. [64회] □
- [평양]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하여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57회] □
- [함경북도(북간 지역)] 정문부가 왜군에 맞서 북관 대첩을 이끌었다[경성과 길주 등]. [58회] □

2 해외

- [북간도 용정]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65회] [52회] [51회] □

■ 북간도 지역에 서린 항일 독립 정신을 찾아서 [61회] □

■ 조사 내용

1. 김약연의 명동 학교 설립과 교육 활동
2. 이상설이 세운 민족 교육의 요람, 서전서숙
3. 윤동주와 송몽규의 민족의식이 싹튼 용정촌

- [서간도(남만주)]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65회] [51회] □
- ↳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어요. [56회] □
- [연해주 신한촌] 한인 자치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51회] □
- [일본 도쿄]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51회] □
- [하와이]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51회] [50회] □
- ↳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67회] □
- [네덜란드]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분석한다[탐구 활동]. [59회] □

◆ 사진으로 보는 지역사(향토사)



▲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답사(서울) [60회] □



▲ 4·19 혁명,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서울) [60회] □

 ▲ 조선 물산 공진회(경복궁) [63회] □	 ▲ 덕수궁 석조전 [59회] □	 ▲ 서울 창경궁 홍화문 [56회] □	
 ▲ 조선 왕의 자취를 찾아 길을 걷다(서울) [50회] □	 ▲ 근현대 역사의 현장(서울) [49회] □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화도로 떠나요! [56회] □	 ▲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저항(강화도) [51회] □		
 ▲ 대학자 정약용의 흔적을 찾아서(경기도 남양주시) [58회] □			

왕이 수원 화성 및 정용영 운영을 위해 조성한 둔전의 수리 시설 왕이 한릉원* 식목관에 내탕금을 내려 소나무 등을 심도록 한 곳 *현릉원: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 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아들 순조가 건립한 비	출발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흉상 일본군 '위안부' 묘역, 망향의 동산 도착 초혼묘와 사우, 유관순 열사 사적지 국난 극복의 역사, 독립 기념관
▲ 수원 서호천 답사 프로그램 [61회] □	▲ (충남) 천안시 근현대 역사 투어 [50회] □
▲ (충북) 충주의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 [48회] □	▲ 충북 충주 지방도(1872년) [59회] □
▲ (충남)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 [67회] [63회] [57회] [56회] [51회] □	▲ (충남) 부여 능산리 고분군 [56회] □
▲ 경기전(전북 전주) [52회] □	▲ 동고산성(전북 전주) [52회] □
	출발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도착 능산리 고분군 나성 ▲ (충남) 부여 문화유산 답사 [49회] □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의 흔적



6·25 전쟁 중 소실된
전라 감영 복원



순교지에 세워진
전통 성당

▲ 전북 전주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 [60회] □



▲ 강원도 강릉 경포대
[66회] □



▲ 지도로 보는 전북 전주의 역사 [65회] □



▲ 역사를 품은 섬, 제주도 다크 투어 [59회] □



▲ 신라 문무왕의 자취를 따라서 [59회] □



▲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답사 계획서) [48회] □

 ▲ 경남 김해 답사 경로 [62회] ☐	 ▲ 부산시 역사 여행 [52회] ☐
 ▲ 강원도 철원(후고구려) [56회] ☐	 ▲ 명동 학교(북간도) [61회] ☐  ▲ 서전서숙 기념비(북간도) [61회] ☐
 ▲ 삼중사 묘(대종교)(북간도) [48회] ☐	 ▲ 봉오동 전투 전적비(북간도) [48회] ☐  ▲ 용정촌 윤동주 생가(북간도) [61회] ☐

주제 80 간도와 독도

1 간도

- [대한 제국]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였다[고종]. [60회] ☐

↳ 간도 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55회] ☐

↳ 간도 관리사 파견 [47회] ☐

2 독도

- [울릉도, 독도]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찾아본대[탐구 활동]. [56회] ☐
-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58회] ☐
- 1877년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었다. [58회] ☐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대한 제국이 칙령을 통해 울릉 군수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58회] ☐
-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58회] ☐

↳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64회] ☐

독도 [58회] ☐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간도와 독도



▲ 연합국 최고 사령부 문서(독도) [58회] ☐

주제 81 세시 풍속

1 월별 세시 풍속

- 정월 대보름 [56회] ☐
- 삼짇날의 유래를 알아본다. [58회] ☐

■ (삼월) 삼짇날 [58회] ☐

푸른 새잎을 밟는 날, 답청절(踏青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삼일(重三日)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날에는 들에 나가 푸른 새잎을 밟는 풍습이 있어 답청절이라고 부른다. 답청의 풍습은 신윤복의 <연소답청(年少踏青)>에 잘 나타나 있다.

- ◆ 날짜: 음력 3월 3일
- ◆ 음식: 화전, 썩떡
- ◆ 풍속: 노랑나비 날리기, 활쏘기

-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58회] ☐
L한식 [60회] [56회] ☐
- 단오날에 즐기는 민속놀이를 찾아본다. [58회] ☐
L단오 [60회] [56회] ☐

■ (오월) 단오 [56회] ☐

음력 5월 5일로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여겼다.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왕이 이날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관련 풍습
 - 씨름, 그네뛰기
 -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 창포물에 머리 감기

- 칠석날의 전설을 검색한다. [58회] ☐
L칠석 [60회] ☐

■ (칠월) 칠석 [60회] ☐

이곳은 남원 광한루원의 오작교입니다. 조선 시대 남원 부사 장의국이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음력 7월 7일인 이날에는 여인들이 별을 보며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 백중 [60회] [56회] ☐
- 추석 [56회] ☐
- 동짓날에 먹는 음식을 조사한다. [58회] ☐
- 동지 [60회] ☐

2 민속놀이 및 기타 풍속

◆ 사진으로 보는 세시 풍속

 ▲ 답청절(삼월 삼짓날) [58회] ☐	 ▲ 남원 광한루원의 오작교(칠석) [60회] ☐		
---	--	--	--

주제 82 유네스코 등재 유산

1 세계 유산(문화·자연·복합 유산)

- 백제 역사 유적 지구 [54회] □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54회] □

↳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54회] □

↳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51회] □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54회] □

■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 사리감 [50회] □

이것은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 사리감입니다. 이 사리감에 새겨진 글을 통해 능산리 절터가 관산성에서 전사한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서울 풍납토성]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하남 위례성]. [54회] □
- [충남 부여 호암리]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54회] □
- [창덕궁]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66회] [64회] □

■ 창덕궁(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 [64회] [53회] □

- 관람 동선: 돈화문 → 금천교 → 인정전 → 낙선재 → 부용지 → 연경당 → 후원 숲길 → 돈화문
- 부용정과 부용지(정원과 연못), 후원 입구, 연경당(접견실), 인정전(정전), 돈화문(정문)

- [조선 왕릉] 명릉은 조선 숙종과 왕비인 인현 왕후의 무덤입니다. [51회] □

2 인류 무형 유산

3 세계 기록 유산

-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11년]. [61회] [58회] [57회] [53회] [48회] □
- [승정원일기] 국왕의 비서 기관에서 작성하였다[2001년]. [51회] □
- [직지심체요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01년]. [54회] □

■ 직지심체요절 [54회] □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



▲ 창덕궁 [53회] □



▲ 백제 역사 유적 지구(유네스코 세계 유산)(공주·부여·익산) [54회] □



▲ 명릉(숙종과 인현 왕후) [51회] □



▲ 박병선 박사(직지심체요절) [54회] □



▲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 사리감 [50회] □



▲ 창덕궁 인정전(정전) 그림 [64회] □

-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